

서울 청년실태조사 보고서

2020.12



이용자 안내문



- 본 보고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한 ‘서울 청년실태조사’ 결과를 수록한 것임
- 각 통계표에 나타난 조사대상 연령 및 조사대상 기간(시점)은 지표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모든 자료의 수치는 세부항목과 합계가 반올림(소수점 이하) 되었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합계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통계표에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해당 자료없음, 『0.0』: 단위미만
『%p』: 퍼센트와 퍼센트의 차이를 계산
-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서울 청년실태조사」 O페이지에서 인용하였다고 표시하여야 함

목 차



1장. 조사 개요	1
1. 조사 개요	2
2. 조사 설계	5
3. 표본 설계	8
4. 조사 항목	12
5. 주요 용어 설명	14
6. 응답자 특성	15
 2장. 조사결과 분석	 17
1절. 인구와 가족	19
1. 가구원 수	20
2. 부모 동거 여부	21
3. 혼인 상태	22
4. 자녀 여부	23
5. 자녀 수	24
2절. 일자리	25
1. 최종 학력	26
2. 지난 주 일한 경험 여부	27
3. 구직활동 여부	28
4. 지난 주 일한 일자리의 근로 형태	29
5. 직장 규모	30
6. 직장 유형	31
7.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	32
8. 지난 한 달간 부업 경험 여부	33

9. 배우자 소득활동 여부	34
10. 직업 만족도	35
11. 향후 만족하는 일자리 얻을 가능성	36
12. 과거 일한 경험	37
13. 구직활동 하지 않은 이유	38
14. 코로나19로 인한 직업상태 변화 경험_복수응답	39
15. 코로나19로 인한 향후 소득활동 어려움 정도	40
16. [서울시 일자리 지원 사업] 인지도_복수응답	41
17. [서울시 일자리 지원 사업] 도움정도	42
18. 청년 일자리 정책 선호 방향	43
3절. 주거	51
1. 거주 주택 유형	52
2. 거주 주택 크기	53
3. 거주 주택 점유 형태	54
4. 세어하우스 여부	55
5. 거주 주택 가격	56
6. 거주 주택 자금 마련 방법	57
7. 월 평균 주거비	58
8. 향후 2년 내 이사 계획 여부	59
9-1. 이사하는 이유_1순위	60
9-2. 이사하는 이유_1+2+3순위_복수응답	61
10. 독립 후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겪은 어려움_복수응답	62
11-1. 독립 후 주거에서 겪은 불편함_1순위	63
11-2. 독립 후 주거에서 겪은 불편함_1+2+3순위_복수응답	64

12. 만 18세 이전에 가장 오래 거주한 지역	65
13. 서울 거주 기간	66
14. 부모 거주 지역	67
15-1. 주거비 부담 정도	68
15-2. 주거 마련 시 가족 지원 여부	69
16. 현재 주거 만족도	70
17. [서울시 주거지원 사업] 인지도_복수응답	71
18. [서울시 주거지원 사업] 도움 정도(긍정 비율)	72
19-1. 부동산 교육 참여의향 (1순위)	73
19-2. 부동산 교육 참여의향 (1+2+3순위)_복수응답	74
20. 서울시 주거지원 방법	75
4절. 소득과 지출	83
1. 월평균 가구 소득	84
2. 월평균 개인 소득	85
3. 본인 한 달 생활비	86
4. 생활비 부모 지원 비율	87
5. 생활비 지출 항목	88
6. 대학등록금 지출 금액	89
7. 생활비 부족 경험 여부	90
8. 생활비 부족 해결 방법_복수응답	91
9-1. 생활비 지출 중 부담되는 항목_1순위	92
9-2. 생활비 지출 중 부담되는 항목_1+2+3순위_복수응답	93
10. 향후 5년 간 소득 변화 예상	94
11. 코로나19로 인한 가구 소득 변화 여부	95

12. 코로나19로 인한 월 수입 변화	96
13. [서울시 자산형성 사업] 인지도_복수응답	97
14. [서울시 자산형성 사업] 도움 정도(긍정 비율)	98
15. 청년 자산형성 정책 선호 방향	99

5절. 자산과 부채 101

1. 저축 방법_복수응답	102
2-1. 저축 목적_1순위	103
2-2. 저축 목적_1+2+3순위	104
3. 저축 해약 이유	105
4. 채무 종류_복수응답	106
5. 채무 발생 이유_복수응답	107
6. 총 채무 금액	108
7. 연체 경험_복수응답	109
8. 연체 해결 방법	110
9. 자산 금액	111
10. 향후 자산 변화 예상	112
11. 향후 자산 증가 요인	113
12. 경제적 안정성	114
13-1.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 요인_1순위	115
13-2.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 요인_1+2+3순위_복수응답	116
14. 지원정보 탐색 경험	117
15. [서울시 대출지원 사업] 인지도_복수응답	118
16. [서울시 대출지원 사업] 도움 정도(긍정 비율)	119
17. 청년 대출지원 정책 선호 방향	120

6절. 신체 건강 127

1. 음주 횟수	128
2-1. 흡연 횟수	129
2-2. 하루 평균 흡연 횟수	130
3. 최근 1년간 건강검진 여부	131
4. 만성질환 개수	132
5. 아프거나 다쳤을 때 조치 방법	133
6-1.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 가지 않은 이유_1순위	134
6-2.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 가지 않은 이유_1+2순위_복수응답	135
7.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 경험	136
8. 규칙적 체육활동 하지 않는 이유	137
9. 동네 체육 시설_복수응답	138
10. 청년 대상 생활체육 정책 필요성	139
11. 청년 대상 생활체육 정책	140
12. 건강과 생활 습관 긍정 모음(긍정비율)	141
13. [국가건강검진 사업] 인지도	142
14. [국가건강검진 사업] 도움 정도(긍정 비율)	143

7절. 마음 건강 145

1-1. 일상 스트레스 원인_1순위	146
1-2. 일상 스트레스 원인_1+2+3순위_복수응답	147
2-1. 정신건강 유지 방법_1순위	148
2-2. 정신건강 유지 방법_1+2순위_복수응답	149
3. 우울증 유증상 모음(긍정비율)	150
4. 정신적 어려움 경험_복수응답	151
5. 정신적 어려움 경험 시 도움 받은 방법_복수응답	152

6. 정신건강 상담 방문 기관_복수응답	153
7. 정신건강 상담 선호 기관	154
8-1. 정신건강 기관 방문 어려운 이유_1순위	155
8-2. 정신건강 기관 방문 어려운 이유_1+2순위_복수응답	156
9. 코로나 블루 경험	157
10-1. 코로나 블루 경험 원인_1순위	158
10-2. 코로나 블루 경험 원인_1+2+3순위_복수응답	159
11. 사회 불안 (동의 비율)	160
12. 마음 건강 상태	161
13. [서울시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인지도	162
14. [서울시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도움 정도	163
8절. 사회적 관계	171
1. 가족 외 도움 요청 대상 유무	172
2. 가족 외 도움 요청 대상 수	173
3. 가족 외 주 도움 요청 대상	174
4. 일자리 관련 도움 받은 대상_복수응답	175
5. 부동산, 주식 관련 도움 받은 관계_복수응답	176
6. 동네 친구 유무	177
7. 동네 친구 수	178
8. 가입 모임 종류_복수응답	179
9.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관계 변화	180
10. 네트워크 속성 (긍정 비율)	181
11. [서울시 청년 커뮤니티 사업] 인지도	182
12. [서울시 청년 커뮤니티 사업] 도움 정도	183
13. [서울시 청년 커뮤니티 사업] 참여 어려움 원인	184

14. 서울시 청년지원사업 자격 조건 적절성	185
15-1. 서울시 청년지원사업 정보제공경로_1순위	186
15-2. 서울시 청년지원사업 정보제공경로_1+2순위_복수응답	187
9절. 가치관	191
1. 사회 신뢰 (긍정 비율)	192
2. 가치관 속성 (긍정 비율)	193
3. 주관적 행복	194
4. 삶의 질 만족도	195
 3장. 심층 분석 및 정책리뷰	 196
1절. 일자리	199
1. 청년 일자리 현황	200
2. 청년 일자리 정책 현황	206
3. 청년당사자 및 전문가 정책 평가	212
4. 해외사례	215
2절. 자산	219
1. 청년의 자산과 부채	220
2. 금융 지원 정책	225
3. 청년당사자 및 전문가 정책 평가	231
4. 해외사례	235

3절. 주거	239
1. 청년 주거	240
2. 청년 주거 정책 현황	246
3.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정책 평가	251
4. 해외사례	254
4절. 마음건강	257
1. 개요	258
2. 서울 청년 마음건강	260
3. 정책 및 해외사례	266
4. 이해관계자 의견 및 제안	274
4장. 결론	278
부록. 설문지	314

1장

조사개요

1. 조사 개요

- 본 조사는 서울시 청년들의 가계 현황과 건강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서울시 청년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실시함.

1) 조사 배경 및 목적

- 청년문제의 핵심은 이행기 시민으로서 청년의 자립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임. 경제적 자립은 일자리 및 자산 형성, 결혼과 출산 등 개인이 삶을 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전제조건임. 점차 우리 사회에서 청년 개인의 노력으로 자립이 어려워지고 있고, 그 결과 세대간 불평등, 불균형이 심화됨. 이는 글로벌리서치-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2019년 수행한 ‘세대균형 실태조사’에서 확인한 바 있음.
- 세대불균형 구조를 청년 생애주기에 따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음.
 - 1) 현재의 불안정 - 일자리와 주거 문제
세대불균형의 출발점으로서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주목해야 함. 청년의 비정규직 비율, 실업률, 체감실업률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주거 빈곤율, 주거기회에 대한 인식 등도 계속 악화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 쇼크로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막히면서 일자리/소득, 주거 등이 총체적 위기인 상황임.
 - 2) 불투명한 미래 - 미약한 자산과 낮은 사회적 탄력성
불안정한 일자리와 주거 문제로 인해 청년의 자산형성 기회도 줄어들고 있으며, 위기사회안전망이나 패자부활의 기회에 대한 기대도 낮음. 특히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출발선이 크게 차이가 나면서 청년세대 내부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3) 양자의 결합으로서 생애주기 이행의 저조
현재는 불안정하고 미래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청년에게 결혼, 출산과 같은 생애주기 이행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이는 지금의 청년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가족을 갖춘 안정적 시민이라는 지위가 자연스러운 생애주기 이행의 결과가 아니라 노력을 통해 성취해야 할 어려운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함. 청년의 불안정과 불투명이 특히 청년 1인 가구에 집중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남. 생애주기 이행과정 진입 여부가 청년세대 내부의 격차를 보여주는 결과적·핵심적 지표임을 의미함.
 - 4) 개인적 불안정에 따른 참여 의지의 미약
개인적 생애 과제 수행조차 난관에 처한 상황에서 청년이 정치적 참여, 영향력 행사, 적극적 시민성을 발휘해 나서는 어려움.

- 청년이 현재와 미래의 복합적 불안정으로 청년의 자립이 지체되면서 안정적 시민으로의 이행이 늦어지는 상황
 - 따라서 청년 자립은 당장의 정책 과제이며, 청년들의 개별적 상황, 욕구에 맞는 일자리/소득, 자산, 주거 등의 정책이 요구됨.
- 청년이 겪는 사회문제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법인 청년기본법이 2020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했음. 이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존재”로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창업·주거·복지·문화활동 등 여러 부문에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명확해짐.
 - 청년정책을 선도해온 서울시는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을 통해 이를 구체화함.
 -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은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등 4개 분야에 걸쳐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구축하고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청년들의 활력제고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설자리’는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이며, ‘일자리’는 일자리 진입 지원 및 안전망 구축, ‘살자리’는 청년 주거 및 생활안정지원, ‘놀자리’는 청년활동생태계 조성 및 청년기반확대를 위한 것임.
- 서울시는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청년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당사자들이 문제해결에 적극 개입하도록 하고 있음.
 - 청년자율예산제는 서울시 예산편성 과정에 청년시민의 참여를 확대해 재정운영의 투명성,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임.
 - 재정 자원의 분배 과정에 청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직접성’의 원리를 구현하는 민주주의 실험이라는 의미가 큼.
 - 무엇보다 청년들의 요구에 대해 기성세대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당사자가 직접 의제를 구상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 과정에 집합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참여예산제의 한계를 넘어섬.
- 청년들이 요구하는 정책이 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증거와 데이터가 전제되어야 함.
 - 본 조사는 자산, 주거 등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기존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과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조사 특징

- 본 조사는 청년자율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청년 당사자의 요구에 기반해서 실시되었음.
 - 조사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 제안자와의 토론을 통해 청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사 내용과 방향을 충실하게 포함하고자 하였음.
 - 청년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년 당사자 및 청년정책 전문가와 토론하여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 청년의 요구를 청년 당사자와 조사 기획부터 조사 설계와 자료 수집, 결과 분석 전 단계에서 토론하여 반영하고자 하였음.
- 이로부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이 힘든 요인을 자산, 주거, 일자리/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각 정책의 현황, 정책에 대한 평가, 외국의 사례 등을 모색해 대안을 도출하고자 함.
 - 실제 이번 조사에서 청년들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일자리(43.9%), 소득(32.5%), 주거(14.3%) 순으로 꼽았음. 일자리와 소득이 사실상 중복되는 것이라 할 때 일자리/소득이 경제적 안정에 절대적임을 알 수 있음. 코로나19 쇼크로 일자리를 통해 사회에 진출해야 할 청년들이 벼랑 끝에 봉착해있는 상황임.
 - 기성세대가 제시하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 당사자들의 문제의식에 부합하는 구체적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조사 설계

- 서울시 청년 실태조사는 청년 가구/개인의 일반 현황과 마음·신체 건강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정책에 대한 사례조사,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지원 정책 과제 발굴 및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구분	수행 방법
서울시 청년 온라인 조사	서울시 청년 3,000명 대상 가계 현황 및 건강 실태 온라인 조사
기성세대 비교 온라인 조사	서울 거주 만 40~64세 이하 중장년층 500명 대상 비교 조사
서울시 청년 FGI(Focus Group Interview)	가계현황과 건강 실태에 대한 서울 청년 FGI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간담회	청년의 의견과 더불어 청년정책 전문가와의 간담회
데스크 리서치 및 정책 제안	일반 현황과 정책사례 조사, 각 영역별 정책 제안

1) 온라인 조사

- 청년 실태조사의 조사단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로, 조사 모집단은 2020년 7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상의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남녀로 함.
- 서울시 청년층과의 비교 연구를 위하여 서울 거주 만 40세~64세 기성세대의 추가 조사 시행

구분	청년세대	기성세대
조사대상	만18~39세 남녀	만 40~64세 남녀
표본크기	3,000명	500명
조사방법	자체 패널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표본 배분	2020년 7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성·연령·지역 비례 배분	
조사기간	2020년 8월 5일 ~ 8월 26일	2020년 8월 12일 ~ 8월 20일
신뢰수준	95% 신뢰수준에서 $\pm 1.79\%p$	95% 신뢰수준에서 $\pm 4.38\%p$
조사기관	(주)글로벌리서치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2) 청년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

- 정량조사 이외에 청년들의 실태에 대한 심층 의견 수렴을 위하여 다양한 서울 청년들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진행
- 조사장소: (주)글로벌리서치

그룹	그룹명	연령	성별	기타 조건
1그룹	사회경험 없는 남성	19~27세	남성	- 대학생 3~4학년 및 취업 준비생
2그룹	사회경험 없는 여성	19~27세	여성	- 대학생 3~4학년 및 취업 준비생
3그룹	사회경험 있는 남성	28~34세	남성	- 직장인, 자영업자, 이직준비자 (사회경험 1번 이상 있는)
4그룹	사회경험 있는 여성	28~34세	여성	- 직장인, 자영업자, 이직준비자 (사회경험 1번 이상 있는)

3) 청년 당사자 및 청년 정책 전문가 간담회

- 청년 당사자 및 청년 정책 전문가 간담회 실시
- 간담회 장소: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일시	주제	참석 인원	비고
2020년 04월 23일	서울 청년 실태조사 필요와 방향	청년당사자 3명 외 주관기관	백경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지원팀장 문지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김희성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2020년 07월 09일	서울 청년실태조사(가계·자립 마음건강 조사) 청년당사자 좌담 및 프리테스트	청년당사자 4명 외 주관기관	백경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지원팀장 이지현 미드미 상담심리센터 상담심리사 장재열 청춘상담소 좀놀아본언니 대표 문지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서면)
2020년 10월 29일	서울청년의 주거 및 자산 정책 현황과 대안	전문가 3명 외 주관기관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 한창근 성균관대 사회복지학 교수 등
2020년 11월 03일	서울청년의 마음건강 현황 및 정책적 대안 모색	전문가 3명 외 주관기관	박대령 이아당 심리상담센터장 박수현 심리전문가그룹 치유 수석상담사 이충한 하자센터 기획부장 등

4) 데스크 리서치(문헌연구)

- 설문조사, 선행연구 검토, 관련 서울시 및 정부,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해외 사례의 관련 정책 리뷰, 청년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해 진행함.

구분	문헌
국내 연구 보고서	서울시 가계부채 진단과 정책방향(서울연구원), 지역 청년센터 프로그램 사례분석 및 시사점(한국노동사회연구소),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국토연구원),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국토연구원),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조사(보건복지부 서울삼성병원), 우리나라 정신건강증진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과제, 건강증진 리서치 브리프, 2017(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연구보고서04(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결과(금융감독원), 2018서울시정신건강지표(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우울한 청년, 불안한 장년의 나라: 연결망 접근을 통해 본 세대별 마음의 형상(形象)(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청년마음이야기, 청년마음건강 실태조사 보고서(시민건강증진연구소), 경기도 청년정책 현황과 방향(경기연구원), 서울시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서울연구원), 청년여성의 자살 문제(사회건강연구소),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2021~2025) 수립 연구(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방안(국토연구원),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현황과 개선 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의 식생활, 정신건강 및 정책 과제(보건복지포럼), ‘청년자치정부’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방안 연구(나라살림연구소),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연구보고서05(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서울시 가계부채 현황조사 및 악성화 경로 추적과 맞춤형 대책 마련 방안(서울연구원), 빚쟁이 청년들: 청년부채 실태조사 및 대안 제시, 월간 복지동향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1인가구의 연령대별 가계재무구조분석, 가정과 삶의 질 연구(가정과삶의질학회), 청년의 빈곤 실태: 청년, 누가 가난한가(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켄거루족 가계의 인구사회학적 및 재무적 특성 분석(학술대회논문집, 한국생활과학회한국생활과학회), 청년 연체의 규모와 결정요인 탐색(한국복지상당교육학회), 청년층의 부채상환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소비자학연구, 한국소비자학회), 확장된 생애주기에 따른 가계의 재무상태 비교 및 평가에 관한 연구(한국FP학회지, 한국FP학회),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V - 기초분석보고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청년가계의 부실화 가능성 연구(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국가통계	2019년 수립한 세대균형 지표 중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관련한 지표를 추출, 보완해 시계열 현황을 살펴봄.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간 시계열 비교를 통해 자산, 부채, 주거, 일자리 등에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해외 연구 보고서	호주의 코로나19 대응 정신보건 관련 입법 및 정책동향과 시사점(국회입법조사처), 일본 자살대책의 시사점(일본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 Mental health policy in England(The House of Commons Library), 영국의 정신보건 개혁 글로벌 사회정책 브리프(한국 보건사회연구원), 해외 정신건강 관리체계 통합시스템 사례분석, 호주의 자살 현황과 정책 동향, 국제사회보장리뷰 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ealth policy in Japan(OECD), 코로나19 (COVID-19) 유행 상황에서의 정신 건강 및 심리사회적 측면에 관하여(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Changing the Rules, Section 1: Mental Health Policy Change by Youth and Young Adults(Nancy M. Koroloff) Policy Brief : COVID-19 and the Need for Action on Mental Health(UN), OECD 사회지표 중 자립 (Self-Sufficiency) 지표의 분석,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 4(한국보건사회연구원), SOCIAL HOUSING FOR YOUNG PEOPLE IN , Youth Action & Policy Association (NSW), Promise Accounts : Matched Savings to Help Families Get Ahead(David Newville 외), Wage subsidies and youth employment in South Africa : Evidence from a randomised control trial(James Levinsohn 외), What works in wage subsidies for young people: A review of issues, theory, policies and evidence, ILO(Katalin Bördo’s 외), Can Youth Quotas help avoid Future Disasters?, Intergenerational Review(Ivo Wallimann-Helmer)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3. 표본 설계

- 서울시 청년들의 대표성을 갖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25개 자치구별 성연령별 비례배분을 통해 표본 설계를 함.

1-1) 청년세대 모집단 현황

청년세대 모집단 현황									
구분	남자				여자				계
	만 18-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만 18-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종로구	6,364	6,513	5,013	4,852	7,027	6,131	4,961	4,937	45,798
중구	4,513	5,276	4,989	5,040	5,117	5,428	5,023	4,975	40,361
용산구	8,361	9,271	9,247	9,410	9,117	9,987	9,351	9,349	74,093
성동구	12,318	12,769	11,432	12,755	13,061	12,587	12,445	12,603	99,970
광진구	15,360	17,287	14,429	13,429	17,487	18,616	14,890	13,678	125,176
동대문구	15,297	15,702	12,576	13,414	17,119	14,085	11,626	12,638	112,457
종랑구	15,578	15,736	14,420	15,397	15,282	15,994	13,833	14,098	120,338
성북구	19,491	17,337	14,156	15,992	22,545	16,737	14,190	16,080	136,528
강북구	12,407	11,611	9,701	10,890	13,347	11,337	8,825	9,715	87,833
도봉구	14,023	11,771	9,906	11,333	13,557	11,198	9,416	10,886	92,090
노원구	26,369	18,268	15,239	17,488	25,123	16,985	15,071	17,725	152,268
은평구	19,213	17,522	15,875	18,418	19,963	19,036	16,439	18,135	144,601
서대문구	13,379	13,534	10,733	11,404	15,350	13,423	10,929	11,530	100,282
마포구	14,786	16,256	14,662	15,837	17,732	19,080	17,276	16,696	132,325
양천구	21,115	15,442	13,406	15,468	19,381	15,314	13,402	16,385	129,913
강서구	21,947	24,055	24,682	26,008	23,743	28,075	24,682	24,471	197,663
구로구	15,441	15,515	15,308	16,935	15,614	16,037	15,018	15,973	125,841
금천구	9,051	11,413	10,086	9,386	9,275	10,430	8,047	7,612	75,300
영등포구	13,249	17,068	17,580	16,997	14,670	18,937	17,127	15,440	131,068
동작구	16,791	19,052	16,116	15,643	18,605	19,398	15,769	15,209	136,583
관악구	21,847	35,591	26,934	21,129	26,474	33,516	21,681	17,506	204,678
서초구	17,038	14,289	13,827	15,640	17,541	15,858	16,116	18,453	128,762
강남구	22,648	19,199	18,151	19,364	23,148	21,523	21,082	23,284	168,399
송파구	26,794	25,091	25,982	27,723	27,545	28,463	28,132	29,824	219,554
강동구	18,202	16,714	16,609	18,820	17,504	17,531	16,543	19,007	140,930
계	401,582	402,282	361,059	378,772	425,327	415,706	361,874	376,209	3,122,811

1-2) 청년세대 목표 표본

청년세대 목표 표본									
구분	남자				여자				계
	만 18-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만 18-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종로구	6	6	5	4	7	6	5	5	44
중구	4	5	5	5	5	5	5	5	39
용산구	8	9	9	9	9	9	9	9	71
성동구	12	12	11	12	13	12	12	12	96
광진구	15	16	14	13	17	18	14	13	120
동대문구	15	15	12	13	16	14	11	12	108
중랑구	15	15	14	15	15	15	13	14	116
성북구	19	17	13	15	22	16	14	15	131
강북구	12	11	9	10	13	11	9	9	84
도봉구	14	11	10	11	13	11	9	10	89
노원구	25	18	15	17	24	16	14	17	146
은평구	19	17	15	18	19	18	16	17	139
서대문구	13	13	10	11	15	13	10	11	96
마포구	14	16	14	15	17	18	17	16	127
양천구	20	15	13	15	18	15	13	16	125
강서구	21	23	24	25	23	27	24	23	190
구로구	15	15	15	16	15	15	15	15	121
금천구	9	11	9	9	9	10	8	7	72
영등포구	13	16	17	16	14	18	17	15	126
동작구	16	18	15	15	18	19	15	15	131
관악구	21	34	26	20	26	32	21	17	197
서초구	17	14	13	15	17	15	15	18	124
강남구	22	19	17	19	22	21	20	22	162
송파구	26	24	25	27	26	27	27	29	211
강동구	17	16	16	18	17	17	16	18	135
계	388	386	346	363	410	398	349	360	3,000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2-1) 기성세대 모집단 현황

기성세대 모집단 현황							
구분	남자			여자			계
	40대	50대	60-64세	40대	50대	60-64세	
종로구	10,613	12,275	5,392	11,198	12,248	5,297	57,023
중구	9,057	10,199	4,738	8,708	9,871	4,680	47,253
용산구	16,857	17,198	7,498	17,545	17,469	7,853	84,420
성동구	22,532	23,158	10,197	22,426	23,389	10,496	112,198
광진구	25,948	26,195	11,492	26,647	27,659	12,624	130,565
동대문구	26,013	26,275	12,407	24,406	26,092	13,043	128,236
종량구	29,533	33,697	15,807	27,738	34,798	16,718	158,291
성북구	34,437	33,413	14,476	35,509	34,534	16,051	168,420
강북구	24,001	25,306	11,876	22,925	26,662	13,227	123,997
도봉구	24,124	26,998	13,326	24,676	29,723	14,789	133,636
노원구	41,346	42,106	17,798	45,516	44,896	20,490	212,152
은평구	37,630	36,304	16,618	38,549	39,303	18,887	187,291
서대문구	23,146	23,285	10,070	23,657	24,782	11,143	116,083
마포구	29,521	25,838	10,310	31,137	26,880	11,772	135,458
양천구	37,796	37,619	15,391	41,214	38,201	16,831	187,052
강서구	45,579	41,024	20,074	45,394	44,968	23,110	220,149
구로구	32,296	30,722	14,505	30,670	31,633	16,223	156,049
금천구	17,074	19,892	9,260	15,670	19,836	9,372	91,104
영등포구	28,114	27,760	12,629	26,718	27,008	13,110	135,339
동작구	29,521	27,599	12,600	29,443	29,962	14,587	143,712
관악구	36,385	33,280	15,079	31,869	33,779	17,070	167,462
서초구	35,875	30,136	12,123	40,478	31,291	13,886	163,789
강남구	45,102	38,724	14,595	51,918	38,907	17,001	206,247
송파구	52,181	48,957	21,866	56,021	52,489	24,816	256,330
강동구	36,289	34,601	16,549	36,086	36,727	18,532	178,784
계	750,970	732,561	326,676	766,118	763,107	361,608	3,701,040

2-2) 기성세대 목표 표본

- 기성 세대의 목표 표본은 시군구별 분석을 하지 않으므로 권역별 목표 표본을 설정함. 권역에 대한 설명은 5. 주요 용어 설명 참고

기성세대 목표 표본							
구분	남자			여자			계
	40대	50대	60-64세	40대	50대	60-64세	
도심권	5	5	2	6	5	2	25
동북권	31	32	15	31	33	16	158
서북권	12	12	5	12	12	6	59
서남권	31	29	13	31	30	15	149
동남권	23	21	9	24	22	10	109
계	102	99	44	104	102	49	500

4. 조사 항목

- 서울청년실태조사는 인구와 가족, 일자리, 주거,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신체 건강, 마음 건강, 사회적 관계,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함.
-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간의 비교를 위하여 청년 세대 조사 항목을 토대로 기성 세대 설문 문항을 작성함.

1) 청년 세대

구분	
A. 인구와 가족	- 가구원 수, 부모 동거 여부, 혼인 상태, 자녀 여부, 자녀 수
B. 일자리	- 최종학력, 지난 주 일한 경험 여부, 구직활동 여부, 지난 주 일한 일자리의 근로 형태, 직장 규모, 직장 유형,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 지난 한 달간 부업 경험 여부, 배우자 소득활동 여부, 직업 만족도, 향후 만족하는 일자리 얻을 가능성, 과거 일한 경험, 구직활동 하지 않은 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직업상태 변화 경험, 코로나19로 인한 향후 소득활동 어려움 정도 - 서울시 일자리 지원 사업(인지도, 참여여부, 참여의향, 도움정도), 청년 일자리 정책 선호 방향
C. 주거	- 거주 주택 유형/크기/점유 형태, 셰어하우스 여부, 거주 주택 가격, 거주 주택 자금 마련 방법, 월평균 주거비, 향후 2년 내 이사 계획 여부, 이사하는 이유, 독립 후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겪은 어려움, 독립 후 주거에서 겪은 불편함 - 만 18세 이전에 가장 오래 거주한 지역, 서울 거주 기간, 부모 거주 지역, 주거비 부담 정도, 주거 마련 시 가족 지원 여부, 현재 주거 만족도 - 서울시 주거지원 사업(인지도, 참여여부, 참여의향, 도움정도), 부동산 교육 참여의향, 서울시 주거지원 방법
D. 소득과 지출	- 월평균 가구 소득, 월평균 근로 소득, 본인 한 달 생활비, 생활비 부모 지원 비율 - 생활비 지출 항목, 대학등록금 지출 금액, 생활비 부족 경험 여부, 생활비 지출 중 부담되는 항목, 향후 5년 간 소득 변화 예상 - 코로나로 인한 소득 변화 - 코로나19로 인한 가구 소득 변화 여부, 코로나19로 인한 월 수입 변화 - 서울시 자산형성 사업(인지도, 참여여부, 참여의향, 도움정도), 청년 자산형성 정책 선호 방향
E. 자산과 부채	- 저축 방법, 저축 목적, 저축 해약 이유, 자산 금액, 향후 자산 변화 예상, 향후 자산 증가 요인, 경제적 안정성,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 요인, 자원정보 탐색 경험 - 채무 종류, 채무 발생 이유, 총 채무 금액, 연체 경험, 연체 해결 방법 - 서울시 대출지원 사업(인지도, 참여여부, 참여의향, 도움정도), 청년 대출지원 정책 선호 방향
F. 신체 건강	- 음주 횟수, 흡연 횟수, 하루 평균 흡연 횟수, 최근 1년간 건강검진 여부, 만성질환 개수, 아프거나 다쳤을 때 조치 방법,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 가지 않은 이유,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 경험, 규칙적 체육활동 하지 않은 이유, 동네 체육 시설 - 청년 대상 생활체육 정책 필요성, 청년 대상 생활체육 정책, 건강과 생활 습관, 국가건강검진 사업(인지도, 참여여부, 참여의향, 도움정도)
G. 마음 건강	- 일상 스트레스 원인, 정신건강 유지 방법, 우울증 진단, 정신적 어려움 경험 여부, 정신적 어려움 경험 시 도움 받은 방법, 정신건강 상담 방문 기관, 정신건강 상담 도움정도, 정신건강 상담 선호 기관, 정신건강 기관 방문 어려운 이유 - 코로나 블루 경험, 코로나 블루 경험 원인, 사회불안, 마음 건강 상태 - 서울시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인지도, 참여여부, 참여의향, 도움정도)
H. 사회적 관계	- 가족 외 도움 요청 대상 유무, 가족 외 도움 요청 대상 수, 가족 외 주 도움 요청 대상, 일자리 관련 도움 받은 대상, 부동산/지식 관련 도움 받은 관계, 동네 친구 유무, 동네 친구 수, 가입 모임 종류, 가입 모임 분야, 네트워크 -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관계 변화 - 서울시 청년 커뮤니티 사업(인지도, 참여여부, 참여의향, 도움정도, 참여 어려움 원인), 서울시 청년지원사업 자력조건 적절성, 서울시 청년지원사업 정보제공경로
I. 가치관	- 사회 신뢰(타인/공적 기관/민간 기업/시민사회/종교/비영리단체), 가치관, 주관적 행복, 삶의 질 만족도

2) 기성 세대

구분	
A. 인구와 가족	- 가구원 수, 혼인 상태, 자녀 연령대, 자녀 동거 여부
B. 일자리	- 최종학력, 지난 주 일한 경험 여부, 지난 주 일한 일자리의 근로 형태, 청년 시절 종사했던 직업 만족도 - 코로나19로 인한 직업상태 변화 경험, 코로나19로 인한 향후 소득활동 어려움 정도 - 서울시 일자리 지원 사업 도움정도, 청년 일자리 정책 선호 방향
C. 주거	- 거주 주택 유형/크기/점유 형태, 첫 자취 시기, 첫 자취 시 거주 주택 자금 마련 방법 - 서울 거주 기간, 청년시절 주거비 부담 정도, 청년시절 주거 마련 시 가족 지원 여부, 첫 자취 시 주거 만족도 - 서울시 주거지원 사업 도움정도, 서울시 주거지원 방법
D. 소득과 지출	- 월평균 가구 소득 - 청년시절 생활비 지출 중 부담되는 항목 - 코로나19로 인한 가구 소득 변화 여부, 코로나19로 인한 월 수입 변화 - 서울시 자산형성 사업 도움정도, 청년 자산형성 정책 선호 방향
E. 자산과 부채	- 청년시절 저축 방법, 청년시절 저축 목적 - 청년시절 채무 종류, 청년시절 채무 발생 이유, 청년시절 경제적 안정정도, 청년시절 기준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것 - 서울시 대출지원 사업 도움정도, 청년 대출지원 정책 선호 방향
F. 신체 건강	- 건강과 생활습관, 청년시절 규칙적 체육활동 방해하는 요인, 청년시절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 가지 않은 이유, - 청년 대상 생활체육 정책 필요성, 청년 대상 생활체육 정책, 국가건강검진 사업 도움정도
G. 마음 건강	- 일상 스트레스 원인, 정신건강 유지 방법, 우울증 진단, 정신적 어려움 경험 여부, 정신적 어려움 경험 시 도움 받은 방법, 정신건강 상담 방문 기관, 정신건강 상담 도움정도, 정신건강 상담 선호 기관, 정신건강 기관 방문 어려운 이유 - 코로나 블루 경험, 코로나 블루 경험 원인, 사회불안, 마음 건강 상태 - 서울시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도움정도
H. 사회적 관계	- 가족 외 도움 요청 대상 유무, 가족 외 도움 요청 대상 수, 가족 외 주 도움 요청 대상 -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관계 변화, 네트워크 - 서울시 청년 커뮤니티 사업 도움정도
I. 가치관	- 사회 신뢰(타인/공적 기관/민간 기업/시민사회/종교/비영리단체), 가치관, 주관적 행복, 삶의 질 만족도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5. 주요 용어 설명

구분		설명
권역	도심권	용산구, 종로구, 중구
	동북권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서북권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남권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남권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현재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부모님 부모님이 안계신 경우 조부모 등 다른 가족 중 가구주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비동거비독립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부모님과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는 경우
	독립	부모님과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으며, 혼자사는 가구
	2인이상, 동거	부모님과 같이 살며 2인 이상 사는 가구
서울생활 새내기		서울에 거주한지 3년 이하인 경우
룸메이트 가구		가구원수가 2인 이상이면서 비혼/미혼인 가구
주거고용	부모동거, 풀타임	부모와 같이 살면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
	부모동거, 파트타임	부모와 같이 살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
	부모동거, 무직	부모와 같이 살면서 무직인 경우

6. 응답자 특성

1) 청년 세대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3,000)	100.0
성별	남성	(1,483)	49.4
	여성	(1,517)	50.6
연령	만18세~24세	(798)	26.6
	25세~29세	(784)	26.1
	30세~34세	(695)	23.2
	35세~39세	(723)	24.1
권역	도심권	(154)	5.1
	동북권	(890)	29.7
	서북권	(362)	12.1
	서남권	(962)	32.1
가구원수	1명	(603)	20.1
	2명	(455)	15.2
	3명	(754)	25.1
	4명 이상	(1,188)	39.6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51.5
	비동거·비독립	(292)	9.7
	독립	(1,162)	38.7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22.7
	2인 이상, 동거	(1,546)	77.3

2) 기성 세대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500)	100.0
성별	남성	(245)	49.0
	여성	(255)	51.0
연령	40대	(206)	41.2
	50대	(201)	40.2
	60세~64세	(93)	18.6
권역	도심권	(25)	5.0
	동북권	(158)	31.6
	서북권	(59)	11.8
	서남권	(149)	29.8
가구원수	1명	(58)	11.6
	2명	(80)	16.0
	3명	(169)	33.8
	4명 이상	(193)	38.6
자녀 동거 여부	자녀와 동거	(326)	89.1
	비동거·비독립	(12)	3.3
	자녀 독립	(28)	7.7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2장

조사결과 분석

Part. 1

인구와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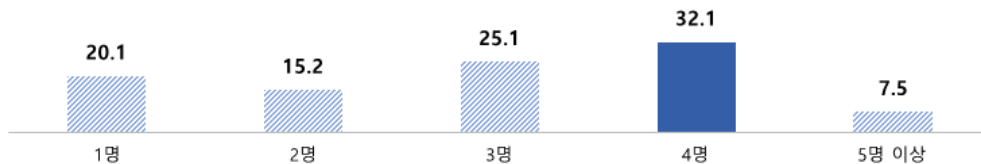
1. 가구원 수

문. 귀댁의 가구원 수(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총 몇 명입니까?

4인가구 32.1% > 3인 가구 25.1% > 1인 가구 20.1%

- 가구원 수는 4인 가구가 3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인 가구(25.1%), 1인 가구(2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1인가구 비율은 도심권(26.6%)과 서남권(23.5%)에서 높게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레수 (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2020년 청년세대			(3,000)	20.1	15.2	25.1	32.1	7.5
2020년 기성세대			(500)	11.6	16.0	33.8	33.0	5.6
성	남성	(1,483)		22.2	13.6	26.0	32.6	5.7
	여성	(1,517)		18.1	16.7	24.3	31.7	9.2
연령	만18세~24세	(798)		12.7	6.6	19.8	47.6	13.3
	25세~29세	(784)		25.9	14.0	20.2	33.2	6.8
	30세~34세	(695)		25.0	22.6	25.8	23.2	3.5
	35세~39세	(723)		17.3	18.7	35.8	22.5	5.7
거주 권역	도심권	(154)		26.6	11.7	29.9	26.6	5.2
	동북권	(890)		17.3	15.1	26.9	33.4	7.4
	서북권	(362)		21.3	18.0	23.2	30.7	6.9
	서남권	(962)		23.5	15.0	24.1	30.0	7.4
	동남권	(632)		16.6	14.9	24.2	35.8	8.5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0.0	9.1	31.3	48.0	11.6
	비동거 · 비독립	(292)		51.4	18.8	9.6	17.1	3.1
	독립	(1,162)		39.0	22.4	20.8	14.8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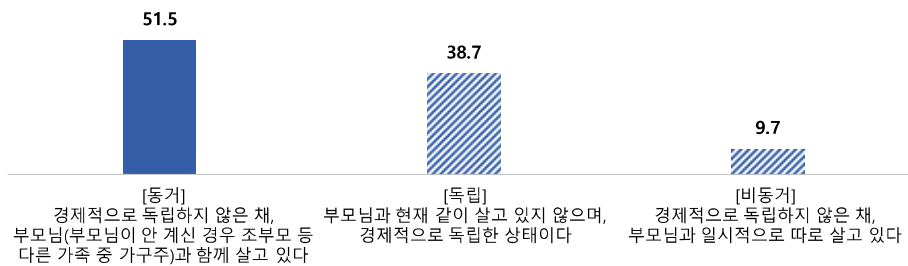
2. 부모 동거 여부

문. 귀하는 다음 중 어떤 경우에 해당하십니까?

동거 51.5% > 독립 38.7% > 비동거 9.7%

-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비율이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독립(38.7%), 비동거(9.7%)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부모 동거 여부는 성별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독립비율이 높아짐.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동거	독립	비동거
2020년 청년세대		(3,000)	51.5	38.7	9.7
성	남성	(1,483)	50.2	38.8	10.9
	여성	(1,517)	52.8	38.6	8.6
연령	만18세~24세	(798)	74.9	7.4	17.7
	25세~29세	(784)	56.3	31.9	11.9
	30세~34세	(695)	42.3	52.7	5.0
	35세~39세	(723)	29.5	67.4	3.2
거주 권역	도심권	(154)	48.1	35.7	16.2
	동북권	(890)	53.1	36.6	10.2
	서북권	(362)	55.0	34.5	10.5
	서남권	(962)	48.0	42.5	9.5
	동남권	(632)	53.5	39.1	7.4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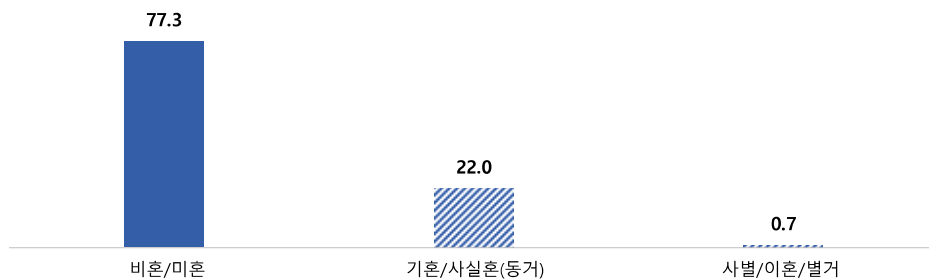
3. 혼인 상태

문.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비혼/미혼 77.3% > 기혼/사실혼(동거) 22.0% > 사별/이혼/별거 0.7%

- 혼인 상태로 비혼/미혼이 7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혼/사실혼(동거)(22.0%), 사별/이혼/별거(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독립인 경우 비혼과 기혼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비혼/미혼	기혼/사실혼(동거)	사별/이혼/별거
2020년 청년세대		(3,000)	77.3	22.0	0.7
2020년 기성세대		(500)	21.6	72.8	5.6
성	남성	(1,483)	78.0	21.4	0.6
	여성	(1,517)	76.6	22.5	0.9
연령	만18세~24세	(798)	97.4	2.0	0.6
	25세~29세	(784)	93.6	6.4	0.0
	30세~34세	(695)	70.4	29.1	0.6
	35세~39세	(723)	44.0	54.2	1.8
거주 권역	도심권	(154)	81.8	16.9	1.3
	동북권	(890)	77.3	22.1	0.6
	서북권	(362)	81.8	17.1	1.1
	서남권	(962)	77.9	21.7	0.4
	동남권	(632)	72.6	26.3	1.1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94.3	4.9	0.8
	비동거 · 비독립	(292)	95.5	4.1	0.3
	독립	(1,162)	50.0	49.2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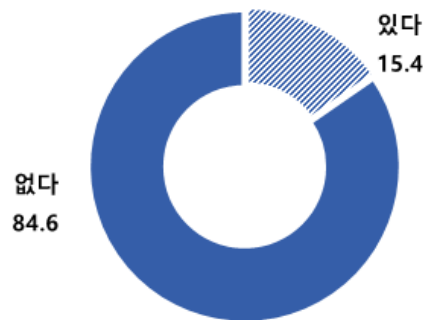
4. 자녀 여부

문.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귀하는 현재 자녀가 있으십니까?

자녀가 있다 15.4%, 자녀가 없다 84.6%

-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15.4%, 자녀가 없는 응답자의 비율은 84.6%로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15.4	84.6
성	남성	(1,483)	15.6	84.4
	여성	(1,517)	15.1	84.9
연령	만18세~24세	(798)	1.6	98.4
	25세~29세	(784)	3.7	96.3
	30세~34세	(695)	16.4	83.6
	35세~39세	(723)	42.2	57.8
거주 권역	도심권	(154)	14.3	85.7
	동북권	(890)	15.7	84.3
	서북권	(362)	10.8	89.2
	서남권	(962)	14.0	86.0
	동남권	(632)	19.8	80.2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4.4	95.6
	비동거 · 비독립	(292)	1.4	98.6
	독립	(1,162)	33.5	66.5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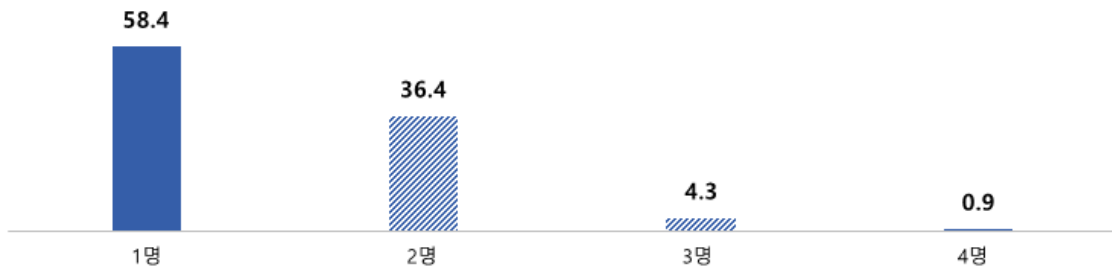
5. 자녀 수

문. 자녀는 몇 명입니까?

1명 58.4% > 2명 36.4% > 3명 4.3% > 4명 0.9%

- 자녀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녀 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녀가 1명인 응답이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2명 36.4%, 3명 4.3%, 4명 0.9% 순으로 나타남.

(Base: 자녀가 있는 응답자, 단위: %)



통계표

(Base: 자녀가 있는 응답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1명	2명	3명	4명
2020년 청년세대		(461)	58.4	36.4	4.3	0.9
성	남성	(232)	61.2	34.1	3.9	0.9
	여성	(229)	55.5	38.9	4.8	0.9
연령	만18세~24세	(13)	23.1	69.2	0.0	7.7
	25세~29세	(29)	65.5	27.6	3.4	3.4
	30세~34세	(114)	64.9	28.9	6.1	0.0
	35세~39세	(305)	56.7	38.7	3.9	0.7
거주 권역	도심권	(22)	45.5	40.9	9.1	4.5
	동북권	(140)	62.1	32.9	3.6	1.4
	서북권	(39)	66.7	30.8	2.6	0.0
	서남권	(135)	65.9	31.1	2.2	0.7
	동남권	(125)	45.6	47.2	7.2	0.0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68)	51.5	39.7	5.9	2.9
	비동거 · 비독립	(4)	75.0	25.0	0.0	0.0
	독립	(389)	59.4	36.0	4.1	0.5

Part. 2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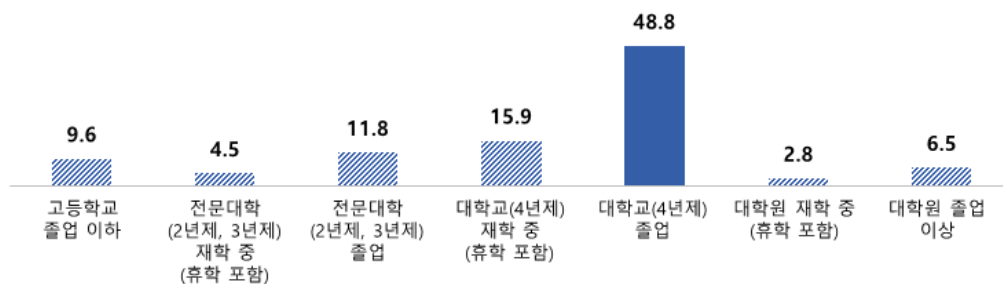
1. 최종 학력

문.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대학교(4년제) 졸업 48.8%

- 응답자의 최종 학력으로 대학교(4년제) 졸업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학교(4년제) 재학 중(휴학 포함) 15.9%, 전문대학(2년제, 3년제) 졸업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 재학 중 (휴학포함)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4년제) 재학 중 (휴학포함)	대학교 (4년제) 졸업	대학원 재학중 (휴학 포함)	대학원 졸업 이상
2020년 청년세대		(3,000)	9.6	4.5	11.8	15.9	48.8	2.8	6.5
2020년 기성세대		(500)	18.0	2.0	7.4	2.4	54.6	0.2	15.4
성	남성	(1,483)	11.1	4.0	10.9	17.5	47.5	2.4	6.7
	여성	(1,517)	8.2	5.1	12.7	14.3	50.1	3.2	6.4
연령	만18세~24세	(798)	15.0	12.3	8.3	48.2	11.9	3.5	0.8
	25세~29세	(784)	8.2	1.5	15.3	8.7	57.1	3.8	5.4
	30세~34세	(695)	5.5	1.7	10.8	2.2	69.4	2.4	8.1
	35세~39세	(723)	9.3	1.9	12.7	1.2	60.9	1.2	12.7
거주 권역	도심권	(154)	7.1	3.2	11.7	15.6	52.6	3.2	6.5
	동북권	(890)	11.2	4.9	12.9	17.2	45.8	2.9	4.9
	서북권	(362)	13.0	3.9	9.7	17.7	44.8	3.6	7.5
	서남권	(962)	8.8	4.8	13.2	14.3	51.9	2.4	4.6
	동남권	(632)	7.3	4.3	9.2	15.5	49.8	2.7	11.2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11.4	6.2	13.0	22.3	40.2	2.8	4.1
	비동거 · 비독립	(292)	8.2	5.8	6.2	33.9	34.9	5.8	5.1
	독립	(1,162)	7.7	2.0	11.5	2.9	63.8	2.0	10.2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9.5	2.9	13.7	2.9	60.5	1.8	8.8
정책대상자	서울생활 새내기	(254)	5.9	3.5	11.0	28.0	42.9	3.9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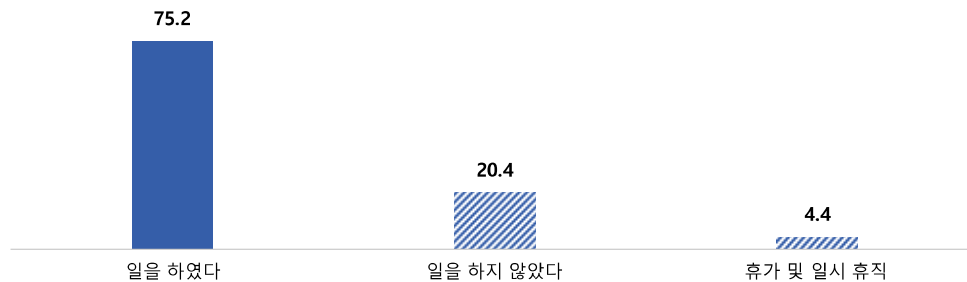
2. 지난 주 일한 경험 여부

문. 귀하는 지난 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하셨습니까?

일을 하였다 75.2% > 일을 하지 않았다 20.4% > 휴가/일시 휴직 4.4%

- 응답일 기준,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거나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한 응답자는 75.2%로 나타났고, 일을 하지 않은 응답자는 20.4%, 휴가 및 일시 휴직한 응답자는 4.4%로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일을 하였다	일을 하지 않았다	휴가 및 일시 휴직
2020년 청년세대		(3,000)	75.2	20.4	4.4
2020년 기성세대		(500)	76.0	21.2	2.8
성	남성	(1,483)	77.1	18.7	4.1
	여성	(1,517)	73.3	22.0	4.7
연령	만18세~24세	(798)	59.3	36.8	3.9
	25세~29세	(784)	76.9	18.8	4.3
	30세~34세	(695)	82.6	12.4	5.0
	35세~39세	(723)	83.8	11.8	4.4
거주 권역	도심권	(154)	79.2	14.9	5.8
	동북권	(890)	74.3	21.9	3.8
	서북권	(362)	72.1	21.8	6.1
	서남권	(962)	75.3	20.3	4.5
	동남권	(632)	77.2	19.0	3.8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69.1	26.8	4.1
	비동거 · 비독립	(292)	62.3	32.2	5.5
	독립	(1,162)	86.6	8.9	4.6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88.7	6.4	4.9
	2인이상, 동거	(1,546)	69.1	26.8	4.1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3. 구직활동 여부

문. 귀하는 지난 4주 내에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구해 보지 않았다 65.2%

- 응답일 기준, 지난 1주 간 일을 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난 4주 간 직장(일)을 구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5.2%로 가장 높게 나타남.

(Base: 지난 1주 간 일을 하지 않은 응답자, 단위: %)



통계표

(Base: 지난 1주 간 일을 하지 않은 응답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구해 보지 않았다	직장을 구해보았고, 지난 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지난 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2020년 청년세대		(612)	65.2	24.2	10.6
성	남성	(278)	67.6	22.3	10.1
	여성	(334)	63.2	25.7	11.1
연령	만18세~24세	(294)	71.8	18.7	9.5
	25세~29세	(147)	55.1	32.7	12.2
	30세~34세	(86)	60.5	36.0	3.5
	35세~39세	(85)	64.7	16.5	18.8
거주 권역	도심권	(23)	52.2	30.4	17.4
	동북권	(195)	68.2	22.1	9.7
	서북권	(79)	64.6	22.8	12.7
	서남권	(195)	66.2	24.6	9.2
	동남권	(120)	61.7	26.7	11.7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415)	65.1	24.8	10.1
	비동거 · 비독립	(94)	62.8	25.5	11.7
	독립	(103)	68.0	20.4	11.7

4. 지난 주 일한 일자리의 근로 형태

문. 귀하는 수입이 있는 일자리에서 어떤 지위로 일하였습니까?

상용 정규직 근로자 60.4% > 시간제 임시/일용 근로자 14.2%

- 지난 1주 간 일을 하거나 일시 휴직 중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수입이 있는 일자리에서 어떤 지위로 일하였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용 정규직 근로자였다는 응답이 6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시간제 임시/일용 근로자 14.2%, 상용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청년세대가 기성세대에 비해 시간제 임시/일용 근로자(14.2%) 비율이 4.6%p 높게 나타남.

(Base: 지난 1주 간 일을 하거나 일시 휴직 중인 응답자, 단위: %)



통계표

(Base: 지난 1주 간 일을 하거나 일시 휴직 중인 응답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상용 정규직 근로자	시간제 임시/일용 근로자	상용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전일제 임시/일용 근로자	한 명의 직원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영업자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무급 가족 종사자	기타
2020년 청년세대	(2,388)	60.4	14.2	9.0	6.7	4.3	3.4	1.1	0.8
2020년 기성세대	(394)	65.0	9.6	8.9	6.1	4.1	3.8	1.5	1.0
성	남성	(1,205)	60.6	12.9	8.8	6.7	4.2	4.3	1.3
	여성	(1,183)	60.3	15.6	9.2	6.8	4.3	2.5	0.5
연령	만18세~24세	(504)	21.4	41.7	12.1	10.3	3.8	5.8	2.4
	25세~29세	(637)	61.1	11.3	10.4	7.1	4.7	4.6	0.3
	30세~34세	(609)	75.0	5.9	5.9	5.6	5.4	1.5	0.7
	35세~39세	(638)	76.6	3.4	8.2	4.7	3.1	2.4	1.1
거주 권역	도심권	(131)	61.1	13.0	12.2	6.1	2.3	4.6	0.0
	동북권	(695)	57.4	18.6	6.8	8.5	3.3	3.9	0.9
	서북권	(283)	53.7	14.8	12.4	9.5	3.9	2.5	1.8
	서남권	(767)	64.7	11.3	9.0	5.3	4.7	3.4	1.0
	동남권	(512)	61.7	12.7	9.4	5.1	5.7	3.1	1.4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131)	49.0	20.0	10.6	8.0	5.0	4.8	1.5
	비동거 · 비독립	(198)	34.8	29.8	15.7	10.6	2.5	3.0	2.0
	독립	(1,059)	77.4	5.2	6.0	4.7	3.9	2.1	0.5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24)	71.9	5.9	7.8	5.7	6.1	2.4	0.0
	2인이상, 동거	(1,131)	49.0	20.0	10.6	8.0	5.0	4.8	1.5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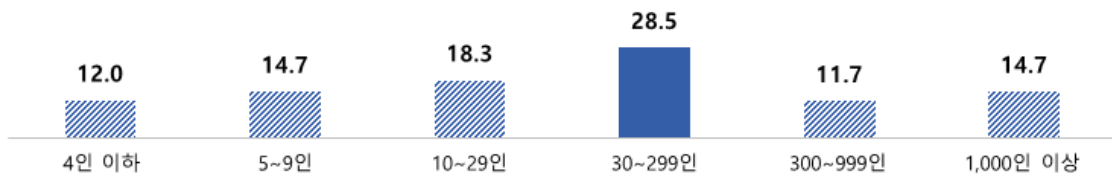
5. 직장 규모

문. 귀하가 일하신 직장(사업체)은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30~299인 28.5% > 10~29인 18.3%

- 자영업자를 제외한 전체를 대상으로 일한 직장(사업체)의 직원 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30~299인이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0~29인 18.3%, 5~9인 14.7%, 1,000인 이상 1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Base: 자영업자를 제외한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자영업자를 제외한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4인 이하	5~9인	10~29인	3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2020년 청년세대		(2,286)	12.0	14.7	18.3	28.5	11.7	14.7
성	남성	(1,154)	10.3	12.5	17.9	30.2	12.0	17.1
	여성	(1,132)	13.7	17.0	18.6	26.9	11.4	12.4
연령	만18세~24세	(485)	20.2	26.4	21.4	19.2	6.4	6.4
	25세~29세	(607)	10.7	14.8	19.4	28.7	12.0	14.3
	30세~34세	(576)	9.9	6.8	16.0	35.8	12.5	19.1
	35세~39세	(618)	8.7	12.9	16.8	29.0	14.9	17.6
거주 권역	도심권	(128)	14.1	13.3	17.2	25.8	11.7	18.0
	동북권	(672)	14.3	15.0	21.3	27.5	10.3	11.6
	서북권	(272)	14.3	12.9	19.9	28.3	10.3	14.3
	서남권	(731)	10.8	16.1	16.8	32.0	10.5	13.7
	동남권	(483)	8.7	13.7	15.7	25.5	16.4	20.1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075)	15.3	16.5	20.7	26.5	9.6	11.3
	비동거 · 비독립	(193)	16.6	19.2	23.8	23.3	11.4	5.7
	독립	(1,018)	7.6	12.1	14.6	31.6	14.0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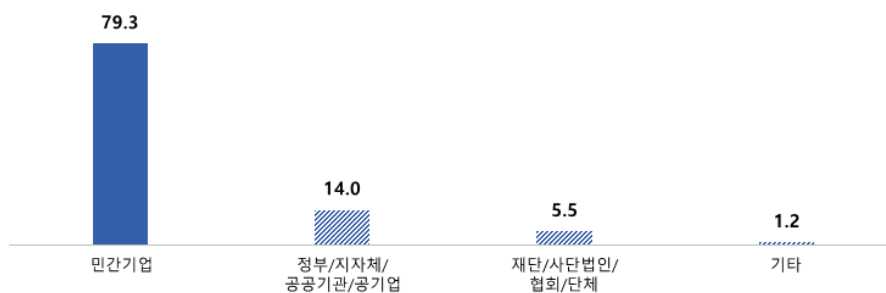
6. 직장 유형

문. 귀하가 일하신 직장(사업체)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민간기업 79.3% >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 14.0%

-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 종사자를 제외한 전체를 대상으로 일한 직장(사업체)의 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민간기업이 7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 14.0%, 재단/사단법인/협회/단체 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Base: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 종사자를 제외한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 종사자를 제외한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민간기업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	재단/사단법인/협회/단체	기타
2020년 청년세대		(2,159)	79.3	14.0	5.5	1.2
성	남성	(1,073)	79.0	13.6	6.2	1.2
	여성	(1,086)	79.6	14.4	4.9	1.2
연령	만18세~24세	(431)	76.6	15.1	5.6	2.8
	25세~29세	(572)	76.9	14.3	7.2	1.6
	30세~34세	(563)	81.0	13.5	4.8	0.7
	35세~39세	(593)	82.0	13.3	4.6	0.2
거주 권역	도심권	(121)	80.2	14.0	4.1	1.7
	동북권	(634)	77.3	15.9	5.4	1.4
	서북권	(256)	78.5	12.9	7.0	1.6
	서남권	(693)	80.7	11.7	6.8	0.9
	동남권	(455)	80.2	15.4	3.3	1.1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990)	78.6	14.8	4.7	1.8
	비동거 · 비독립	(180)	72.8	18.3	6.7	2.2
	독립	(989)	81.2	12.3	6.1	0.4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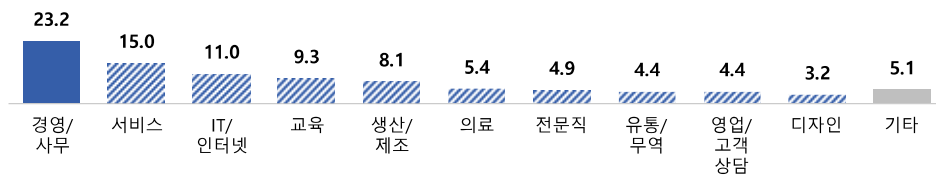
7.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

문. 귀하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은 다음 중 어느 직종에 해당하십니까?

경영/사무 23.2% > 서비스 15.0% > IT/인터넷 11.0%

- 지난 1주 간 일을 하거나 일시 휴직 중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영/사무가 2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비스 15.0%, IT/인터넷 1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Base: 지난 1주 간 일을 하거나 일시 휴직 중인 응답자, 3%미만 응답 제외, 단위: %)



통계표

(Base: 지난 1주 간 일을 하거나 일시 휴직 중인 응답자, 3%미만 응답 제외,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경영/ 사무	서비스	IT/ 인터넷	교육	생산/ 제조	의료	전문직	유통/ 무역	영업/고 객상담	디자인	기타
2020년 청년세대		(2,388)	23.2	15.0	11.0	9.3	8.1	5.4	4.9	4.4	4.4	3.2	5.1
성	남성	(1,205)	19.2	14.4	14.6	7.5	10.3	3.8	5.0	5.2	4.8	2.3	5.3
	여성	(1,183)	27.4	15.6	7.4	11.2	5.8	6.9	4.9	3.6	4.1	4.1	4.8
연령	만18세~24세	(504)	10.9	27.8	8.7	13.7	6.7	3.0	3.8	6.0	4.8	3.2	7.7
	25세~29세	(637)	22.3	14.9	12.7	7.7	7.7	7.2	4.9	3.5	3.0	3.0	6.0
	30세~34세	(609)	28.2	9.5	10.7	7.7	8.9	5.6	5.3	4.1	5.6	4.8	4.3
	35세~39세	(638)	29.2	10.2	11.4	8.9	8.8	5.2	5.6	4.5	4.5	1.9	2.8
거주 권역	도심권	(131)	22.9	16.8	11.5	6.1	9.9	3.1	8.4	6.1	5.3	1.5	2.3
	동북권	(695)	22.6	16.1	10.1	9.5	8.9	5.6	4.3	4.0	4.3	2.9	5.8
	서북권	(283)	20.1	15.9	13.1	8.5	9.2	4.9	5.3	5.3	3.5	4.6	5.7
	서남권	(767)	22.4	15.4	11.6	9.5	7.3	4.8	4.4	4.7	5.3	3.0	4.7
	동남권	(512)	27.1	11.9	10.2	10.0	7.0	6.6	5.5	3.7	3.5	3.5	5.1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131)	21.7	18.1	9.5	10.0	9.5	4.4	4.0	4.3	4.3	3.4	6.1
	비동거 · 비독립	(198)	15.2	19.7	5.1	13.6	6.6	3.5	7.6	7.1	3.5	3.0	9.1
	독립	(1,059)	26.4	10.8	13.8	7.7	6.9	6.7	5.5	4.1	4.7	3.0	3.2
근로여부	근로함	(2,256)	23.5	14.9	10.8	9.5	7.9	5.5	4.8	4.4	4.6	3.2	4.9
	휴직·휴가	(132)	18.9	15.9	14.4	6.1	11.4	3.0	6.8	5.3	2.3	3.0	8.3

※ 3% 미만 응답: '건설' 2.8%, '특수계층/공공' 1.6%, '미디어'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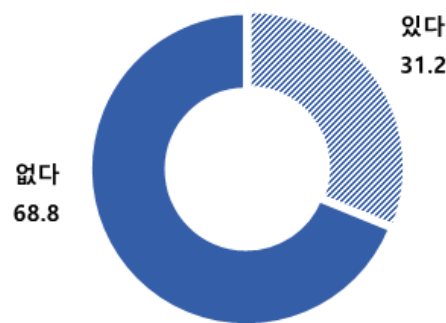
8. 지난 한 달간 부업 경험 여부

문. 귀하는 지난 한 달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주로 하시는 일 이외에 부업으로 한 일이 있으십니까?

부업을 한 적이 있다 31.2%, 부업을 한 적이 없다 68.8%

- 지난 1주 간 일을 하거나 일시 휴직 중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난 한 달 간 수입 목적 일 외에 부업을 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있다는 응답은 31.2%, 없다는 응답은 68.8%로 나타남.

(Base: 지난 1주 간 일을 하거나 일시 휴직 중인 응답자, 단위: %)



통계표

(Base: 지난 1주 간 일을 하거나 일시 휴직 중인 응답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2020년 청년세대		(2,388)	31.2	68.8
성	남성	(1,205)	34.3	65.7
	여성	(1,183)	28.0	72.0
연령	만18세~24세	(504)	32.9	67.1
	25세~29세	(637)	33.1	66.9
	30세~34세	(609)	30.7	69.3
	35세~39세	(638)	28.2	71.8
거주 권역	도심권	(131)	39.7	60.3
	동북권	(695)	31.1	68.9
	서북권	(283)	31.8	68.2
	서남권	(767)	28.2	71.8
	동남권	(512)	33.2	66.8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131)	30.2	69.8
	비동거 · 비독립	(198)	37.9	62.1
	독립	(1,059)	30.9	69.1
근로여부	근로함	(2,256)	31.2	68.8
	휴직, 휴가	(132)	30.3	69.7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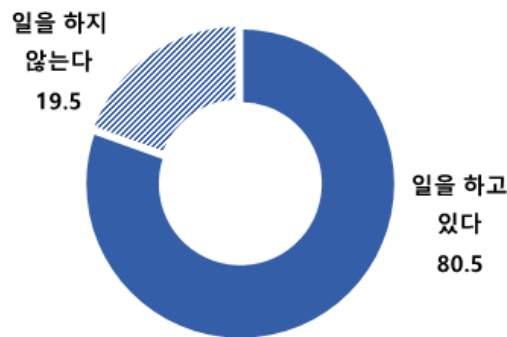
9. 배우자 소득활동 여부

문. 귀하의 배우자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고 있다 80.5% > 일을 하지 않는다 19.5%

- 기혼/사실혼(동거) 응답자를 대상으로 배우자의 소득활동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80.5%,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5%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남성의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는다(31.8%) 비율이 여성의 배우자(8.2%)보다 23.6%p 높게 나타남.

(Base: 기혼/사실혼(동거) 응답자, 단위: %)



통계표

(Base: 기혼/사실혼(동거) 응답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일을 하고 있다	일을 하지 않는다
2020년 청년세대		(660)	80.5	19.5
성	남성	(318)	68.2	31.8
	여성	(342)	91.8	8.2
연령	만18세~24세	(16)	56.3	43.8
	25세~29세	(50)	84.0	16.0
	30세~34세	(202)	87.1	12.9
	35세~39세	(392)	77.6	22.4
거주 권역	도심권	(26)	84.6	15.4
	동북권	(197)	75.1	24.9
	서북권	(62)	79.0	21.0
	서남권	(209)	80.4	19.6
	동남권	(166)	86.7	13.3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76)	77.6	22.4
	비동거 · 비독립	(12)	66.7	33.3
	독립	(572)	81.1	18.9
근로여부	근로함	(561)	80.6	19.4
	휴직, 휴가	(25)	76.0	24.0
	일을 하지 않음	(57)	82.5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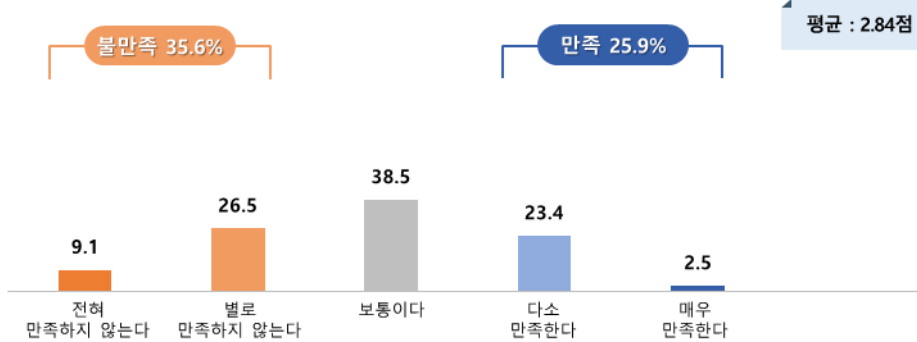
10. 직업 만족도

문. 귀하는 소득, 안정성, 장래성, 자아실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수입을 목적으로 하시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수입이 목적인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5점 평균 기준 2.84점

- 지난 1주 간 일을 하거나 일시 휴직 중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에 대한 직업 만족도에 대해 평가한 결과 평균 2.84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불만족 비율이 35.6%로 만족 비율 25.9%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기성세대의 경우 청년 시절 일에 대한 직업 만족도가 청년 세대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Base: 지난 1주 간 일을 하거나 일시 휴직 중인 응답자, 단위: %)



통계표

(Base: 지난 1주 간 일을 하거나 일시 휴직 중인 응답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①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②	보통이다 ③	다소 만족한다 ④	매우 만족한다 ⑤	불만족 (①+②)	보통 ③	만족 (④+⑤)	5점 평균 (점)
2020년 청년세대		(2,388)	9.1	26.5	38.5	23.4	2.5	35.6	38.6	25.9	2.84
2020년 기성세대		(500)	5.6	18.8	39.6	31.4	4.6	24.4	39.6	36.0	3.11
성	남성	(1,205)	9.0	24.2	39.3	24.6	2.9	33.3	39.3	27.5	2.88
	여성	(1,183)	9.1	28.7	37.9	22.2	2.0	37.9	37.9	24.3	2.79
연령	만18세~24세	(504)	9.7	27.4	39.1	21.0	2.8	37.1	39.1	23.8	2.80
	25세~29세	(637)	8.9	30.1	35.6	23.2	2.0	39.1	35.6	25.3	2.79
	30세~34세	(609)	8.7	25.6	40.4	22.7	2.6	34.3	40.4	25.3	2.85
	35세~39세	(638)	9.1	22.9	39.3	26.2	2.5	32.0	39.3	28.7	2.90
거주 권역	도심권	(131)	12.2	18.3	48.9	16.0	4.6	30.5	48.9	20.6	2.82
	동북권	(695)	9.5	25.3	34.5	27.5	3.2	34.8	34.5	30.6	2.89
	서북권	(283)	7.1	29.7	44.5	17.3	1.4	36.7	44.5	18.7	2.76
	서남권	(767)	9.3	27.8	37.9	22.9	2.1	37.0	37.9	25.0	2.81
	동남권	(512)	8.6	26.4	39.1	23.8	2.1	35.0	39.1	26.0	2.85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131)	8.8	28.0	39.6	21.0	2.7	36.8	39.6	23.6	2.81
	비동거 · 비독립	(198)	10.1	27.8	39.4	20.7	2.0	37.9	39.4	22.7	2.77
	독립	(1,059)	9.3	24.6	37.3	26.5	2.4	33.8	37.3	28.9	2.88

※ 기성세대의 경우 청년시절 기준 직업 만족도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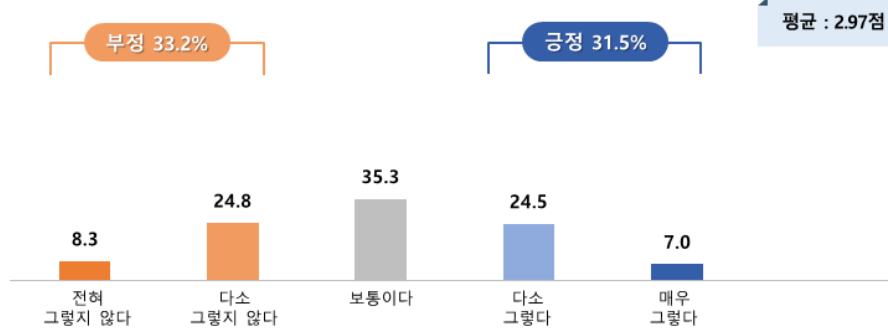
11. 향후 만족하는 일자리 얻을 가능성

문. 귀하는 향후 소득, 안정성, 장래성, 자아실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향후 만족하는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5점 평균 기준 2.97점

- 지난 1주 간 일을 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 결과 평균 2.97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부정 비율이 33.2%로 긍정 비율 31.5%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학생인 경우 긍정 비율이 41.2%로 부정 비율(25.1%)보다 16.1%p 높게 나타났으며 비학생인 경우 부정 비율이 38.9%로 긍정 비율(24.6%)보다 14.3%p 높게 나타남.

(Base: 지난 1주 간 일을 하지 않은 응답자, 단위: %)



통계표

(Base: 지난 1주 간 일을 하지 않은 응답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다소 그렇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다소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부정 (①+②)	보통 ③	긍정 (④+⑤)	5점 평균 (점)
2020년 청년세대	(612)	8.3	24.8	35.3	24.5	7.0	33.2	35.3	31.5	2.97
성										
남성	(278)	10.8	19.8	35.3	26.6	7.6	30.6	35.3	34.2	3.00
여성	(334)	6.3	29.0	35.3	22.8	6.6	35.3	35.3	29.3	2.94
연령										
만18세~24세	(294)	3.4	20.1	34.7	33.0	8.8	23.5	34.7	41.8	3.24
25세~29세	(147)	13.6	25.9	38.1	16.3	6.1	39.5	38.1	22.4	2.76
30세~34세	(86)	14.0	26.7	34.9	19.8	4.7	40.7	34.9	24.4	2.74
35세~39세	(85)	10.6	37.6	32.9	14.1	4.7	48.2	32.9	18.8	2.65
거주 권역										
도심권	(23)	4.3	17.4	47.8	21.7	8.7	21.7	47.8	30.4	3.13
동북권	(195)	7.7	25.1	36.9	24.6	5.6	32.8	36.9	30.3	2.95
서북권	(79)	11.4	27.8	32.9	24.1	3.8	39.2	32.9	27.8	2.81
서남권	(195)	7.2	26.7	35.9	22.6	7.7	33.8	35.9	30.3	2.97
동남권	(120)	10.0	20.8	30.8	28.3	10.0	30.8	30.8	38.3	3.08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415)	10.1	24.3	35.7	24.1	5.8	34.5	35.7	29.9	2.91
비동거 · 비독립	(94)	2.1	19.1	34.0	30.9	13.8	21.3	34.0	44.7	3.35
학생여부										
독립	(103)	6.8	32.0	35.0	20.4	5.8	38.8	35.0	26.2	2.86
학생	(255)	3.9	21.2	33.7	32.9	8.2	25.1	33.7	41.2	3.20
비학생	(357)	11.5	27.5	36.4	18.5	6.2	38.9	36.4	24.6	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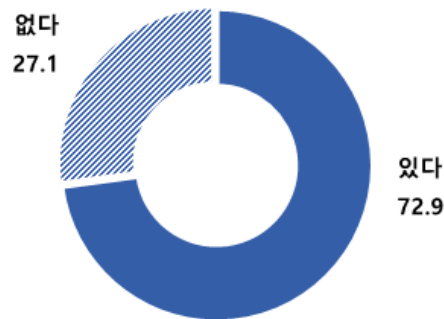
12. 과거 일한 경험

문. 현재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일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일을 한 경험이 있다 72.9%, 경험이 없다 27.1%

- 지난 1주 간 일을 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일을 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과거에 일을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2.9%, 없다는 응답은 27.1%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과거 일을 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77.8%로 남성(66.9%)보다 10.9%p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과거에 일을 한 경험이 높게 나타남.

(Base: 지난 1주 간 일을 하지 않은 응답자, 단위: %)



통계표

(Base: 지난 1주 간 일을 하지 않은 응답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2020년 청년세대		(612)	72.9	27.1
성	남성	(278)	66.9	33.1
	여성	(334)	77.8	22.2
연령	만18세~24세	(294)	63.6	36.4
	25세~29세	(147)	76.2	23.8
	30세~34세	(86)	81.4	18.6
	35세~39세	(85)	90.6	9.4
거주 권역	도심권	(23)	78.3	21.7
	동북권	(195)	66.7	33.3
	서북권	(79)	68.4	31.6
	서남권	(195)	73.3	26.7
	동남권	(120)	84.2	15.8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415)	69.4	30.6
	비동거 · 비독립	(94)	68.1	31.9
	독립	(103)	91.3	8.7
학생여부	학생	(255)	63.1	36.9
	비학생	(357)	79.8	20.2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13. 구직활동 하지 않은 이유

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교 재학 및 학업을 준비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 41.9%

- 지난 1주 간 일을 하지 않고, 일을 구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장 큰 이유로 '학교 재학 및 학업을 준비해서'가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창업준비 포함)를 해서' 18.5%,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서'(1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비학생인 경우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가 25.6%로 가장 높았음.

(Base: 지난 1주 간 일을 하지 않고, 일을 구하지 않은 응답자, 1%미만 응답 제외, 단위: %)



통계표

(Base: 지난 1주 간 일을 하지 않고, 일을 구하지 않은 응답자, 1%미만 응답 제외,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학교 재학 및 학업을 준비해서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취업 의사가 없어서	질병, 지병 등으로 휴식이 필요해서	직장, 학교, 기관 찾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가 없어서
2020년 청년세대	(399)	41.9	18.5	11.0	8.0	6.5	4.3	3.8	3.8
성	남성	(188)	47.9	14.9	0.5	12.2	8.0	4.3	3.7
	여성	(211)	36.5	21.8	20.4	4.3	5.2	4.3	3.8
연령	만18세~24세	(211)	64.5	11.8	0.0	4.7	8.1	1.9	3.3
	25세~29세	(81)	27.2	37.0	2.5	11.1	1.2	6.2	6.2
	30세~34세	(52)	11.5	26.9	28.8	11.5	7.7	1.9	1.9
	35세~39세	(55)	5.5	9.1	49.1	12.7	7.3	1.8	3.6
거주 권역	도심권	(12)	33.3	16.7	16.7	0.0	8.3	16.7	0.0
	동북권	(133)	40.6	18.8	9.8	9.8	8.3	5.3	3.8
	서북권	(51)	31.4	15.7	11.8	15.7	3.9	3.9	7.8
	서남권	(129)	44.2	20.2	11.6	5.4	7.0	2.3	3.9
독립여부	동남권	(74)	48.6	17.6	10.8	5.4	4.1	4.1	4.1
	부모와 동거	(270)	47.4	20.0	0.7	9.3	7.0	4.8	4.4
	비동거 · 비독립	(59)	52.5	27.1	0.0	3.4	6.8	3.4	0.0
	독립	(70)	11.4	5.7	60.0	7.1	4.3	2.9	4.3
학생여부	학생	(188)	68.1	10.6	2.1	3.2	5.3	0.5	4.3
	비학생	(211)	18.5	25.6	19.0	12.3	7.6	7.6	3.3

※ 1% 미만 응답: '여행이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해서' 0.8%, 기타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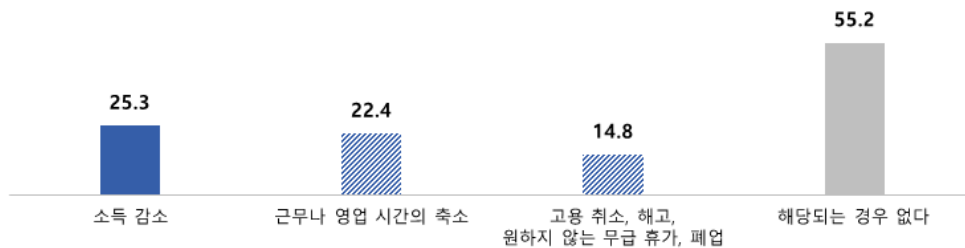
14. 코로나19로 인한 직업상태 변화 경험_복수응답

문. 귀하는 최근 6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이나 사업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경험 44.8%

- 최근 6개월 간 코로나19로 인해 44.8%가 코로나19로 인한 직업상의 어려움을 경험했고, 직업상태의 변화로 소득 감소가 25.3%로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근무나 영업 시간의 축소 22.4%, 고용 취소, 해고, 원하지 않는 무급 휴가, 폐업이 14.8%로 나타남.
- 해당되는 경우가 없다는 응답은 55.2%로 나타남.

(복수응답,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복수응답,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소득 감소	근무나 영업 시간의 축소	고용 취소, 해고, 원하지 않는 무급 휴가, 폐업	해당되는 경우 없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25.3	22.4	14.8	55.2
2020년 기성세대		(500)	31.2	20.4	11.4	54.2
성	남성	(1,483)	25.8	24.0	13.9	54.9
	여성	(1,517)	24.8	20.9	15.7	55.6
연령	만18세~24세	(798)	19.4	20.7	14.4	60.0
	25세~29세	(784)	26.1	25.0	16.3	53.2
	30세~34세	(695)	24.3	20.7	14.0	58.6
	35세~39세	(723)	31.7	23.2	14.4	49.0
거주 권역	도심권	(154)	29.9	31.2	16.2	44.8
	동북권	(890)	23.1	23.1	14.8	56.1
	서북권	(362)	27.6	24.0	14.9	54.7
	서남권	(962)	24.7	18.9	15.0	57.4
	동남권	(632)	26.6	23.7	14.1	53.6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22.5	22.1	14.8	57.5
	비동거 · 비독립	(292)	27.4	19.5	17.1	54.8
	독립	(1,162)	28.4	23.6	14.2	52.3
근로여부	근로함	(2,256)	28.5	26.0	14.0	50.8
	휴직, 휴가	(132)	34.1	32.6	31.1	34.1
	일을 하지 않음	(399)	9.0	3.8	7.3	85.0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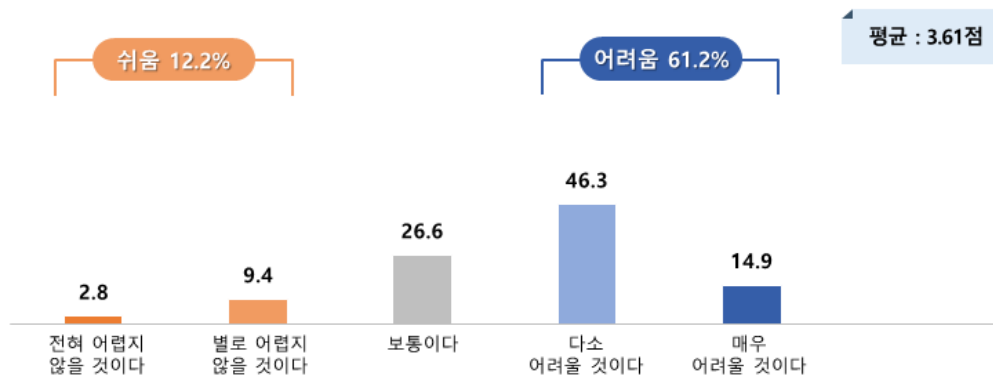
15. 코로나19로 인한 향후 소득활동 어려움 정도

문. 귀하는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본인의 구직, 고용의 유지, 창업 등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한 구직, 고용 유지, 창업 어려움 정도는 5점 평균 기준 3.61점

- 코로나19로 인한 본인의 구직, 고용의 유지, 창업 등의 어려움 정도는 3.61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어려움 비율이 61.2%로 쉬움 비율 12.2%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 청년 세대의 경우 기성세대보다 코로나19로 인한 향후 소득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어렵지 않을 것 ①	별로 어렵지 않을 것 ②	보통이다 ③	다소 어려울 것 ④	매우 어려울 것 ⑤	쉬움 (①+②)	보통 ③	어려움 (④+⑤)	5점 평균 (점)
2020년 청년세대	(3,000)	2.8	9.4	26.6	46.3	14.9	12.2	26.6	61.2	3.61
2020년 기성세대	(500)	1.0	5.0	28.6	46.8	18.6	6.0	28.6	65.4	3.77
성										
남성	(1,483)	3.1	9.0	29.1	44.1	14.7	12.1	29.1	58.8	3.58
여성	(1,517)	2.5	9.8	24.1	48.5	15.1	12.3	24.1	63.6	3.64
연령										
만18세~24세	(798)	2.0	8.1	20.4	53.8	15.7	10.2	20.4	69.4	3.73
25세~29세	(784)	2.6	9.4	24.1	45.4	18.5	12.0	24.1	63.9	3.68
30세~34세	(695)	3.0	10.4	31.9	41.9	12.8	13.4	31.9	54.7	3.51
35세~39세	(723)	3.7	9.8	30.8	43.4	12.2	13.6	30.8	55.6	3.50
거주 권역										
도심권	(154)	2.6	9.1	32.5	39.0	16.9	11.7	32.5	55.8	3.58
동북권	(890)	2.7	9.7	23.9	47.9	15.8	12.4	23.9	63.7	3.64
서북권	(362)	2.5	7.7	25.4	47.8	16.6	10.2	25.4	64.4	3.68
서남권	(962)	2.9	10.2	25.5	46.7	14.8	13.1	25.5	61.4	3.60
동남권	(632)	3.0	8.9	31.2	44.6	12.3	11.9	31.2	57.0	3.54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2.4	8.3	25.3	47.2	16.9	10.7	25.3	64.0	3.68
비동거 · 비독립	(292)	1.4	7.9	21.2	50.7	18.8	9.2	21.2	69.5	3.78
독립	(1,162)	3.7	11.3	29.6	44.1	11.3	15.0	29.6	55.4	3.48
근로여부										
근로함	(2,256)	2.9	10.7	28.5	44.4	13.6	13.6	28.5	58.0	3.55
휴직, 휴가	(132)	6.1	4.5	23.5	47.7	18.2	10.6	23.5	65.9	3.67
일을 하지 않음	(399)	2.0	7.5	23.1	50.9	16.5	9.5	23.1	67.4	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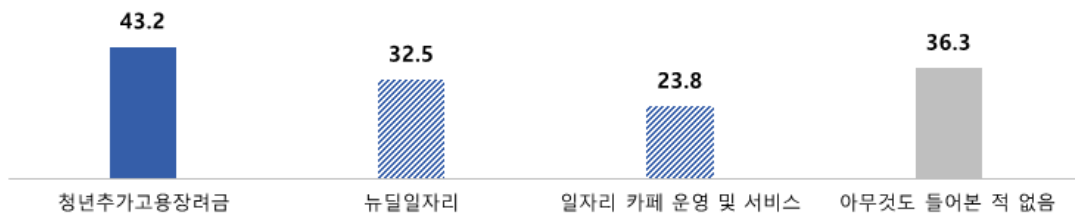
16. [서울시 일자리 지원 사업] 인지도_복수응답

문. 귀하는 서울시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으신 사업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3.2% > 뉴딜일자리 32.5%

- 서울시/정부가 진행하는 일자리 사업의 인지도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뉴딜일자리 32.5%, 일자리 카페 운영 및 서비스 23.8% 순으로 나타남. 아무것도 들어본 적 없는 비율 36.3%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근로하고 있는 청년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청년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남.

(복수응답,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복수응답,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뉴딜일자리	일자리 카페 운영 및 서비스	아무것도 들어본 적 없음
2020년 청년세대		(3,000)	43.2	32.5	23.8	36.3
성	남성	(1,483)	42.8	35.1	23.6	37.8
	여성	(1,517)	43.6	29.9	24.1	34.9
연령	만18세~24세	(798)	41.6	21.8	20.8	41.5
	25세~29세	(784)	44.6	36.9	28.2	32.7
	30세~34세	(695)	43.3	33.7	22.2	37.0
	35세~39세	(723)	43.4	38.5	24.1	33.9
거주 권역	도심권	(154)	53.2	40.3	31.2	26.0
	동북권	(890)	42.9	31.7	24.4	35.5
	서북권	(362)	42.0	31.2	19.6	41.4
	서남권	(962)	43.2	31.8	23.1	37.7
	동남권	(632)	41.9	33.5	24.8	34.8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41.1	31.2	24.4	37.9
	비동거 · 비독립	(292)	43.2	28.1	26.4	37.0
	독립	(1,162)	46.0	35.4	22.5	34.0
근로여부	근로함	(2,256)	45.5	34.5	25.7	33.7
	휴직, 휴가	(132)	40.9	31.8	21.2	37.9
	일을 하지 않음	(399)	32.1	22.1	15.8	50.9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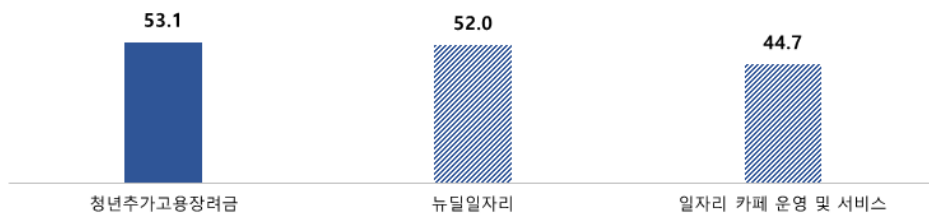
17. [서울시 일자리 지원 사업] 도움정도

문.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다음 사업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53.1% > 뉴딜일자리 52.0%

- 서울시 일자리 지원사업 중 일자리를 구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5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뉴딜 일자리 52.0%, 일자리 카페 운영 및 서비스 44.7%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여성과 만18세~24세인 경우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 기성세대의 경우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뉴딜일자리(53.0%)를 가장 높게 평가했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긍정 비율이 47.8%로 청년세대보다 5.3%p 낮게 평가함.

(긍정%,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긍정%,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뉴딜일자리	일자리 카페 운영 및 서비스
2020년 청년세대		(3,000)	53.1	52.0	44.7
2020년 기성세대		(500)	47.8	53.0	44.8
성	남성	(1,483)	50.1	49.0	40.5
	여성	(1,517)	56.0	54.9	48.9
연령	만18세~24세	(798)	63.5	64.2	53.6
	25세~29세	(784)	53.2	50.6	44.9
	30세~34세	(695)	46.3	42.4	36.1
	35세~39세	(723)	48.0	49.2	43.0
거주 권역	도심권	(154)	53.9	48.7	48.1
	동북권	(890)	56.2	54.2	46.0
	서북권	(362)	53.3	56.4	46.4
	서남권	(962)	51.5	49.2	42.4
	동남권	(632)	50.9	51.6	44.8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54.8	53.6	46.3
	비동거 · 비독립	(292)	52.7	54.5	52.1
	독립	(1,162)	50.9	49.3	40.8
근로여부	근로함	(2,256)	53.9	52.3	44.3
	휴직·휴가	(132)	52.3	50.0	46.2
	일을 하지 않음	(399)	51.4	50.6	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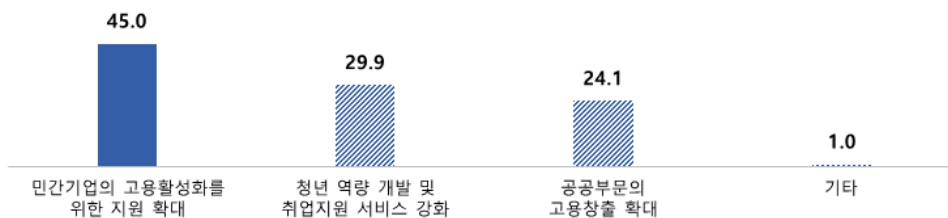
18. 청년 일자리 정책 선호 방향

문. 귀하는 다음 청년대상 일자리 정책 중 어떤 방향을 가장 선호하십니까?

민간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45.0%

- 청년대상 일자리 정책으로 가장 선호하는 방향으로 민간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45.0%, 청년 역량 개발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29.9%, 공공부문의 고용창출 확대 24.1%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근로하는 청년의 경우 민간 기업의 지원 확대(48.0%)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청년의 경우 청년 역량 개발 및 취업지원 강화(39.6%)가 더 높게 나타남.
- 기성세대의 경우 민간기업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55.2%, 공공부문의 고용창출 확대 24.0%, 청년 역량 개발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19.6%로 청년세대와 선호 순위가 다르게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민간기업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청년 역량 개발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공공부문의 고용창출 확대	기타
2020년 청년세대	(3,000)	45.0	29.9	24.1	1.0
2020년 기성세대	(500)	55.2	19.6	24.0	1.2
성	남성 (1,483)	46.7	29.6	22.9	0.7
	여성 (1,517)	43.4	30.2	25.2	1.2
연령	만18세~24세 (798)	35.7	40.9	22.7	0.8
	25세~29세 (784)	42.6	29.6	26.5	1.3
	30세~34세 (695)	49.4	26.5	23.2	1.0
	35세~39세 (723)	53.8	21.4	23.9	0.8
거주 권역	도심권 (154)	52.6	25.3	20.8	1.3
	동북권 (890)	47.0	29.7	22.1	1.2
	서북권 (362)	43.1	35.4	21.0	0.6
	서남권 (962)	44.5	29.5	25.1	0.9
	동남권 (632)	42.4	28.8	28.0	0.8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40.9	32.9	25.2	1.0
	비동거 · 비독립 (292)	41.1	34.2	24.0	0.7
	독립 (1,162)	51.5	24.9	22.7	0.9
근로여부	근로함 (2,256)	48.0	27.7	23.4	0.9
	휴직·휴가 (132)	38.6	28.0	31.8	1.5
	일을 하지 않음 (399)	34.8	39.6	24.3	1.3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 좋은 일자리 >

- 취업 경험과 상관없이 '연봉이 높은', '오래 다닐 수 있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는 응답이 많음.
이 외에 '근무 시간', '동료', '복지', '성취감'을 좋은 일자의 요소로 생각하고 있음.
- 돈을 많이 주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일자리(취업경험 없는 남성)
- 다들 기술을 배우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고 공무원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오래할 수 있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 일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가능성이 있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 같아요.(취업경험 없는 남성)
- 성취감을 얻어야 스스로 행복해질 것 같아서 성장하고 좀 더 잘 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취업경험 없는 남성)
- 유동적인 근무시간이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해요.(취업경험 없는 여성)
- 연봉 높고 안정적이고 복지가 잘되어 있는 곳. 구조조정도 많고, 사회시스템적으로 퇴직도 빨라지는 추세여서 안정적인 곳이 중요해요.(취업경험 없는 여성)
- 같이 일하는 사람들 분위기도 사람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하지 않는 곳. 일이 힘들더라도 사람들간의 분위기가, 팀웍이 좋으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회사보다는 큰 데, 시스템이 있는 데가 덜할 것 같아요.(취업경험 없는 여성)
- 돈이 있어야 뭐든지 하니까 돈을 많이 주는 곳이 좋은 일자리(취업경험 있는 남성)
- 내가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일자리(취업경험 있는 남성)
- 업무 성과를 낸다면 지 그런 보람을 느끼는 게 저는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해요.(취업경험 있는 남성)
- 구성원과 성향이 맞고 조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취업경험 있는 남성)
- 퇴근시간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게 좋은 일자리 아닐까싶어요. 만약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면 자기 시간이라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취업경험 있는 남성)
- 단기간만 유지되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유지를 죽 해줄 수 있는 성격의 직장이나 일자리나 창업이 있으면 좋겠어요. 돈을 한꺼번에 많이 벌지는 못해도 뭔가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지속가능성이 있는 일자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취업경험 있는 여성)
- 저도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도. 요즘 100세 시대인데 노후를 위해서 오랫동안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직장(취업경험 있는 여성)
- 지금 젊을 때, 10년이라도 바짝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양질의 일자리는 소득이 높고 오래 일할 수 있는 곳인데, 그런 데는 보장이 안 되니까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긴 한데,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좋은 일자리 같아요.(취업경험 있는 여성)
- 소득이 평균적으로 많이 올라가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취업경험 있는 여성)

< 일자리 관련 코로나 영향 >

-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어 취업이 더 힘들어졌다고 생각함. 취업 환경이 회복되긴 할 것 같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올 초에 취업기회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중분해 되었어요.(취업경험 없는 남성)
 - 우리나라 산업이 대부분 제조업이어서 코로나 때문에 제조업들이 대부분 안 좋아지고, 중소기업은 채용공고가 거의 안 나오고, 대기업도 공채 폐지하고 수시로 바뀔 정도로 채용시장이 많이 언 것 같아요.(취업경험 없는 남성)
 -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진 취업환경이 회복되는데 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나아지는 건 아니니까.(취업경험 없는 남성)
 - 일단 사기업은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사람을 굳이 뽑을 이유가 없어지고 그래서 공채도 인원을 줄이거나 채용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취업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적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몰리고 그러면 경쟁이 심화되고 그런 측면에서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해요.(취업경험 없는 여성)
 - 저도 일단 여행사뿐만 아니라, 너무 정말 모든 산업이, 무역이나 승무원들도 다 잘렸으니까, 자리가 없는 게 가장 어려워진 게 아닌가.(취업경험 없는 여성)
 -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예산 자체가 줄었으니까 인원을 채용하는 것도 예전에는 세 자리 숫자였다고 해도 지금은 거의 한 자리 수가 많고, 확실히 채용문도 줄어졌어요.(취업경험 없는 여성)
 - 저는 항공 쪽에서 일하다 보니까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정비할게 없어서 전 한 달을 격주로 일하게 되었거든요. 무급휴직인데 월급도 60% 밖에 안되고 많이 힘들어요.(취업경험 있는 남성)
 - 요식업 하는 지인들이 손님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게 타격이 크다 보니까 종업원도 강제로 해고하게 되고, 지금 장사가 안되서 접을까 말까 이런 식으로 고민하더라고요.(취업경험 있는 남성)
 - 저도 이직을 준비하면서 시장상황을 보는데 자리가 되게 없더라고요. 저 자신도 힘든데 취업 준비생들도 자리가 없어지는 거니까.(취업경험 있는 남성)
 - 코로나는 저에게 기회였어요. 제 얘기만 하면 작년까지 공공기관 다녔는데 다 좋았는데 급여가 너무 적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는 회사는 홈쇼핑 회사예요. 코로나 터지면서 상담원들이 재택근무 해야 하고 그리고 직원 분도 재택근무 하면서 환경을 대규모로 구축해야 했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생겼고 전 그거 보고 빨리 이직에 성공했거든요.(취업경험 있는 남성)
 - 저는 5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일자리가 코로나 종식되면 회복은 가능할 것 같은데 대신 방향이 바뀔 것 같아요. 단순히 1차 산업이 고차원산업으로 자리가 많아질 것 같아요.(취업경험 있는 남성)
 - 시간은 걸리더라도 예전 수준으로 회복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취업경험 있는 남성)
 - 코로나 때문에 회사들이 매출이 없으니까 직원들을 권고사직 시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저도 일을 구하는데 기존 있던 분들이 안 나가고 티오가 안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힘든 것 같아요.(취업경험 있는 여성)

<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

- 금전적인 지원이 가장 좋으나 신청 절차와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지원해 본 적이 없음.
- 교육의 경우 실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지 않고, 도움이 될 것 같은 건 교육기간이 너무 길어 시간이 아까움. 또한 교육의 질이 높지 않음.
- 다른 조건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소서 첨삭, 정장 대여와 같은 사업은 실제 이용해본 적이 있고, 매우 만족스러웠음.
 - 취업성공패키지와 서울시 뉴딜 일자리 이런 거 찾아 봤는데, 너무 단기간이다 보니까, 이거에도 사람이 많이 몰리고. 기간이 너무 짧아요. 교육이 있다해서 보는데 너무 비슷하거나, 너무 뻔하거나 단기적이거나 아니면 실무랑 거리가 멀어요.(취업경험 없는 남성)
 - 취업하기 위해 고급 기술을 배우고 포트폴리오를 남기고 싶다는 생각에 들어갔는데, 이게 국가지원이다 보니까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과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수준이 되게 낮았어요. 강사님도 이게 사기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건 내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정적인 계기가 터무니 없이 많은 시간을 요구해요. 하루에 8시간에 6개월,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런 시간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취업경험 없는 남성)
 - 교육 시간이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취업경험 없는 남성)
 - 졸업하고 취업이나 시험 준비를 위해서 매달 금전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근로장려금도 있고 찾아보니까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신청은 안해봤어요. 졸업이 조건이거나 소득분위 보는 것도 있고 근로경험 보는 것도 있는데, 제가 해당되는 게 없어서.(취업경험 없는 남성)
 - 구직활동지원금 알아봤는데 저도 소득분위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취업경험 없는 남성)
 - 제 친구 중 하나는 서울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교육은 만족스러웠지만 취업까지 연결은 되지 않았대요.(취업경험 없는 남성)
 - 금액적으로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많고, 교육이나 면접 볼 때 첨삭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많고 아니면 정장을 지원해준다든지 다양하게 많아서 저는 도움 됐어요.(취업경험 없는 여성)
 - 금전적인 부분이 확실히 도움이 되요. 실질적으로.(취업경험 없는 여성)
 -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는 느낌이어서 별로였어요.(취업경험 없는 여성)
 - 저는 금전적인 걸 지원하는 건 봤는데 교육은 신청 절차도 복잡해 보이고 어차피 신청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보기만 하고 실천하지는 않았어요.(취업경험 없는 여성)
 - 제가 양복을 갑자기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면접 보는 구직자를 위해서 양복 대여해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양복 빌려서 면접 본 기억이 있어요.(취업경험 있는 남성)
 - 특별히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학원에서 국비 지원하는 프로젝트 하게 될 것 같아요.(취업경험 있는 남성)
 - 저도 제가 받을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관심 크게 안 갖고 일단 요즘 지원이 금액적으로 해주시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취업경험 있는 남성)
 - 예전에 취업 준비할 때 학교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면접비 지원이나,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찾아 봤어요.(취업경험 있는 여성)

- 취성패는 제가 신청했다가 취업이 되어서 이용을 못해서 잘 모르겠고요. 면접비 지원은 제가 받아보고 싶었는데 절차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활용을 못했어요.(취업경험 있는 여성)
- 저는 이번에 청년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많이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어요.(취업경험 있는 여성)
- 저도 6개월간 50만원 지원해주는 게 있었는데 조건도 까다롭고 경쟁률도 셋거든요. 지원해봤는데 떨어졌고, 취성패도 해볼까 했는데 친구가 그걸 했거든요. 그런데 취업이 잘 안 되다고 해서 저도 결국 안 했어요.(취업경험 있는 여성)
- 서울시인가 정부에서인가,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위주로 6개월간 50만원 지원해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노동부에서 하는 취성패하고 내일배움카드가 있다고 들었어요.(취업경험 있는 여성)

<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인지 경로 >

- 주로 '온라인'과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는 편으로, '취업 정보 사이트', '구청, 학교, 주민센터 등 공공 기관'에서도 정보를 얻고 있음.
 - 온라인창업센터나 취업관련 사이트를 항상 찾아봐요.(취업경험 없는 남성)
 - 학교에타(every time)나 친구들을 통해서.(취업경험 없는 남성)
 - 네이버 검색해서 알았어요.(취업경험 없는 남성)
 - 인터넷으로 알아본 것 같아요. 지원프로그램이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찾아봤어요.(취업경험 없는 여성)
 -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육이나 지원금 정보 봤어요.(취업경험 없는 여성)
 - 저는 친구 통해서 알게됐어요. 학교에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신청방법이 복잡해서 아직 실천하지는 않았어요.(취업경험 없는 여성)
 - 주민센터나 아파트에 홍보물이 붙어 있는걸 본적 있는데 제가 찾아보거나 관심 있게 지켜본 건 없어요.(취업경험 있는 남성)
 - 인터넷, SNS에 정리되어 올라온 것도 봤어요.(취업경험 있는 여성)
 - 저도 인터넷이랑 길에 지나가다가 포스터 봤어요.(취업경험 있는 여성)

< 선호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방향 >

1. 민간기업들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민간기업의 수가 공공 부분의 수보다 많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으니 민간기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빠르고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됨.
- 민간기업은 이익 창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공 부분보다 일자리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저는 사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한테 혜택이 있어서 실무를 쌓을 수 있고. 훨씬 좋은 것 같아요.(취업경험 없는 남성)
 - 요즘 중소기업 취업하면 적금처럼 돈 모으기 해주는 프로그램 자체가 본인이 그만두면 다시 가입이 안돼요. 회사가 악덕기업이어도 본인이 그만두면 다시 가입이 안되서 회사를 못 견디고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두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 정책이 방향성은 맞는데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취업경험 없는 남성)

-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사람들이 준비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스펙이 충분한 사람들이 많은데 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취업하는 사람들이 적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적인 측면이나 교육으로 사람을 일자리에 적합하게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일자리 자체의 수를 늘리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취업경험 없는 여성)
-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고용을 억지로 늘리면 더 비효율적이 되고 나중에 좀더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취업경험 있는 남성)
- 일단 단순히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해고하는 이유는 인건비가 모자라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취업경험 있는 남성)
- 민간기업은 이익창출을 위한 데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간기업의 전체적인 이익을 활성화시키고 그에따른 민간기업의 일자리도 확충을 해야 전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취업경험 있는 여성)
- 공기업보다는 민간기업이 더 성장성이 크고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라서 민간기업의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세 번째 안인 취업자 지원은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기업에 많이 지원을 해줘서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취업경험 있는 여성)
- 대부분 민간기업을 가고 싶어하니까 민간기업에서 많이 확대를 하면 청년실업 상태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취업경험 있는 여성)

2. 공공부문의 고용창출 확대

- 민간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으로 일자리를 늘린다해도 줄이는 것 또한 기업의 자율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일자리일 것 같아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공공기업이 취업을 활성화해야지,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힘을 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취업경험 있는 여성)
 - 일자리를 늘리는 건 민간이 공공보다 많이 늘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불안정할 것 같아요. 코로나가 갑자기 왔듯이 내년이라고 갑자기 뭐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고, 이건 대표자 마음이니깐. 내가 단기가 일할지, 장기간 일할지 모르니까, 안정의 면에서는 민간보다 공공이 더 낫지 않을까. 회사가 어려워지면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취업경험 있는 여성)

3. 청년 역량 개발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본인의 역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 교육사업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국가에서 나서서 기업과 취준생을 연결해주는 건 나중에 역효과를 많이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역차별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사람들의 퀄리티를 높여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취업경험 없는 남성)
 - 가장 현실적인건 교육인 것 같아요. 공공기관 일자리 늘리는 건 제가 공공기관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게 비효율적이에요. 계약직이 대부분이고요. 교육 쪽으로 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취업경험 있는 남성)

-
- 그나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첫번째는 되게 악용하는 분이 많아서 별로 도움이 안될 것 같고 두번째도 수치상의 결과만 보고 싶어서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 같고 두가지가 다 별로라서요.(취업경험 있는 남성)
-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Part. 3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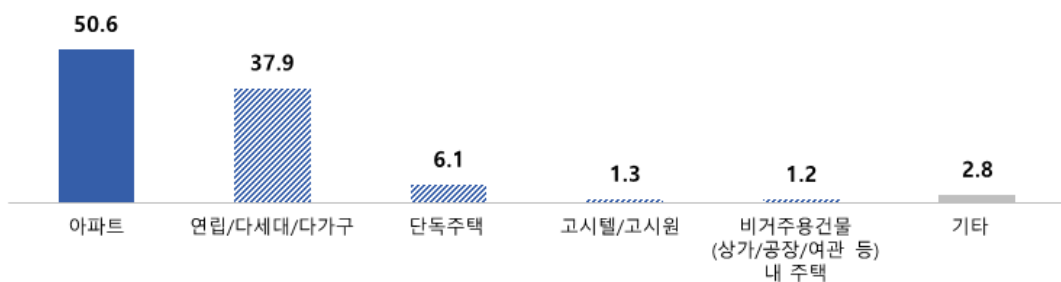
1. 거주 주택 유형

문. 현재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은 무엇입니까?

아파트 50.6% > 연립/다세대/다가구 37.9% > 단독주택 6.1%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으로 아파트가 5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연립/다세대/다가구 37.9%, 단독주택 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아파트	연립/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고시텔/ 고시원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	기타
2020년 청년세대		(3,000)	50.6	37.9	6.1	1.3	1.2	2.8
2020년 기성세대		(500)	62.4	28.2	8.2	0.2	0.8	0.2
성·연령	남성	(1,483)	52.5	35.3	6.5	1.6	1.3	2.8
	여성	(1,517)	48.8	40.5	5.7	1.1	1.2	2.8
연령	만18세~24세	(798)	50.1	34.7	8.4	1.5	2.0	3.3
	25세~29세	(784)	45.0	43.0	5.4	2.6	0.9	3.2
	30세~34세	(695)	50.2	38.4	5.9	1.2	1.4	2.9
	35세~39세	(723)	57.7	35.4	4.6	0.0	0.6	1.8
거주 권역	도심권	(154)	46.1	39.6	7.8	1.3	1.9	3.2
	동북권	(890)	51.2	35.4	8.9	1.0	1.6	1.9
	서북권	(362)	42.8	43.4	4.7	2.5	1.1	5.5
	서남권	(962)	47.7	41.4	5.6	1.4	1.1	2.8
	동남권	(632)	59.8	32.6	3.3	1.1	0.8	2.4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60.0	30.3	7.7	0.1	1.3	0.7
	비동거 · 비독립	(292)	26.0	52.1	4.5	5.8	0.7	11.0
	독립	(1,162)	44.4	44.5	4.4	1.9	1.3	3.5
점유형태	자가	(1,261)	70.6	22.5	5.5	0.6	0.1	0.8
	전세	(951)	46.2	45.6	5.0	2.2	0.6	0.3
	월세	(701)	20.1	56.8	8.4	6.8	4.6	3.3
	기타	(87)	56.3	24.1	8.0	9.2	1.1	1.1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19.0	61.4	5.3	4.6	1.8	7.9
정책 대상자	서울생활 새내기	(254)	23.6	51.6	6.7	7.1	1.6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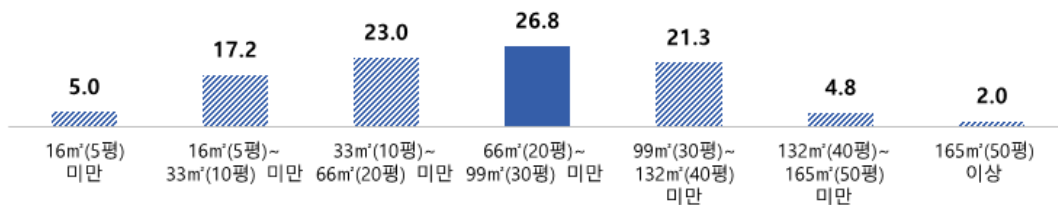
2. 거주 주택 크기

문.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66㎡(20평) ~ 99㎡(30평) 미만 26.8%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크기로 66㎡(20평) ~ 99㎡(30평) 미만이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3㎡(10평) ~ 66㎡(20평) 미만 23.0%, 99㎡(30평) ~ 132㎡(40평) 미만 2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점유형태가 월세, 독립한 1인가구, 서울에 거주한지 3년 이하인 경우 16㎡(5평) ~ 33㎡(10평)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16㎡ (5평) 미만	16㎡(5평) ~ 33㎡(10평) 미만	33㎡(10평) ~ 66㎡(20평) 미만	66㎡(20평) ~ 99㎡(30평) 미만	99㎡(30평) ~ 132㎡(40평) 미만	132㎡(40평) ~ 165㎡(50평) 미만	165㎡(50평) 이상
2020년 청년세대	(3,000)	5.0	17.2	23.0	26.8	21.3	4.8	2.0
2020년 기성세대	(500)	1.4	6.8	18.6	32.8	30.4	7.8	2.2
성	남성	(1,483)	4.9	17.3	22.4	25.2	23.5	4.5
	여성	(1,517)	5.1	17.1	23.5	28.4	19.1	5.1
연령	만18세~24세	(798)	6.3	19.4	19.9	22.3	24.2	5.6
	25세~29세	(784)	7.1	21.0	21.6	24.0	18.6	6.0
	30세~34세	(695)	4.7	15.0	27.1	27.5	20.0	3.7
	35세~39세	(723)	1.5	12.7	23.9	34.2	22.1	3.5
거주 권역	도심권	(154)	5.2	13.0	35.1	25.3	12.3	5.8
	동북권	(890)	4.0	16.0	23.0	31.9	18.5	5.5
	서북권	(362)	6.9	19.1	22.7	27.9	19.9	1.7
	서남권	(962)	5.6	21.5	21.8	24.2	21.5	4.4
	동남권	(632)	4.3	12.3	21.8	23.3	27.7	5.9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1.0	9.1	19.0	31.2	30.2	7.0
	비동거 · 비독립	(292)	18.8	34.6	23.6	12.3	8.6	1.7
	독립	(1,162)	6.9	23.7	28.1	24.5	12.6	2.6
점유형태	자가	(1,261)	0.4	4.4	14.8	32.7	35.4	8.6
	전세	(951)	4.2	20.5	29.4	27.8	14.3	2.9
	월세	(701)	13.8	35.4	29.4	15.0	5.3	0.7
	기타	(87)	9.2	19.5	19.5	26.4	20.7	1.1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15.7	47.2	26.3	7.3	2.9	0.2
정책 대상자	서울생활 새내기	(254)	18.5	37.4	21.7	13.4	6.3	2.0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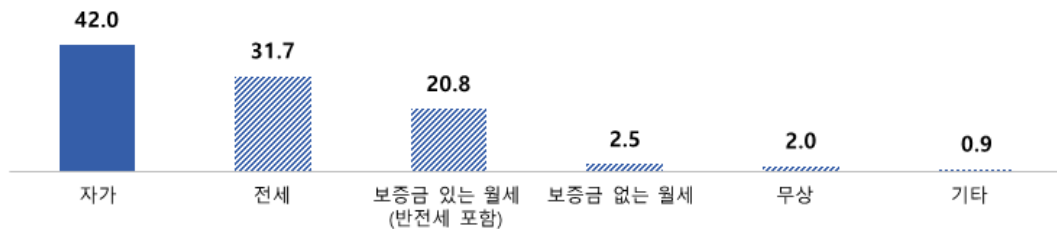
3. 거주 주택 점유 형태

문.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형태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자가 42.0% > 전세 31.7% > 보증금 있는 월세 20.8%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형태로 자가가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세 31.7%, 보증금 있는 월세 2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독립한 1인가구, 서울에 거주한지 3년 이하인 경우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포함)가 가장 높게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포함)	보증금 없는 월세	무상	기타
2020년 청년세대		(3,000)	42.0	31.7	20.8	2.5	2.0	0.9
2020년 기성세대		(500)	67.4	20.6	9.4	1.4	0.6	0.6
성	남성	(1,483)	44.0	30.1	20.0	2.7	2.4	0.9
	여성	(1,517)	40.1	33.2	21.7	2.4	1.6	1.0
연령	만18세~24세	(798)	43.1	27.3	22.1	4.1	2.4	1.0
	25세~29세	(784)	37.6	30.1	26.5	2.8	1.8	1.1
	30세~34세	(695)	41.9	34.4	19.3	1.9	2.0	0.6
	35세~39세	(723)	45.8	35.7	14.8	1.1	1.7	1.0
거주 권역	도심권	(154)	35.7	35.7	26.0	1.3	1.3	0.0
	동북권	(890)	45.5	30.2	18.3	2.7	2.2	1.0
	서북권	(362)	41.4	27.3	23.8	3.6	2.2	1.7
	서남권	(962)	41.2	32.4	21.1	2.8	1.8	0.7
	동남권	(632)	40.3	34.2	21.0	1.6	1.9	0.9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56.5	26.0	12.7	1.7	1.9	1.2
	비동거 · 비독립	(292)	17.5	21.9	46.6	8.6	3.4	2.1
	독립	(1,162)	29.0	41.7	25.1	2.2	1.6	0.3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10.2	41.5	42.6	3.5	2.0	0.2
정책 대상자	서울생활 새내기	(254)	13.0	33.5	42.1	8.3	2.4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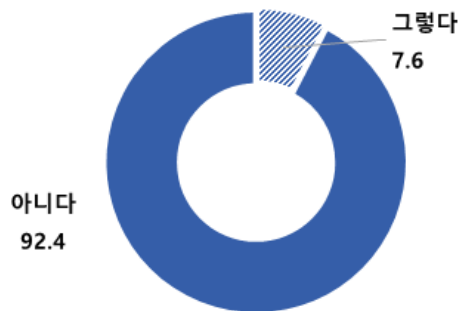
4. 셰어하우스 여부

문. 귀하는 셰어하우스처럼 주택에서 방 한 개나 일부를 빌리고 나머지 거실 등은 공용 공간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살고 있습니까?

셰어하우스에 살고 있다 7.6%

- 고시텔/고시원,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를 제외한 전체를 대상으로 셰어하우스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셰어하우스에 살고 있는 비율은 7.6%, 살고 있지 않은 비율은 92.4%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도심권에서 셰어하우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Base: 고시텔/고시원, 자가 응답자를 제외한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고시텔/고시원,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를 제외한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그렇다	아니다
2020년 청년세대		(1,700)	7.6	92.4
성	남성	(808)	8.5	91.5
	여성	(892)	6.8	93.2
연령	만18세~24세	(442)	10.0	90.0
	25세~29세	(469)	8.5	91.5
	30세~34세	(397)	5.8	94.2
	35세~39세	(392)	5.9	94.1
거주 권역	도심권	(97)	12.4	87.6
	동북권	(476)	7.6	92.4
	서북권	(203)	8.4	91.6
	서남권	(554)	6.3	93.7
	동남권	(370)	8.1	91.9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672)	7.9	92.1
	비동거 · 비독립	(224)	13.8	86.2
	독립	(804)	5.7	94.3
점유형태	전세	(945)	6.5	93.5
	월세	(669)	9.3	90.7
	기타	(86)	8.1	91.9
가구유형	1인가구,경제독립	(387)	5.2	94.8
정책 대상자	룸메이트 가구	(181)	15.5	84.5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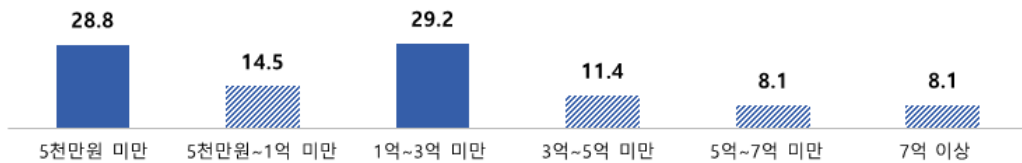
5. 거주 주택 가격

문.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가격 또는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전세 보증금 평균 1억 8천만원, 월세 보증금 평균 2천 6백만원 수준

-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자가/전세/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가격/보증금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억~3억 미만이라는 응답이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천만원 미만이 28.8%로 나타났으며, 평균 주택 가격/보증금은 2억 3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 주택 가격이 평균 5억 3천만원, 전세인 경우 보증금 평균 1억 8천만원, 월세인 경우 보증금 평균 2천 6만원으로 나타남.

(Base: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자가/전세/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응답자, 단위: %)



통계표

(Base: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자가/전세/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응답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5천만원 미만	5천만원~1억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7억 미만	7억 이상	평균 (만원)
2020년 청년세대	(1,365)	28.8	14.5	29.2	11.4	8.1	8.1	23,411
성								
남성	(690)	29.3	13.6	27.5	11.7	9.1	8.7	24,215
여성	(675)	28.3	15.4	30.8	11.0	7.0	7.6	22,588
연령								
만18세~24세	(173)	56.6	15.6	17.3	2.3	5.2	2.9	10,884
25세~29세	(315)	44.8	15.9	27.3	6.3	2.9	2.9	12,443
30세~34세	(386)	22.0	16.1	35.5	11.7	7.0	7.8	23,678
35세~39세	(491)	14.1	12.0	29.5	17.5	13.2	13.6	34,650
거주 권역								
도심권	(77)	41.6	7.8	29.9	3.9	7.8	9.1	21,444
동북권	(392)	28.1	15.1	28.8	13.5	8.4	6.1	21,621
서북권	(146)	34.9	14.4	27.4	11.0	3.4	8.9	20,552
서남권	(474)	28.3	15.6	31.6	11.6	6.5	6.3	20,926
동남권	(276)	23.9	13.8	26.1	10.1	12.7	13.4	32,279
독립여부								
비동거·비독립	(251)	51.8	14.3	20.3	5.6	4.0	4.0	13,120
독립	(1,114)	23.6	14.5	31.1	12.7	9.0	9.1	25,729
점유형태								
자가	(388)	0.3	0.0	29.1	21.4	20.6	28.6	53,316
전세	(549)	11.3	18.2	51.9	13.1	5.5	0.0	18,470
월세	(428)	77.1	22.9	0.0	0.0	0.0	0.0	2,638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27)	44.7	22.5	25.1	4.0	2.3	1.4	10,097
정책 대상자								
서울생활 새내기	(181)	47.5	19.9	25.4	2.8	3.9	0.6	9,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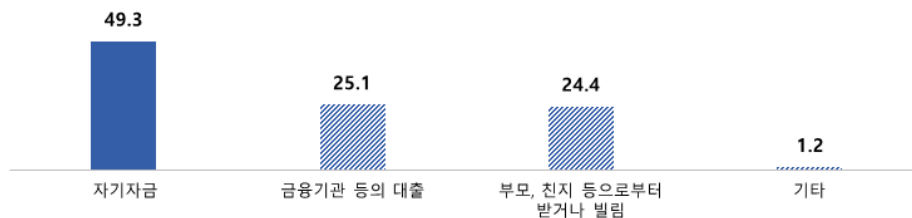
6. 거주 주택 자금 마련 방법

문. 현재 살고 계신 주택 자금(구입 비용, 보증금, 월세 모두 포함)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다?

자기자금 49.3% > 금융기관 등의 대출 25.1%

-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독립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이라는 응답이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금융기관 등의 대출 25.1%, 부모, 친지 등으로부터 받거나 빌림 24.4%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만18세~24세, 비동거·비독립, 서울에 거주한지 3년 이하인 경우 부모, 친지 등으로부터 받거나 빌림이 자기자금보다 높게 나타남. 독립한 1인가구의 경우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과 부모, 친지 등으로부터 받거나 빌림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평균%, Base: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독립 응답자, 단위: %)



통계표

(평균%, Base: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독립 응답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자기자금	금융기관 등의 대출	부모, 친지 등으로부터 받거나 빌림	기타
2020년 청년세대		(1,415)	49.3	25.1	24.4	1.2
2020년 기성세대		(422)	49.0	18.1	29.9	3.0
성	남성	(716)	50.2	25.6	23.6	0.7
	여성	(699)	48.4	24.6	25.3	1.7
연령	만18세~24세	(191)	27.6	16.1	53.5	2.8
	25세~29세	(332)	39.2	24.4	34.2	2.2
	30세~34세	(393)	53.4	26.7	19.2	0.7
	35세~39세	(499)	61.2	27.7	10.8	0.3
거주 권역	도심권	(78)	44.9	22.9	31.5	0.6
	동북권	(407)	48.1	24.1	26.4	1.3
	서북권	(156)	49.0	23.4	25.6	2.1
	서남권	(490)	50.2	26.3	22.6	0.9
	동남권	(284)	50.8	25.9	22.0	1.3
독립여부	비동거·비독립	(276)	30.7	13.1	53.7	2.6
	독립	(1,139)	53.8	28.0	17.3	0.9
점유형태	자가	(388)	54.5	25.7	18.4	1.3
	전세	(549)	43.6	36.8	18.6	1.0
	월세	(478)	51.7	11.1	35.9	1.3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43)	53.3	23.7	21.9	1.0
정책 대상자	서울생활 새내기	(200)	35.9	23.1	37.7	3.4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7. 월 평균 주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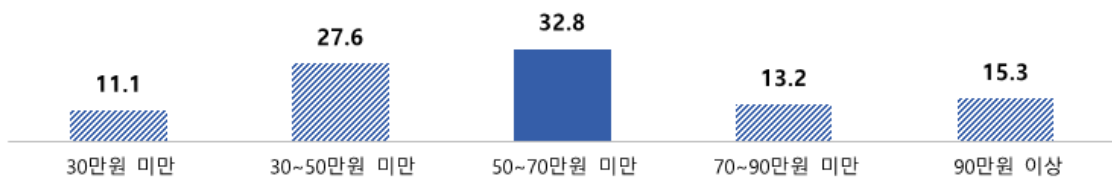
문. 현재 귀하의 월 평균 주거비(월세, 관리비가 있는 경우는 합산, 단 주택 관련 대출 상환 및 이자 비용은 제외)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월 평균 주거비는 57만원 수준

-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월세에 거주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주거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주거비 구간은 50~70만원 미만인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평균 57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동남권의 경우 평균 67만원으로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Base: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월세에 거주하는 응답자, 단위: %)

평균 : 57만원



통계표

(Base: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월세에 거주하는 응답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70만원 미만	70~90만원 미만	90만원 이상	평균 (만원)
2020년 청년세대		(478)	11.1	27.6	32.8	13.2	15.3	57
성	남성	(239)	11.7	28.5	37.2	9.6	13.0	55
	여성	(239)	10.5	26.8	28.5	16.7	17.6	60
연령	만18세~24세	(120)	12.5	25.8	37.5	10.8	13.3	54
	25세~29세	(158)	12.0	32.3	32.3	13.3	10.1	54
	30세~34세	(108)	10.2	25.9	32.4	16.7	14.8	59
	35세~39세	(92)	8.7	23.9	28.3	12.0	27.2	66
거주 권역	도심권	(29)	6.9	24.1	31.0	10.3	27.6	63
	동북권	(126)	11.9	27.8	36.5	11.1	12.7	56
	서북권	(64)	15.6	18.8	35.9	23.4	6.3	55
	서남권	(162)	9.9	38.3	32.1	9.3	10.5	53
	동남권	(97)	10.3	16.5	27.8	16.5	28.9	67
독립여부	비동거·비독립	(161)	13.0	25.5	34.2	11.2	16.1	57
	독립	(317)	10.1	28.7	32.2	14.2	14.8	57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209)	10.0	30.6	35.4	14.4	9.6	54
정책 대상자	서울생활 새내기	(116)	11.2	37.9	36.2	6.0	8.6	50

8. 향후 2년 내 이사 계획 여부

문. 귀하는 향후 2년 이내에 이사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 49.6%, 계획이 없다 50.4%

- 향후 2년 이내에 이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49.6%,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50.4%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만18세~24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와 도심권, 서남권, 동남권, 비동거·비독립, 독립, 점유형태가 전세, 월세, 독립한 1인 가구에서 향후 2년 이내에 이사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49.6	50.4
성	남성	(1,483)	49.2	50.8
	여성	(1,517)	50.0	50.0
연령	만18세~24세	(798)	43.0	57.0
	25세~29세	(784)	51.3	48.7
	30세~34세	(695)	50.5	49.5
	35세~39세	(723)	54.2	45.8
	40세 이상	(800)	58.3	41.7
거주 권역	도심권	(154)	52.6	47.4
	동북권	(890)	48.0	52.0
	서북권	(362)	43.6	56.4
	서남권	(962)	50.8	49.2
	동남권	(632)	52.7	47.3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37.3	62.7
	비동거·비독립	(292)	59.9	40.1
	독립	(1,162)	63.4	36.6
점유형태	자가	(1,261)	30.6	69.4
	전세	(951)	61.8	38.2
	월세	(701)	69.0	31.0
	기타	(87)	34.5	65.5
	1인가구, 경제독립	(453)	67.5	32.5
가구유형	2인 이상, 동거	(1,546)	37.3	62.7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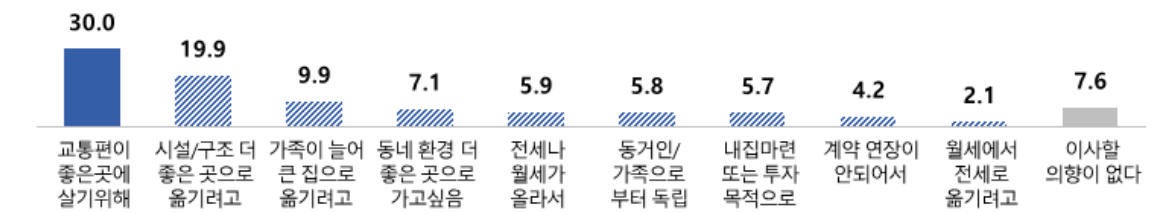
9-1. 이사하는 이유_1순위

문. 귀하가 이사를 하시게 된다면 이사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교/직장과 가까운 곳 또는 교통편이 좋은 곳에 살기 위해 30.0%

- 이사를 하게 될 주된 이유 1순위로 학교/직장과 가까운 곳 또는 교통편이 좋은 곳에 살기 위해서가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시설/구조 더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19.9%, 가족이 늘어 큰 집으로 옮기려고 9.9% 등의 순으로 나타남.

(Base: 전체, 1%미만 응답 제외,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1% 미만 응답 제외,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교통편이 좋은 곳에 살기 위해	시설/구조 더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가족이 늘어 큰 집으로 옮기려고	동네환경 더 좋은 곳으로 가고싶음	전세나 월세가 올라서	동거인/가족으로 부터 독립	내집마련 또는 투자 목적으로	계약 연장이 안되어서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려고	이사를 할 의향이 없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30.0	19.9	9.9	7.1	5.9	5.8	5.7	4.2	2.1	7.6
성	남성	(1,483)	32.4	19.0	9.6	8.4	6.0	4.1	5.7	3.9	7.8
	여성	(1,517)	27.8	20.7	10.3	5.8	5.8	7.4	5.7	4.5	7.5
연령	만18세~24세	(798)	36.6	19.0	3.0	5.6	6.0	7.5	4.6	2.9	10.3
	25세~29세	(784)	32.0	17.6	9.2	7.5	6.3	6.3	3.2	4.3	7.7
	30세~34세	(695)	25.5	19.9	14.0	7.2	5.8	5.6	7.8	5.6	6.0
	35세~39세	(723)	25.0	23.2	14.5	8.0	5.5	3.5	7.5	4.3	6.2
거주 권역	도심권	(154)	33.1	22.1	11.0	6.5	3.2	5.8	5.2	3.9	4.5
	동북권	(890)	29.8	20.7	8.7	6.1	5.1	6.3	6.6	4.4	8.0
	서북권	(362)	30.9	18.5	10.2	5.5	8.3	6.6	4.1	5.2	8.3
	서남권	(962)	30.0	18.8	11.2	8.2	5.6	5.3	5.7	2.5	8.0
독립여부	동남권	(632)	29.1	20.6	9.3	7.8	6.8	5.2	5.2	6.2	7.0
	부모와 동거	(1,546)	28.7	19.7	6.9	6.3	5.2	10.2	5.8	3.4	11.1
	비동거 · 비독립	(292)	46.2	14.0	5.8	6.2	5.8	2.7	3.1	2.7	5.8
	독립	(1,162)	27.7	21.5	15.1	8.3	6.8	0.7	6.1	5.7	3.5
점유형태	자가	(1,261)	32.3	20.1	10.8	7.8	0.8	8.4	5.8	0.2	12.5
	전세	(951)	27.1	20.2	10.8	6.7	10.8	3.0	8.1	8.6	2.6
	월세	(701)	30.7	20.3	7.3	7.0	9.1	3.3	2.1	5.3	4.3
	기타	(87)	24.1	9.2	9.2	1.1	0.0	17.2	5.7	6.9	18.4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34.7	24.7	9.5	6.0	7.9	0.2	2.2	4.4	3.1
	2인이상, 동거	(1,546)	28.7	19.7	6.9	6.3	5.2	10.2	5.8	3.4	11.1

※ 1% 미만 응답 : '아웃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0.5%, '집주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0.4%, 기타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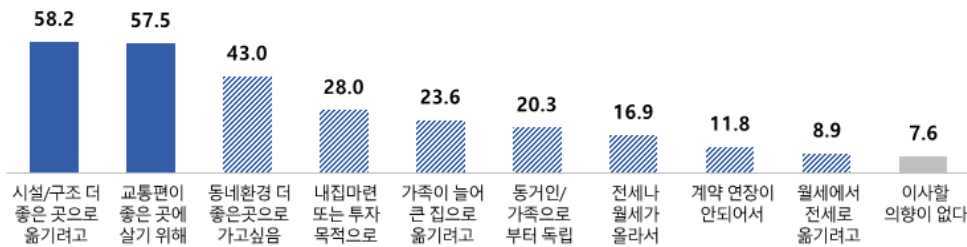
9-2. 이사하는 이유_1+2+3순위_복수응답

문. 귀하가 이사를 하시게 된다면 이사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설/구조 등이 더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58.2%

- 이사를 하게 될 주된 이유 1+2+3순위로 살고 있는 집보다 내부 시설/구조 등이 더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가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남성, 20대, 도심권, 동북권, 서남권, 부모와 동거, 비동거·비독립, 자가, 2인이상·동거인 경우는 교통편이 좋은 곳에 살기위해가 더 높게 나타남.

(복수응답, Base: 전체, 4%미만 응답 제외, 단위: %)



통계표

(복수응답, Base: 전체, 4% 미만 응답 제외, 단위: %)

구분	사레수 (명)	시설/구조 더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교통편이 좋은 곳에 살기위해	동네환경 더 좋은 곳으로 가고싶음	내집마련 또는 투자 목적으로	가족이 늘어 큰 집으로 옮기려고	동거인/가족으로 부터 독립	전세나 월세가 올라서	계약 연장이 안되어서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려고	이사할 의향이 없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58.2	57.5	43.0	28.0	23.6	20.3	16.9	11.8	8.9	7.6
성	남성	(1,483)	55.9	57.8	45.4	28.5	24.4	17.1	17.7	12.0	7.8
	여성	(1,517)	60.4	57.3	40.5	27.5	22.8	23.4	16.2	11.5	7.5
연령	만18세~24세	(798)	56.4	64.3	42.9	23.4	9.5	29.3	13.7	10.8	10.3
	25세~29세	(784)	56.1	56.4	41.5	26.1	20.7	21.2	18.9	12.6	7.7
	30세~34세	(695)	58.4	56.0	39.7	32.1	32.8	17.8	18.4	12.4	6.0
	35세~39세	(723)	62.1	52.8	47.9	31.0	33.5	11.6	17.0	11.3	6.2
거주 권역	도심권	(154)	56.5	58.4	40.9	37.7	22.1	20.1	14.9	13.0	4.5
	동북권	(890)	58.9	59.6	43.6	27.9	22.4	19.9	14.3	11.5	8.0
	서북권	(362)	58.3	55.0	42.0	24.9	24.6	22.4	19.3	14.6	8.3
	서남권	(962)	56.9	57.7	44.9	27.3	24.8	20.8	16.1	8.9	8.0
	동남권	(632)	59.5	55.7	40.2	28.5	23.3	18.8	21.0	14.6	7.0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53.2	55.4	40.6	28.5	18.3	33.1	13.8	9.9	11.1
	비동거·비독립	(292)	56.8	65.8	43.5	20.9	15.4	18.2	18.8	15.1	5.8
	독립	(1,162)	65.1	58.3	46.0	29.1	32.7	3.8	20.7	13.4	3.5
점유형태	자가	(1,261)	56.6	62.1	45.9	27.9	28.1	27.6	3.2	2.2	12.5
	전세	(951)	60.7	55.0	42.2	32.9	23.2	14.6	30.2	21.6	2.6
	월세	(701)	59.9	53.1	41.4	21.0	16.4	12.3	25.0	15.7	30.4
	기타	(87)	39.1	55.2	21.8	31.0	20.7	40.2	6.9	11.5	4.6
가구유형	1인가구, 제독립	(453)	68.9	66.0	44.4	26.7	21.4	2.2	22.3	13.0	3.1
	2인이상, 동거	(1,546)	53.2	55.4	40.6	28.5	18.3	33.1	13.8	9.9	11.1

※ 4% 미만 응답: '이웃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3.3%, '집주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3.2%, 기타 2.0%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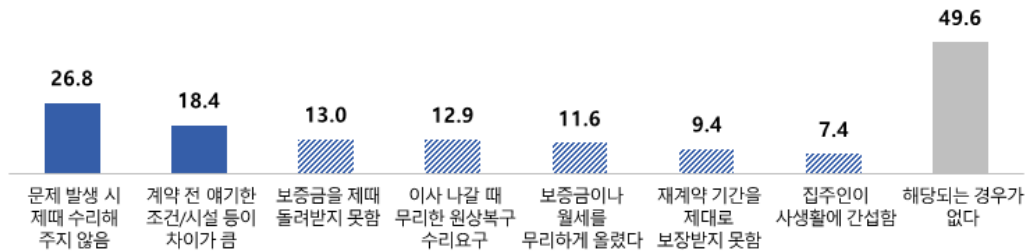
10. 독립 후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겪은 어려움_복수응답

문. 귀하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기 시작하면서 혹은 독립한 이후에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실 때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골라 주세요.

고장 등 문제 발생 시 제때 수리해 주지 않았다 26.8%

- 부모와 비동거/독립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독립 후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장 등 문제 발생 시 제때 수리해 주지 않았다가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계약 전 애기한 조건/시설 등이 차이가 큼 18.4%,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함 13.0%, 이사 나갈 때 무리한 원상복구 수리요구 1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도심권에서 문제 발생시 제때 수리해주지 않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복수응답, Base: 부모와 비동거/독립한 응답자, 기타 0.7% 제외, 단위: %)



통계표

(복수응답, Base: 부모와 비동거/독립한 응답자, 기타 0.7% 제외,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문제 발생 시 제때 수리해 주지 않음	계약 전 애기한 조건/시설 등이 차이가 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함	이사 나갈 때 무리한 원상복구 수리요구	보증금이나 월세를 무리하게 올렸다	재계약 기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함	집주인이 사생활에 간섭함	해당되는 경우가 없다
2020년 청년세대	(1,454)	26.8	18.4	13.0	12.9	11.6	9.4	7.4	49.6
성									
남성	(738)	25.2	16.8	12.5	13.8	11.0	8.9	6.2	51.5
여성	(716)	28.4	20.0	13.5	11.9	12.2	9.8	8.7	47.6
연령									
만18세~24세	(200)	23.0	18.0	9.0	13.0	8.5	5.0	9.0	49.5
25세~29세	(343)	30.0	19.2	12.2	11.7	9.9	7.0	9.9	47.8
30세~34세	(401)	26.9	16.7	16.7	12.7	10.7	9.0	6.7	50.6
35세~39세	(510)	25.9	19.2	12.2	13.7	14.5	12.9	5.7	50.0
거주 권역									
도심권	(80)	38.8	17.5	8.8	23.8	11.3	12.5	10.0	38.8
동북권	(417)	25.9	16.1	14.4	12.0	10.3	9.4	7.9	51.1
서북권	(163)	28.8	15.3	11.7	6.7	11.0	9.2	8.0	48.5
서남권	(500)	26.6	18.8	13.6	12.8	14.0	9.8	8.0	49.2
동남권	(294)	23.8	22.8	11.9	14.6	9.5	7.8	4.8	51.7
독립여부									
비동거/비독립	(292)	25.3	18.5	8.2	11.6	10.3	7.2	10.3	50.0
독립	(1,162)	27.1	18.3	14.2	13.2	11.9	9.9	6.7	49.5
점유형태									
자가	(388)	25.5	19.3	13.7	17.3	11.1	11.1	5.4	50.5
전세	(549)	26.6	17.5	12.8	9.7	14.0	10.4	6.2	49.0
월세	(478)	29.3	19.2	13.4	13.6	9.6	7.3	10.9	47.1
기타	(39)	10.3	10.3	5.1	5.1	5.1	2.6	2.6	79.5
가구유형	1인가구,경제독립 (453)	28.9	18.8	15.0	10.6	10.8	8.8	9.7	49.2

11-1. 독립 후 주거에서 겪은 불편함_1순위

문. 귀하가 혼자 독립해 사시면서 주거에서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집이 좁아 공간이 부족하다 40.6%

- 1인 가구 응답자를 대상으로 독립 후 주거에서 불편한 점 1순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집이 좁아 공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방음이 잘 안된다 11.3%,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1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여성의 경우 안전성이 떨어진다가 16.1%로 남성(5.8%)에 비해 10.3%p 높게 나타남.

(Base: 1인 가구 응답자, 기타 0.8% 제외, 단위: %)



통계표

(Base: 1인 가구 응답자, 기타 0.8% 제외,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집이 좁아 공간이 부족하다	방음이 잘 안된다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위생 관리가 어렵다	문제 발생 시 관리가 어렵다	더위나 추위에 취약하다	택배 받기가 어렵다	해당되는 경우가 없다
2020년 청년세대	(603)	40.6	11.3	10.4	6.3	6.1	5.6	5.1	13.6
성									
남성	(329)	39.5	9.7	5.8	6.7	5.8	6.7	5.5	19.8
여성	(274)	42.0	13.1	16.1	5.8	6.6	4.4	4.7	6.2
연령									
만18세~24세	(101)	43.6	11.9	7.9	12.9	4.0	4.0	2.0	11.9
25세~29세	(203)	44.8	6.9	11.8	3.0	8.4	5.9	5.4	12.8
30세~34세	(174)	39.1	11.5	12.1	5.7	4.6	7.5	6.3	13.2
35세~39세	(125)	33.6	17.6	8.0	7.2	6.4	4.0	5.6	16.8
거주 권역									
도심권	(41)	34.1	4.9	9.8	14.6	4.9	12.2	2.4	14.6
동북권	(154)	46.1	8.4	5.8	3.9	7.8	7.8	7.1	11.0
서북권	(77)	37.7	9.1	10.4	11.7	9.1	2.6	6.5	13.0
서남권	(226)	41.2	13.7	14.2	5.8	5.3	4.0	3.1	12.4
동남권	(105)	36.2	14.3	9.5	3.8	3.8	5.7	6.7	20.0
독립여부									
비동거·비독립	(150)	36.7	9.3	11.3	8.0	4.7	7.3	6.7	14.7
독립	(453)	41.9	11.9	10.2	5.7	6.6	5.1	4.6	13.2
점유형태									
자가	(58)	27.6	10.3	6.9	6.9	6.9	5.2	8.6	27.6
전세	(218)	42.7	12.8	8.7	4.6	6.4	6.0	5.5	12.8
월세	(309)	42.1	10.7	12.6	7.4	5.8	5.5	4.5	10.0
기타	(18)	33.3	5.6	5.6	5.6	5.6	5.6	0.0	38.9
가구유형									
1인가구,경제독립	(453)	41.9	11.9	10.2	5.7	6.6	5.1	4.6	13.2
정책 대상자									
서울생활 새내기	(132)	53.8	12.9	6.8	6.1	7.6	3.0	3.0	6.1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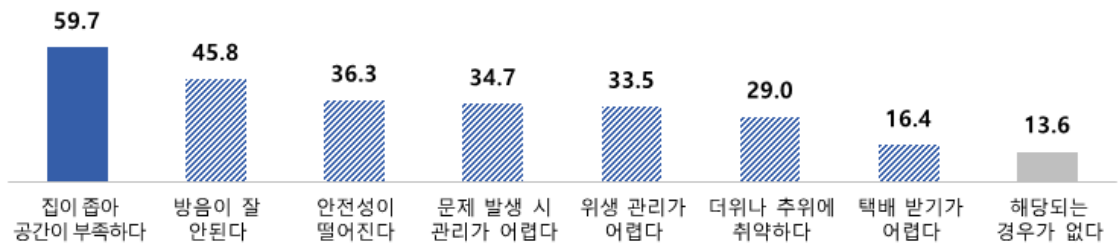
11-2. 독립 후 주거에서 겪은 불편함_1+2+3순위_복수응답

문. 귀하가 혼자 독립해 사시면서 주거에서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 주세요.

집이 좁아 공간이 부족하다 59.7%

- 1인 가구 응답자를 대상으로 독립 후 주거에서 불편한 점 1+2+3순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집이 좁아 공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59.7%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방음이 잘 안된다 45.8%,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3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남성과 여성 간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응답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또한 서남권에서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비율이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복수응답, Base: 1인 가구 응답자, 기타 2.5% 제외, 단위: %)



통계표

(복수응답, Base: 1인 가구 응답자, 기타 2.5% 제외,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집이 좁아 공간이 부족하다	방음이 잘 안된다	안전성이 떨어진다	문제 발생 시 관리가 어렵다	위생 관리가 어렵다	더위나 추위에 취약하다	택배 받기가 어렵다	해당되는 경우가 없다
2020년 청년세대		(603)	59.7	45.8	36.3	34.7	33.5	29.0	16.4	13.6
성	남성	(329)	54.7	39.5	22.5	32.8	38.0	32.2	17.0	19.8
	여성	(274)	65.7	53.3	52.9	36.9	28.1	25.2	15.7	6.2
연령	만18세~24세	(101)	63.4	46.5	33.7	42.6	33.7	23.8	15.8	11.9
	25세~29세	(203)	63.5	44.8	36.5	32.5	35.0	32.0	13.8	12.8
	30세~34세	(174)	58.6	48.3	40.2	31.6	34.5	25.9	18.4	13.2
	35세~39세	(125)	52.0	43.2	32.8	36.0	29.6	32.8	18.4	16.8
거주 권역	도심권	(41)	43.9	43.9	24.4	43.9	43.9	39.0	12.2	14.6
	동북권	(154)	66.2	43.5	32.5	39.0	33.1	31.8	15.6	11.0
	서북권	(77)	54.5	50.6	37.7	36.4	29.9	23.4	23.4	13.0
	서남권	(226)	64.2	50.4	41.2	31.4	32.7	25.7	14.2	12.4
	동남권	(105)	50.5	36.2	35.2	30.5	34.3	32.4	19.0	20.0
독립여부	비동거·비독립	(150)	56.0	48.0	30.7	38.7	32.0	28.0	18.0	14.7
	독립	(453)	60.9	45.0	38.2	33.3	34.0	29.4	15.9	13.2
점유형태	자가	(58)	41.4	27.6	27.6	29.3	31.0	29.3	27.6	27.6
	전세	(218)	65.6	46.3	38.1	33.5	35.8	27.1	13.3	12.8
	월세	(309)	59.9	49.8	36.6	37.9	33.0	31.1	16.8	10.0
	기타	(18)	44.4	27.8	38.9	11.1	22.2	16.7	11.1	38.9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60.9	45.0	38.2	33.3	34.0	29.4	15.9	13.2
정책 대상자	서울생활 새내기	(132)	71.2	52.3	31.1	41.7	34.8	31.1	15.2	6.1

12. 만 18세 이전에 가장 오래 거주한 지역

문. 귀하가 만 18세 이전에 가장 오래 거주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서울 75.2% >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15.9% > 경기/인천 8.9%

- 만 18세 이전에 가장 오래 거주한 지역으로 서울이 7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은 15.9%, 경기/인천은 8.9%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동북권의 경우 가장 오래 거주한 지역으로 서울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리고 독립한 1인가구의 경우 서울과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서울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경기/인천
2020년 청년세대		(3,000)	75.2	15.9	8.9
성	남성	(1,483)	75.0	15.8	9.2
	여성	(1,517)	75.4	16.0	8.6
연령	만18세~24세	(798)	78.3	13.3	8.4
	25세~29세	(784)	73.1	17.9	9.1
	30세~34세	(695)	71.5	18.1	10.4
	35세~39세	(723)	77.6	14.5	7.9
거주 권역	도심권	(154)	74.0	14.3	11.7
	동북권	(890)	78.5	14.8	6.6
	서북권	(362)	75.4	14.4	10.2
	서남권	(962)	71.6	18.1	10.3
	동남권	(632)	76.1	15.3	8.5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90.8	4.5	4.7
	비동거 · 비독립	(292)	45.9	38.0	16.1
	독립	(1,162)	61.8	25.5	12.7
점유형태	자가	(1,261)	87.9	6.7	5.3
	전세	(951)	70.6	18.5	10.9
	월세	(701)	58.6	28.4	13.0
	기타	(87)	74.7	19.5	5.7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47.9	37.7	14.3
정책 대상자	서울생활 새내기	(254)	9.1	48.8	42.1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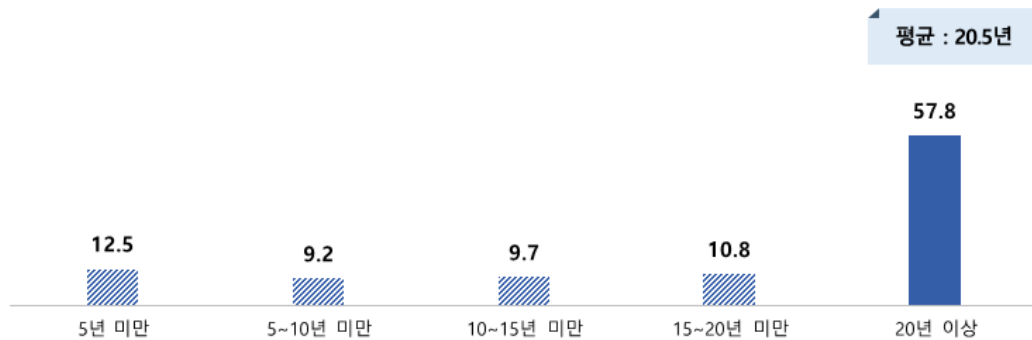
13. 서울 거주 기간

문. 서울에서 산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전체 응답자의 서울 거주 기간은 평균 20.5년 정도

- 서울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20년 이상이 5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체 평균 20.5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동북권,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 평균 서울 거주기간이 높게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년 이상	평균 (년)
2020년 청년세대		(3,000)	12.5	9.2	9.7	10.8	57.8	20.5
성	남성	(1,483)	13.1	9.6	9.2	11.2	56.8	20.3
	여성	(1,517)	11.9	8.8	10.2	10.3	58.7	20.6
연령	만18세~24세	(798)	17.9	7.3	7.0	23.3	44.5	15.7
	25세~29세	(784)	16.7	9.8	7.7	5.2	60.6	18.7
	30세~34세	(695)	9.8	13.5	13.5	4.6	58.6	21.3
	35세~39세	(723)	4.7	6.6	11.2	8.9	68.6	26.7
거주 권역	도심권	(154)	19.5	7.8	11.0	7.1	54.5	19.4
	동북권	(890)	10.6	8.7	9.1	11.3	60.3	21.5
	서북권	(362)	13.5	9.4	10.2	12.2	54.7	20.4
	서남권	(962)	15.2	8.6	9.4	9.4	57.5	19.7
	동남권	(632)	9.0	11.2	10.4	12.2	57.1	20.4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4.7	5.6	6.1	13.9	69.7	22.7
	비동거 · 비독립	(292)	42.1	13.7	8.9	9.6	25.7	11.4
	독립	(1,162)	15.5	13.0	14.7	6.9	49.9	19.7
점유형태	자가	(1,261)	4.7	5.8	6.6	10.8	72.2	23.8
	전세	(951)	12.8	10.9	12.3	10.9	53.0	19.8
	월세	(701)	25.8	13.3	12.0	10.7	38.2	15.3
	기타	(87)	16.1	8.0	8.0	9.2	58.6	20.7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23.6	17.4	17.9	6.4	34.7	15.4
	2인이상, 동거	(1,546)	4.7	5.6	6.1	13.9	69.7	22.7

14. 부모 거주 지역

문. 귀하의 부모님(부모님이 안계신 경우 조부모 등 다른 가족)께서는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십니까?

서울 74.9% >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16.4% > 경기/인천 8.7%

- 부모의 거주 지역으로 서울이 7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은 16.4%, 경기/인천은 8.7%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서남권의 경우 부모의 거주 지역으로 서울 외 지역 비율이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서울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경기/인천
2020년 청년세대		(3,000)	74.9	16.4	8.7
성	남성	(1,483)	74.2	16.1	9.7
	여성	(1,517)	75.6	16.6	7.8
연령	만18세~24세	(798)	83.3	11.5	5.1
	25세~29세	(784)	74.4	17.0	8.7
	30세~34세	(695)	69.8	19.9	10.4
	35세~39세	(723)	71.1	17.7	11.2
거주 권역	도심권	(154)	76.0	13.0	11.0
	동북권	(890)	77.2	14.6	8.2
	서북권	(362)	76.2	14.1	9.7
	서남권	(962)	69.6	20.2	10.2
	동남권	(632)	78.6	15.2	6.2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100.0	0.0	0.0
	비동거 · 비독립	(292)	39.0	43.5	17.5
	독립	(1,162)	50.5	31.3	18.2
점유형태	자가	(1,261)	91.4	4.8	3.8
	전세	(951)	68.2	19.8	12.0
	월세	(701)	53.6	32.8	13.6
	기타	(87)	80.5	13.8	5.7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36.2	43.5
2인이상, 동거		(1,546)	100.0	0.0	0.0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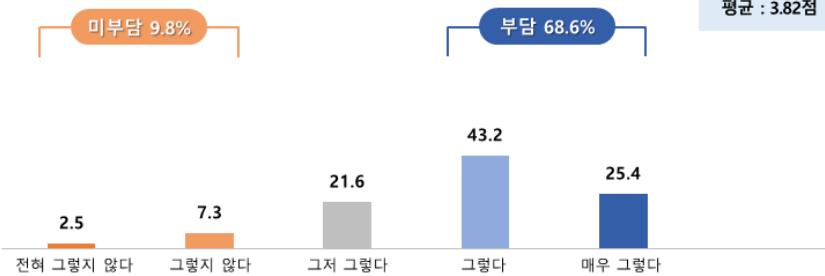
15-1. 주거비 부담 정도

문. 나의 소득을 고려할 때 주거비가 부담이 된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라면)
나의 현재 또는 기대 소득을 생각할 때 주거비가 부담이 될 것 같다.

소득을 고려한 주거비 부담 정도는 5점 평균 3.82점

- 현재 소득 및 기대 소득 대비 주거비에 대한 부담 정도는 평균 3.82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부담된다는 비율이 68.6%로 부담되지 않는다는 비율 9.8%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도심권과 비동거·비독립, 점유형태가 전세/월세인 경우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기성세대의 경우, 지금의 청년세대보다 본인이 청년세대였을 때의 주거비 부담이 9.4%p 낮게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그저 그렇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부담되지 않음 (①+②)	보통 ③	부담 (④+⑤)	5점 평균 (점)
2020년 청년세대		(3,000)	2.5	7.3	21.6	43.2	25.4	9.8	21.6	68.6	3.82
2020년 기성세대		(500)	3.8	15.0	22.0	41.4	17.8	18.8	22.0	59.2	3.54
성	남성	(1,483)	2.8	8.9	25.1	42.3	20.8	11.7	25.1	63.2	3.69
	여성	(1,517)	2.1	5.7	18.3	44.1	29.9	7.8	18.3	74.0	3.94
연령	만18세~24세	(798)	2.8	8.1	22.6	44.2	22.3	10.9	22.6	66.5	3.75
	25세~29세	(784)	1.9	6.5	19.8	42.6	29.2	8.4	19.8	71.8	3.91
	30세~34세	(695)	1.4	6.8	22.2	41.2	28.5	8.2	22.2	69.6	3.88
	35세~39세	(723)	3.7	7.6	22.1	44.8	21.7	11.3	22.1	66.5	3.73
거주 권역	도심권	(154)	2.6	3.2	23.4	43.5	27.3	5.8	23.4	70.8	3.90
	동북권	(890)	3.4	8.5	20.7	41.3	26.1	11.9	20.7	67.4	3.78
	서북권	(362)	1.9	6.9	22.1	42.3	26.8	8.8	22.1	69.1	3.85
	서남권	(962)	1.6	6.9	22.0	42.9	26.6	8.4	22.0	69.5	3.86
	동남권	(632)	2.8	7.3	21.7	46.8	21.4	10.1	21.7	68.2	3.77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2.5	7.4	20.3	43.5	26.3	9.8	20.3	69.9	3.84
	비동거 · 비독립	(292)	1.4	5.5	22.6	42.1	28.4	6.8	22.6	70.5	3.91
점유형태	독립	(1,162)	2.8	7.6	23.1	43.1	23.4	10.3	23.1	66.5	3.77
	자가	(1,261)	4.2	8.4	24.1	41.2	22.0	12.6	24.1	63.3	3.69
	전세	(951)	1.1	6.3	19.2	46.9	26.5	7.4	19.2	73.4	3.91
	월세	(701)	1.3	5.7	21.5	43.2	28.2	7.0	21.5	71.5	3.91
	기타	(87)	2.3	13.8	12.6	32.2	39.1	16.1	12.6	71.3	3.92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2.0	9.7	21.4	41.1	25.8	11.7	21.4	66.9	3.79
	2인이상, 동거	(1,546)	2.5	7.4	20.3	43.5	26.3	9.8	20.3	69.9	3.84

※ 기성세대의 경우 청년시절 기준 주거비 부담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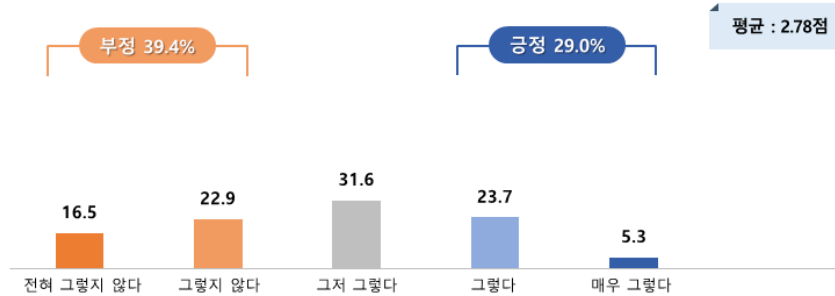
15-2. 주거 마련 시 가족 지원 여부

문. 주거 마련(자가 구입, 전월세 등) 등을 위해 부모님이나 가족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부모님/가족의 지원 기대 정도는 5점 평균 2.78점

- 주거 마련을 위해 부모님/가족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균 2.78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부정 비율이 39.4%로 긍정 비율 29.0%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만18세~24세, 비동거·비독립인 경우 긍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그저 그렇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부정 (①+②)	보통 ③	긍정 (④+⑤)	5점 평균 (점)
2020년 청년세대		(3,000)	16.5	22.9	31.6	23.7	5.3	39.4	31.6	29.0	2.78
2020년 기성세대		(500)	17.0	19.0	26.4	33.4	4.2	36.0	26.4	37.6	2.89
성	남성	(1,483)	13.6	21.6	35.5	23.1	6.1	35.2	35.5	29.3	2.87
	여성	(1,517)	19.3	24.1	27.9	24.2	4.5	43.4	27.9	28.7	2.70
연령	만18세~24세	(798)	8.6	21.8	33.2	30.5	5.9	30.5	33.2	36.3	3.03
	25세~29세	(784)	18.4	19.1	33.0	23.2	6.3	37.5	33.0	29.5	2.80
	30세~34세	(695)	16.8	25.3	31.5	21.9	4.5	42.2	31.5	26.3	2.72
	35세~39세	(723)	22.7	25.9	28.6	18.4	4.4	48.5	28.6	22.8	2.56
거주 권역	도심권	(154)	11.7	20.1	40.9	22.7	4.5	31.8	40.9	27.3	2.88
	동북권	(890)	18.2	23.0	31.7	21.9	5.2	41.2	31.7	27.1	2.73
	서북권	(362)	17.4	26.2	28.7	22.7	5.0	43.6	28.7	27.6	2.72
	서남권	(962)	17.7	23.3	31.5	22.3	5.2	41.0	31.5	27.5	2.74
	동남권	(632)	12.8	20.9	31.3	29.0	6.0	33.7	31.3	35.0	2.94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14.9	23.7	31.7	24.6	5.0	38.7	31.7	29.6	2.81
	비동거 · 비독립	(292)	6.8	17.5	33.9	34.2	7.5	24.3	33.9	41.8	3.18
	독립	(1,162)	20.9	23.1	31.1	19.7	5.2	44.1	31.1	24.9	2.65
점유형태	자가	(1,261)	12.5	23.0	31.0	27.2	6.3	35.5	31.0	33.5	2.92
	전세	(951)	17.1	21.2	35.1	22.0	4.5	38.4	35.1	26.5	2.75
	월세	(701)	21.5	24.8	29.0	19.5	5.1	46.4	29.0	24.7	2.62
	기타	(87)	25.3	24.1	25.3	24.1	1.1	49.4	25.3	25.3	2.52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24.5	21.9	28.5	20.1	5.1	46.4	28.5	25.2	2.59
	2인이상, 동거	(1,546)	14.9	23.7	31.7	24.6	5.0	38.7	31.7	29.6	2.81

※ 기성세대의 경우 청년시절 기준 주거 마련 시 가족 지원 여부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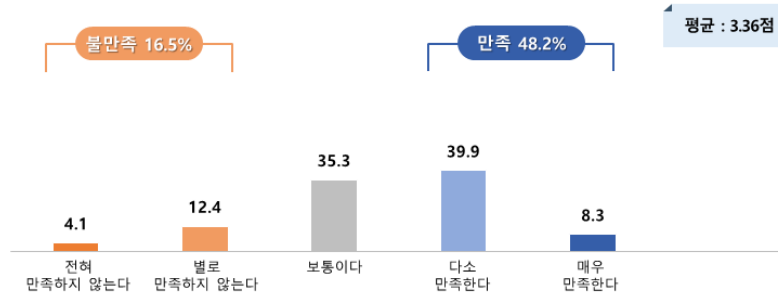
16. 현재 주거 만족도

문. 귀하는 현재 살고 계신 집에 대해 면적, 시설, 안전성, 주변 환경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주거에 대한 만족도는 5점 평균 3.36점

-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 전반적인 만족도로 평균 3.36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만족 비율이 48.2%로 불만족 비율 16.5%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만18세~24세, 동남권, 부모와 동거, 자가인 경우 만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①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②	보통이다 ③	다소 만족한다 ④	매우 만족한다 ⑤	불만족 (①+②)	보통 ③	만족 (④+⑤)	5점 평균 (점)
2020년 청년세대	(3,000)	4.1	12.4	35.3	39.9	8.3	16.5	35.3	48.2	3.36
2020년 기성세대	(500)	7.0	22.2	44.0	23.6	3.2	29.2	44.0	26.8	2.94
성										
남성	(1,483)	4.2	11.1	37.4	39.6	7.7	15.3	37.4	47.3	3.36
여성	(1,517)	4.0	13.6	33.4	40.1	8.9	17.6	33.4	49.0	3.36
연령										
만18세~24세	(798)	3.4	9.5	31.3	43.1	12.7	12.9	31.3	55.8	3.52
25세~29세	(784)	4.1	13.5	35.5	39.4	7.5	17.6	35.5	46.9	3.33
30세~34세	(695)	3.5	13.5	39.9	35.7	7.5	17.0	39.9	43.2	3.30
35세~39세	(723)	5.5	13.1	35.3	40.9	5.1	18.7	35.3	46.1	3.27
거주 권역										
도심권	(154)	4.5	11.0	36.4	42.9	5.2	15.6	36.4	48.1	3.33
동북권	(890)	4.5	12.5	37.0	39.0	7.1	17.0	37.0	46.1	3.32
서북권	(362)	4.1	12.4	39.0	36.2	8.3	16.6	39.0	44.5	3.32
서남권	(962)	4.2	14.8	35.3	37.2	8.5	18.9	35.3	45.7	3.31
동남권	(632)	3.3	8.9	30.7	46.7	10.4	12.2	30.7	57.1	3.52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3.8	10.3	32.0	42.3	11.6	14.0	32.0	53.9	3.48
비동거 · 비독립	(292)	2.4	12.7	40.8	37.3	6.8	15.1	40.8	44.2	3.34
점유형태										
독립	(1,162)	5.0	15.1	38.4	37.3	4.2	20.1	38.4	41.6	3.21
자가	(1,261)	2.2	8.6	31.1	46.5	11.7	10.8	31.1	58.1	3.57
전세	(951)	4.4	14.4	37.1	37.6	6.4	18.8	37.1	44.1	3.27
월세	(701)	6.4	17.0	40.7	31.1	4.9	23.4	40.7	35.9	3.11
기타	(87)	9.2	8.0	34.5	40.2	8.0	17.2	34.5	48.3	3.30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7.7	18.1	38.9	31.6	3.8	25.8	38.9	35.3	3.06
2인이상, 동거	(1,546)	3.8	10.3	32.0	42.3	11.6	14.0	32.0	53.9	3.48

※ 기성세대: 처음으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해서 주택을 마련했을 때 당시의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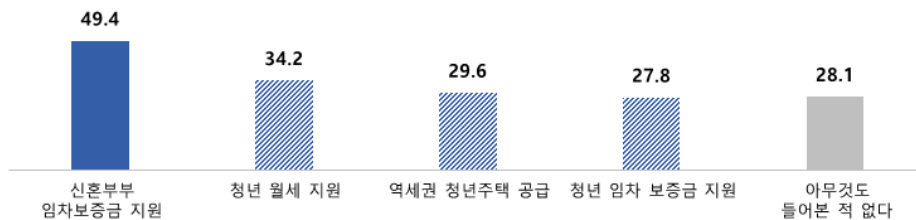
17. [서울시 주거지원 사업] 인지도_복수응답

문. 귀하는 서울시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으신 사업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49.4% > 청년 월세 지원 34.2%

- 서울시 주거지원 사업의 인지도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이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청년 월세 지원 34.2%,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2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인지도가 높고, 만18세~24세, 점유형태가 월세인 경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인지도가 다른 사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

(복수응답,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복수응답,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청년 임차 보증금 지원	아무것도 들어본 적 없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49.4	34.2	29.6	27.8	28.1
성						
남성	(1,483)	43.9	33.3	28.9	27.2	32.0
여성	(1,517)	54.7	35.1	30.2	28.3	24.3
연령						
만18세~24세	(798)	36.2	38.0	25.9	22.2	32.5
25세~29세	(784)	49.7	39.3	32.0	33.7	25.3
30세~34세	(695)	56.0	31.9	32.1	27.1	27.1
35세~39세	(723)	57.1	26.8	28.5	28.2	27.4
거주 권역						
도심권	(154)	53.9	37.0	35.7	33.1	21.4
동북권	(890)	50.3	35.1	28.4	28.8	28.5
서북권	(362)	45.6	32.0	32.6	24.3	30.4
서남권	(962)	50.0	33.4	29.3	27.4	27.3
동남권	(632)	48.1	35.0	28.3	27.5	29.0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46.2	33.6	29.8	24.6	30.0
비동거 · 비독립	(292)	39.0	39.0	26.4	27.7	32.2
점유형태						
독립	(1,162)	56.1	33.8	30.0	31.9	24.5
자가	(1,261)	49.9	30.3	29.8	26.3	30.6
전세	(951)	55.4	35.1	31.7	30.3	22.5
월세	(701)	41.8	42.4	26.4	28.4	29.2
기타	(87)	36.8	16.1	28.7	16.1	43.7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48.3	42.6	32.9	32.5	25.6
2인이상, 동거	(1,546)	46.2	33.6	29.8	24.6	30.0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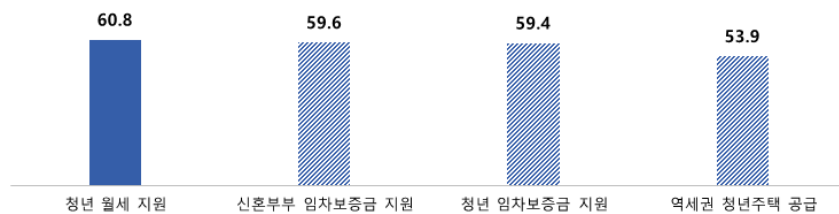
18. [서울시 주거지원 사업] 도움 정도(긍정 비율)

문.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다음 사업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청년 월세 지원 60.8% >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지원 59.6%

-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서울시 주거지원 사업으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긍정 비율이 60.8%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59.6%,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59.4%,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53.9%의 순으로 나타남.
- 기성세대의 경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6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이 64.6%, 청년 월세 지원 53.4%,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52.6% 순으로 나타남.

(긍정%,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긍정%,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청년 월세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2020년 청년세대		(3,000)	60.8	59.6	59.4	53.9
2020년 기성세대		(500)	53.4	66.6	64.6	52.6
성	남성	(1,483)	59.2	58.8	56.3	51.8
	여성	(1,517)	62.4	60.4	62.4	56.0
연령	만18세~24세	(798)	73.3	63.3	66.0	63.9
	25세~29세	(784)	63.6	62.5	63.0	53.6
	30세~34세	(695)	51.9	56.1	53.2	48.6
	35세~39세	(723)	52.4	55.9	54.1	48.4
거주 권역	도심권	(154)	58.4	57.8	61.7	49.4
	동북권	(890)	62.7	61.6	60.7	56.3
	서북권	(362)	57.7	58.0	57.7	54.4
	서남권	(962)	62.1	60.0	59.4	53.8
	동남권	(632)	58.5	57.8	58.1	51.6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62.4	59.9	59.2	55.8
	비동거 · 비독립	(292)	68.5	57.9	63.4	55.8
	독립	(1,162)	56.8	59.7	58.6	50.9
점유형태	자가	(1,261)	59.0	58.0	56.1	53.1
	전세	(951)	59.9	63.9	61.5	54.8
	월세	(701)	65.2	57.2	61.9	54.1
	기타	(87)	60.9	56.3	63.2	56.3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62.7	61.8	64.5	55.0
	2인이상, 동거	(1,546)	62.4	59.9	59.2	55.8

19-1. 부동산 교육 참여의향 (1순위)

문. 귀하는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부동산 관련 교육을 한다면 받으실 의향이 있습니까?

계약방법 및 주거권 교육 27.6% > 정부지원 대출 정보 안내 20.9%

- 참여할 의향이 있는 부동산 교육 1순위로 계약방법 및 주거권 교육이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정부지원 대출 정보 안내 20.9%, 보증금 분쟁 등 분쟁 예방 법률 교육 20.8%, 청년주거지원 정보 및 주거상담 교육 16.5%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점유형태가 월세인 경우 청년 주거지원 정보 및 주거상담 교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Base: 전체, 기타 0.0% 제외,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기타 0.0% 제외,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계약방법 및 주거권 교육	정부지원 대출 정보 안내	보증금 분쟁 등 분쟁 예방 법률교육	청년주거지원 정보 및 주거상담교육	교육받을 의향이 없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27.6	20.9	20.8	16.5	14.2
성						
남성	(1,483)	25.9	21.2	22.0	15.2	15.7
여성	(1,517)	29.2	20.6	19.6	17.9	12.7
연령						
만18세~24세	(798)	30.5	14.0	21.1	23.1	11.4
25세~29세	(784)	30.9	19.6	20.2	17.1	12.2
30세~34세	(695)	22.7	24.0	21.7	14.8	16.7
35세~39세	(723)	25.4	26.7	20.5	10.4	16.9
거주 권역						
도심권	(154)	28.6	25.3	25.3	11.0	9.7
동북권	(890)	28.9	19.2	22.2	16.3	13.3
서북권	(362)	29.3	18.8	21.5	17.1	13.3
서남권	(962)	25.4	22.9	20.0	17.8	14.0
동남권	(632)	27.8	20.3	18.7	16.0	17.2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29.3	17.0	21.3	19.0	13.3
비동거 · 비독립	(292)	26.4	17.5	19.9	21.6	14.7
독립	(1,162)	25.6	26.9	20.4	12.0	15.2
점유형태						
자가	(1,261)	27.1	19.0	22.4	16.4	15.0
전세	(951)	29.8	22.9	21.9	13.0	12.3
월세	(701)	26.7	22.1	17.3	20.4	13.6
기타	(87)	17.2	14.9	14.9	25.3	27.6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23.6	23.0	22.5	15.0	15.9
2인이상, 동거	(1,546)	29.3	17.0	21.3	19.0	13.3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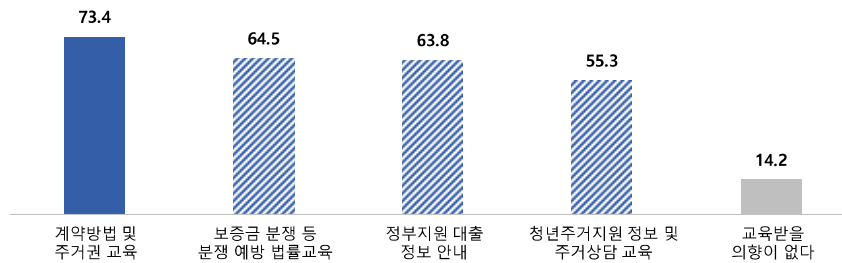
19-2. 부동산 교육 참여의향 (1+2+3순위)_복수응답

문. 귀하는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부동산 관련 교육을 한다면 받으실 의향이 있습니까?

계약방법 및 주거권 교육 73.4% > 보증금 분쟁 등 분쟁 예방 법률교육 64.5%

- 참여할 의향이 있는 부동산 교육 1+2+3순위로 계약방법 및 주거권 교육이 7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보증금 분쟁 등 분쟁 예방 법률교육 64.5%, 정부지원 대출 정보 안내 63.8%, 청년주거지원 정보 및 주거상담교육 55.3%의 순으로 나타남.

(복수응답, Base: 전체, 기타 0.2% 제외, 단위: %)



통계표

(복수응답, Base: 전체, 기타 0.2% 제외,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계약방법 및 주거권 교육	보증금 분쟁 등 분쟁 예방 법률교육	정부지원 대출 정보 안내	청년주거지원 정보 및 주거상담교육	교육받을 의향이 없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73.4	64.5	63.8	55.3	14.2
성						
남성	(1,483)	71.6	62.3	62.3	56.0	15.7
여성	(1,517)	75.2	66.6	65.2	54.6	12.7
연령						
만18세~24세	(798)	77.2	67.0	55.6	65.7	11.4
25세~29세	(784)	76.4	63.6	65.2	57.5	12.2
30세~34세	(695)	70.1	63.9	64.5	51.1	16.7
35세~39세	(723)	69.3	63.2	70.5	45.5	16.9
거주 권역						
도심권	(154)	74.7	64.9	70.1	60.4	9.7
동북권	(890)	72.9	66.3	62.9	57.8	13.3
서북권	(362)	72.1	68.8	65.2	53.9	13.3
서남권	(962)	75.2	63.8	63.0	55.2	14.0
동남권	(632)	72.0	60.4	63.8	51.6	17.2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76.1	65.7	59.8	58.2	13.3
비동거 · 비독립	(292)	70.2	63.0	59.2	63.0	14.7
독립	(1,162)	70.7	63.3	70.1	49.5	15.2
점유형태						
자가	(1,261)	74.3	64.4	60.3	55.7	15.0
전세	(951)	74.1	68.3	68.9	50.9	12.3
월세	(701)	72.5	60.9	65.6	60.2	13.6
기타	(87)	60.9	52.9	43.7	58.6	27.6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68.7	61.1	69.8	52.3	15.9
2인이상, 동거	(1,546)	76.1	65.7	59.8	58.2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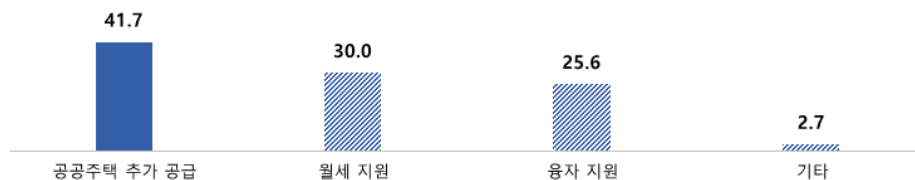
20. 서울시 주거지원 방법

문. 귀하는 서울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청년) 주거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주택 추가 공급 41.7% > 월세 지원 30.0%

-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주거 지원으로 공공주택 추가 공급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월세 지원 30.0%, 용자 지원 2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연령별로 만18세~24세인 경우, 비동거·비독립, 점유형태가 월세인 경우 공공주택 추가 공급보다 월세 지원이 높게 나타남.
- 기성세대의 경우 공공주택 추가 공급 56.4%, 용자 지원 29.4%, 월세지원 12.0%의 순으로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공공주택 추가 공급	월세 지원	융자 지원	기타
2020년 청년세대		(3,000)	41.7	30.0	25.6	2.7
2020년 기성세대		(500)	56.4	12.0	29.4	2.2
성	남성	(1,483)	43.7	29.0	24.5	2.8
	여성	(1,517)	39.8	30.9	26.6	2.6
연령	만18세~24세	(798)	36.6	46.1	15.2	2.1
	25세~29세	(784)	41.2	31.6	24.1	3.1
	30세~34세	(695)	44.6	22.2	30.8	2.4
	35세~39세	(723)	45.2	17.8	33.7	3.2
거주 권역	도심권	(154)	39.6	30.5	27.9	1.9
	동북권	(890)	39.3	31.7	27.0	2.0
	서북권	(362)	41.7	29.0	25.1	4.1
	서남권	(962)	44.0	27.7	25.3	3.1
	동남권	(632)	42.2	31.5	23.9	2.4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41.7	33.4	22.1	2.8
	비동거 · 비독립	(292)	38.7	41.4	17.5	2.4
	독립	(1,162)	42.6	22.5	32.4	2.6
점유형태	자가	(1,261)	40.9	28.9	27.3	2.9
	전세	(951)	47.7	22.6	27.2	2.4
	월세	(701)	35.4	42.1	21.0	1.6
	기타	(87)	39.1	28.7	20.7	11.5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42.4	31.8	24.3	1.5
	2인이상, 동거	(1,546)	41.7	33.4	22.1	2.8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 독립하면서 어려웠던 점 >

-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은 중장년 세대보다 혼자 집을 구하는데 법률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많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기나 무시를 당할까봐 부모님과 꼭 같이 갔었음.
- 여성의 경우 안전에 대한 걱정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월세 부담', '전세값', '적은 전세 매물', '충간소음', '안전', '집주인의 안일한 대처'
 - 원룸에서 살았는데 딱딱딱 붙어 있다 보니까 충간 소음때문에 힘들었어요. 공사도 부실하게 된 것 같고 시설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20대 초중반 남성)
 - 처음에는 끼니해결이 어려웠어요. 결국 혼자 살면 본인이 해먹어야 하니까(20대 초중반 남성)
 - 월세라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요.(20대 초중반 남성)
 - 집을 찾아보는 것도 여러 곳 봐야 하고 누수 없나 봐야 하고 계약서 쓸 데도 잘못 되면 안 되니까 어른 도움도 받아야 해서 복잡했던 것 같아요. 뭐가 망가지면 제가 어린 편이니까 집주인에게 말씀드리기 부담스럽기도 해요.(20대 초중반 여성)
 - 저도 부모님이 도와줘서 괜찮긴 했는데 혼자 하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적인 거나, 계약서 쓰는 것도 생전 처음이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집을 보러 갔을 때 어떤 걸 중요하게 봐야 한단지, 계약 전에 무얼 확인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다 그 때 배웠거든요. 그리고 대학생들 중에서도 전세사기 당했다는 사람들 있던데 그런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면 어려움을 더 크게 겪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20대 초중반 여성)
 - 처음 구할 때 부모님이 많이 도와줬고, 혼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단속 잘하고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고, 지금 되게 조심하면서 살고 있어요.(20대 초중반 여성)
 - 저는 집 구할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월세가 높더라도 주변에 파출소가 있는지, 여성 안심 귀가길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봐요.(20대 초중반 여성)
 - 부모님이 없으셨다면 어려서 무시당할까 봐 저는 나이 많은 어른을 모시고 갔을 것 같아요.(20대 초중반 여성)
 - 다달이 내야하는 월세가 부담스러워요.(20대 초중반 여성)
 - 살게 된 집이 더러웠어요.(20대 후반,30대 초반 남성)
 - 집을 구해야 하는 것에 두려움은 없었는데 나라에서 집에 대한 지원이 있을까 싶었는데 크게 없더라고요. 이점이 아쉬웠어요.(20대 후반,30대 초반 남성)
 - 문제라고 하면 집주인분이 세입자에 대해서 공감력이 너무 떨어져요. 너무 모든 행동과 생각이 집주인이라는 게 맞춰져 있어서 제가 불편한 점 얘기해도 되게 부정적으로 그게 왜 그러냐는 식으로 얘기해서요.(20대 후반,30대 초반 남성)
 - 공용시설이 소모품이 다 되었을 때 빠르게 교체해주지 않는 거 말고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20대 후반,30대 초반 남성)
 - 반상회를 매달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자주 참석 못하게 되고 그래서 소외 시키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20대 후반,30대 초반 남성)
 - 월세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처음부터 전세를 구했는데, 전세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하기

- 힘들었고, 앞으로도 점점 더 없어질 것 같아서 앞으로도 걱정이예요.(20대 후반,30대 초반 여성)
-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그런 어려움의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20대 후반,30대 초반 여성)
 -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 금액인 지를 모르겠어서 그게 처음에 어려웠어요.(20대 후반,30대 초반 여성)
 - 저는 트러블이 아직 난 건 아니지만 이제 곧 발생할 것 같은데, 월세 보증금을 못 받을까봐 걱정되는 게 있어요.(20대 후반,30대 초반 여성)
 - 저는 지금 사는 곳 말고, 그 전에 살던 데서 충간소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 주인한테 말씀드렸는데, 집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서로 이해 하라고 해서, 그걸 어떻게 이해하라는 건지. 그래서 거기 두 달 살다가 그냥 제가 나왔어요.(20대 후반,30대 초반 여성)
 - 저희 동네, 왕십리가 오래 되다 보니까 하수구 냄새가 가끔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건 처음 겪어본 일이어서. 알아보니까 그건 건물 전체의 문제다,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건 좀 그랬어요.(20대 후반,30대 초반 여성)

<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중요한 점 >

• 주거 공간, 주변 인프라, 안전이 중요함.

- 제 자신이 휴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제일 중요해요. 충간 소음같은 문제가 없고, 주변에 간단히 쇼핑할 시설도 있고, 역세권이고.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20대 초중반 남성)
- 사계절을 잘 견딜 수 있는 집. 어떤 집은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추운 곳도 있었고, 여름에 곰팡이가 잘 슬고 바퀴벌레가 여름에 창궐했던 집이 있었는데 그런 게 잘 관리되는 집이 중요한 것 같아요.(20대 초중반 남성)
- 저는 아무래도 동네 분위기가 밝은 곳이 안정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20대 초중반 남성)
- 아무리 주택단지라고 해도 큰 길에 있는 걸 선호해요.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20대 초중반 여성)
- 저도 첫째가 안전이라고 생각해서. 왔다 갔다 할 때 치안이 좋은 지역인지 제일 먼저보고, 그 다음에 편의점이나 자주 가는 공원이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지를 봐요.(20대 초중반 여성)
- 좋은 주거 환경 기준은 역세권이나 주변 인프라가 문화시설이나 편의점, 마트가 가까이 있는지를 봐요.(20대 초중반 여성)
- 가장 중요한 건 제 나이에서는 전세를 예를 들면 보증금이나 이런걸 주었을 때 이게 보증이 되는지. 집주인에게 떼이는 주변에 그런 케이스도 봤기 때문에 제가 가진 재산이 예기치 못하게 마이너스 되거나 그런 부분이에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주변 인프라요. 역하고 얼마나 가깝나(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시세 차이가 큰집. 나중에 팔았을 때 몇 천이라도 벌 수 있는 집이 좋은 집이고 주거 생각하면 소음, 방음이 잘 되어 있는 집. 아파트라던지 연립주택이라던지 그러면 단독주택 아닌 이상 이웃과 같이 살수 밖에 없는데 방음이 잘 안되면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혼자 살 때는 그냥 그런데 앞으로 결혼도 하고 좋은 집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주변 환경이 중요하지 않나. 나중에 아이도 생각하면 교육도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어느 정도의 넓이 확보가 필요해요. 대학 다닐 때 친구의 고시텔을 갔었는데 너무 좁고 감옥

같았어요. 그렇다고 개가 돈을 조금 내는 게 아닌데 서울의 인구밀집도가 높다고 하지만, 어린 학생들부터 20대 취업 전까지는 자금이 많지 않으니깐 이걸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서 그래도 넓이를 넓게 해야 하지 않나 싶더라고요.(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여자이다 보니까 골목 안에 CCTV가 있다든지, 길가에 가로등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뉴스에 범죄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게 신경 쓰이게 돼요.(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일단 집은 면적이 넓어야 할 것 같고, 주변에 동네가 쾌적해야 할 것 같고. 인구밀도가 너무 높지 않고. 공원도 있어야 해요.(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CCTV 많이 확보하고,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주택 같은 거 만들어서 저렴하게 임대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집을 사야하는/사고싶지 않은 이유 >

-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사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임. 그 이유로 심리적 안정감이 가장 큼.
- 집을 사고 싶지 않은 이유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 큰 돈을 들이기가 꺼려짐.
 - 여건이 되면 사고 싶어요. 제 소유의 집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삶이 안정적이고 할 것 같아서.(20대 초중반 남성)
 - 심리적 안정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주택소유여부에 있어서. 일단 자기 소유면, 월세나 전세, 이런 금전적인 부분에서 걱정도 없고,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나서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이 있으면 그 주변을 중심으로 떠돌아다니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아서.(20대 초중반 남성)
 - 저는 집을 안 살 것 같아요. 집이 있으면 안정감이 있겠지만, 대출받으면 대출 이자 나갈 것이고 내 집이니까 세금도 나갈 것이고. 집이라는 재산이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줄어들 테니까, 아직까지는 젊어서 취업하면 청년공공임대주택 같은 데 들어가서 돈을 모으자는 생각이 들어요.(20대 초중반 남성)
 - 저는 내집마련이 꿈이라서 살 것 같아요. 제 가치관이 저도 안정성을 중시하는데, 내 집이 있으면 어디 나가서 잘 일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잡아둔 것 같아요. 도움을 좀 받는다면, 30대 중후반쯤에는 사고 싶어요. 크지 않고 작은 거라도.(20대 초중반 남성)
 - 집값이 계속 너무 많이 올라서 집을 빨리 사지 않으면 나중에 집 사기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집을 마련해야 경제적으로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집이 있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20대 초중반 여성)
 - 집을 사면 월세가 안 드니까, 그걸로 좀 더 저를 위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20대 초중반 여성)
 - 저는 집을 투자하는 목적으로 사고 싶어요.(20대 초중반 여성)
 - 전세란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구매 별로 안하고 싶어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그런 목표가 있어야 저축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 같아요. 심리적으로는 제 집이라는 게 생기면 다른 목표나 동기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어릴 때는 서른쯤이면 내 집 하나 있겠지 했는데 지금은 서른 되고 나니까 이제는 가늠이 안돼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일단 집이라는 게 저의 근거지잖아요. 전세나 월세는 집주인 눈치를 봐야 하잖아요. 그런 눈치를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자가를 가지고 싶어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내 집 마련이 막연한 목표긴 한데 사회적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보통 사람, 직장인은 내 집 마련이 최대 목표잖아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앞으로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서 안정적인 제 집이 있으면. 전세나 월세는 이사를 다녀야 하고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라고 하면 목돈이 필요한데 제 집이 있으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니까.(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불안도 하고, 지금은 제 힘으로 전세 어느 정도 되는 건 구할 수 있는 시기인데, 전세에서 매매로 올라가기는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살 수만 있다면 사고 싶어요.(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집이 유일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것 같아요. 차는 쓰면 쓸수록 감가상각 되는데, 집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상승폭이, 지방보다 서울은 어마어마해서. 그래서 저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은 사야 하나보다 라는 생각을 해요.(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저는 이번에 좀 고민해봤는데, 나중에 저의 가족의 형태가 어떨지 모르는데, 집을 사기가 좀 그래요. 신혼일 때는 작아도 상관없고, 나중에 가족이 늘어나면 그 때 맞게 큰 집으로 옮길 수도 있고, 확정적이지 않고 변동 가능성이 있어서 꼭 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주거 관련 지원 정책 >

- 자격조건이 맞지 않아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적은 없음.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좋은 정책인 것 같음.
 - 자격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신청할 생각이 있어요.(20대 초중반 남성)
 - 서울시 월세 지원 월 20만원씩 주는 거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신청기간 전에 월세 전임신고를 못해서 놓쳤어요.(20대 초중반 남성)
 - 듣기만 하고 알아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하는 모든 걸 다 알아봤었는데, 소득분위 때문에 다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힘든데 부모님의 소득분위가 내 소득분위가 되서 보나마나 안 될 꺼야 싶더라고요.(20대 초중반 남성)
 - 저한테 이득이 아니어도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 같아요. 준비되어 있는 느낌이에요.(20대 초중반 여성)
 - 제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도움 받은 건 없지만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알게 된 것 같아요.(20대 초중반 여성)
 - 저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20대 초중반 여성)
 - 청년임대주택 SH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데 너무 확률도 적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제한조건도 까다롭고 빛 좋은 개살구더라고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뭐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저는 해당이 많이 안되서 실질적으로 도움되는건 없어요.(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주거 관련 지원 정책 인지 경로 >

• ‘인터넷’, ‘뉴스’, ‘지인’을 통해 알게 됨.

- 청년임대 주택 들어갈 때 신혼부부 혜택이 있다는건 뉴스를 통해 들었어요. 후기도 찾아보고.(20대 초중반 남성)
- 아직 취업한 것도 아니고 해서 집 관련해서는 아직 먼 얘기라고 생각해서 딱히 알아보지 않았어요.
(20대 초중반 남성)
- 지인/뉴스 통해서 알게 됐어요.(20대 초중반 여성)
- 저도 혼자 사니까 옮길 때마다 인터넷 검색을 자주 해보는데 그런 과정에서 알게되었어요. 다양하게 있던데, 기숙사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도 있고, 지역마다 다른데 청년 전세지원도 있고 월세지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20대 초중반 여성)
-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선호하는 청년 주거지원 정책 방향 >

1. 월세 지원

- 20~30대 청년들은 월세에 사는 비중이 높고, 내가 살고싶은 지역을 선택하고 비용만 지원받을 수 있어서
 - 20~30대가 월세 사는 비중이 가장 높으니까 많은 사람이 직접 처하고 있는 어려움을 지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주택의 경우는 싸거나 퀄리티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직접적으로 월세지원이 더 나은 것 같아요.(20대 초중반 남성)
 - 다른 지원에 비해서 내가 사는 지역을 고를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다른 혜택에 비해서 내가 상환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20대 초중반 남성)
 - 제가 직접 고른 집에 살 수 있으니까 제가 고르고 월세지원을 받고 싶어요.(20대 초중반 여성)
 - 주변에 월세 사는 친구들이 많기도 하고 일단 딱 눈에 보이는 게 줄어들면 뭔가 안정적인 것처럼 보여요. 돈을 아낀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공공주택 임대하는 건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직장 근처나 제가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원하니까 아무래도 월세지원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저는 월세지원을 선택한 이유가 가장 많은 형태의 주거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도 있고, 공공주택만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집을 구하는데 보증금이나 용자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기초를 마련해주는 느낌인데 월세를 지원해주는 건 그냥 돈을 뿌리는 것 같아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2. 용자 지원

- 목돈이 들어가는 용자를 지원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음.
 - 집 사려면 무조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다른 은행권보다 확실히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20대 초중반 여성)

-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도 대출 꺼서 집을 사려고 하고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월세는 임대인한테 주는 것이다 보니까 제가 계속 돈이 없어지는 거지, 모을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대출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게 원금을 계속 갚아나가면 제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니까.(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월세든 전세든 어쨌든 보증금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보증금을 못 구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용자를 지원해줘야지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3. 공공주택 추가 공급

- 공공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아직은 물량이 너무 적은 것 같아 공공주택을 계속해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함.
 -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역별로 조금씩이라도 지어놓고 점점 늘려가면서 열기를 줄여야 주택가격도 조금씩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요.(20대 초중반 남성)
 - 행복주택이 시설도 좋고 새로 지어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물량이 적어서 경쟁률이 높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많다면 그만큼 늘려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수요는 많은데, 정부정책에 막히다 보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집이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일일이 월세를 충당해주기보다는 전세나 매매로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주면 좋겠어요.(20대 초중반 여성)
 - 저는 임대주택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첫번째 두번째의 경우는 임대자들이 나를 지원해줘? 그러면 더 올려도 되겠네 그럴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청년을 대상으로한 임대주택을 늘리는 게 제일 맞아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공공주택이라고 하면 약간 믿음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사후처리가 잘 안될 것 같고, 공공주택에 허위로 들어가거나 주민들간에 논쟁이 생겼을 때 해결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좀 별로예요.(20대 초중반 여성)

Part. 4

소득과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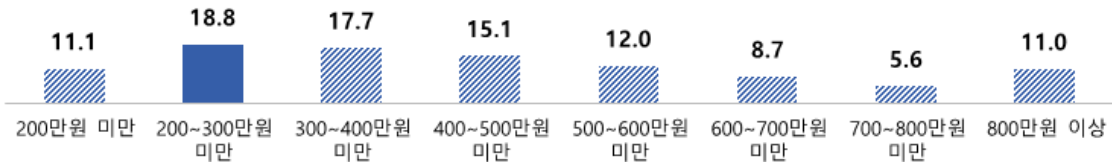
1. 월평균 가구 소득

문. 귀하 닥의 세후 기준 월평균 가구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200~300만원 미만 18.8% > 300~400만원 미만 17.7%

- 가구 기준 세후 월평균 가구 소득으로 200~300만원 미만이 1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00~400만원 미만 17.7%, 400~500만원 미만 1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독립한 1인가구의 경우 월평균 가구 소득을 200~300만원 미만이 40.8%로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200만원 미만	200~ 300만원 미만	300~ 400만원 미만	400~ 500만원 미만	500~ 600만원 미만	600~ 700만원 미만	700~ 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2020년 청년세대		(3,000)	11.1	18.8	17.7	15.1	12.0	8.7	5.6	11.0
2020년 기성세대		(500)	9.8	9.4	15.8	17.0	16.8	12.2	8.8	10.2
성	남성	(1,483)	11.7	19.4	17.7	16.0	12.1	7.3	5.3	10.5
	여성	(1,517)	10.6	18.1	17.6	14.3	11.9	10.0	5.9	11.5
연령	만18세~24세	(798)	15.3	14.5	17.0	15.5	11.8	6.9	6.3	12.7
	25세~29세	(784)	14.7	23.1	16.3	12.0	10.7	7.3	4.8	11.1
	30세~34세	(695)	8.3	20.0	19.1	14.2	14.7	9.2	5.2	9.2
	35세~39세	(723)	5.4	17.6	18.4	18.9	11.1	11.6	6.1	10.9
거주 권역	도심권	(154)	13.6	16.9	18.2	14.3	13.0	9.7	5.8	8.4
	동북권	(890)	13.3	18.8	19.0	16.4	11.0	8.0	4.8	8.8
	서북권	(362)	13.3	21.3	17.7	16.6	12.4	6.4	4.7	7.7
	서남권	(962)	11.4	20.7	17.6	14.0	12.0	8.8	5.8	9.7
독립여부	동남권	(632)	5.9	14.9	15.8	14.4	13.0	10.4	6.8	18.8
	부모와 동거	(1,546)	8.0	15.4	16.9	16.9	13.6	9.4	5.9	13.8
	비동거 · 비독립	(292)	30.8	17.8	14.4	11.0	8.6	5.5	4.1	7.9
	독립	(1,162)	10.3	23.5	19.4	13.8	10.8	8.4	5.6	8.2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19.6	40.8	23.0	8.8	2.6	1.8	0.2	3.1
	2인이상, 동거	(1,546)	8.0	15.4	16.9	16.9	13.6	9.4	5.9	13.8

2. 월평균 개인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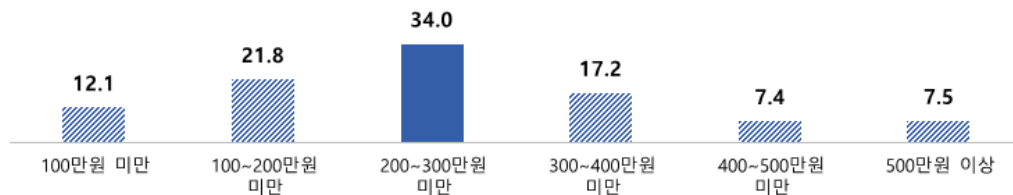
문. 현재 귀하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얻는 세후 기준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월평균 근로 소득은 252만원 수준

- 지난 1주 간 일을 하거나 일시 휴직 중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본인 기준 세후 월평균 소득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0~300만원 미만인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평균 252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남성의 경우 평균 270만원인 반면, 여성의 경우 233만원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남.

(Base: 지난 1주 간 일을 하거나 일시 휴직 중인 응답자, 단위: %)

평균 : 252만원



통계표

(Base: 지난 1주 간 일을 하거나 일시 휴직 중인 응답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100만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미만	5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2020년 청년세대		(2,388)	12.1	21.8	34.0	17.2	7.4	7.5	252
성	남성	(1,205)	10.7	19.2	31.9	19.3	9.2	9.7	270
	여성	(1,183)	13.5	24.4	36.3	15.0	5.6	5.2	233
연령	만18세~24세	(504)	38.1	41.1	14.3	4.2	0.4	2.0	135
	25세~29세	(637)	9.1	25.7	45.2	13.0	2.5	4.4	227
	30세~34세	(609)	4.8	12.8	41.1	23.0	10.7	7.7	284
	35세~39세	(638)	1.6	11.1	31.8	26.0	14.7	14.7	338
거주 권역	도심권	(131)	9.9	17.6	31.3	25.2	7.6	8.4	269
	동북권	(695)	13.8	25.2	31.8	16.3	7.5	5.5	233
	서북권	(283)	15.2	26.5	32.9	14.1	6.0	5.3	225
	서남권	(767)	11.3	19.3	39.9	16.3	6.4	6.8	251
	동남권	(512)	9.8	19.3	29.7	19.3	9.6	12.3	289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131)	18.9	28.7	33.0	10.9	3.8	4.7	206
	비동거 · 비독립	(198)	21.2	34.3	26.3	11.6	3.0	3.5	190
	독립	(1,059)	3.1	12.0	36.6	24.9	12.1	11.2	312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24)	2.1	14.6	45.0	24.5	8.0	5.7	287
	2인이상, 동거	(1,131)	18.9	28.7	33.0	10.9	3.8	4.7	206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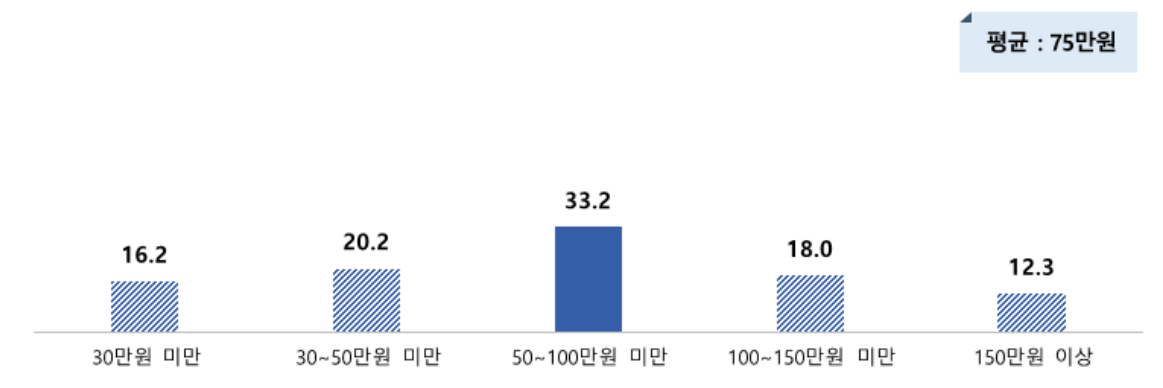
3. 본인 한 달 생활비

문. 귀하 본인의 한 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한 달 생활비는 평균 75만원 수준

- 부모와 동거/비동거 중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달 생활비를 조사한 결과, 한 달 생활비로 50~100만원 미만인 33.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평균 한 달 생활비는 75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도심권과 동남권의 평균 한 달 생활비가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Base: 부모와 동거/비동거 중인 응답자, 단위: %)



통계표

(Base: 부모와 동거/비동거 중인 응답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평균 (만원)
2020년 청년세대		(1,838)	16.2	20.2	33.2	18.0	12.3	75.0
성	남성	(907)	18.4	20.8	33.2	14.8	12.8	72.0
	여성	(931)	14.1	19.7	33.3	21.2	11.8	77.0
연령	만18세~24세	(739)	24.1	25.6	33.2	11.1	6.1	56.2
	25세~29세	(534)	13.3	19.7	34.5	20.0	12.5	76.2
	30세~34세	(329)	10.6	12.8	33.1	26.1	17.3	91.4
	35세~39세	(236)	5.9	15.3	30.9	23.7	24.2	104.4
거주 권역	도심권	(99)	8.1	19.2	35.4	22.2	15.2	83.0
	동북권	(564)	19.7	22.3	32.4	15.2	10.3	68.9
	서북권	(237)	18.6	16.5	32.9	19.4	12.7	73.7
	서남권	(553)	15.4	21.3	34.0	18.4	10.8	72.2
	동남권	(385)	13.0	18.2	33.0	19.5	16.4	84.5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16.7	20.9	32.7	17.2	12.5	74.4
	비동거 · 비독립	(292)	13.7	16.8	36.3	22.3	11.0	75.3

4. 생활비 부모 지원 비율

문. 본인의 한 달 생활비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 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한 달 생활비 중 부모/친지에게 지원 받는 비율은 평균 30.7% 수준

- 부모와 동거/비동거 중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달 생활비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모님/친지로부터 지원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43.6%로 나타남.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받는 비율 90% 이상이 18.4%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응답자 전체 평균 생활비 지원 비율은 30.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Base: 부모와 동거/비동거 중인 응답자, 단위: %)

평균 : 30.7%



통계표

(Base: 부모와 동거/비동거 중인 응답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없음	10% 미만	10~30% 미만	30~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 이상	평균 (%)
2020년 청년세대		(1,838)	43.6	3.6	15.3	5.3	8.8	5.0	18.4	30.7
성	남성	(907)	42.8	3.7	15.9	5.8	9.2	4.3	18.3	30.6
	여성	(931)	44.4	3.4	14.8	4.8	8.4	5.6	18.6	30.7
연령	만18세~24세	(739)	24.4	3.4	15.6	6.5	11.1	8.3	30.9	47.2
	25세~29세	(534)	51.1	3.4	15.5	4.1	8.4	3.2	14.2	24.6
	30세~34세	(329)	62.3	4.3	12.8	4.9	6.7	2.7	6.4	15.3
	35세~39세	(236)	60.6	3.8	17.8	5.1	5.1	1.7	5.9	14.1
거주 권역	도심권	(99)	44.4	4.0	14.1	7.1	14.1	3.0	13.1	27.4
	동북권	(564)	45.2	3.7	14.7	5.0	7.8	5.5	18.1	29.9
	서북권	(237)	46.0	4.2	13.9	4.2	8.9	4.6	18.1	29.6
	서남권	(553)	40.9	3.6	17.5	5.2	7.4	4.7	20.6	32.3
	동남권	(385)	43.4	2.9	14.3	6.2	10.6	5.2	17.4	30.9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44.8	3.9	15.1	5.6	8.5	5.0	17.1	29.3
	비동거 · 비독립	(292)	37.3	1.7	16.4	3.8	10.3	4.8	25.7	38.1
주거·고용	부모동거, 풀타임	(674)	68.2	4.3	14.4	4.5	5.2	1.0	2.4	9.4
	부모동거,파트타임	(316)	32.6	4.7	23.4	8.9	13.9	8.2	8.2	28.1
	부모동거, 무직	(415)	17.3	2.4	8.4	3.6	8.4	8.4	51.3	64.3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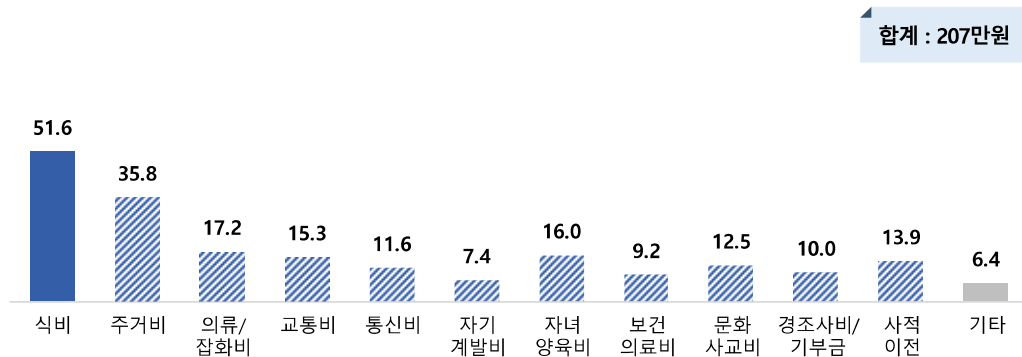
5. 생활비 지출 항목

문. 귀하 닉의 한 달 가구 생활비(1인가구는 본인 생활비)의 다음 항목별 지출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한 달 전체 생활비 지출은 평균 207만원 수준

- 부모와 독립하여 거주 중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달 전체 생활비 지출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207만원 수준으로 그 중 식비가 평균 52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독립한 1인가구의 경우 전체 생활비 지출이 평균 149만원으로 나타났고, 식비와 주거비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Base: 부모와 독립하여 거주 중인 응답자, 단위: 만원)



통계표

(Base: 부모와 독립하여 거주 중인 응답자, 단위: 만원)

구분		사례수 (명)	식비	주거비	의류/ 잡화비	교통비	통신비	자기 계발비	자녀 양육비	보건 의료비	문화 사교비	경조사/ 기부금	사적 이전	기타	생활비 지출 합계
2020년 청년세대		(1,162)	51.6	35.8	17.2	15.3	11.6	7.4	16.0	9.2	12.5	10.0	13.9	6.4	206.8
성	남성	(576)	51.3	36.4	15.5	16.3	11.8	6.3	17.7	9.2	12.8	9.8	14.3	7.3	208.5
	여성	(586)	51.8	35.2	18.9	14.3	11.4	8.5	14.3	9.2	12.2	10.3	13.6	5.5	205.1
연령	만18세~24세	(59)	39.0	29.7	18.4	12.2	9.1	5.7	1.9	7.8	11.6	4.7	4.2	8.4	152.5
	25세~29세	(250)	41.3	33.0	14.9	10.8	10.6	6.2	3.6	6.2	10.7	6.2	7.4	4.9	155.8
	30세~34세	(366)	45.9	33.0	15.1	14.1	11.0	6.3	9.6	8.9	12.0	10.8	12.4	4.9	183.9
	35세~39세	(487)	62.6	40.1	19.8	18.9	12.8	9.1	28.8	11.2	13.9	12.1	19.6	8.0	256.8
거주 권역	도심권	(55)	48.3	33.2	23.1	15.4	9.6	14.5	19.1	9.4	15.2	10.4	14.0	2.2	214.5
	동북권	(326)	48.7	32.2	15.6	14.9	11.9	5.9	14.2	8.1	9.8	9.1	12.2	5.9	188.4
	서북권	(125)	46.9	34.5	13.5	12.9	9.4	5.4	12.7	7.7	11.1	8.7	12.4	7.3	182.5
	서남권	(409)	51.3	34.1	15.1	13.4	11.3	6.8	13.8	8.8	12.4	9.5	13.1	5.6	195.4
	동남권	(247)	58.9	44.6	23.2	20.2	13.3	9.7	22.7	11.9	16.2	12.8	18.3	8.6	260.4
독립여부	독립	(1,162)	51.6	35.8	17.2	15.3	11.6	7.4	16.0	9.2	12.5	10.0	13.9	6.4	206.8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37.3	33.6	13.0	10.6	8.1	5.4	0.6	6.1	12.1	7.3	9.9	5.5	14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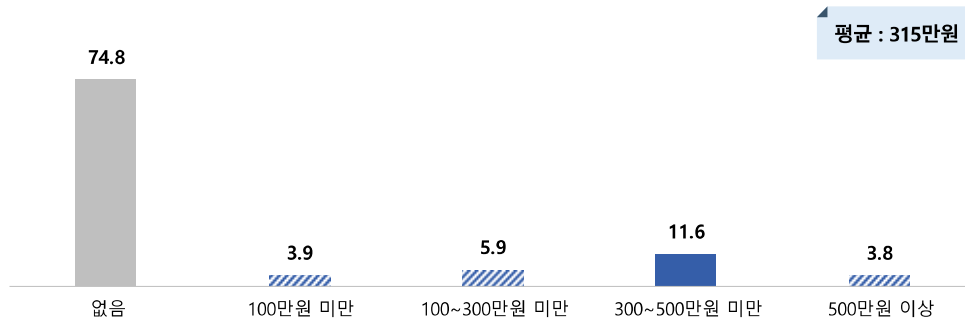
6. 대학등록금 지출 금액

문. 귀하 본인의 대학등록금(귀하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하는 경우 모두 포함)이나, 귀하가 비용을 부담하는 가족의 대학 등록금이 있다면, 등록금 비용으로 한 학기에 얼마 정도 지출하십니까?

한 학기 대학등록금 지출 금액은 평균 315만원 수준

- 한 학기 대학 등록금 지출 금액이 있는 경우는 25.2%로 나타났으며, 금액은 300~500만원 미만인 11.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평균 대학등록금 지출 금액은 315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만18세~24세, 동남권, 학생의 경우 대학등록금 지출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없음	100만원 미만	100~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2020년 청년세대	(3,000)	74.8	3.9	5.9	11.6	3.8	314.7
성							
남성	(1,483)	72.9	4.2	6.5	11.9	4.6	319.1
여성	(1,517)	76.7	3.6	5.3	11.3	3.1	309.7
연령							
만18세~24세	(798)	47.7	4.3	12.3	28.1	7.6	340.9
25세~29세	(784)	78.1	4.0	5.2	9.4	3.3	306.7
30세~34세	(695)	86.5	3.5	2.7	5.0	2.3	288.0
35세~39세	(723)	89.9	3.9	2.6	1.9	1.7	217.9
거주 권역							
도심권	(154)	73.4	3.9	5.2	11.7	5.8	319.3
동북권	(890)	75.6	3.5	4.8	13.0	3.0	315.5
서북권	(362)	73.5	4.7	4.7	11.9	5.2	319.0
서남권	(962)	76.5	4.2	6.9	10.0	2.5	284.5
동남권	(632)	72.2	3.6	6.8	11.7	5.7	349.0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68.4	4.0	7.3	15.7	4.5	325.3
비동거·비독립	(292)	60.3	4.8	9.6	17.5	7.9	334.4
독립	(1,162)	86.9	3.5	3.1	4.6	1.9	265.5
학생여부							
학생	(697)	34.9	4.7	14.6	34.6	11.2	353.0
비학생	(2,303)	86.9	3.6	3.3	4.6	1.6	257.0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7. 생활비 부족 경험 여부

문. 최근 1년 동안 귀하 닥의 생활비가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까?

생활비가 부족한 적 있다 47.0%, 부족한 적 없다 53.0%

- 부모와 비동거/독립 중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최근 1년 간 생활비가 부족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족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7.0%, 부족한 적 없다는 응답은 53.0%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만18세~24세, 동북권, 독립한 1인가구의 경우 생활비가 부족한 적이 있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Base: 부모와 비동거/독립 중인 응답자, 단위: %)



통계표

(Base: 부모와 비동거/독립 중인 응답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2020년 청년세대		(1,454)	47.0	53.0
성	남성	(738)	45.7	54.3
	여성	(716)	48.3	51.7
연령	만18세~24세	(200)	55.5	44.5
	25세~29세	(343)	48.7	51.3
	30세~34세	(401)	42.9	57.1
	35세~39세	(510)	45.7	54.3
거주 권역	도심권	(80)	46.3	53.8
	동북권	(417)	51.8	48.2
	서북권	(163)	48.5	51.5
	서남권	(500)	46.8	53.2
	동남권	(294)	39.8	60.2
독립여부	비동거·비독립	(292)	49.7	50.3
	독립	(1,162)	46.3	53.7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50.1	4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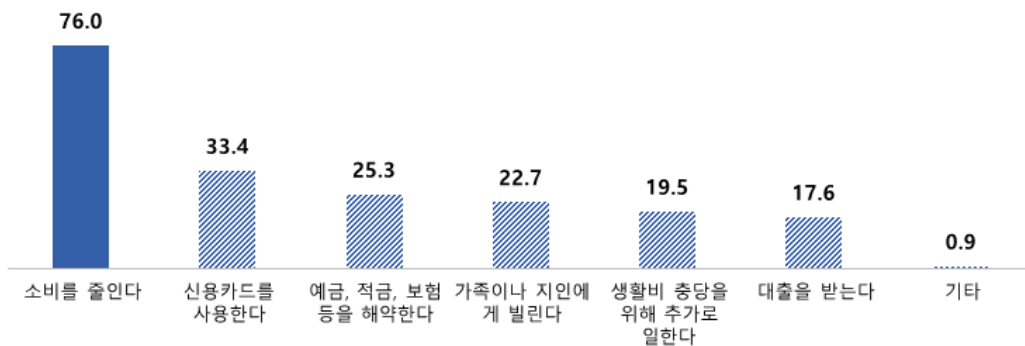
8. 생활비 부족 해결 방법_복수응답

문. 생활비가 부족한 적이 있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 모두 골라 주세요

소비를 줄인다 76.0% >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33.4%

- 생활비가 부족했던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생활비가 부족하였을 때 해결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소비를 줄인다는 응답이 7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33.4%, 예금, 적금, 보험 등을 해약한다 2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복수응답, Base: 생활비가 부족했던 경험이 있는 응답자, 단위: %)



통계표

(복수응답, Base: 생활비가 부족했던 경험이 있는 응답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소비를 줄인다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예금, 적금, 보험 등을 해약한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다	생활비 충당을 위해 추가로 일한다	대출을 받는다	기타
2020년 청년세대		(683)	76.0	33.4	25.3	22.7	19.5	17.6	0.9
성	남성	(337)	79.2	28.5	16.6	25.2	20.2	18.4	0.6
	여성	(346)	72.8	38.2	33.8	20.2	18.8	16.8	1.2
연령	만18세~24세	(111)	80.2	16.2	19.8	27.9	20.7	9.9	0.0
	25세~29세	(167)	74.9	33.5	26.3	29.3	23.4	14.4	0.6
	30세~34세	(172)	80.2	37.8	25.6	17.4	19.2	16.3	1.7
	35세~39세	(233)	71.7	38.2	27.0	19.3	16.3	24.5	0.9
거주 권역	도심권	(37)	78.4	37.8	27.0	27.0	21.6	21.6	0.0
	동북권	(216)	79.6	34.3	26.4	23.1	25.0	10.2	0.9
	서북권	(79)	82.3	24.1	22.8	24.1	15.2	19.0	0.0
	서남권	(234)	73.9	34.2	26.1	22.2	16.2	19.7	1.3
	동남권	(117)	68.4	35.0	23.1	20.5	17.9	24.8	0.9
독립여부	비동거 · 비독립	(145)	77.9	25.5	25.5	31.0	24.1	14.5	0.0
	독립	(538)	75.5	35.5	25.3	20.4	18.2	18.4	1.1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227)	80.2	28.6	23.3	20.7	22.5	17.2	0.0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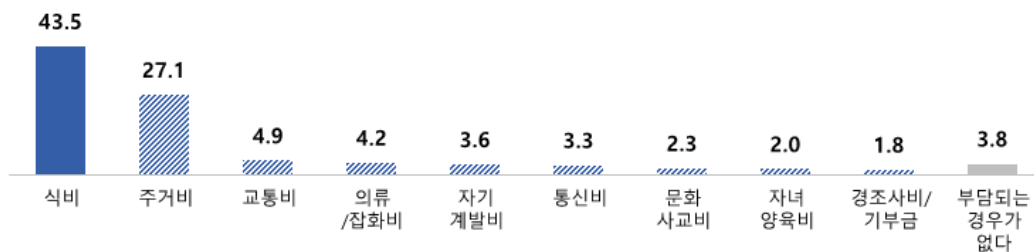
9-1. 생활비 지출 중 부담되는 항목_1순위

문. 생활비 지출 중 주로 부담이 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식비 43.5% > 주거비 27.1%

- 생활비 지출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 1순위로 식비가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거비가 27.1%, 교통비 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비동거·비독립, 독립한 1인가구의 경우 식비보다 주거비가 걱정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성세대의 경우 주거비 41.2%, 식비 24.4%, 자녀 양육비 15.8%, 자기 계발비 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Base: 전체, 1.5% 미만 응답 제외,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1.5% 미만 응답 제외,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식비	주거비	교통비	의류/잡화비	자기 계발비	통신비	문화 사교비	자녀 양육비	경조사비/기부금	부담되는 경우가 없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43.5	27.1	4.9	4.2	3.6	3.3	2.3	2.0	1.8	3.8
2020년 기성세대	(500)	24.4	41.2	1.4	2.6	3.8	0.6	3.0	15.8	1.2	1.8
성	남성	(1,483)	44.8	26.2	5.0	4.3	3.5	3.9	2.2	1.8	4.2
	여성	(1,517)	42.1	27.9	4.9	4.1	3.7	2.8	2.4	2.1	3.4
연령	만18세~24세	(798)	44.7	21.7	7.5	5.0	7.1	3.4	3.1	1.6	3.5
	25세~29세	(784)	43.4	28.6	5.6	4.3	3.8	3.4	2.6	0.5	2.8
	30세~34세	(695)	41.0	30.5	3.7	4.0	1.2	4.2	2.0	2.4	4.7
	35세~39세	(723)	44.5	28.1	2.5	3.3	1.8	2.4	1.4	3.7	4.4
거주 지역	도심권	(154)	41.6	26.0	5.2	5.2	3.2	3.2	4.5	1.9	3.2
	동북권	(890)	46.9	25.5	3.9	3.5	3.5	3.1	1.9	2.4	3.5
	서북권	(362)	43.6	27.3	3.9	5.2	3.0	3.6	2.2	2.8	3.6
	서남권	(962)	43.1	27.4	5.3	3.4	3.1	4.0	2.7	1.7	3.6
	동남권	(632)	39.6	28.8	6.3	5.5	4.9	2.5	1.7	1.7	4.9
독립 여부	부모와 동거	(1,546)	46.2	19.2	7.7	4.6	5.0	4.7	3.4	1.0	3.9
	비동거·비독립	(292)	38.0	39.4	2.4	4.1	4.1	1.7	1.7	1.7	3.4
	독립	(1,162)	41.1	34.4	1.9	3.7	1.5	2.0	0.9	3.5	3.9
가구 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33.6	45.3	1.8	3.5	2.4	2.2	1.5	0.4	3.8
	2인가구 동거	(1,546)	46.2	19.2	7.7	4.6	5.0	4.7	3.4	1.0	3.9

※ 1.5% 미만 응답: '사적이전' 1.4%, '보건의료비' 1.2%, 기타 0.9%

※ 기성세대의 경우 청년시절 생활비 지출 중 부담되는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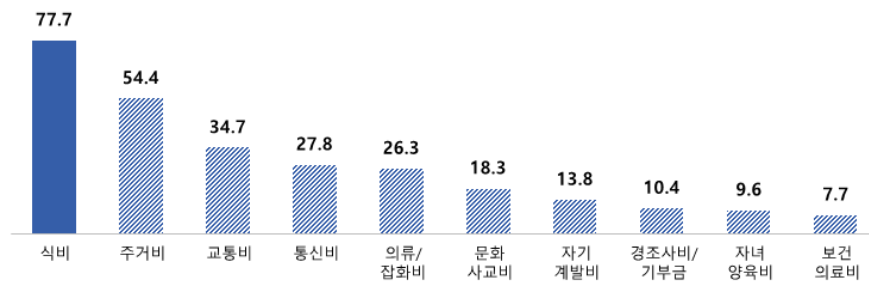
9-2. 생활비 지출 중 부담되는 항목_1+2+3순위_복수응답

문. 생활비 지출 중 주로 부담이 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주세요

식비 77.7% > 주거비 54.4% > 교통비 34.7%

- 생활비 지출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 1+2+3순위로 식비가 7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거비가 54.4%, 교통비 3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성세대의 경우 식비 72.8%, 주거비 71.6%, 자녀 양육비 38.6%, 교통비 23.8%, 의료/잡화비 2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복수응답, Base: 전체, 7% 미만 제외, 단위: %)



통계표

(복수응답, Base: 전체, 7% 미만 제외,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식비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잡화비	문화사교비	자기계발비	경조사비/기부금	자녀양육비	보건의료비
2020년 청년세대	(3,000)	77.7	54.4	34.7	27.8	26.3	18.3	13.8	10.4	9.6	7.7
2020년 기성세대	(500)	72.8	71.6	23.8	9.6	22.2	10.6	13.0	7.2	38.6	10.8
성	남성	(1,483)	77.7	55.2	36.5	29.8	24.3	18.6	13.1	9.2	6.6
	여성	(1,517)	77.6	53.6	32.9	25.9	28.2	18.0	14.5	11.6	8.8
연령	만18세~24세	(798)	77.7	42.0	46.0	28.9	29.2	25.3	22.9	2.8	6.6
	25세~29세	(784)	79.1	52.4	35.7	30.4	28.3	21.0	16.7	10.3	8.3
	30세~34세	(695)	76.7	63.5	29.2	28.1	26.8	13.8	9.1	14.8	9.1
	35세~39세	(723)	77.0	61.4	26.3	23.7	20.3	11.9	5.3	14.7	23.2
거주권역	도심권	(154)	75.3	57.1	33.1	24.7	28.6	16.9	13.0	9.1	9.7
	동북권	(890)	78.9	51.2	36.3	29.8	25.7	19.9	13.3	8.3	9.7
	서북권	(362)	77.9	58.3	32.6	27.3	24.9	19.1	14.1	8.0	11.0
	서남권	(962)	77.1	55.7	34.9	28.0	23.5	17.5	14.8	13.3	8.5
	동남권	(632)	77.2	53.8	33.5	25.9	31.5	17.2	13.3	10.6	10.3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77.7	40.4	45.0	33.2	29.4	21.7	18.2	6.1	3.7
	비동거·비독립	(292)	74.0	66.8	31.2	28.4	24.3	18.8	18.5	6.5	6.8
	독립	(1,162)	78.5	69.9	21.9	20.6	22.6	13.7	6.8	17.1	18.2
가구유형	1인가구·경제독립	(453)	80.1	74.0	21.9	23.2	24.3	19.2	9.3	16.6	1.3
	2인가구 동거	(1,546)	77.7	40.4	45.0	33.2	29.4	21.7	18.2	6.1	3.7

※ 7% 미만 제외: '사적이전' 6.1%, '부담되는 경우가 없다' 3.8%, 기타 1.7%

※ 기성세대의 경우, 청년시절 생활비 지출 중 부담되는 항목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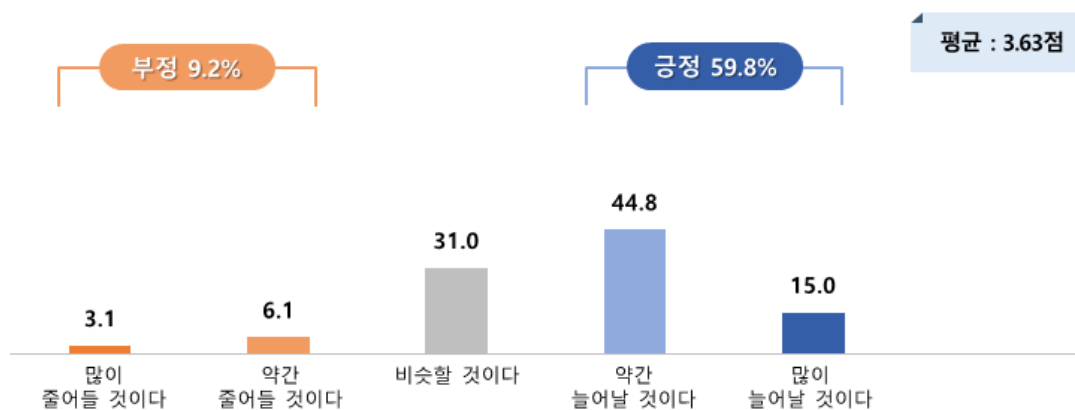
10. 향후 5년 간 소득 변화 예상

문. 귀하는 향후 5년 동안 본인의 소득이 현재보다 어떠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향후 5년 간 소득 변화 예상에 대한 긍정 지수는 5점 평균 3.63점

- 향후 5년 간 소득이 현재와 비교했을 때 긍정적인 응답은 59.8%, 부정적은 응답은 9.2%로 나타났고, 5점 평균 3.63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학생인 경우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 응답은 74.3%로 나타난 반면, 비학생인 경우 긍정 응답은 55.4%로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많이 줄어든 것이다 ①	약간 줄어든 것이다 ②	비슷할 것이다 ③	약간 늘어날 것이다 ④	많이 늘어날 것이다 ⑤	부정 (①+②)	보통 ③	긍정 (④+⑤)	5점 평균 (점)
2020년 청년세대		(3,000)	3.1	6.1	31.0	44.8	15.0	9.2	31.0	59.8	3.63
성	남성	(1,483)	3.0	5.7	31.4	44.0	15.8	8.8	31.4	59.8	3.64
	여성	(1,517)	3.1	6.4	30.8	45.5	14.2	9.5	30.8	59.7	3.61
연령	만18세~24세	(798)	2.5	3.9	20.1	45.6	27.9	6.4	20.1	73.6	3.93
	25세~29세	(784)	2.4	4.5	28.4	50.4	14.3	6.9	28.4	64.7	3.70
	30세~34세	(695)	3.0	4.9	39.7	43.0	9.4	7.9	39.7	52.4	3.51
	35세~39세	(723)	4.4	11.3	37.9	39.4	6.9	15.8	37.9	46.3	3.33
거주 권역	도심권	(154)	2.6	7.1	33.8	45.5	11.0	9.7	33.8	56.5	3.55
	동북권	(890)	3.7	5.2	28.2	46.3	16.6	8.9	28.2	62.9	3.67
	서북권	(362)	3.9	6.6	34.0	46.7	8.8	10.5	34.0	55.5	3.50
	서남권	(962)	2.8	7.1	31.3	42.3	16.5	9.9	31.3	58.8	3.63
	동남권	(632)	2.2	5.2	32.6	45.1	14.9	7.4	32.6	60.0	3.65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3.1	5.1	28.5	44.4	19.0	8.2	28.5	63.3	3.71
	비동거 · 비독립	(292)	2.7	5.1	24.0	47.3	20.9	7.9	24.0	68.2	3.78
	독립	(1,162)	3.1	7.6	36.4	44.7	8.3	10.7	36.4	52.9	3.47
학생여부	학생	(697)	2.4	4.2	19.1	46.3	28.0	6.6	19.1	74.3	3.93
	비학생	(2,303)	3.3	6.6	34.7	44.3	11.1	9.9	34.7	55.4	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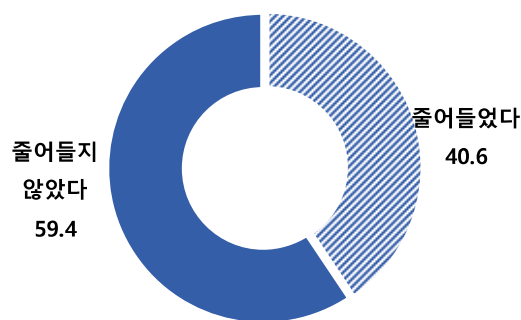
11. 코로나19로 인한 가구 소득 변화 여부

문. 귀하 및 귀댁 가정에서는 최근 6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적이 있습니까?

소득이 줄어들었다 40.6%

- 최근 6개월 간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었는가에 대해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40.6%,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은 59.4%로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줄어들었다	줄어들지 않았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40.6	59.4
2020년 기성세대		(500)	47.4	52.6
성	남성	(1,483)	39.2	60.8
	여성	(1,517)	42.0	58.0
연령	만18세~24세	(798)	44.6	55.4
	25세~29세	(784)	42.5	57.5
	30세~34세	(695)	36.5	63.5
	35세~39세	(723)	38.2	61.8
거주 권역	도심권	(154)	46.8	53.2
	동북권	(890)	42.1	57.9
	서북권	(362)	38.7	61.3
	서남권	(962)	40.4	59.6
	동남권	(632)	38.4	61.6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43.3	56.7
	비동거 · 비독립	(292)	46.2	53.8
	독립	(1,162)	35.6	64.4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34.7	65.3
	2인 가구, 동거	(1,546)	43.3	56.7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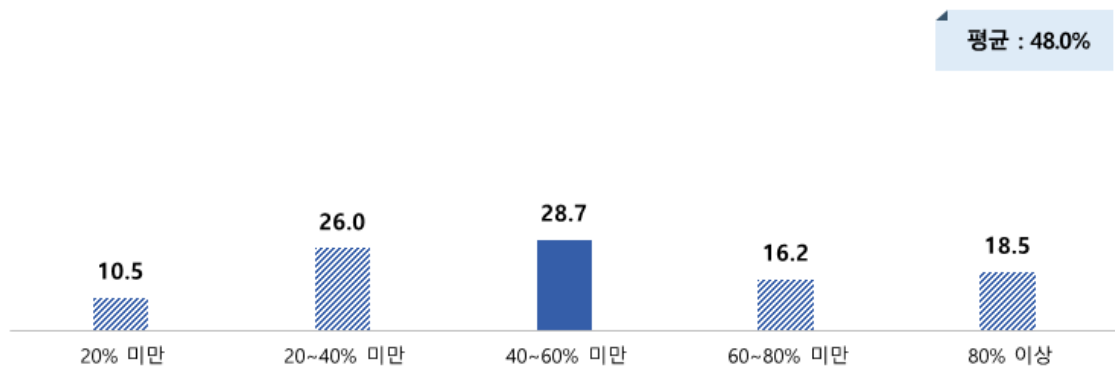
12. 코로나19로 인한 월 수입 변화

문. 평소 소득에 비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월 평균 몇 퍼센트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월 수입 변화는 평균 48.0%

-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변화를 조사한 결과, 40~60% 미만이라는 응답이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체 평균 수입 변화는 48.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Base: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은 응답자, 단위: %)



통계표

(Base: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은 응답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 이상	평균
2020년 청년세대		(1,219)	10.5	26.0	28.7	16.2	18.5	48.0
성	남성	(582)	11.3	27.8	24.4	16.8	19.6	47.7
	여성	(637)	9.7	24.3	32.7	15.7	17.6	48.2
연령	만18세~24세	(356)	5.9	24.2	30.1	19.7	20.2	51.5
	25세~29세	(333)	8.1	25.8	29.1	18.0	18.9	49.8
	30세~34세	(254)	14.6	24.8	28.0	16.9	15.7	46.0
	35세~39세	(276)	15.6	29.7	27.2	9.1	18.5	43.2
거주 권역	도심권	(72)	6.9	34.7	33.3	9.7	15.3	45.8
	동북권	(375)	10.4	24.0	33.1	13.9	18.7	47.8
	서북권	(140)	7.9	24.3	32.9	15.7	19.3	49.4
	서남권	(389)	9.5	26.7	24.2	20.1	19.5	49.4
	동남권	(243)	14.8	26.3	25.5	16.0	17.3	45.8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670)	9.6	25.1	28.5	18.7	18.2	49.0
	비동거·비독립	(135)	7.4	22.2	38.5	14.1	17.8	49.4
	독립	(414)	13.0	28.7	25.8	13.0	19.3	46.0
근로여부	근로함	(920)	11.7	27.9	26.7	16.2	17.4	46.6
	휴직·휴가	(74)	8.1	24.3	27.0	14.9	25.7	51.5
	일을 하지 않음	(129)	7.8	14.7	34.9	20.2	22.5	5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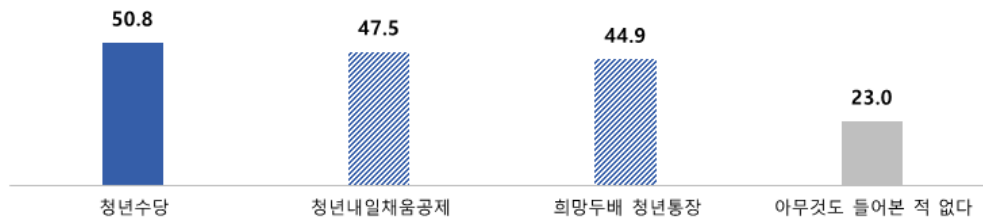
13. [서울시 자산형성 사업] 인지도_복수응답

문. 귀하는 서울시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자산 형성 사업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으신 사업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청년수당 50.8% > 청년내일채움공제 47.5%

- 서울시 자산형성 사업의 인지도로 청년수당이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47.5%, 희망두배 청년통장 44.9%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만18세~24세와 35세~39세는 청년수당 인지도가, 25세~34세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복수응답,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복수응답,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청년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아무것도 들어본 적 없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50.8	47.5	44.9	23.0
성	남성 (1,483)	50.6	42.5	40.9	27.2
	여성 (1,517)	50.9	52.4	48.8	18.8
연령	만18세~24세 (798)	53.9	38.2	45.0	23.3
	25세~29세 (784)	57.9	60.6	47.2	16.3
	30세~34세 (695)	47.1	52.7	45.3	22.0
	35세~39세 (723)	43.2	38.7	41.9	30.7
거주 권역	도심권 (154)	50.0	51.9	53.9	14.9
	동북권 (890)	52.8	48.1	47.4	20.3
	서북권 (362)	51.4	42.5	39.0	28.2
	서남권 (962)	51.9	50.0	44.6	21.9
	동남권 (632)	46.0	44.8	43.0	27.2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54.8	47.9	46.2	21.5
	비동거 · 비독립 (292)	52.7	42.5	40.8	24.0
	독립 (1,162)	44.9	48.3	44.2	24.6
근로여부	근로함 (2,256)	49.9	49.5	46.9	22.1
	휴직·휴가 (132)	56.8	56.1	47.7	15.9
	일을 하지 않음 (399)	51.6	32.3	34.8	31.3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46.1	55.4	45.0	21.9
	2인 이상, 동거 (1,546)	54.8	47.9	46.2	21.5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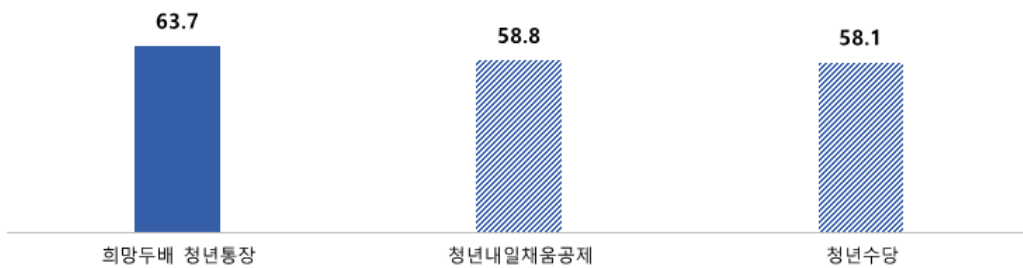
14. [서울시 자산형성 사업] 도움 정도(긍정 비율)

문. 다음 사업이 청년의 자산형성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희망두배 청년통장 63.7% > 청년내일채움공제 58.8%

- 서울시 자산형성 사업의 긍정 비율 비교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58.8%, 청년수당 58.1% 순으로 나타남.

(긍정%,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긍정%,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수당
2020년 청년세대		(3,000)	63.7	58.8	58.1
2020년 기성세대		(500)	60.4	57.2	46.2
성	남성	(1,483)	59.0	55.5	56.4
	여성	(1,517)	68.3	62.0	59.8
연령	만18세~24세	(798)	70.1	65.7	72.4
	25세~29세	(784)	66.6	62.9	61.0
	30세~34세	(695)	60.6	54.4	49.5
	35세~39세	(723)	56.6	51.0	47.4
거주 권역	도심권	(154)	61.0	61.0	57.1
	동북권	(890)	68.4	62.5	62.1
	서북권	(362)	63.0	58.3	58.3
	서남권	(962)	63.6	57.7	58.1
	동남권	(632)	58.2	55.1	52.5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65.5	60.0	61.3
	비동거 · 비독립	(292)	63.0	61.0	66.4
	독립	(1,162)	61.5	56.6	51.8
근로여부	근로함	(2,256)	64.4	60.4	57.3
	휴직·휴가	(132)	64.4	62.1	62.1
	일을 하지 않음	(399)	61.4	51.9	59.1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65.6	62.0	54.3
	2인이상, 동거	(1,546)	65.5	60.0	61.3

15. 청년 자산형성 정책 선호 방향

문. 귀하는 청년대상 자산형성 정책 방향에 대해 어느 쪽에 더 동의하십니까?

다수의 청년을 대상으로 적은 지원금이라도 보편적 혜택이 되도록 지원 65.9%

- 청년대상 자산형성 정책 방향에 대해 다수의 청년을 대상으로 적은 지원금이라도 보편적 혜택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에 65.9%가 동의하여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남.
- 기성세대의 경우 보편적 혜택이 되도록 지원이 59.6%로 청년세대에 비해 6.3%p 낮게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다수의 청년을 대상으로 적은 지원금이라도 보편적 혜택이 되도록 지원	소수의 청년을 지원이 더 필요한 경우를 선별하여 실질적 혜택이 되도록 지원	기타
2020년 청년세대		(3,000)	65.9	32.0	2.1
2020년 기성세대		(500)	59.6	37.6	2.8
성	남성	(1,483)	65.9	32.0	2.0
	여성	(1,517)	65.9	32.0	2.2
연령	만18세~24세	(798)	70.3	29.1	0.6
	25세~29세	(784)	69.9	28.2	1.9
	30세~34세	(695)	65.5	32.4	2.2
	35세~39세	(723)	57.1	39.0	3.9
거주 권역	도심권	(154)	64.9	34.4	0.6
	동북권	(890)	67.6	30.3	2.0
	서북권	(362)	65.7	31.5	2.8
	서남권	(962)	66.7	31.1	2.2
	동남권	(632)	62.5	35.4	2.1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68.0	30.3	1.7
	비동거 · 비독립	(292)	69.9	28.4	1.7
	독립	(1,162)	62.1	35.2	2.7
근로여부	근로함	(2,256)	65.0	33.1	1.9
	휴직·휴가	(132)	70.5	28.0	1.5
	일을 하지 않음	(399)	69.4	27.8	2.8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67.8	30.2	2.0
	2인이상, 동거	(1,546)	68.0	30.3	1.7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 FGI(Focus Group Interview)

< 생활비 지출에서 가장 부담 되는 것 >

- 월세가 가장 부담이 되고, 월세를 제외하면 식비가 가장 부담이 됨.
 - 제일 크게 월세, 그다음이 식비(20대 초중반 남성)
 - 저는 교육비가 제일 부담스러워요. 독서실 비용도 있고 인강비도 비싸고 책도 비싸서. 독서실만 한달에 20만원이 나가요.(20대 초중반 남성)
 - 전세라서 생활비에서는 식료품이나 생필품 지출에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20대 초중반 여성)
 - 월세 부담이 제일 커요. 50만원인데 아까워요.(20대 초중반 여성)
 - 월세 빼고는 식비랑 핸드폰 비용이 아까워요.(20대 초중반 여성)
 - 식비, 세금, 유흥 여가생활 관련된 비용이 가장 부담(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식비(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의 영향 >

- 수입이 줄고, 일을 강제로 쉬게 된 경험이 있음.
 - 아르바이트 하던 걸 코로나 때문에 신적이 있어요.(20대 초중반 남성)
 - 절반 정도. 50%, 예전에는 알바를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알바 자리가 부족해서 지금은 집에서 거의 다 지원받게 되었어요.(20대 초중반 여성)
 - 가족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돈을 알바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월로 따졌을 때 200넘게 차이 나요.(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Part. 5

자산과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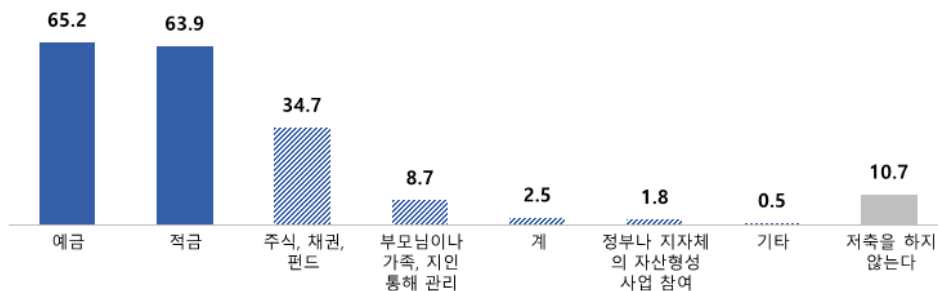
1. 저축 방법_복수응답

문. 귀하는 지금 저축을 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세요

예금 65.2% > 적금 63.9% > 주식, 채권, 펀드 34.7%

- 현재 하고 있는 저축으로 예금(저축예금, 정기예금, 청약예금 등)이 65.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서울 청년의 10명중 9명은 저축을 하고 있음.
- 응답자 특성별로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적금 비율이 낮고 주식, 채권, 펀드 비율이 높게 나타남.

(복수응답,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복수응답,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펀드	부모님이나 가족, 지인 통해 관리	계	정부나 지자체의 자산형성 사업 참여	기타	저축을 하지 않는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65.2	63.9	34.7	8.7	2.5	1.8	0.5	10.7
2020년 기성세대		(500)	73.0	69.6	20.6	6.2	2.4	0.6	0.0	6.8
성	남성	(1,483)	61.4	59.5	39.1	8.7	2.3	1.8	0.5	12.4
	여성	(1,517)	69.0	68.2	30.5	8.6	2.7	1.8	0.5	9.1
연령	만18세~24세	(798)	55.8	54.4	23.3	14.9	1.5	1.4	0.4	14.0
	25세~29세	(784)	66.5	65.1	31.5	7.8	2.9	2.2	0.4	11.4
	30세~34세	(695)	66.8	69.1	40.3	6.2	3.5	2.0	1.0	10.6
	35세~39세	(723)	72.9	68.3	45.5	5.1	2.2	1.5	0.3	6.5
거주 권역	도심권	(154)	69.5	71.4	38.3	7.8	6.5	1.9	0.0	8.4
	동북권	(890)	62.7	63.8	33.3	8.4	3.0	1.6	0.4	11.2
	서북권	(362)	59.4	60.5	30.4	9.7	2.2	2.8	0.6	12.4
	서남권	(962)	65.9	63.0	36.0	6.8	2.2	1.5	0.7	11.7
	동남권	(632)	70.1	65.7	36.6	11.6	1.4	1.9	0.3	8.1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64.2	60.5	28.6	11.2	2.1	1.4	0.3	12.2
	비동거 · 비독립	(292)	56.8	55.1	25.7	13.4	3.4	2.4	0.7	15.1
	독립	(1,162)	68.8	70.7	45.2	4.1	2.8	2.1	0.8	7.7
근로여부	근로함	(2,256)	68.4	70.1	37.9	7.6	2.9	2.0	0.6	7.4
	휴직·휴가	(132)	62.1	58.3	34.1	9.1	2.3	1.5	0.0	7.6
	일을 하지 않음	(399)	54.1	40.4	21.8	12.3	1.3	0.5	0.3	25.1
	1인가구, 경제독립	(453)	64.7	66.4	42.2	5.3	2.2	1.8	0.9	10.8
가구유형	2인이상, 동거	(1,546)	64.2	60.5	28.6	11.2	2.1	1.4	0.3	12.2

※ 기성세대의 경우 청년시절 기준 저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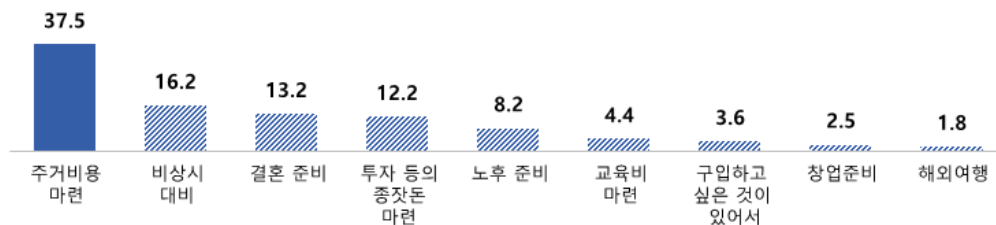
2-1. 저축 목적_1순위

문. 저축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주거비용 마련 37.5% > 비상시 대비 16.2%

- 저축을 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저축을 하는 목적 1순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거비용 마련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비상시 대비 16.2%, 결혼 준비 1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남성의 경우 투자 등의 종잣돈 마련이 15.9%로 여성(8.8%)보다 7.1%p 높음.
- 기성세대의 경우 주거비용 마련 44.4%, 결혼 준비 27.9%, 비상시 대비 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Base: 저축을 하고 있는 응답자, 기타 0.4% 제외, 단위: %)



통계표

(Base: 저축을 하고 있는 응답자, 기타 0.4% 제외,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주거비용 마련	비상시 대비	결혼 준비	투자 등의 종잣돈 마련	노후 준비	교육비 마련	구입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창업준비	해외여행
2020년 청년세대	(2,678)	37.5	16.2	13.2	12.2	8.2	4.4	3.6	2.5	1.8
2020년 기성세대	(466)	44.4	7.9	27.9	6.4	4.1	5.4	1.7	1.3	0.6
성	남성	(1,299)	36.4	12.5	14.2	15.9	7.1	4.7	4.1	1.4
	여성	(1,379)	38.6	19.7	12.3	8.8	9.3	4.2	3.1	2.1
연령	만18세~24세	(686)	30.0	22.4	10.6	12.7	3.5	5.5	7.6	2.9
	25세~29세	(695)	34.5	16.4	19.6	10.8	6.5	4.3	3.2	1.4
	30세~34세	(621)	43.6	14.5	14.0	12.1	7.6	3.1	1.9	0.6
	35세~39세	(676)	42.6	11.1	8.6	13.3	15.4	4.7	1.5	1.0
거주 권역	도심권	(141)	38.3	7.8	15.6	17.0	10.6	3.5	2.8	0.7
	동북권	(790)	33.9	19.7	12.5	12.0	8.2	3.9	3.4	2.8
	서북권	(317)	38.5	16.1	14.8	11.0	7.3	4.1	3.8	1.9
	서남권	(849)	39.3	15.9	13.7	11.2	9.0	3.9	3.8	1.6
	동남권	(581)	39.1	13.8	12.0	13.4	7.1	6.4	3.6	1.5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358)	31.7	19.1	15.5	12.0	6.9	4.1	5.0	2.3
	비동거 · 비독립	(248)	37.1	20.2	14.1	10.9	2.8	5.6	3.2	2.4
	독립	(1,072)	45.0	11.6	10.2	12.8	11.1	4.7	1.9	0.7
근로여부	근로함	(2,090)	39.8	13.4	14.1	12.1	9.2	4.1	3.2	1.5
	휴직·휴가	(122)	36.9	15.6	14.8	9.8	8.2	5.7	3.3	2.5
	일을 하지 않음	(299)	27.8	25.8	8.7	13.7	4.7	6.4	5.4	3.7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04)	42.1	14.6	17.8	9.9	8.9	2.2	2.2	0.2
	2인 이상, 동거	(1,358)	31.7	19.1	15.5	12.0	6.9	4.1	5.0	2.3

※ 기성세대의 경우 청년시절 기준 저축 목적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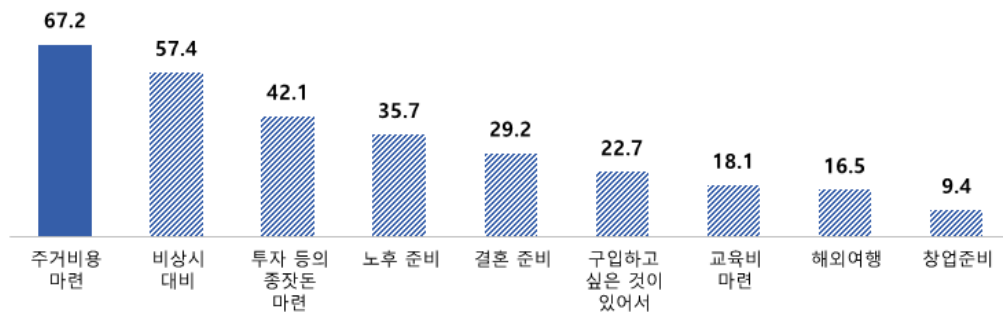
2-2. 저축 목적_1+2+3순위

문. 저축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 주세요

주거비용 마련 67.2% > 비상시 대비 57.4%

- 저축을 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저축을 하는 목적 1+2+3순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거비용 마련이 6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비상시 대비 57.4%, 투자 등의 종잣돈 마련 4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여성의 경우 노후준비가 42.3%로 남성(28.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기성세대의 경우 주거비용 마련 75.5%, 결혼 준비 55.6%, 비상시 대비 4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복수응답, Base: 저축을 하고 있는 응답자, 기타 1.3% 제외, 단위: %)



통계표

(복수응답, Base: 저축을 하고 있는 응답자, 기타 1.3% 제외,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주거비용 마련	비상시 대비	투자 등의 종잣돈 마련	노후 준비	결혼 준비	구입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교육비 마련	해외여행	창업준비
2020년 청년세대	(2,678)	67.2	57.4	42.1	35.7	29.2	22.7	18.1	16.5	9.4
2020년 기성세대	(466)	75.5	49.8	38.0	26.0	55.6	19.7	22.5	7.9	4.3
성	남성 (1,299)	65.7	52.0	48.6	28.8	31.8	26.5	18.6	14.3	11.9
	여성 (1,379)	68.6	62.4	36.0	42.3	26.8	19.1	17.6	18.5	7.2
연령	만18세~24세 (686)	58.9	61.4	38.5	20.3	25.2	35.1	23.5	24.9	9.8
	25세~29세 (695)	70.4	55.1	43.2	27.9	39.1	23.2	14.2	15.1	10.6
	30세~34세 (621)	73.3	53.1	48.3	40.3	31.2	15.8	15.5	11.3	9.8
	35세~39세 (676)	66.7	59.5	39.1	55.3	21.3	16.0	18.9	14.1	7.5
거주 권역	도심권 (141)	63.8	44.7	57.4	39.0	29.1	22.7	16.3	13.5	12.1
	동북권 (790)	66.7	60.5	40.6	36.6	27.8	22.3	16.7	18.4	8.6
	서북권 (317)	66.2	59.9	41.3	37.2	26.8	22.7	22.4	14.2	7.9
	서남권 (849)	69.7	57.0	39.5	35.6	31.6	23.0	17.9	16.0	8.1
	동남권 (581)	65.4	55.2	44.8	33.2	29.1	22.9	18.2	16.5	12.7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358)	63.9	57.1	40.5	31.6	33.9	27.2	16.6	18.3	9.3
	비동거 · 비독립 (248)	70.2	62.9	39.5	16.9	30.2	24.6	24.2	19.4	10.1
	독립 (1,072)	70.6	56.3	44.8	45.3	23.1	16.6	18.5	13.4	9.5
근로여부	근로함 (2,090)	68.9	54.7	42.2	37.5	31.2	21.0	17.1	16.1	9.9
	휴직·휴가 (122)	62.3	58.2	36.1	28.7	27.9	26.2	28.7	18.0	11.5
	일을 하지 않음 (299)	58.5	69.2	41.5	29.8	18.4	28.8	22.7	20.7	7.4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04)	73.5	53.7	43.1	36.1	41.6	17.1	12.1	13.4	8.2
	2인이상, 동거 (1,358)	63.9	57.1	40.5	31.6	33.9	27.2	16.6	18.3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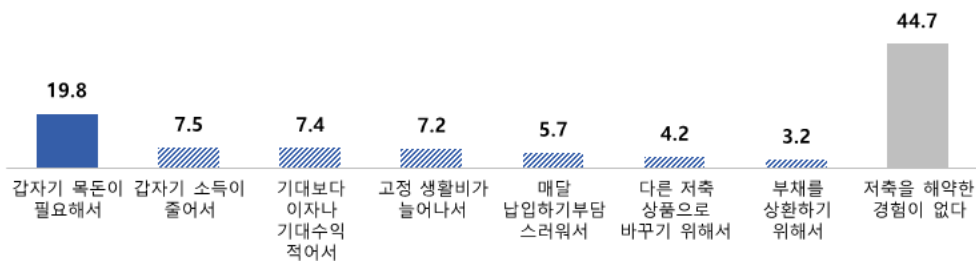
3. 저축 해약 이유

문. 최근 1년 동안 저축을 해약하신 경험이 있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19.8%

- 저축을 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최근 1년 간 저축을 해약한 가장 주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가 1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갑자기 소득이 줄어서 7.5%, 기대보다 이자나 기대수익 적어서 7.4%, 고정 생활비가 늘어나서 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저축을 해약한 경험이 없다는 44.7%로 나타남.

(Base: 저축을 하고 있는 응답자, 기타 0.2% 제외, 단위: %)



통계표

(Base: 저축을 하고 있는 응답자, 기타 0.2% 제외,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갑자기 소득이 줄어서	기대보다 이자나 기대수익 적어서	고정 생활비가 늘어나서	매달 납입하기 부담스러워서	다른 저축 상품으로 바꾸기 위해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저축을 해약한 경험이 없다
2020년 청년세대	(2,678)	19.8	7.5	7.4	7.2	5.7	4.2	3.2	44.7
성	남성 (1,299)	20.1	6.7	8.8	7.7	5.2	4.2	3.0	44.3
	여성 (1,379)	19.4	8.3	6.1	6.7	6.2	4.3	3.4	45.1
연령	만18세~24세 (686)	17.6	7.9	7.7	4.4	3.8	5.1	1.7	51.5
	25세~29세 (695)	17.8	8.5	8.9	7.8	7.1	3.7	2.9	43.0
	30세~34세 (621)	20.9	6.4	6.0	8.1	5.8	4.5	3.1	45.1
	35세~39세 (676)	22.8	7.2	6.8	8.7	6.2	3.6	5.2	39.3
거주 권역	도심권 (141)	23.4	4.3	14.9	8.5	6.4	3.5	1.4	36.9
	동북권 (790)	18.9	9.9	6.6	7.3	4.7	4.2	3.5	44.4
	서북권 (317)	16.7	8.2	7.3	6.6	6.3	5.0	3.2	46.7
	서남권 (849)	20.3	6.8	6.8	6.2	5.8	3.8	3.2	47.0
	동남권 (581)	21.0	5.9	7.6	8.4	6.5	4.6	3.3	42.7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358)	17.7	7.0	7.7	6.0	5.2	4.3	2.1	49.7
	비동거 · 비독립 (248)	13.3	9.7	9.7	6.9	8.1	6.0	2.4	42.7
	독립 (1,072)	23.8	7.7	6.4	8.8	5.8	3.6	4.9	38.9
근로여부	근로함 (2,090)	21.3	7.5	8.0	7.5	5.8	4.1	3.3	42.3
	휴직·휴가 (122)	19.7	13.1	5.7	11.5	5.7	2.5	9.0	32.0
	일을 하지 않음 (299)	14.7	2.7	5.7	4.3	4.0	5.7	1.7	60.9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04)	25.2	7.4	5.7	7.7	4.2	3.7	3.0	42.8
	2인이상 가구, 동거 (1,358)	17.7	7.0	7.7	6.0	5.2	4.3	2.1	49.7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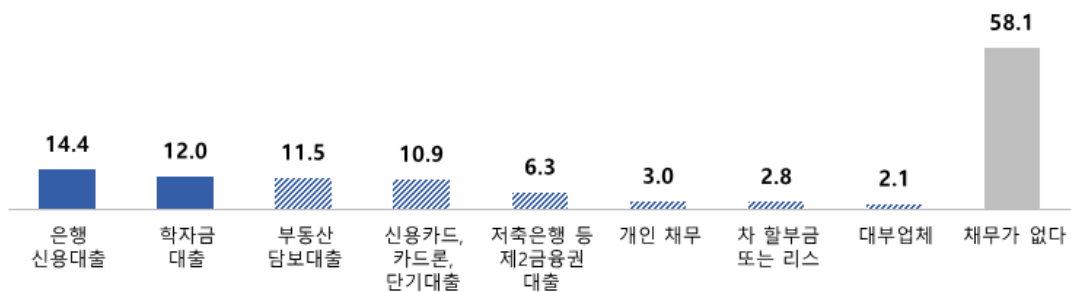
4. 채무 종류_복수응답

문. 귀하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학자금 대출 포함)가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주세요

은행 신용대출 14.4% > 학자금 대출 12.0%

- 서울 청년 10명 중 4명은 채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갚아야 할 채무 종류로는 은행 신용대출(마이네스 통장 포함)이 14.4%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학자금 대출 12.0%, 부동산 담보대출 11.5%, 신용카드, 카드론, 단기대출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만18세~24세, 부모와 동거, 비동거·비독립의 경우 은행 신용대출 보다 학자금 대출이 더 높게 나타남.

(복수응답, Base: 전체, 기타 1.0% 제외, 단위: %)



통계표

(복수응답, Base: 전체, 기타 1.0% 제외,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은행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신용카드, 카드론, 단기대출	제2금융권 대출	개인 채무	차 할부금/리스	대부업체	채무가 없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14.4	12.0	11.5	10.9	6.3	3.0	2.8	2.1	58.1
2020년 기성세대	(500)	25.0	8.8	18.6	17.0	4.4	4.4	5.6	1.4	49.8
성	남성	(1,483)	16.0	12.5	13.7	10.6	7.5	3.8	3.6	54.5
	여성	(1,517)	12.9	11.5	9.3	11.1	5.1	2.2	2.0	61.6
연령	만18세~24세	(798)	4.4	16.4	2.3	6.3	2.6	1.9	0.9	71.4
	25세~29세	(784)	12.5	17.0	6.8	11.6	6.5	3.4	1.1	58.4
	30세~34세	(695)	17.1	8.5	16.0	12.1	8.2	3.9	2.9	55.0
	35세~39세	(723)	25.0	5.1	22.4	14.0	8.2	5.0	3.9	46.1
거주 권역	도심권	(154)	18.2	13.6	14.3	13.6	7.1	1.3	3.9	51.3
	동북권	(890)	12.1	13.3	10.3	11.3	4.6	2.5	2.4	60.1
	서북권	(362)	13.3	13.5	9.4	10.2	8.6	2.2	3.3	61.0
	서남권	(962)	14.4	10.8	12.3	9.5	5.8	4.2	2.4	58.5
	동남권	(632)	17.4	10.8	12.3	12.0	7.8	2.8	3.6	54.6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8.3	13.5	4.9	9.4	5.0	2.7	2.3	66.9
	비동거·비독립	(292)	8.9	14.4	7.5	11.6	7.5	1.7	2.1	63.7
근로여부	독립	(1,162)	23.9	9.5	21.3	12.6	7.6	3.8	3.7	45.0
	근로함	(2,256)	16.6	12.2	13.7	11.8	7.0	3.2	3.2	54.3
	휴직·휴가	(132)	15.2	8.3	11.4	15.2	9.1	3.8	2.3	53.0
	일을 하지 않음	(399)	5.5	11.5	2.8	4.5	3.3	1.5	1.3	76.4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19.6	13.5	10.2	12.8	7.7	4.6	2.6	53.6
	2인이상, 동거	(1,546)	8.3	13.5	4.9	9.4	5.0	2.7	2.3	66.9

※ 기성세대의 경우 청년시절 기준 채무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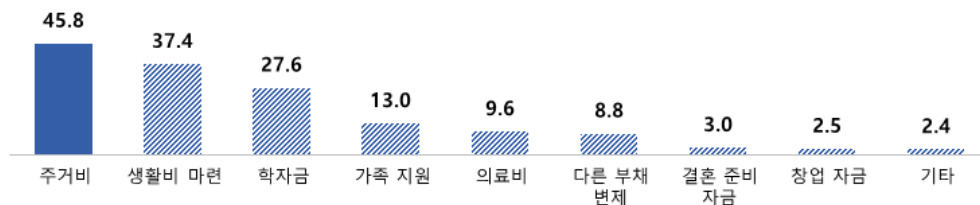
5. 채무 발생 이유_복수응답

문. 귀하가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채무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주세요

주거비 45.8% > 생활비 마련 37.4% > 학자금 27.6%

- 채무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채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거비(전, 월세자금 대출 등)가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활비 마련(식비, 의료비, 교통통신비 등) 37.4%, 학자금 2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30대, 서남권, 독립, 독립한 1인가구의 경우 주거비 마련을 위해 채무가 발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복수응답, Base: 채무가 있는 응답자, 단위: %)



통계표

(복수응답, Base: 채무가 있는 응답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주거비	생활비 마련	학자금	가족 지원	의료비	다른부채 변제	결혼준비 자금	창업 자금	기타
2020년 청년세대	(1,257)	45.8	37.4	27.6	13.0	9.6	8.8	3.0	2.5	2.4
2020년 기성세대	(251)	61.0	31.5	17.9	8.4	8.4	10.0	8.0	6.4	3.2
성	남성	(675)	47.3	37.6	27.1	13.8	9.2	10.1	3.3	2.8
	여성	(582)	44.2	37.1	28.2	12.0	10.1	7.4	2.7	1.9
연령	만18세~24세	(228)	20.6	34.2	59.2	10.1	6.6	6.1	1.8	1.3
	25세~29세	(326)	34.4	37.1	37.4	14.1	12.6	8.9	1.8	1.8
	30세~34세	(313)	55.0	40.6	16.9	13.7	10.9	7.0	2.9	2.2
	35세~39세	(390)	62.8	36.9	9.5	13.1	7.9	11.8	4.9	3.1
거주 권역	도심권	(75)	44.0	34.7	24.0	25.3	13.3	10.7	1.3	0.0
	동북권	(355)	44.2	36.9	30.7	10.4	10.4	8.7	3.7	2.0
	서북권	(141)	41.8	36.9	28.4	17.0	8.5	7.8	3.5	4.3
	서남권	(399)	50.4	37.1	27.6	10.3	9.3	8.3	3.5	3.3
	동남권	(287)	43.9	39.4	24.4	14.6	8.7	9.8	1.7	1.7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512)	25.8	41.0	41.2	14.5	10.2	9.6	2.7	3.1
	비동거 · 비독립	(106)	45.3	50.9	34.9	13.2	11.3	6.6	3.8	2.8
	독립	(639)	62.0	32.2	15.5	11.7	8.9	8.6	3.1	2.0
근로 여부	근로함	(1,032)	48.6	36.2	25.4	13.5	10.1	8.6	3.3	2.9
	휴직·휴가	(62)	38.7	53.2	17.7	11.3	12.9	12.9	3.2	1.6
	일을 하지 않음	(94)	33.0	28.7	48.9	8.5	5.3	7.4	2.1	1.1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210)	57.1	37.6	24.8	10.0	13.3	6.2	2.4	1.9
	2인이상, 동거	(512)	25.8	41.0	41.2	14.5	10.2	9.6	2.7	3.1

※ 기성세대의 경우 청년시절 기준 채무 발생 이유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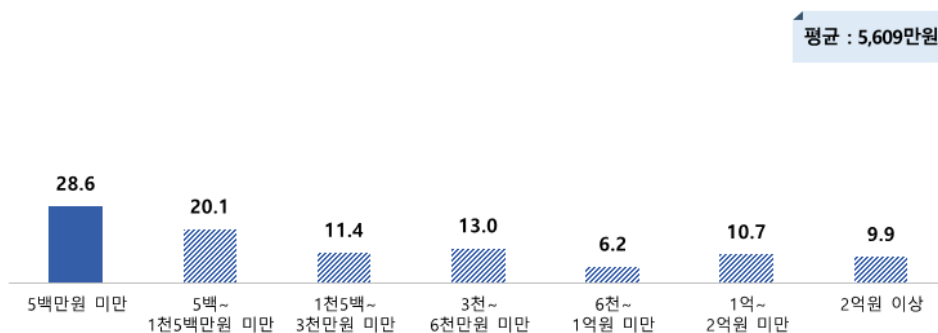
6. 총 채무 금액

문. 귀하 본인의 총 채무는 얼마나 됩니까?

5백만원 미만 28.6%, 총 채무 금액 평균 5,609만원 수준

- 채무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5백만원 미만이 28.6%로 소액 채무가 높게 나타났고, 평균 5,609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강남권에서 채무금액이 높게 나타남. 독립한 경우 평균 8,771만원, 독립한 1인가구의 경우 채무금액이 평균 5,048만원으로 나타남.

(Base: 채무가 있는 응답자, 단위: %)



통계표

(Base: 채무가 있는 응답자, 단위: %)

구분	사레수 (명)	5백만원 미만	5백~1천5백만원 미만	1천5백~3천만원 미만	3천~6천만원 미만	6천~1억원 미만	1억~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평균 (만원)
2020년 청년세대	(1,257)	28.6	20.1	11.4	13.0	6.2	10.7	9.9	5,609
성									
남성	(675)	27.6	19.3	11.1	13.2	7.3	10.1	11.6	6,170
여성	(582)	29.9	21.1	11.7	12.9	5.0	11.5	7.9	4,958
연령									
만18세~24세	(228)	54.4	28.9	6.1	6.1	3.1	1.3	0.0	1,023
25세~29세	(326)	32.8	26.4	14.1	13.2	5.2	6.1	2.1	2,746
30세~34세	(313)	24.3	15.3	10.9	15.7	8.0	10.5	15.3	7,115
35세~39세	(390)	13.6	13.6	12.6	14.9	7.4	20.3	17.7	9,475
거주 권역									
도심권	(75)	37.3	18.7	9.3	12.0	5.3	6.7	10.7	4,890
동북권	(355)	30.7	20.8	14.1	7.9	5.1	12.7	8.7	5,274
서북권	(141)	26.2	22.7	12.8	14.2	6.4	10.6	7.1	4,676
서남권	(399)	28.8	16.8	10.8	13.5	9.3	11.3	9.5	5,626
동남권	(287)	24.7	23.0	8.7	18.5	3.5	8.7	12.9	6,645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512)	43.2	25.4	12.5	9.6	2.1	4.1	3.1	2,418
비동거 · 비독립	(106)	40.6	29.2	13.2	7.5	3.8	3.8	1.9	1,963
독립	(639)	15.0	14.4	10.2	16.7	9.9	17.2	16.6	8,771
근로여부									
근로함	(1,032)	25.8	20.3	11.1	13.7	6.8	11.4	10.9	6,042
휴직·휴가	(62)	45.2	14.5	12.9	8.1	6.5	6.5	6.5	4,449
일을 하지 않음	(94)	38.3	20.2	12.8	14.9	3.2	7.4	3.2	3,030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210)	20.5	19.5	11.9	16.2	13.3	13.3	5.2	5,048
2인 이상, 동거	(512)	43.2	25.4	12.5	9.6	2.1	4.1	3.1	2,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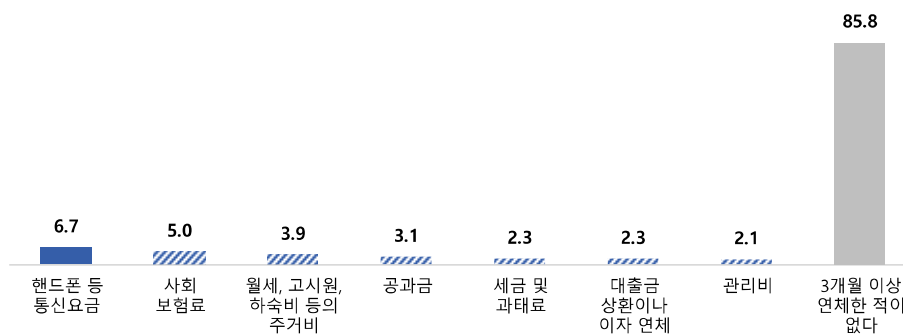
7. 연체 경험_복수응답

문.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3개월 이상 연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음 중 해당 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세요

3개월 연체 경험이 있다 14.2%

- 최근 1년 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14.2%로 나타남. 연체 항목으로는 핸드폰 등 통신요금 6.7%,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 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복수응답, Base: 전체, 기타 0.1% 제외, 단위: %)



통계표

(복수응답, Base: 전체, 기타 0.1% 제외,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통신요금	사회 보험료	주거비	공과금	세금 및 과태료	대출금 상환이나 이자 연체	관리비	연체한 적 없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6.7	5.0	3.9	3.1	2.3	2.3	2.1	85.8
성	남성 (1,483)	8.0	6.5	4.6	3.8	2.9	2.1	2.5	83.7
	여성 (1,517)	5.5	3.6	3.2	2.3	1.8	2.4	1.7	87.9
연령	만18세~24세 (798)	7.6	2.3	3.5	2.1	1.3	1.9	2.3	86.7
	25세~29세 (784)	7.7	5.4	4.1	3.2	2.2	2.7	1.8	84.8
	30세~34세 (695)	5.2	6.3	3.9	4.3	2.7	1.9	2.3	86.5
	35세~39세 (723)	6.1	6.5	4.0	2.8	3.3	2.6	2.1	85.3
거주 권역	도심권 (154)	5.8	5.2	5.8	6.5	4.5	1.3	1.3	79.9
	동북권 (890)	6.4	4.5	4.3	3.4	2.0	2.5	1.9	86.5
	서북권 (362)	5.5	5.2	3.0	1.7	1.7	2.2	1.4	88.7
	서남권 (962)	6.4	5.0	3.4	2.9	2.3	2.0	1.8	87.1
	동남권 (632)	8.4	5.7	4.0	2.8	2.7	2.7	3.5	82.8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7.1	4.3	3.2	2.7	2.4	2.2	1.7	86.8
	비동거 · 비독립 (292)	9.6	6.5	4.8	4.1	2.7	2.7	3.8	79.5
	독립 (1,162)	5.4	5.6	4.6	3.4	2.2	2.2	2.2	86.1
근로여부	근로함 (2,256)	7.1	5.8	4.6	3.5	2.6	2.2	2.2	84.8
	휴직, 휴가 (132)	7.6	9.1	3.0	4.5	3.0	5.3	1.5	78.0
	일을 하지 않음 (399)	3.5	1.3	1.3	0.5	1.0	1.3	1.5	94.0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5.5	4.9	5.3	3.8	2.6	2.6	2.9	87.0
	2인 이상, 동거 (1,546)	7.1	4.3	3.2	2.7	2.4	2.2	1.7	86.8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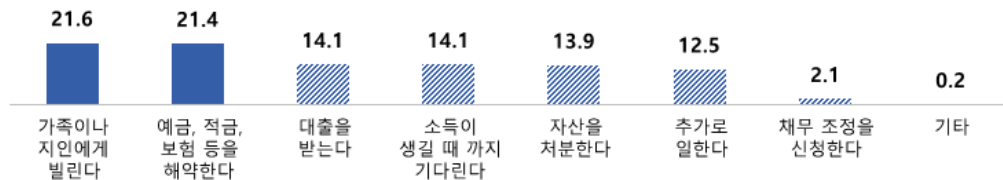
8. 연체 해결 방법

문. 연체를 하신 경우 주된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다 21.6% > 예금, 적금, 보험 등을 해약한다 21.4%

- 채무를 연체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연체를 한 경우 주된 해결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다 21.6%, 예금, 적금, 보험 등을 해약한다 21.4%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남성의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다(21.2%), 자산을 처분한다(19.1%), 예금, 적금, 보험 등을 해약한다(16.6%)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예금, 적금, 보험 등을 해약한다(27.7%),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다(22.3%), 소득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15.8%)의 순으로 나타남.
- 독립한 경우는 예금, 적금, 보험 등을 해약한다가 21.7%로 가장 높게 나타남.

(Base: 채무를 연체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단위: %)



통계표

(Base: 채무를 연체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다	예금, 적금, 보험 등을 해약한다	대출을 받는다	소득이 생길 때 까지 기다린다	자산을 처분한다	추가로 일한다	채무 조정을 신청한다	기타
2020년 청년세대	(425)	21.6	21.4	14.1	14.1	13.9	12.5	2.1	0.2
성									
남성	(241)	21.2	16.6	14.5	12.9	19.1	14.1	1.7	0.0
여성	(184)	22.3	27.7	13.6	15.8	7.1	10.3	2.7	0.5
연령									
만18세~24세	(106)	28.3	19.8	7.5	20.8	5.7	16.0	1.9	0.0
25세~29세	(119)	21.0	24.4	13.4	11.8	15.1	10.9	3.4	0.0
30세~34세	(94)	14.9	21.3	21.3	14.9	17.0	9.6	0.0	1.1
35세~39세	(106)	21.7	19.8	15.1	9.4	17.9	13.2	2.8	0.0
거주 권역									
도심권	(31)	19.4	25.8	16.1	12.9	12.9	12.9	0.0	0.0
동북권	(120)	29.2	13.3	13.3	15.0	13.3	14.2	1.7	0.0
서북권	(41)	19.5	29.3	2.4	14.6	22.0	9.8	2.4	0.0
서남권	(124)	16.9	20.2	15.3	16.9	15.3	10.5	4.0	0.8
동남권	(109)	20.2	27.5	17.4	10.1	10.1	13.8	0.9	0.0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204)	23.5	20.1	13.2	17.6	12.3	11.3	2.0	0.0
비동거 · 비독립	(60)	21.7	25.0	10.0	6.7	20.0	13.3	3.3	0.0
독립	(161)	19.3	21.7	16.8	12.4	13.7	13.7	1.9	0.6
근로여부									
근로함	(343)	20.1	22.4	15.5	12.8	14.0	12.5	2.3	0.3
휴직·휴가	(29)	27.6	27.6	10.3	3.4	17.2	13.8	0.0	0.0
일을 하지 않음	(24)	33.3	8.3	8.3	20.8	16.7	8.3	4.2	0.0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59)	15.3	10.2	18.6	20.3	11.9	22.0	1.7	0.0
2인 이상, 동거	(204)	23.5	20.1	13.2	17.6	12.3	11.3	2.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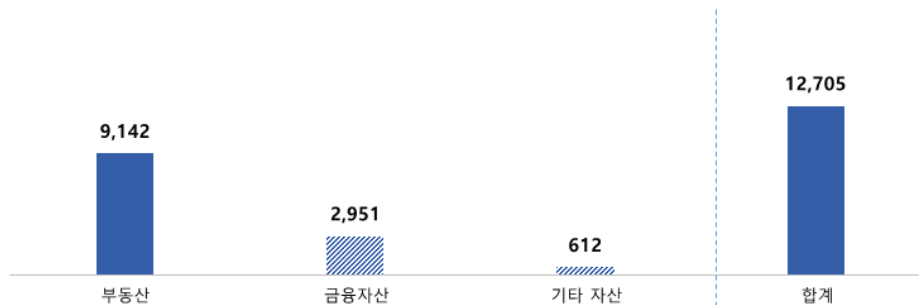
9. 자산 금액

문. 현재 귀하가 본인 이름으로 보유한 자산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현재 보유한 자산이 없으면 '0'을 기입해주세요

자산 총 금액은 12,705만원 수준

- 현재 보유 자산으로 부동산이 평균 9,142만원으로 타 자산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전체 합계 자산은 평균 1억 2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부동산 자산이 있는 청년과 없는 청년의 총 자산(금융, 기타 자산 등)을 비교하면 없는 청년은 1,948만원, 있는 청년은 3억9천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부동산, 금융 등 자산이 전혀 없는 청년도 772명으로 청년 4명 중 1명에 이름.

(Base: 전체, 단위: 만원)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만원)

구분		사례수 (명)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자산	합계
2020년 청년세대		(3,000)	9,142	2,951	612	12,705
성	남성	(1,483)	10,857	3,459	912	15,228
	여성	(1,517)	7,466	2,454	319	10,240
연령	만18세~24세	(798)	1,909	632	217	2,759
	25세~29세	(784)	3,263	2,344	188	5,795
	30세~34세	(695)	11,164	3,176	683	15,023
	35세~39세	(723)	21,559	5,952	1,439	28,950
거주 권역	도심권	(154)	8,841	3,390	1,378	13,609
	동북권	(890)	7,019	2,248	420	9,687
	서북권	(362)	6,231	2,091	175	8,497
	서남권	(962)	8,546	2,757	417	11,720
	동남권	(632)	14,783	4,621	1,244	20,648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3,373	2,075	233	5,681
	비동거 · 비독립	(292)	2,890	1,599	513	5,001
근로여부	독립	(1,162)	18,390	4,456	1,141	23,988
	근로함	(2,256)	10,578	3,498	722	14,799
	휴직·휴가	(132)	7,239	2,026	127	9,392
	일을 하지 않음	(399)	4,556	1,067	172	5,795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6,697	3,079	571	10,347
	2인이상, 동거	(1,546)	3,373	2,075	233	5,681
자산보유 여부	자산 보유	(2,228)	12,310	3,973	824	17,107
	자산 미보유	(772)	0	0	0	0
부동산자산 보유여부	보유	(866)	31,671	5,914	1,627	39,212
	미보유	(2,134)	0	1,748	200	1,948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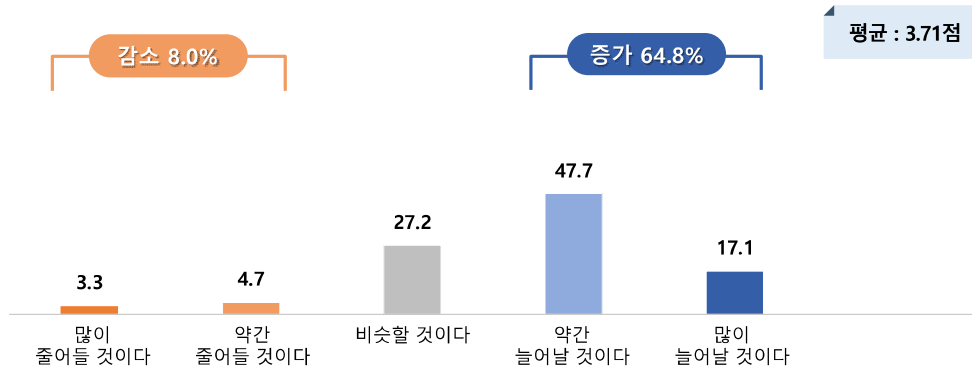
10. 향후 자산 변화 예상

문. 귀하는 향후 5년 동안 본인의 자산이 현재보다 어떠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향후 5년 간 자산 변화 긍정 지수는 5점 평균 3.71점

- 향후 5년 간 자산이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64.8%, 줄어든 것이라는 응답은 8.0%로 나타났으며, 긍정 지수는 3.71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자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많이 줄어든 것이다 ①	약간 줄어든 것이다 ②	비슷할 것이다 ③	약간 늘어날 것이다 ④	많이 늘어날 것이다 ⑤	감소 (①+②)	비슷 ③	증가 (④+⑤)	5점 평균 (점)
2020년 청년세대		(3,000)	3.3	4.7	27.2	47.7	17.1	8.0	27.2	64.8	3.71
성	남성	(1,483)	3.5	4.9	27.8	45.7	18.1	8.4	27.8	63.8	3.70
	여성	(1,517)	3.2	4.5	26.5	49.8	16.1	7.6	26.5	65.9	3.71
연령	만18세~24세	(798)	2.0	3.0	19.5	47.4	28.1	5.0	19.5	75.4	3.96
	25세~29세	(784)	3.2	4.0	24.2	52.6	16.1	7.1	24.2	68.6	3.74
	30세~34세	(695)	3.5	3.9	33.7	46.5	12.5	7.3	33.7	59.0	3.61
	35세~39세	(723)	4.8	8.2	32.4	44.1	10.5	13.0	32.4	54.6	3.47
거주 권역	도심권	(154)	3.2	7.8	27.9	48.1	13.0	11.0	27.9	61.0	3.60
	동북권	(890)	3.0	3.8	23.5	50.6	19.1	6.9	23.5	69.7	3.79
	서북권	(362)	5.2	5.5	27.9	48.3	13.0	10.8	27.9	61.3	3.58
	서남권	(962)	3.1	4.9	28.7	45.2	18.1	8.0	28.7	63.3	3.70
	동남권	(632)	3.0	4.4	29.3	47.2	16.1	7.4	29.3	63.3	3.69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3.3	4.5	24.2	48.1	19.9	7.8	24.2	68.0	3.77
	비동거 · 비독립	(292)	4.1	3.8	25.0	44.9	22.3	7.9	25.0	67.1	3.77
	독립	(1,162)	3.2	5.2	31.6	47.9	12.0	8.4	31.6	60.0	3.60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2.9	6.2	29.4	48.1	13.5	9.1	29.4	61.6	3.63
	2인이상, 동거	(1,546)	3.3	4.5	24.2	48.1	19.9	7.8	24.2	68.0	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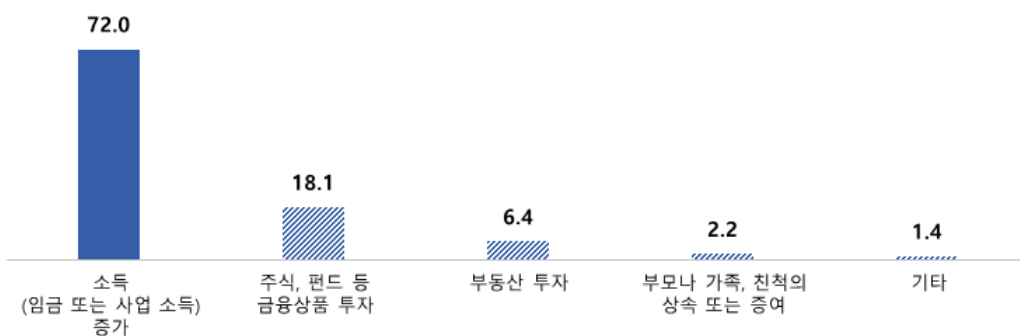
11. 향후 자산 증가 요인

문. 자산이 늘어난다면 어떤 요인 때문이라 예상하십니까?

소득 증가 72.0% > 금융상품 투자 18.1% > 부동산 투자 6.4%

- 향후 5년 간 자산이 증가할 것이라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자산이 늘어난다면 증가하게 된 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소득(임금 또는 사업 소득) 증가가 7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 18.1%, 부동산 투자 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Base: 향후 5년 간 자산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단위: %)



통계표

(Base: 향후 5년 간 자산이 증가할 것이라고 한 응답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소득 증가	금융상품 투자	부동산 투자	상속 또는 증여	기타
2020년 청년세대	(1,945)	72.0	18.1	6.4	2.2	1.4
성	남성 (946)	66.2	23.0	6.8	2.9	1.2
	여성 (999)	77.5	13.4	6.0	1.5	1.6
연령	만18세~24세 (602)	80.2	11.8	2.5	3.7	1.8
	25세~29세 (538)	75.7	17.3	4.1	1.5	1.5
	30세~34세 (410)	67.1	22.9	7.8	1.2	1.0
	35세~39세 (395)	59.5	23.8	13.9	1.8	1.0
거주 권역	도심권 (94)	68.1	16.0	8.5	5.3	2.1
	동북권 (620)	73.1	19.0	5.3	1.0	1.6
	서북권 (222)	71.2	18.9	5.4	2.3	2.3
	서남권 (609)	73.1	17.6	5.6	2.3	1.5
	동남권 (400)	70.0	17.5	9.3	3.0	0.3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052)	76.8	15.3	4.3	2.0	1.6
	비동거 · 비독립 (196)	82.1	8.7	2.0	4.6	2.6
	독립 (697)	61.8	25.0	10.8	1.7	0.7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279)	66.7	26.9	5.0	1.1	0.4
	2인이상, 동거 (1,052)	76.8	15.3	4.3	2.0	1.6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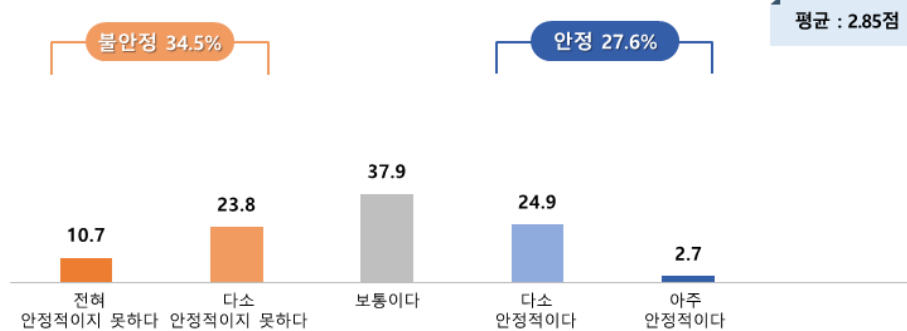
12. 경제적 안정성

문. 귀하는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를 종합해서 볼 때 본인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평가는 5점 평균 2.85점

- 소득, 지출, 자산, 부채를 종합하였을 때 본인의 경제적 안정성에 대해 안정하지 못하다는 응답은 34.5%,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27.6%로 나타났고, 안정성에 대한 5점 평균 점수는 2.85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안정적이지 못함 ①	다소 안정적이지 못함 ②	보통이다 ③	다소 안정적이다 ④	아주 안정적이다 ⑤	불안정 (①+②)	보통 ③	안정 (④+⑤)	5점 평균 (점)
2020년 청년세대	(3,000)	10.7	23.8	37.9	24.9	2.7	34.5	37.9	27.6	2.85
2020년 기성세대	(500)	9.0	25.0	39.2	24.2	2.6	34.0	39.2	26.8	2.86
성										
남성	(1,483)	9.8	21.3	40.1	24.8	4.0	31.1	40.1	28.8	2.92
여성	(1,517)	11.7	26.2	35.7	24.9	1.5	37.8	35.7	26.4	2.78
연령										
만18세~24세	(798)	8.1	23.3	38.5	26.8	3.3	31.5	38.5	30.1	2.94
25세~29세	(784)	12.2	24.0	37.2	23.9	2.7	36.2	37.2	26.5	2.81
30세~34세	(695)	11.2	23.6	39.6	23.3	2.3	34.8	39.6	25.6	2.82
35세~39세	(723)	11.5	24.2	36.4	25.3	2.6	35.7	36.4	27.9	2.83
거주 권역										
도심권	(154)	9.7	23.4	37.0	27.3	2.6	33.1	37.0	29.9	2.90
동북권	(890)	10.6	24.0	37.4	24.5	3.5	34.6	37.4	28.0	2.86
서북권	(362)	14.9	24.6	40.1	18.8	1.7	39.5	40.1	20.4	2.68
서남권	(962)	10.4	24.8	36.6	26.0	2.2	35.2	36.6	28.2	2.85
동남권	(632)	9.3	21.4	39.6	26.6	3.2	30.7	39.6	29.7	2.93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11.5	24.2	37.5	23.9	2.9	35.7	37.5	26.8	2.83
비동거 · 비독립	(292)	9.2	24.0	41.1	23.3	2.4	33.2	41.1	25.7	2.86
독립	(1,162)	10.1	23.1	37.7	26.5	2.6	33.2	37.7	29.1	2.88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13.2	28.7	33.8	21.6	2.6	41.9	33.8	24.3	2.72
2인 이상, 동거	(1,546)	11.5	24.2	37.5	23.9	2.9	35.7	37.5	26.8	2.83

※ 기성세대의 경우 청년시절 기준 경제적 안정성

13-1.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 요인_1순위

문.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43.9% > 소득 32.5% > 주거 14.3%

-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요인 1순위로 일자리가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소득 32.5%, 주거 1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35세~39세의 경우 일자리(36.1%)보다 소득(38.5%)이 더 중요하다고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일자리	소득	주거	직무 능력	사회적 네트워크	부모나 가족의 지원	복지제도	기타
2020년 청년세대		(3,000)	43.9	32.5	14.3	3.3	2.5	1.7	1.5	0.2
2020년 기성세대		(500)	54.2	26.8	13.0	2.6	1.4	1.0	1.0	0.0
성	남성	(1,483)	44.8	31.6	12.9	3.9	3.2	1.8	1.6	0.3
	여성	(1,517)	43.0	33.4	15.8	2.7	1.9	1.7	1.4	0.1
연령	만18세~24세	(798)	53.9	28.8	7.9	2.8	1.9	2.4	2.1	0.3
	25세~29세	(784)	45.0	31.6	12.6	3.7	3.7	1.9	1.4	0.0
	30세~34세	(695)	39.3	31.5	21.4	2.4	2.4	1.7	1.0	0.1
	35세~39세	(723)	36.1	38.5	16.5	4.3	2.1	0.8	1.4	0.4
거주 권역	도심권	(154)	39.0	36.4	15.6	2.6	3.2	2.6	0.6	0.0
	동북권	(890)	46.1	31.5	14.7	2.8	1.9	1.2	1.7	0.1
	서북권	(362)	48.3	30.1	14.4	1.7	2.8	0.8	1.7	0.3
	서남권	(962)	43.1	33.5	13.6	3.8	2.4	1.8	1.6	0.2
	동남권	(632)	40.7	32.9	14.6	4.3	3.3	2.7	1.3	0.3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48.1	32.0	10.3	3.2	2.3	2.1	1.6	0.3
	비동거 · 비독립	(292)	53.8	24.3	12.0	3.1	2.7	3.1	1.0	0.0
	독립	(1,162)	35.9	35.3	20.2	3.4	2.8	0.9	1.5	0.1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40.2	34.2	16.8	3.8	2.2	1.1	1.5	0.2
	2인이상, 동거	(1,546)	48.1	32.0	10.3	3.2	2.3	2.1	1.6	0.3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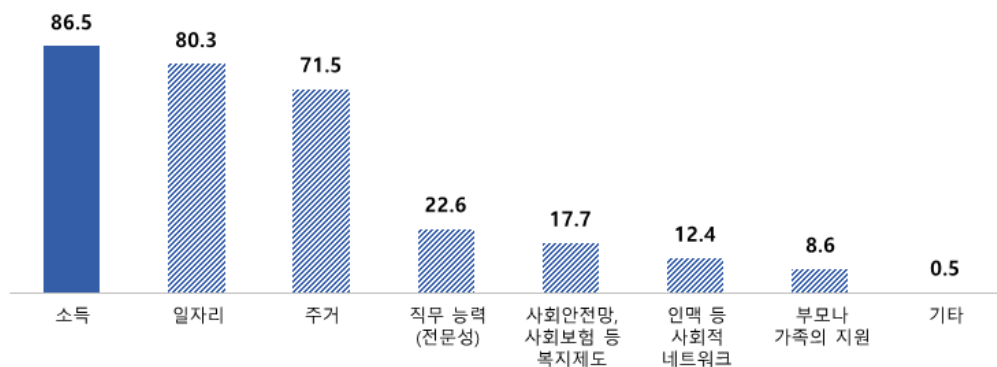
13-2.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 요인_1+2+3순위_복수응답

문.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주세요

소득 86.5% > 일자리 80.3% > 주거 71.5%

-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요인 1+2+3순위로 소득이 8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일자리 80.3%, 주거 7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만18세~24세의 경우 소득(83.5%)보다 일자리(85.6%)가 더 중요하다고 나타남.

(복수응답,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복수응답,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소득	일자리	주거	직무 능력	복지제도	사회적 네트워크	부모나 가족의 지원	기타
2020년 청년세대		(3,000)	86.5	80.3	71.5	22.6	17.7	12.4	8.6	0.5
2020년 기성세대		(500)	89.0	90.6	69.4	20.2	17.2	8.0	5.6	0.0
성	남성	(1,483)	86.2	80.8	69.7	23.7	16.1	14.8	8.1	0.6
	여성	(1,517)	86.8	79.8	73.3	21.6	19.2	10.0	9.0	0.3
연령	만18세~24세	(798)	83.5	85.6	62.3	25.3	17.7	13.2	12.0	0.5
	25세~29세	(784)	86.6	79.2	70.2	23.9	18.1	12.9	8.7	0.4
	30세~34세	(695)	87.1	79.4	78.8	20.7	17.1	10.9	5.6	0.3
	35세~39세	(723)	89.1	76.5	76.1	20.2	17.7	12.3	7.5	0.7
거주 권역	도심권	(154)	86.4	74.7	74.0	25.3	17.5	13.6	8.4	0.0
	동북권	(890)	86.5	82.9	71.3	21.2	18.1	11.8	7.8	0.3
	서북권	(362)	82.6	81.2	73.5	21.3	18.5	11.6	10.5	0.8
	서남권	(962)	88.5	81.2	72.5	22.3	17.0	10.7	7.4	0.3
	동남권	(632)	85.6	76.1	68.5	25.2	17.6	15.8	10.4	0.8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86.8	82.0	67.7	23.6	16.8	12.7	9.8	0.6
	비동거 · 비독립	(292)	82.2	83.2	68.8	25.7	17.8	13.0	9.2	0.0
	독립	(1,162)	87.1	77.4	77.3	20.6	18.8	11.7	6.8	0.3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87.9	77.0	76.2	21.6	18.5	11.9	6.4	0.4
	2인이상, 동거	(1,546)	86.8	82.0	67.7	23.6	16.8	12.7	9.8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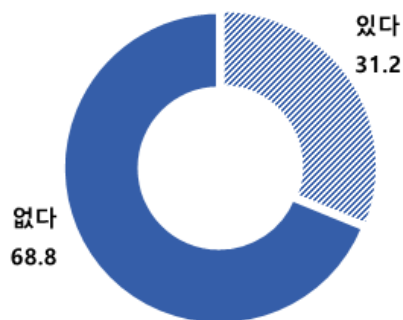
14. 지원정보 탐색 경험

문. 귀하는 주거지원, 생활비지원, 고용지원 등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 방문 혹은 웹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찾아본 적 있습니까?

주민센터 방문/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아봤다 31.2%

- 주거지원, 생활비지원, 고용지원 등을 받기 위해 정보를 찾아보았는지에 대해 찾아봤다는 응답은 31.2%, 찾아본 적 없다는 응답은 68.8%인 것으로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31.2	68.8
성	남성	(1,483)	30.6	69.4
	여성	(1,517)	31.7	68.3
연령	만18세~24세	(798)	30.1	69.9
	25세~29세	(784)	37.1	62.9
	30세~34세	(695)	30.5	69.5
	35세~39세	(723)	26.6	73.4
거주 권역	도심권	(154)	39.0	61.0
	동북권	(890)	32.6	67.4
	서북권	(362)	29.0	71.0
	서남권	(962)	29.7	70.3
독립여부	동남권	(632)	30.7	69.3
	부모와 동거	(1,546)	30.7	69.3
	비동거 · 비독립	(292)	37.7	62.3
	독립	(1,162)	30.2	69.8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34.7	65.3
	2인이상, 동거	(1,546)	30.7	69.3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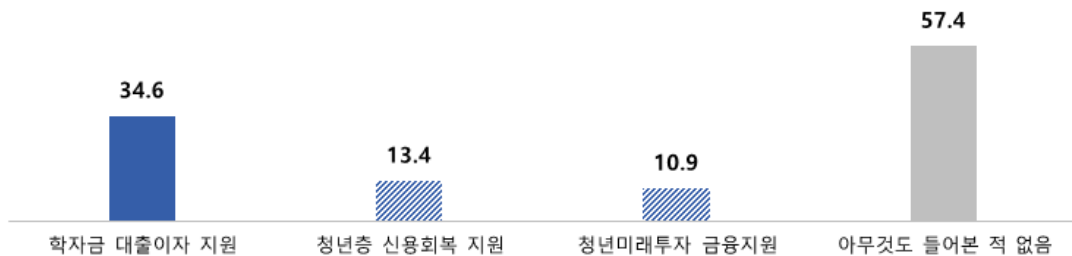
15. [서울시 대출지원 사업] 인지도_복수응답

문. 귀하는 서울시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대출 지원 사업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으신 사업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34.6% >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 13.4%

- 서울시 대출지원 사업의 인지도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 13.4%, 청년미래투자 금융지원 10.9%로 나타남.

(복수응답,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복수응답,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	청년미래투자 금융지원	아무것도 들어본 적 없음
2020년 청년세대		(3,000)	34.6	13.4	10.9	57.4
성	남성	(1,483)	33.8	16.5	13.8	55.8
	여성	(1,517)	35.3	10.3	8.1	59.0
연령	만18세~24세	(798)	45.7	8.9	11.5	47.9
	25세~29세	(784)	33.3	14.9	10.8	57.3
	30세~34세	(695)	27.2	14.8	10.2	64.2
	35세~39세	(723)	30.7	15.2	11.1	61.5
거주 권역	도심권	(154)	42.2	20.8	16.9	48.1
	동북권	(890)	36.3	13.3	11.6	56.1
	서북권	(362)	38.1	11.6	9.1	56.6
	서남권	(962)	30.6	11.6	9.0	62.1
	동남권	(632)	34.3	15.3	12.5	54.9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38.9	12.1	10.9	54.7
	비동거 · 비독립	(292)	36.3	14.7	11.6	54.1
	독립	(1,162)	28.4	14.7	10.8	61.9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26.0	12.4	8.6	64.7
	2인이상, 동거	(1,546)	38.9	12.1	10.9	5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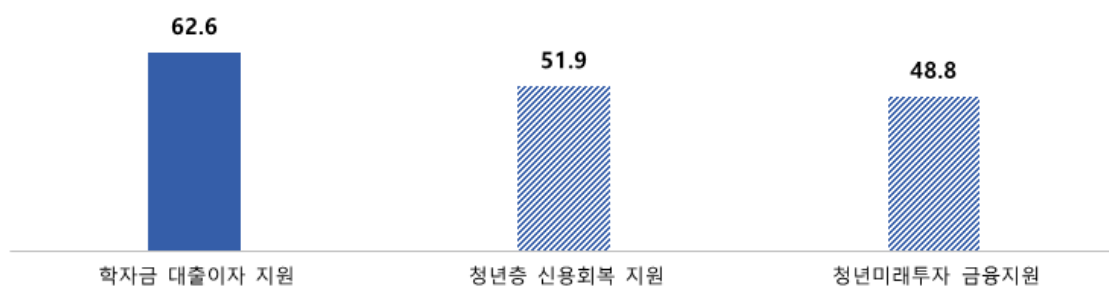
16. [서울시 대출지원 사업] 도움 정도(긍정 비율)

문. 다음 사업이 대출 상황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62.6% >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 51.9%

- 서울시 대출지원 사업의 도움 정도의 긍정 비율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62.6%로 가장 높게 나타남.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은 51.9%, 청년미래투자 금융지원은 48.8%로 나타남.

(긍정%,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긍정%,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	청년미래투자 금융지원
2020년 청년세대		(3,000)	62.6	51.9	48.8
2020년 기성세대		(500)	65.6	54.4	50.0
성	남성	(1,483)	59.6	48.3	46.1
	여성	(1,517)	65.5	55.4	51.4
연령	만18세~24세	(798)	70.1	58.8	57.9
	25세~29세	(784)	64.2	54.0	49.6
	30세~34세	(695)	57.4	45.2	41.6
	35세~39세	(723)	57.5	48.5	44.7
거주 권역	도심권	(154)	61.0	48.7	48.1
	동북권	(890)	64.0	54.4	51.6
	서북권	(362)	63.5	56.4	47.8
	서남권	(962)	62.1	49.2	46.7
독립여부	동남권	(632)	61.1	50.8	48.7
	부모와 동거	(1,546)	65.6	53.5	49.5
	비동거 · 비독립	(292)	62.3	52.7	50.7
	독립	(1,162)	58.6	49.6	47.2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62.3	53.4	49.9
	2인이상, 동거	(1,546)	65.6	53.5	49.5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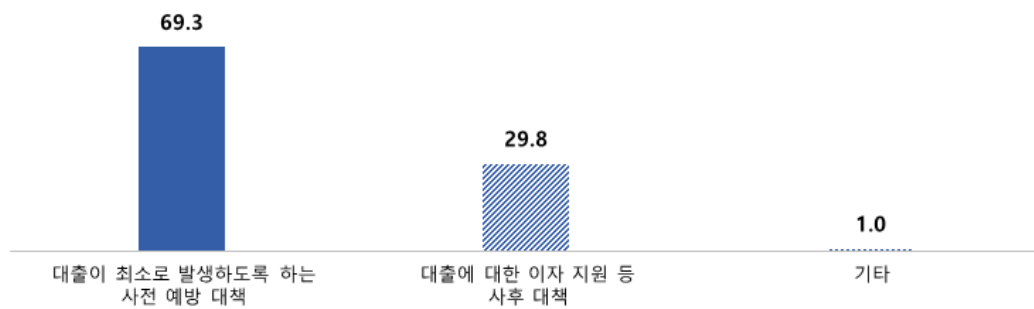
17. 청년 대출지원 정책 선호 방향

문. 귀하는 청년 대상 대출지원 사업 정책 방향에 대해 어느 쪽에 더 동의하십니까?

대출이 최소로 발생하도록 하는 사전예방 대책 69.3%

- 청년 대상 대출지원 사업의 정책 방향에 대해 대출이 최소로 발생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 대책이 69.3%로 가장 높게 나타남.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등 사후 대책은 29.8%로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대출이 최소로 발생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 대책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등 사후 대책	기타
2020년 청년세대		(3,000)	69.3	29.8	1.0
2020년 기성세대		(500)	76.2	23.0	0.8
성	남성	(1,483)	66.0	32.6	1.3
	여성	(1,517)	72.4	27.0	0.6
연령	만18세~24세	(798)	72.3	27.1	0.6
	25세~29세	(784)	68.2	31.0	0.8
	30세~34세	(695)	69.4	29.6	1.0
	35세~39세	(723)	66.9	31.5	1.5
거주 권역	도심권	(154)	70.1	29.9	0.0
	동북권	(890)	68.7	30.4	0.9
	서북권	(362)	70.2	28.5	1.4
	서남권	(962)	68.7	29.8	1.5
	동남권	(632)	70.3	29.4	0.3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70.6	28.5	0.9
	비동거 · 비독립	(292)	71.9	27.7	0.3
	독립	(1,162)	66.9	31.9	1.2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66.7	32.9	0.4
	2인이상, 동거	(1,546)	70.6	28.5	0.9

FGI(Focus Group Interview)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 저축을 하는 목적 >

- 남성의 경우 저축 대신 주식 등 금융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음.
-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저축하는 경향이 더 높음.
 - 저축하고 있지 않아요.(20대 초중반 남성)
 - 주식하고 적금, 청약 하고 있어요.(20대 초중반 여성)
 - 저는 적금을 들고 있고 소소하게 투자도 하고 있고. 목적은 집 마련.(20대 중반, 30대 초반 여성)
 - 저는 펀드. 저는 고위험 고수익은 별로 안 좋아해서 저위험 저수익의 펀드를 하고 있어요.(20대 중반, 30대 초반 여성)
 - 일반 저축도 하는데, 일반 저축액에서 30~40% 펀드로 해요. 요즘은 은행이자가 너무 낮아서, 펀드가 그것보다는 수익이 좋다고 하니까(20대 중반, 30대 초반 여성)
 - 펀드도 해보고 싶긴 한데 너무 아는 게 없어서. 조금 알고 나서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요. 우선은 저축만.(20대 중반, 30대 초반 여성)

< 주식 등 금융 투자에 대한 생각 >

- 남성의 경우 주식 등 금융투자 수익이 경제활동으로 버는 수익보다 더 높고 주 수입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여성의 경우 시중 은행의 낮아진 이자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를 함.
 - 취미처럼 주식을 하고 있어요. 저축보다는 주식이 훨씬 이익이 더 많아요.(20대 초중반 남성)
 - 금융투자가 나중에 내가 취업해서 버는 돈보다 더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업은 자본금을 모으는 목적이 어느정도 있어요.(20대 초중반 남성)
 - 금리가 많이 낮아서, 저축으로만 돈을 지키고 불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투자를 하려고 찾아 보니까, 부동산은 목돈이 드니까 가볍게 할 수 있는 주식을 하고 있어요.(20대 초중반 여성)
 - 저도 적금은 5%밖에 안 되는데 주식은 잘 되면 엄청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비상금을 이용해서 해요. 하지만 주요 수입원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워낙 리스크가 커서.(20대 초중반 여성)
 - 주식이란 펀드, 금융투자를 하고 있어요. 철 없는 생각인데 적금보다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직장에서 버는 돈이 투자를 위한 씨드머니가 된다는 말도 있는데, 지금까지 모아 온 돈도 은행에 맡기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부동산이나 다른걸 한다면 충분히 더 벌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있어보여요.(20대 중반, 30대 초반 남성)
 - 저는 관심 없어요. 제 돈은 그냥 적금으로 운영하고 싶어요. 아무리 펀드를 한다고 해도 아까 전에 주식처럼 해서 갑자기 몇 배가 튀고 그런 일은 펀드는 거의 없거든요. 그럴 확률도 낮고 배율도 적어서. 주식 때문에 골치아프기도 싫고.(20대 중반, 30대 초반 남성)
 - 적금 이율이 너무 낮고, 그리고 한번 벌해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20대 중반, 30대 초반 여성)
 - 저도 시중은행의 낮아진 이자를 대체하기 위해서 펀드를 하는 것 같아요.(20대 중반, 30대 초반 여성)
 - 저도 거의 재미로 하는 수준이어서 어떤 건 수익이 마이너스도 나고,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주 수입원을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20대 중반, 30대 초반 여성)

< 채무 이유 >

- 등록금, 생활비, 주거를 위한 채무 발생
 - 등록금 대출은 받은 적 있지만 채무가 발생한 적은 없어요.(20대 초중반 남성)
 - 주변 친구들 중에 생활비 때문에 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요.(20대 초중반 남성)
 - 전세대출(20대 중반, 30대 초반 여성)

< 경제적 안정에 대한 생각 >

- 안정적인 수입과 저축/노후 준비를 하고도 남는 여윈돈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음.
 -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이 경제적 안정 같아요.(20대 초중반 남성)
 - 돈이 있어야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해요.(20대 초중반 남성)
 - 부모님께 용돈 받아서 누군가를 만나면 죄송스러운데, 내 돈을 벌어서 사용하면 그런 죄송한 마음이 덜할 것 같아요.(20대 초중반 남성)
 - 저는 기본적으로 생활비를 다 충당할 수 있고, 그 중 일부는 미래를 위한 저축여유도 있어야 하고, 그 외에 문화생활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게 경제적인 안정인 것 같아요.(20대 초중반 여성)
 - 제가 생필품 사는 거 외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는 정도(20대 초중반 여성)
 - 생활비도 대고 결혼자금도 마련해야 하고 노후자금도 마련해야 하고, 생활에서 계속 자금을 마련해야 하니까. 이런게 다 있어야 안정이라고 생각해요.(20대 초중반 여성)
 - 고정수익이 있으면, 저축 하고도 돈이 있을 때 경제적 안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원하는 소비를 하려고 할 때 바로 소비 할 수 있는 상황. 먹고 싶으면 이거 먹으려면 돈을 많이 모아야겠지 그럴 필요가 없을 때요.(20대 중반, 30대 초반 남성)
 - 40세 정도면 그때는 회사에서 직급이 조금 안정될 것 같아요.(20대 중반, 30대 초반 남성)
 - 최소한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 이외에 취미생활을 할 수 있을만큼의 여유(20대 중반, 30대 초반 여성)
 - 소득이 꾸준하게 있어야 할 것 같고, 요즘은 재산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집도 마련해야 하고. 그냥 앓아만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임대수익이 있으면 좋겠어요.(20대 중반, 30대 초반 여성)
 - 노후를 보장할 수 있을만큼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20대 중반, 30대 초반 여성)

< 자산 관련 지원 정책 >

-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좋은 것 같음. 다만 기업에서 악용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금융기관이 아니다보니 맞춤형 재정 상담이 아닌 누구나 알 수 있는 상담을 할 것 같아 하고 싶지 않음.
 - 중소기업 취업하면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제가 소득분위가 낮아서 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그램도 있다고 해서 알아봤어요. 일단 알아보긴 했는데 중소기업에 취업을 못해서 지원을 못했어요.(20대 초중반 남성)

- 제약이 많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을 뿐이지 만약 해당이 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20대 초중반 남성)
- 통장에 25만원씩 넣어서 2천만원을 만들어준다는걸 봤는데 도움 되는 사람은 되었겠지만, 제 얘기처럼 느껴지진 않았어요. 일단 적금을 드는 게 자율적으로 빠져 쓸 수 없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신청을 안 했어요.(20대 초중반 여성)
- 전 없는데 주변 후배들은 내일채움공제로 2년 채워서 쓸쓸하게 받아 가더라고요. 전 그게 해당이 안돼서 하지 못했고 최근에 뉴스를 봤거든요. 내일채움공제라고 해서 거기 있는 금액을 연봉에 포함시켜서 아예 처음부터 하니까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기업을 봤기 때문에 부정적이에요.(20대 중반, 30대 초반 남성)
- 국가는 금융기관이 아니니까 내 재정상태를 얼마나 잘 파악해줄 수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이 5천만명이나 되는데 나를 제대로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보고 내 여건에 맞춰서 금융기관이 낫지, 정부는 너무 포괄적으로 해줄 것 같아서 기피가 돼요.(20대 중반, 30대 초반 여성)
-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해준다고 해도 관리가 잘 될지. 신청하면 많은 사람들을 관리해야 할 텐데, 신청자가 많다 보면 제대로 관리가 될까 싶기도 하고. 그럴 바에야 내가 편하게 관리하는 게 낫다 싶어요.(20대 중반, 30대 초반 여성)

< 자산 관련 지원 정책 인지 경로 >

- 온라인을 통해 자산 관련 지원 정책 인지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되었어요.(20대 초중반 여성)
 - 인터넷을 통해 알게되었어요.(20대 중반, 30대 초반 여성)

< 선호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 >

1. 소수의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경우를 선별하여 실질적 혜택이 되도록 지원
 - 기본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잘못 이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확실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해외사업하는 사람들도 예전에 보니까 소득분위가 엄청 낮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라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잘못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20대 초중반 남성)
 - 자산형성정책은 저소득층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완전 기초수급자 청년들에게 가야지 최소한 사다리 정도는 될테니까 자산형성에 관련된 건 선별적으로 가고 나머지 일자리에 대한 건 보편적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20대 초중반 남성)
 - 일단 진보라는 거 자체가 복지를 많이 주고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사회, 이런 슬로건 아래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도와주고 남으면 다수에게 갈 수 있지만 최우선 순위는 못 사는 사람을 먼저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20대 초중반 여성)
 - 제일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는 게 중요하지만, 원래 목적에 맞춰서 진행하고 관리해야 해요.(20대 초중반 여성)
 - 복지정책 기금은 정말 필요한 대상에게 필요한 만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편적으로 주게 되면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확실하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20대 중반, 30대 초반 여성)

- 예를 들어서 26~28세를 지원한다고 치면, 그 연령대를 다 주는 거잖아요. 이미 취업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큰 도움이 안 되고, 그걸로 사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건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못 가는 돈이잖아요. 그렇다고 정부가 이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그 이동경로를 다 아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 분들에게 더 많이 줘야 할 것 같아요. 필요한 분들이나 일시적으로 안 좋은 분들에게 줘야 할 것 같아요.(20대 중반, 30대 초반 여성)

2. 다수의 청년을 대상으로 적은 지원금이라도 보편적 혜택이 되도록 지원

- 정부가 정하는 기준은 내 소득 뿐 아니라 가족의 소득도 포함이 되는데, 가족 상황에 따라 '나'는 힘든 경우가 있어서 구별없이 모두 줬으면 좋겠음.

-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정부지원금이 나올 때만 해도 많은 돈을 소수의 힘든 사람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저의 생각은 적은 돈을 많은 청년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역차별이라는 것도 느꼈고, 사람의 상황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이 어떻게 사는지보다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어떤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20대 초중반 남성)
- 제가 이런 지원 관련해서 찾아봤을 때 장학금이나 이런 게 다, 기초수급자를 위한 장학금이 80%나 되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지원조차 못했거든요. 그래서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완전히 못사는 사람 아니어도, 중산층인데도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평하게 하는 게 좋아요.(20대 초중반 여성)
-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전부다 조금씩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 저는 재난지원금을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거기에도 기부라고 있었고, 다수한테 지원을 해주면서 그 안에서 혜택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기부를 하면 다른 문화생활을 해줄 수 있게 그런 혜택을 만드는 건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충분히 정책을 해서 다수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20대 초중반 여성)
- 일단 먼저 다수에게 그렇게 그걸 준다면 차후에 비슷한 정책을 펼칠 때도 좀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요.(20대 중반, 30대 초반 남성)
- 소수인 당사자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사자라면요. 모두 똑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20대 중반, 30대 초반 남성)
- 둘을 섞으면 좋겠어요. 일단 모든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되 그 중에서도 최하위 쪽으로 연봉을 받는 청년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급여를 더 가중해서 지원해준다든지 두가지 섞으면 좋겠어요.(20대 중반, 30대 초반 남성)
- 정부 지원책에 많이 참여를 해봤는데 결국은 제한된 인원이 있으니까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제 친구도 해봤는데. 제한된 인원 때문에, 필요한데도 못 받는 사람들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많이 늘려서 다수도 받게 해주면 좋겠어요.(20대 중반, 30대 초반 여성)
- 소수 범위에 들기가 힘들어요. 어려운 사람들은 많은데. 그리고 그 소수에게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할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어차피 세금 내는 건 거의 비슷한데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20대 중반, 30대 초반 여성)

< 대출 지원 관련 지원 정책 >

- 지원 조건이 어렵지 않아서 실제로 도움 받은 적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음.
 - 청년 전세금 대출지원이 있어서 알아봤어요. 저는 조건이 안 되어서 못 받았지만, 조건이 되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20대 초중반 여성)
 - 저도 알아만 봤지 당장 할 건 아니라서. 정보만 취득했어요.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20대 초중반 여성)
 - 전 전세자금대출 이용하고 있어요. 친구는 나라에서 해주는 거 받았어요. 나이가 서른 이하여서 그거 받았다고 했어요.(20대 중반, 30대 초반 남성)
 - 제 친구는 자영업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 무이자대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숨통은 트였다고 하더라고요. 무이자니까요.(20대 중반, 30대 초반 남성)
 - 다른 건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었어요. 금융 지원책이 있어도 전체 가구 소득 때문에 제가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있는 줄은 알았지만 실제 도움은 안 됐는데, 대출은 어차피 갚아야 하는 것이다 보니 허들이 낮아서, 그래서 나도 이걸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겠다 싶은 게 많아서 그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20대 중반, 30대 초반 여성)
 - 이번에 이사를 했는데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을 받았어요. 그 기준이 청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기준이었어요.(20대 중반, 30대 초반 여성)
 - 서울시에서 임차보증금 해주는걸 봤어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보니까 청년들에게 부합하는 조건이더라고요. 그리고 LH인가 거기서도 전세자금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청년들 위주로 적합하게 조건을 만들어서 해놓았더라고요.(20대 중반, 30대 초반 여성)

< 대출 지원 관련 지원 정책 인지 경로 >

- 인터넷(20대 중반, 30대 초반 여성)

< 선호하는 청년 대출 지원 정책 >

1.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등 사후 대책

- 일단 지금 당장 필요해서 빌리는 돈인데,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음.
 - 물론 컨설팅도 수요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에 맞는 퀄리티가 있을지도 몰라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실수요자에게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20대 초중반 남성)
 - 나중에 이자를 줄여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미리 예방하기에는 아직은 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아요.(20대 초중반 여성)
 - 일단 자금이 부족해서 빌리는 거니까 사후에 대책이 좋을 것 같아요.(20대 초중반 여성)
 -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낮다고 해도 원금이 커서 한 달에 내는 이자부담이 큰데, 그 이자를 지원해주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후 대책은 중간에 대출 관련해서 일이 일어나면 청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사후대책으로 해주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20대 중반, 30대 초반 여성)

-
- 이자는 어차피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도 모으면 엄청 나거든요. 물론 이율이 엄청 높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부담을 좀 줄여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20대 중반, 30대 초반 여성)

2. 대출이 최소로 발생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 대책

- 대출은 빚이라 애초부터 적은 수만 갖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음.
 - 대출도 결국은 갚아야 하는 돈이니까. 이자도 신용등급 때문에 많이 달라지는 게 있어서, 대출은 최소한으로 해줘야지 여기 있는 청년들이 나중에 갚아야 할 원금도 줄어든다고 생각해요.(20대 초중반 남성)
 - 사후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그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20대 초중반 여성)
 -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이미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점점 높아지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20대 초중반 여성)
 - 대출금이 작아질 수 있으면 심리적인 부담이 덜할 것 같아서.(20대 중반, 30대 초반 여성)
 - 대출도 빚이라 심리적인 게 다를 것 같아요. 요즘 전세값이 너무 오르니까 정부가 그거에 대한 규제를 해주면 그래도 대출금이 적어질 테니까 심리적으로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20대 중반, 30대 초반 여성)
-

Part. 6

신체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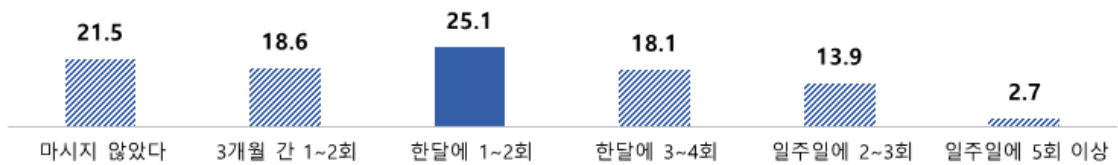
1. 음주 횟수

문. 귀하는 지난 3개월 동안 몇 번이나 술을 마셨습니까?

한달에 1~2회 25.1% > 마시지 않았다 21.5%

- 지난 3개월 간 음주 빈도로 한달에 1~2회가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마시지 않았다 2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마시지 않았다	3개월 간 1~2회	한달에 1~2회	한달에 3~4회	일주일에 2~3회	일주일에 5회 이상
2020년 청년세대		(3,000)	21.5	18.6	25.1	18.1	13.9	2.7
성	남성	(1,483)	17.8	16.3	26.1	20.8	15.6	3.4
	여성	(1,517)	25.2	21.0	24.2	15.4	12.1	2.1
연령	만18세~24세	(798)	24.8	23.6	24.3	17.5	8.3	1.5
	25세~29세	(784)	21.2	20.0	24.1	19.5	13.9	1.3
	30세~34세	(695)	21.7	14.7	26.5	18.4	15.8	2.9
	35세~39세	(723)	18.1	15.5	25.9	16.9	18.1	5.5
거주 권역	도심권	(154)	13.0	22.1	29.9	18.2	11.0	5.8
	동북권	(890)	20.8	19.1	26.0	17.3	14.0	2.8
	서북권	(362)	27.1	17.7	22.4	16.6	13.8	2.5
	서남권	(962)	21.0	18.9	24.8	18.7	14.8	1.8
	동남권	(632)	22.3	17.2	24.8	19.1	13.0	3.5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25.2	20.8	24.3	17.5	10.7	1.5
	비동거 · 비독립	(292)	21.2	22.3	26.4	16.4	11.0	2.7
	독립	(1,162)	16.7	14.8	26.0	19.3	18.8	4.4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15.2	16.1	28.3	18.5	17.4	4.4
	2인이상, 동거	(1,546)	25.2	20.8	24.3	17.5	10.7	1.5

2-1. 흡연 횟수

문. 귀하는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피우신다면 하루에 어느 정도 피우십니까?

피워본 적이 없다 64.9% > 피운다 18.4%

- 현재 흡연 여부 및 횟수에 대해 피워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64.9%로 가장 높게 나타남. 한번이라도 피워본 적이 있는 경우는 35.1%(피운다 18.4% +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 16.7%)로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피운다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	피워본 적이 없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18.4	16.7	64.9
성	남성	(1,483)	29.0	20.3	50.7
	여성	(1,517)	8.0	13.2	78.7
연령	만18세~24세	(798)	13.4	15.2	71.4
	25세~29세	(784)	16.3	15.4	68.2
	30세~34세	(695)	18.1	15.0	66.9
	35세~39세	(723)	26.4	21.6	52.0
거주 권역	도심권	(154)	18.8	26.6	54.5
	동북권	(890)	18.2	17.1	64.7
	서북권	(362)	15.5	14.6	69.9
	서남권	(962)	19.3	15.4	65.3
	동남권	(632)	18.8	17.1	64.1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16.4	13.8	69.8
	비동거 · 비독립	(292)	14.7	19.2	66.1
	독립	(1,162)	22.0	20.0	58.0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24.7	16.6	58.7
	2인이상, 동거	(1,546)	16.4	13.8	69.8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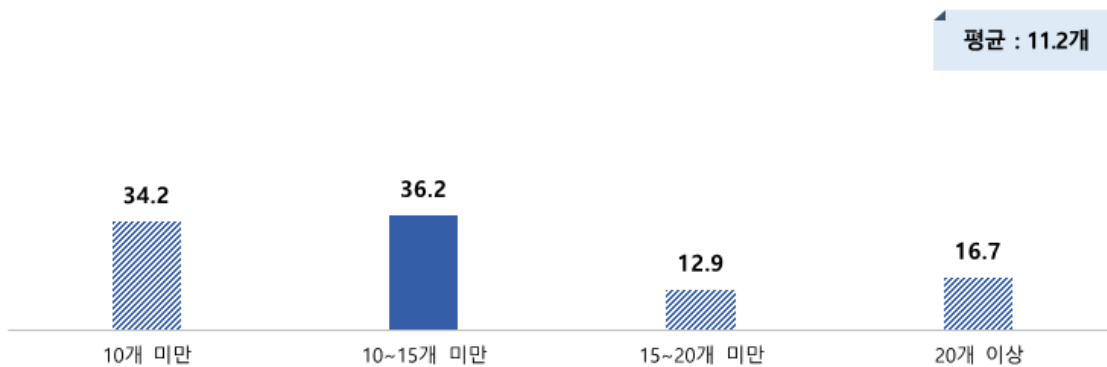
2-2. 하루 평균 흡연 횟수

문. 귀하는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피우신다면 하루에 어느 정도 피우십니까?

10~15개 미만 36.2% > 10개 미만 34.2%

-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루 흡연 횟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15개 미만이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0개 미만이 34.2%, 20개 이상 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하루 흡연 횟수는 평균 11.2개비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남성의 경우 하루 흡연 횟수는 12.0개비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8.5개비로 나타남.

(Base: 흡연자, 단위: %)



통계표

(Base: 흡연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10개 미만	10~15개 미만	15~20개 미만	20개 이상	평균 (개비)
2020년 청년세대		(552)	34.2	36.2	12.9	16.7	11.2
성	남성	(430)	29.5	35.8	14.9	19.8	12.0
	여성	(122)	50.8	37.7	5.7	5.7	8.5
연령	만18세~24세	(107)	49.5	29.9	9.3	11.2	9.1
	25세~29세	(128)	35.2	39.1	10.2	15.6	10.8
	30세~34세	(126)	26.2	38.1	18.3	17.5	12.0
	35세~39세	(191)	30.4	36.6	13.1	19.9	12.1
거주 권역	도심권	(29)	24.1	31.0	6.9	37.9	14.6
	동북권	(162)	34.6	40.1	13.6	11.7	10.6
	서북권	(56)	35.7	39.3	10.7	14.3	10.6
	서남권	(186)	35.5	35.5	11.8	17.2	10.9
	동남권	(119)	33.6	31.9	16.0	18.5	11.9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253)	41.9	35.6	9.9	12.6	9.8
	비동거 · 비독립	(43)	30.2	32.6	20.9	16.3	11.7
	독립	(256)	27.3	37.5	14.5	20.7	12.5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112)	25.0	33.0	19.6	22.3	12.8
	2인이상, 동거	(253)	41.9	35.6	9.9	12.6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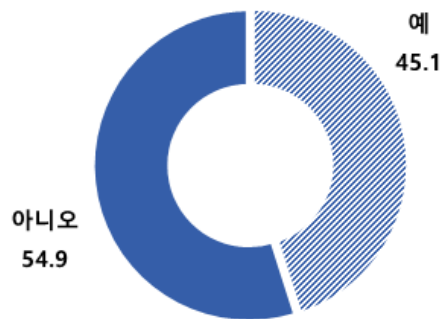
3. 최근 1년간 건강검진 여부

문. 귀하는 지난 1년간 건강검진(종합건강검진 혹은 일반건강검진 모두 해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건강검진을 받아 본 적 있다 45.1%, 받아본 적 없다 54.9%

- 지난 1년 간 건강검진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5.1%,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54.9%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30대와 권역별로 도심권, 독립, 독립한 1인가구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2020년 청년세대		(3,000)	45.1	54.9
성	남성	(1,483)	43.6	56.4
	여성	(1,517)	46.5	53.5
연령	만18세~24세	(798)	29.1	70.9
	25세~29세	(784)	44.9	55.1
	30세~34세	(695)	50.8	49.2
	35세~39세	(723)	57.4	42.6
거주 권역	도심권	(154)	51.9	48.1
	동북권	(890)	43.1	56.9
	서북권	(362)	41.7	58.3
	서남권	(962)	47.6	52.4
	동남권	(632)	44.1	55.9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37.5	62.5
	비동거 · 비독립	(292)	33.9	66.1
	독립	(1,162)	58.0	42.0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52.1	47.9
	2인이상, 동거	(1,546)	37.5	62.5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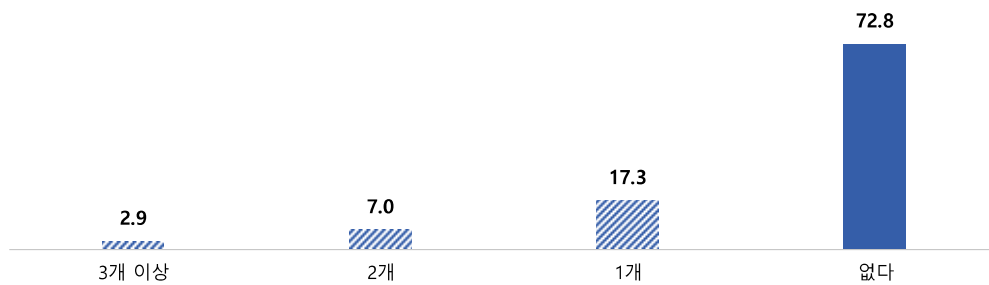
4. 만성질병 개수

문.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으면서 의사에게 진단받은 만성질병은 몇 개입니까?

앓고 있거나 진단 받은 만성질병이 있다 27.2%

-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거나 진단 받은 만성질병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7.2%(1개 17.3% + 2개 7.0% + 3개이상 2.9%)로 나타났고, 만성질병이 없다는 응답은 72.8%로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3개 이상	2개	1개	없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2.9	7.0	17.3	72.8
성	남성	(1,483)	3.1	6.6	16.3	74.0
	여성	(1,517)	2.8	7.4	18.4	71.5
연령	만18세~24세	(798)	2.5	6.5	18.5	72.4
	25세~29세	(784)	3.1	8.5	14.8	73.6
	30세~34세	(695)	2.0	6.0	16.4	75.5
	35세~39세	(723)	4.1	6.8	19.6	69.4
거주 권역	도심권	(154)	5.8	7.8	26.0	60.4
	동북권	(890)	2.1	6.1	17.2	74.6
	서북권	(362)	3.3	6.1	19.6	71.0
	서남권	(962)	2.5	7.9	16.3	73.3
독립여부	동남권	(632)	3.8	7.3	15.7	73.3
	부모와 동거	(1,546)	2.5	7.4	16.9	73.3
	비동거 · 비독립	(292)	3.1	8.6	14.0	74.3
	독립	(1,162)	3.5	6.1	18.8	71.6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3.8	5.5	20.1	70.6
	2인이상, 동거	(1,546)	2.5	7.4	16.9	73.3

5. 아프거나 다쳤을 때 조치 방법

문. 귀하는 최근 1년간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주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았다 52.3%

- 최근 1년 간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주로 취한 조치로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이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14.9%,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여성의 경우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은 비율이 57.7%인 반면, 남성의 경우 46.8% 수준으로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기타	아프거나 다친 적이 없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52.3	14.9	7.4	0.1	25.4
성						
남성	(1,483)	46.8	14.4	8.3	0.1	30.3
여성	(1,517)	57.7	15.3	6.5	0.1	20.5
연령						
만18세~24세	(798)	51.6	16.7	8.6	0.1	22.9
25세~29세	(784)	52.4	13.8	7.7	0.0	26.1
30세~34세	(695)	51.1	13.4	7.1	0.3	28.2
35세~39세	(723)	54.1	15.5	5.9	0.0	24.5
거주 권역						
도심권	(154)	53.2	19.5	11.0	0.0	16.2
동북권	(890)	52.9	14.9	6.9	0.1	25.2
서북권	(362)	53.9	14.1	7.7	0.3	24.0
서남권	(962)	52.8	13.5	7.7	0.1	25.9
동남권	(632)	49.5	16.1	6.5	0.0	27.8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51.6	15.5	6.9	0.1	25.9
비동거 · 비독립	(292)	45.2	19.2	7.2	0.0	28.4
독립	(1,162)	55.0	12.9	8.1	0.1	23.9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52.3	13.2	9.5	0.0	24.9
2인 이상, 동거	(1,546)	51.6	15.5	6.9	0.1	25.9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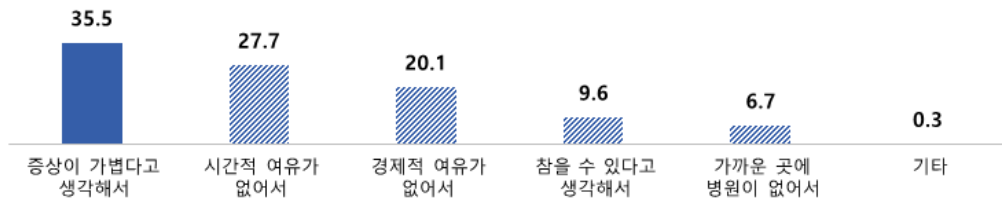
6-1.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 가지 않은 이유_1순위

문. 귀하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35.5% >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27.7%

- 아프거나 다쳤을 때 약만 복용하거나 참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몸이 아프거나 다쳤음에도 병원을 가지 않은 이유 1순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가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27.7%,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2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거주 권역이 도심권, 독립, 독립한 1인가구의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남.

(Base: 아프거나 다쳤을 때 약만 복용하거나 참은 응답자, 단위: %)



통계표

(Base: 아프거나 다쳤을 때 약만 복용하거나 참은 응답자, 기타 0.3% 제외,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참을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2020년 청년세대		(667)	35.5	27.7	20.1	9.6	6.7
2020년 기성세대		(500)	35.8	26.6	17.6	7.2	2.2
성	남성	(337)	32.3	27.6	24.6	7.7	7.4
	여성	(330)	38.8	27.9	15.5	11.5	6.1
연령	만18세~24세	(202)	44.6	26.7	11.9	11.4	5.4
	25세~29세	(168)	29.8	27.4	25.6	10.1	6.5
	30세~34세	(142)	32.4	26.8	23.9	8.5	8.5
	35세~39세	(155)	32.9	30.3	21.3	7.7	7.1
거주 권역	도심권	(47)	25.5	44.7	21.3	2.1	6.4
	동북권	(194)	34.5	22.7	23.7	11.3	7.7
	서북권	(79)	35.4	24.1	22.8	12.7	5.1
	서남권	(204)	34.8	27.9	19.1	11.3	5.9
	동남권	(143)	41.3	30.8	14.7	5.6	7.7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346)	42.2	25.1	15.0	12.1	4.9
	비동거 · 비독립	(77)	33.8	28.6	20.8	5.2	11.7
	독립	(244)	26.6	31.1	27.0	7.4	7.8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103)	24.3	27.2	31.1	11.7	5.8
	2인이상, 동거	(346)	42.2	25.1	15.0	12.1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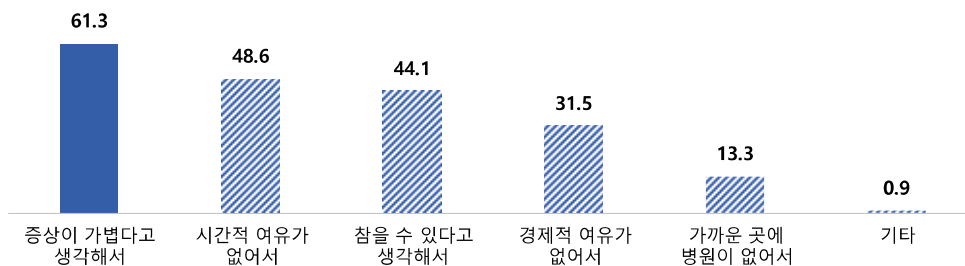
6-2.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 가지 않은 이유_1+2순위_복수응답

문. 귀하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골라 주세요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61.3% >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48.6%

- 아프거나 다쳤을 때 약만 복용하거나 참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몸이 아프거나 다쳤음에도 병원을 가지 않은 이유 1+2순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가 6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48.6%,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4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거주 권역이 도심권, 독립, 독립한 1인가구의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남.

(복수응답, Base: 아프거나 다쳤을 때 약만 복용하거나 참은 응답자, 단위: %)



통계표

(복수응답, Base: 아프거나 다쳤을 때 약만 복용하거나 참은 응답자, 기타 0.9% 제외,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증상이 가볍 다고 생각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참을수 있다고 생각해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2020년 청년세대		(667)	61.3	48.6	44.1	31.5	13.3
2020년 기성세대		(500)	56.4	42.4	45.4	29.2	5.6
성	남성	(337)	57.6	50.4	41.5	36.5	13.4
	여성	(330)	65.2	46.7	46.7	26.4	13.3
연령	만18세~24세	(202)	74.3	42.1	52.0	21.8	8.4
	25세~29세	(168)	56.0	50.6	44.0	38.1	9.5
	30세~34세	(142)	53.5	49.3	40.1	37.3	19.0
	35세~39세	(155)	57.4	54.2	37.4	31.6	18.7
거주 권역	도심권	(47)	53.2	66.0	27.7	34.0	19.1
	동북권	(194)	59.8	47.9	43.3	30.9	16.0
	서북권	(79)	59.5	43.0	54.4	30.4	12.7
	서남권	(204)	57.4	49.0	45.6	37.3	9.3
	동남권	(143)	72.7	46.2	42.7	23.8	14.0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346)	67.9	44.2	49.7	26.3	9.8
	비동거 · 비독립	(77)	55.8	46.8	46.8	33.8	15.6
	독립	(244)	53.7	55.3	35.2	38.1	17.6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103)	49.5	56.3	39.8	43.7	10.7
	2인이상, 동거	(346)	67.9	44.2	49.7	26.3	9.8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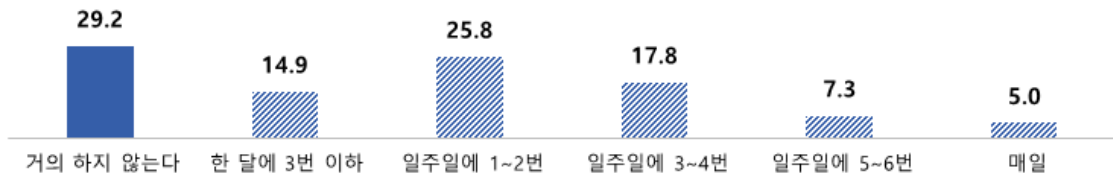
7.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 경험

문. 귀하는 최근 1년간 규칙적 체육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고 계십니까?

거의 하지 않는다 29.2% > 일주일에 1~2번 25.8%

- 최근 1년 간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일주일에 1~2번 한다는 응답이 25.8%로 높게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거의 하지 않는다	한 달에 3번 이하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4번	일주일에 5~6번	매일
2020년 청년세대		(3,000)	29.2	14.9	25.8	17.8	7.3	5.0
성	남성	(1,483)	26.4	13.8	26.6	18.9	8.6	5.6
	여성	(1,517)	32.0	15.9	25.0	16.7	5.9	4.4
연령	만18세~24세	(798)	29.3	14.7	24.2	16.9	9.4	5.5
	25세~29세	(784)	27.7	14.9	25.8	19.8	6.6	5.2
	30세~34세	(695)	25.5	16.3	26.6	18.6	7.9	5.2
	35세~39세	(723)	34.4	13.7	27.0	15.9	5.0	4.0
거주 권역	도심권	(154)	23.4	13.0	38.3	15.6	3.9	5.8
	동북권	(890)	29.9	13.7	25.1	19.1	7.2	5.1
	서북권	(362)	31.5	17.7	22.1	18.2	6.6	3.9
	서남권	(962)	31.3	14.2	25.2	17.5	7.5	4.4
	동남권	(632)	25.3	16.3	27.1	16.8	8.2	6.3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28.5	14.4	25.4	18.0	8.2	5.5
	비동거 · 비독립	(292)	28.8	15.4	22.6	17.5	9.6	6.2
	독립	(1,162)	30.4	15.3	27.2	17.6	5.5	4.0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34.2	13.7	25.8	15.9	6.6	3.8
	2인이상, 동거	(1,546)	28.5	14.4	25.4	18.0	8.2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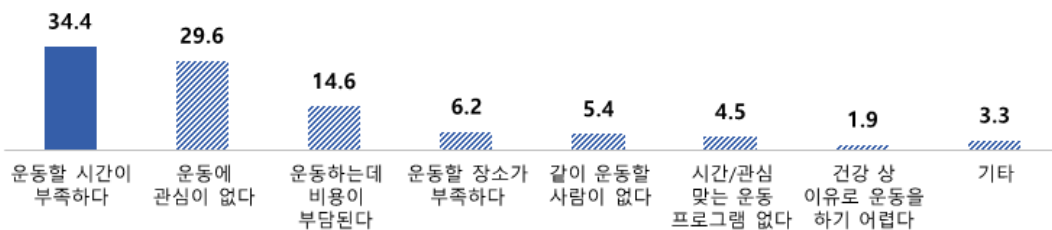
8. 규칙적 체육활동 하지 않는 이유

문. 귀하가 평소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자주 하시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다 34.4% > 운동에 관심이 없다 29.6%

- 규칙적인 운동을 한달에 3번 이하로 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평소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다가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운동에 관심이 없다 29.6%, 운동하는데 비용이 부담된다 1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여성, 만18~24세, 부모와 동거, 비동거·비독립, 2인이상·동거의 경우 운동에 관심이 없다는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Base: 규칙적인 운동 한달에 3번 이하인 응답자, 단위: %)



통계표

(Base: 규칙적인 운동 한달에 3번 이하인 응답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다	운동에 관심이 없다	운동 하는데 비용이 부담된다	운동할 장소가 부족하다	같이 운동할 사람이 없다	시간/관심 맞는 운동 프로그램 이 없다	건강 상 이유로 운동을 하기 어렵다	기타	
2020년 청년세대	(1,323)	34.4	29.6	14.6	6.2	5.4	4.5	1.9	3.3	
2020년 기성세대	(500)	34.0	21.4	11.8	8.6	5.6	9.6	2.0	0.8	
성	남성	(596)	39.6	28.5	8.4	7.4	7.9	3.5	1.8	2.9
	여성	(727)	30.1	30.5	19.7	5.2	3.4	5.4	1.9	3.7
연령	만18세~24세	(351)	27.1	36.8	13.1	7.1	6.8	4.0	1.4	3.7
	25세~29세	(334)	32.6	26.9	20.4	5.7	5.4	3.9	2.1	3.0
	30세~34세	(290)	37.2	28.3	13.1	5.2	5.5	5.5	2.4	2.8
	35세~39세	(348)	41.1	26.1	11.8	6.6	4.0	4.9	1.7	3.7
거주 권역	도심권	(56)	33.9	21.4	19.6	8.9	3.6	3.6	5.4	3.6
	동북권	(388)	33.0	28.4	14.2	6.2	6.4	6.4	1.8	3.6
	서북권	(178)	34.8	34.8	13.5	6.7	2.2	4.5	0.6	2.8
	서남권	(438)	33.1	29.9	16.2	5.9	5.5	3.9	3.0	2.5
	동남권	(263)	38.4	29.3	12.2	5.7	6.5	3.0	0.4	4.6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663)	28.8	33.0	14.5	6.0	5.4	4.8	2.7	4.7
	비동거 · 비독립	(129)	24.8	32.6	17.8	8.5	7.0	5.4	2.3	1.6
	독립	(531)	43.7	24.7	13.9	5.8	5.1	4.0	0.8	2.1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217)	36.4	25.8	18.0	4.6	5.1	6.0	0.5	3.7
	2인이상, 동거	(663)	28.8	33.0	14.5	6.0	5.4	4.8	2.7	4.7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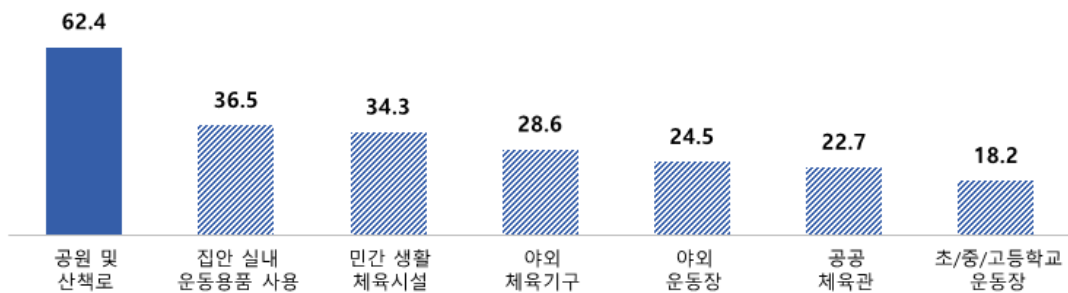
9. 동네 체육 시설_복수응답

문. 귀하가 사시는 동네(실내 포함)에서 이용 가능한 체육 시설을 모두 골라 주세요

공원 및 산책로 62.4% > 자기 집안에서 실내 운동용품 사용 36.5%

- 사는 동네(실내 포함)에서 이용 가능한 체육 시설로 공원 및 산책로가 62.4%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집안 실내 운동용품 사용 36.5%, 민간 생활 체육시설 3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복수응답, Base: 전체, 10% 미만 응답 제외, 단위: %)



통계표

(복수응답, Base: 전체, 10% 미만 응답 제외,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공원 및 산책로	집안 실내 운동용품 사용	민간 생활 체육시설	야외 체육기구	야외 운동장	공공 체육관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2020년 청년세대	(3,000)	62.4	36.5	34.3	28.6	24.5	22.7	18.2
성	남성	(1,483)	59.3	31.6	30.7	29.6	27.1	24.6
	여성	(1,517)	65.5	41.3	37.8	27.6	21.9	20.8
연령	만18세~24세	(798)	62.3	42.9	35.5	29.9	27.2	24.3
	25세~29세	(784)	60.1	37.9	32.8	27.7	21.2	21.6
	30세~34세	(695)	62.6	35.4	36.7	29.5	25.3	23.6
	35세~39세	(723)	65.0	29.2	32.4	27.1	24.2	21.2
거주 권역	도심권	(154)	60.4	31.8	37.0	27.3	24.0	29.9
	동북권	(890)	63.6	36.9	33.7	30.1	25.4	21.9
	서북권	(362)	61.0	38.4	31.2	26.5	19.3	20.7
	서남권	(962)	61.7	34.8	31.9	26.4	23.8	22.5
	동남권	(632)	63.1	38.8	39.9	31.2	27.2	23.4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63.5	39.0	36.1	31.5	25.6	24.3
	비동거 · 비독립	(292)	58.9	36.0	32.2	27.4	26.4	21.2
	독립	(1,162)	62.0	33.4	32.4	25.0	22.5	20.8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61.8	33.3	29.4	20.1	19.0	18.8
	2인이상, 동거	(1,546)	63.5	39.0	36.1	31.5	25.6	24.3

※ 10% 미만 응답 제외: '잘 모른다' 7.8%, '없다' 2.4%, 기타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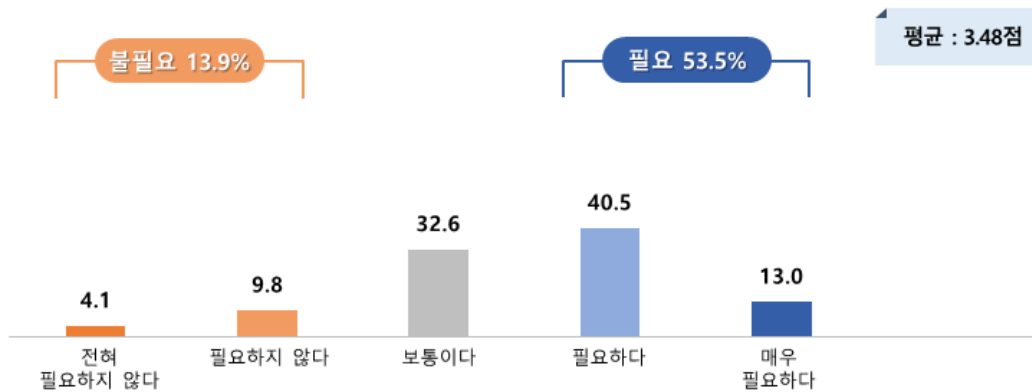
10. 청년 대상 생활체육 정책 필요성

문. 귀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청년 대상 생활체육 정책 필요성은 5점 평균 3.48점

-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의 정책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53.5%,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3.9%로 나타났고, 평균 3.48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①	필요하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⑤	불필요 (①+②)	보통 ③	필요 (④+⑤)	5점 평균 (점)
2020년 청년세대		(3,000)	4.1	9.8	32.6	40.5	13.0	13.9	32.6	53.5	3.48
2020년 기성세대		(500)	0.8	7.4	33.2	50.8	7.8	8.2	33.2	58.6	3.57
성	남성	(1,483)	5.9	11.1	31.1	39.4	12.6	16.9	31.1	52.0	3.42
	여성	(1,517)	2.4	8.6	34.0	41.6	13.4	11.0	34.0	55.0	3.55
연령	만18세~24세	(798)	2.9	9.9	30.6	41.0	15.7	12.8	30.6	56.6	3.57
	25세~29세	(784)	5.0	10.8	27.3	43.1	13.8	15.8	27.3	56.9	3.50
	30세~34세	(695)	3.5	9.2	39.6	35.1	12.7	12.7	39.6	47.8	3.44
	35세~39세	(723)	5.1	9.3	33.7	42.3	9.5	14.4	33.7	51.9	3.42
거주 권역	도심권	(154)	3.2	8.4	33.1	31.2	24.0	11.7	33.1	55.2	3.64
	동북권	(890)	4.2	11.1	28.9	42.8	13.0	15.3	28.9	55.8	3.49
	서북권	(362)	6.4	8.8	36.7	36.5	11.6	15.2	36.7	48.1	3.38
	서남권	(962)	3.7	9.3	34.1	40.1	12.8	13.0	34.1	52.9	3.49
	동남권	(632)	3.5	9.8	32.9	42.4	11.4	13.3	32.9	53.8	3.48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3.6	10.0	33.0	40.1	13.3	13.6	33.0	53.4	3.50
	비동거 · 비독립	(292)	3.1	10.6	28.1	41.1	17.1	13.7	28.1	58.2	3.59
	독립	(1,162)	5.1	9.4	33.1	40.9	11.5	14.5	33.1	52.4	3.44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4.2	9.9	31.3	41.5	13.0	14.1	31.3	54.5	3.49
	2인이상, 동거	(1,546)	3.6	10.0	33.0	40.1	13.3	13.6	33.0	53.4	3.50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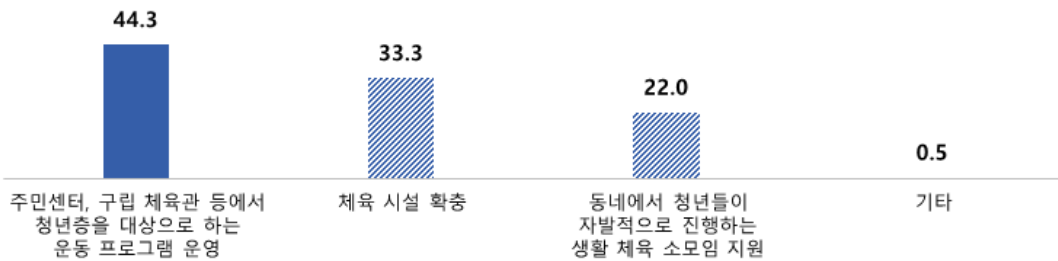
11. 청년 대상 생활체육 정책

문. 그렇다면, 생활체육 관련하여 어떤 청년 대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 프로그램 운영 필요 44.3%

- 청년 대상 생활체육 정책이 필요하다고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청년 대상으로 생활체육 관련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민센터, 구립 체육관 등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 프로그램 운영이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체육 시설 확충 33.3%, 동네에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생활 체육 소모임 지원 22.0% 순으로 나타남.

(Base: 청년 대상 생활체육 정책이 필요하다고한 응답자, 단위: %)



통계표

(Base: 청년 대상 생활체육 정책이 필요하다고한 응답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청년층 대상으로 하는 운동 프로그램 운영	체육 시설 확충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생활 체육 소모임 지원	기타
2020년 청년세대		(2,582)	44.3	33.3	22.0	0.5
2020년 기성세대		(459)	54.5	27.7	17.2	0.7
성	남성	(1,232)	36.0	37.9	25.9	0.2
	여성	(1,350)	51.9	29.0	18.4	0.7
연령	만18세~24세	(696)	41.5	37.4	20.7	0.4
	25세~29세	(660)	45.5	30.0	24.1	0.5
	30세~34세	(607)	43.2	34.6	21.9	0.3
	35세~39세	(619)	47.3	30.9	21.2	0.6
거주 권역	도심권	(136)	44.1	34.6	21.3	0.0
	동북권	(754)	46.6	31.7	21.6	0.1
	서북권	(307)	42.7	33.9	22.5	1.0
	서남권	(837)	44.7	33.5	21.1	0.7
	동남권	(548)	41.6	34.5	23.5	0.4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336)	45.1	33.7	20.9	0.4
	비동거 · 비독립	(252)	40.5	37.7	21.4	0.4
	독립	(994)	44.3	31.6	23.5	0.6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389)	45.2	31.9	22.1	0.8
	2인이상, 동거	(1,336)	45.1	33.7	20.9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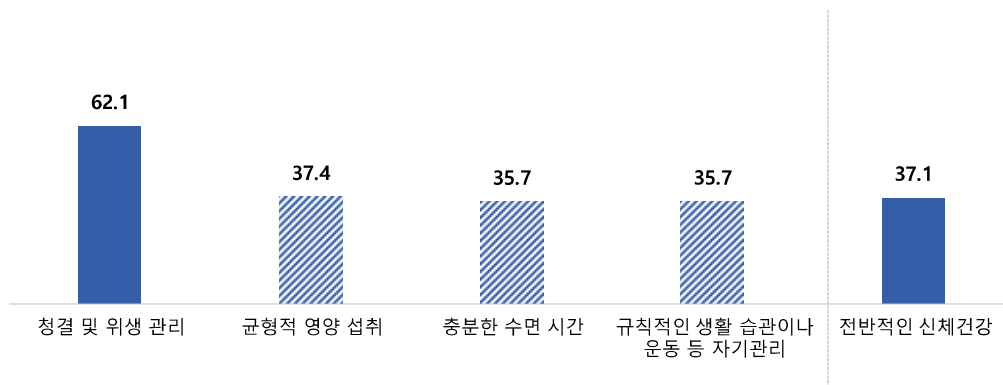
12. 건강과 생활 습관 긍정 모음(긍정비율)

문. 다음은 귀하의 건강과 생활 습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결 및 위생 관리 62.1%

- 건강과 생활 습관의 긍정 비율로 청결 및 위생 관리가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균형적 영양 섭취 37.4%, 충분한 수면 시간 35.7%,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나 운동 등 자기관리 35.7%의 순으로 나타남. 전반적인 신체 건강은 37.1%로 나타남.

(긍정%,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긍정%,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청결 및 위생 관리	균형적 영양 섭취	충분한 수면 시간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나 운동 등 자기관리	전반적인 신체 건강
2020년 청년세대	(3,000)	62.1	37.4	35.7	35.7	37.1
2020년 기성세대	(500)	62.6	34.8	35.2	34.4	31.4
성	남성	(1,483)	60.0	40.2	33.4	40.3
	여성	(1,517)	64.1	34.6	38.0	32.6
연령	만18세~24세	(798)	68.2	42.6	42.2	38.3
	25세~29세	(784)	62.0	38.6	37.5	37.0
	30세~34세	(695)	59.6	32.5	34.8	34.4
	35세~39세	(723)	57.8	34.9	27.4	32.8
거주 권역	도심권	(154)	61.7	35.1	31.2	35.1
	동북권	(890)	62.4	38.8	36.9	37.1
	서북권	(362)	61.6	34.3	35.6	33.7
	서남권	(962)	58.8	35.2	33.2	33.4
독립여부	동남권	(632)	66.9	41.0	39.1	38.8
	부모와 동거	(1,546)	63.6	39.3	38.6	36.4
	비동거 · 비독립	(292)	55.8	38.0	36.0	36.6
	독립	(1,162)	61.5	34.6	31.8	34.7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54.7	26.9	27.6	32.5
	2인이상, 동거	(1,546)	63.6	39.3	38.6	36.4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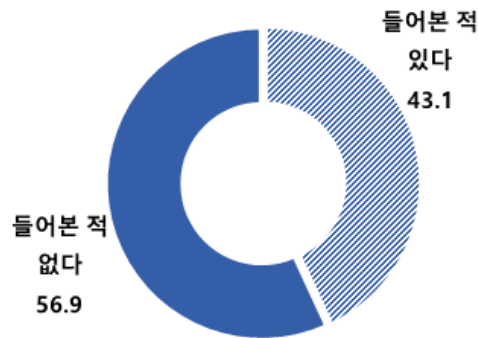
13. [국가건강검진 사업] 인지도

문. 귀하는 국가건강검진 사업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다 43.1%, 들어본 적 없다 56.9%

- 국가건강검진 사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3.1%,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6.9%로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들어본 적 있다	들어본 적 없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43.1	56.9
성	남성	(1,483)	37.3	62.7
	여성	(1,517)	48.8	51.2
연령	만18세~24세	(798)	40.9	59.1
	25세~29세	(784)	42.5	57.5
	30세~34세	(695)	42.6	57.4
	35세~39세	(723)	46.7	53.3
거주 권역	도심권	(154)	49.4	50.6
	동북권	(890)	43.6	56.4
	서북권	(362)	37.8	62.2
	서남권	(962)	44.8	55.2
	동남권	(632)	41.3	58.7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42.1	57.9
	비동거 · 비독립	(292)	40.4	59.6
	독립	(1,162)	45.1	54.9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39.1	60.9
	2인이상, 동거	(1,546)	42.1	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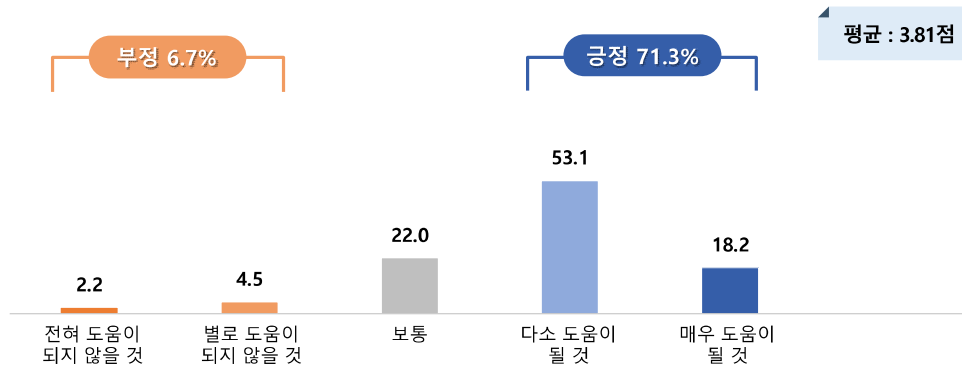
14. [국가건강검진 사업] 도움 정도(긍정 비율)

문. 국가건강검진은 신체건강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국가건강검진 사업 도움 정도에 대한 긍정 지수는 5점 평균 3.81점

- 국가건강검진의 신체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은 71.3%, 부정적인 응답은 6.7%로 나타났고, 평균 3.81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남.
- 기성세대의 경우 긍정 응답은 69.8%, 부정 응답은 8.4%로 나타났고, 평균 3.73점으로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②	보통이다 ③	다소 도움이 될 것 ④	매우 도움이 될 것 ⑤	부정 (①+②)	보통 ③	긍정 (④+⑤)	5점 평균 (점)	
2020년 청년세대	(3,000)	2.2	4.5	22.0	53.1	18.2	6.7	22.0	71.3	3.81	
2020년 기성세대	(500)	1.8	6.6	21.8	56.8	13.0	8.4	21.8	69.8	3.73	
성	남성	(1,483)	3.3	5.0	24.5	50.4	16.8	8.3	24.5	67.2	3.72
	여성	(1,517)	1.1	4.0	19.6	55.8	19.5	5.1	19.6	75.3	3.89
연령	만18세~24세	(798)	1.4	2.8	17.5	53.3	25.1	4.1	17.5	78.3	3.98
	25세~29세	(784)	2.6	5.5	19.6	52.4	19.9	8.0	19.6	72.3	3.82
	30세~34세	(695)	1.4	4.2	27.5	52.9	14.0	5.6	27.5	66.9	3.74
	35세~39세	(723)	3.5	5.5	24.5	53.8	12.7	9.0	24.5	66.5	3.67
거주 권역	도심권	(154)	3.2	5.2	25.3	47.4	18.8	8.4	25.3	66.2	3.73
	동북권	(890)	1.7	4.5	19.4	56.2	18.2	6.2	19.4	74.4	3.85
	서북권	(362)	2.8	3.9	24.3	50.6	18.5	6.6	24.3	69.1	3.78
	서남권	(962)	2.2	4.5	23.1	52.8	17.5	6.7	23.1	70.3	3.79
	동남권	(632)	2.4	4.6	22.2	52.1	18.8	7.0	22.2	70.9	3.80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1.9	4.1	20.2	53.8	20.1	6.0	20.2	73.9	3.86
	비동거 · 비독립	(292)	1.4	5.1	23.3	48.6	21.6	6.5	23.3	70.2	3.84
	독립	(1,162)	2.8	4.8	24.3	53.3	14.8	7.7	24.3	68.1	3.72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2.9	5.3	24.1	52.3	15.5	8.2	24.1	67.8	3.72
	2인이상, 동거	(1,546)	1.9	4.1	20.2	53.8	20.1	6.0	20.2	73.9	3.86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Part. 7

마음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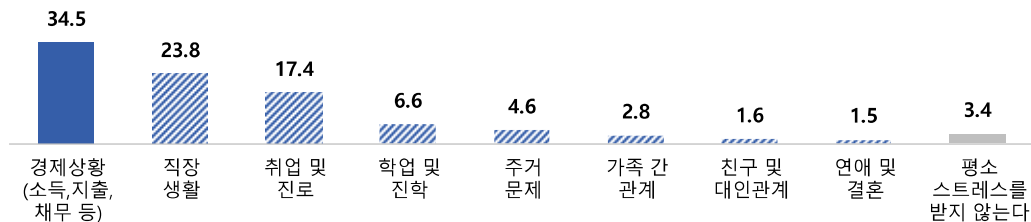
1-1. 일상 스트레스 원인_1순위

문. 귀하의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경제상황 34.5% > 직장 생활 23.8% > 취업 및 진로 17.4%

-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의 원인 1순위로 경제상황(소득, 지출, 채무 등)이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직장 생활 23.8%, 취업 및 진로 1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만18세~24세, 비동거·비독립인 경우 취업 및 진로가 가장 높음.
- 기성세대의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스트레스가 47.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장생활(23.4%), 주거문제(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Base: 전체, 1.5% 미만 응답 제외,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1.5% 미만 응답 제외,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경제 상황	직장 생활	취업 및 진로	학업 및 진학	주거 문제	가족 간 관계	친구 및 대인관계	연애 및 결혼	평소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34.5	23.8	17.4	6.6	4.6	2.8	1.6	1.5	3.4
2020년 기성세대	(500)	47.2	23.4	4.0	1.0	5.4	4.2	1.0	0.4	3.2
성	남성 (1,483)	35.6	23.4	17.3	6.7	3.9	2.0	1.5	1.4	4.3
	여성 (1,517)	33.5	24.3	17.5	6.5	5.3	3.6	1.6	1.5	2.5
연령	만18세~24세 (798)	25.8	11.2	29.9	18.4	1.6	2.5	2.8	1.5	2.3
	25세~29세 (784)	35.1	26.7	20.3	4.3	2.9	2.6	0.9	1.5	2.7
	30세~34세 (695)	36.0	29.6	11.7	1.0	7.8	2.6	1.6	1.2	5.2
	35세~39세 (723)	42.2	29.2	5.8	1.4	6.6	3.7	1.0	1.7	3.7
거주 권역	도심권 (154)	39.6	20.8	16.9	5.2	4.5	1.3	3.2	1.9	3.2
	동북권 (890)	32.9	23.3	17.9	7.3	3.8	3.3	1.5	1.1	4.0
	서북권 (362)	35.6	26.5	19.1	4.7	4.4	1.9	1.4	1.4	2.8
	서남권 (962)	34.6	24.2	17.7	6.2	4.6	3.0	1.9	1.6	2.7
	동남권 (632)	34.8	23.3	15.3	7.6	5.9	2.8	0.9	1.7	4.0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31.2	19.7	22.6	9.3	2.7	3.5	2.0	1.8	3.2
	비동거·비독립 (292)	28.8	15.4	30.8	10.3	4.5	1.0	1.7	1.7	3.1
	독립 (1,162)	40.4	31.5	7.0	2.1	7.1	2.4	0.9	0.9	3.8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40.8	34.4	7.1	3.1	5.5	1.5	0.7	1.3	2.6
	2인이상, 동거 (1,546)	31.2	19.7	22.6	9.3	2.7	3.5	2.0	1.8	3.2

※ 1.5% 미만 응답: '건강·질병 및 장애' 1.4%, '외모나 체형' 1.1%, '사회/정치 현안 및 갈등' 1.1%, 기타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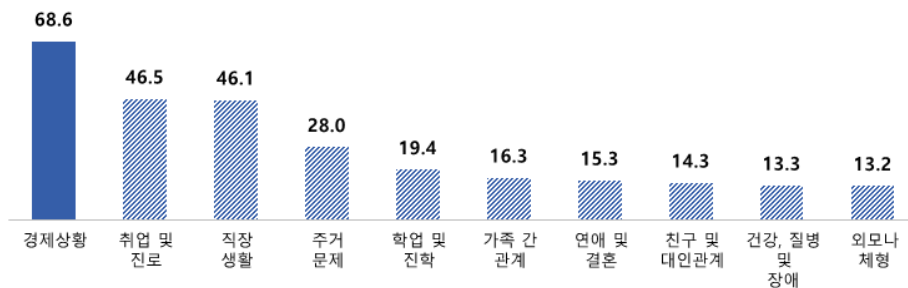
1-2. 일상 스트레스 원인_1+2+3순위_복수응답

문. 귀하의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주세요

경제상황 68.6% > 취업 및 진로 46.5% > 직장 생활 46.1%

-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의 원인 1+2+3순위로 경제상황(소득, 지출, 채무 등)이 6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취업 및 진로 46.5%, 직장 생활 4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만18세~24세, 비동거·비독립의 경우 취업 및 진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기성세대의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스트레스가 75.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장생활(50.2%), 건강, 질병 및 장애(39.6%), 주거문제(3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복수응답, Base: 전체, 10% 미만 응답 제외, 단위: %)



통계표

(복수응답, Base: 전체, 10% 미만 응답 제외,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경제 상황	취업 및 진로	직장 생활	주거 문제	학업 및 진학	가족 간 관계	연애 및 결혼	친구 및 대인관계	건강, 질병 및 장애	외모나 체형
2020년 청년세대	(3,000)	68.6	46.5	46.1	28.0	19.4	16.3	15.3	14.3	13.3	13.2
2020년 기성세대	(500)	75.6	21.0	50.2	32.8	5.8	21.8	4.2	13.8	39.6	5.8
성	남성	(1,483)	68.0	45.9	45.5	28.1	21.5	13.0	17.1	14.2	11.3
	여성	(1,517)	69.1	47.1	46.6	27.9	17.3	19.4	13.5	14.4	15.0
연령	만18세~24세	(798)	61.4	67.5	23.3	12.9	46.0	15.4	11.7	18.2	10.5
	25세~29세	(784)	70.4	51.9	51.0	26.3	13.4	14.3	18.5	15.4	11.7
	30세~34세	(695)	71.1	38.4	56.5	35.1	7.8	15.4	16.7	11.5	10.1
	35세~39세	(723)	72.1	25.2	55.7	39.7	7.6	20.2	14.4	11.6	10.5
거주 권역	도심권	(154)	70.8	43.5	47.4	26.0	19.5	14.3	23.4	15.6	11.7
	동북권	(890)	68.9	47.8	42.6	26.5	20.2	17.0	12.8	15.1	14.7
	서북권	(362)	68.8	49.4	48.1	30.4	19.6	16.3	15.2	10.8	13.3
	서남권	(962)	70.1	46.2	47.8	28.5	17.5	16.3	15.9	14.0	13.5
독립여부	동남권	(632)	65.2	44.3	46.8	28.5	20.9	15.7	15.8	15.5	12.7
	부모와 동거	(1,546)	66.7	55.4	38.9	19.5	25.0	16.8	16.6	14.5	13.3
	비동거·비독립	(292)	63.7	66.8	31.8	23.6	30.8	13.7	14.4	17.1	9.9
가구유형	독립	(1,162)	72.3	29.6	59.1	40.4	9.0	16.3	13.7	13.4	14.1
	1인가구, 경제독립	(453)	73.7	32.7	63.8	38.9	8.6	9.7	24.1	13.5	9.7
	2인이상, 동거	(1,546)	66.7	55.4	38.9	19.5	25.0	16.8	16.6	14.5	13.3

※ 10% 미만 응답: '사회/정치 현안 및 갈등' 8.2%, '평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3.4%, 기타 0.5%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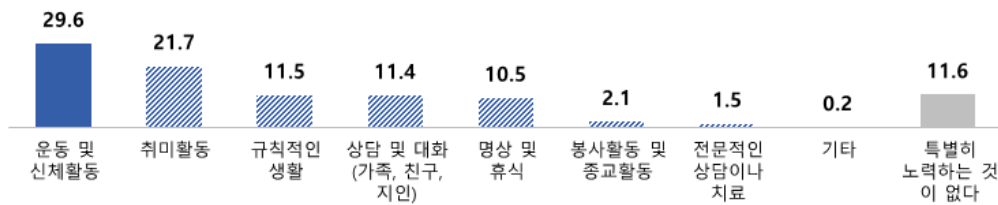
2-1. 정신건강 유지 방법_1순위

문. 귀하는 평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운동 및 신체활동 29.6% > 취미 활동 21.7%

- 평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1순위로 운동 및 신체활동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취미활동 2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성세대의 경우 운동 및 신체활동 33.4%, 규칙적인 생활 24.2%, 취미활동 1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운동 및 신체활동	취미활동	규칙적인 생활	상담 및 대화	명상 및 휴식	봉사활동 및 종교활동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	기타	특별히 노력하는 것이없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29.6	21.7	11.5	11.4	10.5	2.1	1.5	0.2	11.6
2020년 기성세대		(500)	33.4	10.4	24.2	6.8	8.4	2.6	1.4	0.0	12.8
성	남성	(1,483)	33.3	22.2	12.6	8.7	8.6	1.8	0.9	0.2	11.7
	여성	(1,517)	26.0	21.2	10.3	14.0	12.3	2.5	2.0	0.2	11.5
연령	만18세~24세	(798)	28.1	29.4	8.6	9.6	10.4	1.9	1.0	0.1	10.8
	25세~29세	(784)	30.7	21.2	10.7	12.1	8.8	2.3	1.8	0.4	12.0
	30세~34세	(695)	30.5	18.7	11.8	12.1	11.4	2.4	1.4	0.3	11.4
	35세~39세	(723)	29.2	16.5	15.1	11.8	11.5	1.9	1.7	0.0	12.4
거주 권역	도심권	(154)	31.2	21.4	10.4	13.0	7.1	3.2	1.9	0.0	11.7
	동북권	(890)	31.3	20.3	12.7	11.5	10.1	2.4	1.5	0.1	10.1
	서북권	(362)	26.8	26.8	10.5	10.5	11.0	1.4	0.8	0.6	11.6
	서남권	(962)	28.7	20.2	12.0	9.7	11.6	2.2	1.5	0.2	14.0
	동남권	(632)	29.7	22.9	9.8	13.9	9.7	1.9	1.7	0.2	10.1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30.5	24.3	9.2	10.3	10.0	1.7	1.5	0.2	12.2
	비동거 · 비독립	(292)	26.7	25.0	9.6	12.7	9.9	3.8	1.4	0.3	10.6
	독립	(1,162)	29.1	17.4	14.9	12.4	11.2	2.3	1.5	0.2	11.1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29.1	20.5	11.9	9.9	12.8	1.5	2.4	0.2	11.5
	2인이상, 동거	(1,546)	30.5	24.3	9.2	10.3	10.0	1.7	1.5	0.2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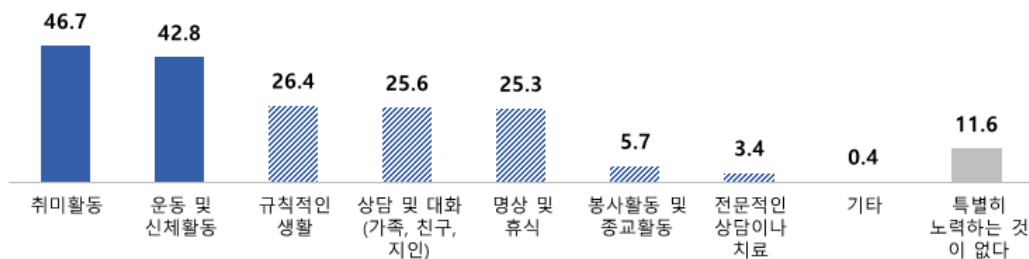
2-2. 정신건강 유지 방법_1+2순위_복수응답

문. 귀하는 평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골라 주세요

취미활동 46.7% > 운동 및 신체활동 42.8% > 규칙적인 생활 26.4%

- 평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1+2순위로 취미활동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운동 및 신체활동 42.8%, 규칙적인 생활 2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35세~39세와 독립의 경우 운동 및 신체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성세대의 경우 운동 및 신체활동이 50.0%, 규칙적인 생활 46.2%, 취미활동 2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복수응답,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복수응답,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취미활동	운동 및 신체활동	규칙적인 생활	상담 및 대화	명상 및 휴식	봉사활동 및 종교활동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	기타	특별히 노력하는 것이 없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46.7	42.8	26.4	25.6	25.3	5.7	3.4	0.4	11.6
2020년 기성세대	(500)	28.0	50.0	46.2	19.0	21.6	6.8	2.6	0.2	12.8
성	남성 (1,483)	48.6	48.1	28.3	20.9	22.6	4.9	2.4	0.3	11.7
	여성 (1,517)	44.8	37.6	24.5	30.2	28.0	6.5	4.4	0.5	11.5
연령	만18세~24세 (798)	57.8	41.0	21.6	25.3	23.4	5.4	2.9	0.4	10.8
	25세~29세 (784)	48.0	43.0	24.0	26.9	23.0	6.4	4.1	0.5	12.0
	30세~34세 (695)	43.2	43.5	28.8	24.2	28.5	5.9	2.4	0.7	11.4
	35세~39세 (723)	36.5	44.0	32.0	25.9	27.0	5.3	4.1	0.1	12.4
거주 권역	도심권 (154)	46.8	43.5	27.3	22.1	21.4	9.1	5.2	0.6	11.7
	동북권 (890)	46.9	45.4	27.3	25.1	25.3	5.4	3.7	0.1	10.1
	서북권 (362)	52.8	41.4	24.0	24.6	25.7	4.7	2.8	0.8	11.6
	서남권 (962)	44.6	41.9	26.6	23.9	25.7	6.1	2.5	0.4	14.0
독립여부	동남권 (632)	46.2	41.1	25.8	30.4	25.6	5.4	4.3	0.6	10.1
	부모와 동거 (1,546)	51.8	42.9	22.3	24.4	24.7	5.4	3.0	0.5	12.2
	비동거 · 비독립 (292)	46.6	42.5	28.8	25.0	24.3	7.2	3.8	0.3	10.6
가구유형	독립 (1,162)	39.9	42.7	31.2	27.4	26.4	5.9	3.8	0.4	11.1
	1인가구, 경제독립 (453)	43.9	41.9	30.2	24.7	26.5	4.0	5.1	0.2	11.5
	2인이상, 동거 (1,546)	51.8	42.9	22.3	24.4	24.7	5.4	3.0	0.5	12.2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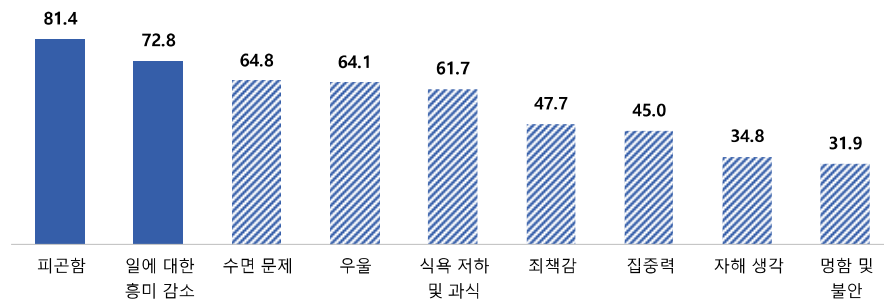
3. 우울증 유증상 모음(긍정비율)

문. 지난 1년 동안 경험하신 적이 있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피곤함 81.4% > 일에 대한 흥미 감소 72.8% > 수면 문제 64.8%

- 지난 1년 간 느낀 우울증 유증상으로 피곤함이 8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일에 대한 흥미 감소 72.8%, 수면 문제 6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성세대의 경우 피곤함 76.4%, 수면 문제 64.2%, 일에 대한 흥미 감소 63.6%, 식욕 저하 및 과식 5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긍정%,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긍정%,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피곤함	일에 대한 흥미 감소	수면 문제	우울	식욕 저하 및 과식	죄책감	집중력	자해 생각	명함 및 불안
2020년 청년세대	(3,000)	81.4	72.8	64.8	64.1	61.7	47.7	45.0	34.8	31.9
2020년 기성세대	(500)	76.4	63.6	64.2	56.6	57.0	45.4	42.4	27.6	27.2
성	남성	(1,483)	75.9	67.0	58.9	58.6	54.8	44.2	40.7	32.4
	여성	(1,517)	86.8	78.5	70.6	69.5	68.4	51.2	49.2	37.1
연령	만18세~24세	(798)	78.8	70.1	65.8	63.2	58.4	44.6	41.1	32.0
	25세~29세	(784)	81.8	72.6	63.0	65.2	61.7	48.3	45.9	34.8
	30세~34세	(695)	81.7	76.4	63.9	64.2	65.8	47.8	47.2	36.0
	35세~39세	(723)	83.5	72.6	66.5	64.0	61.3	50.5	46.2	36.8
거주 권역	도심권	(154)	85.7	74.0	70.8	68.8	66.2	51.3	50.6	40.9
	동북권	(890)	80.3	71.3	65.8	61.0	62.4	48.3	44.4	33.5
	서북권	(362)	83.7	76.5	68.8	69.3	63.5	51.1	46.7	40.1
	서남권	(962)	80.2	71.2	61.7	61.9	59.3	43.3	40.6	31.5
	동남권	(632)	82.3	74.8	64.2	67.9	62.2	50.8	50.2	37.2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80.7	72.2	63.9	64.0	59.7	48.1	43.5	34.7
	비동거 · 비독립	(292)	77.1	68.2	69.2	66.1	67.5	47.9	46.2	35.3
	독립	(1,162)	83.4	74.8	64.9	63.9	62.8	47.2	46.7	34.9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86.1	78.6	68.2	67.3	63.6	47.0	48.1	37.7
	2인이상, 동거	(1,546)	80.7	72.2	63.9	64.0	59.7	48.1	43.5	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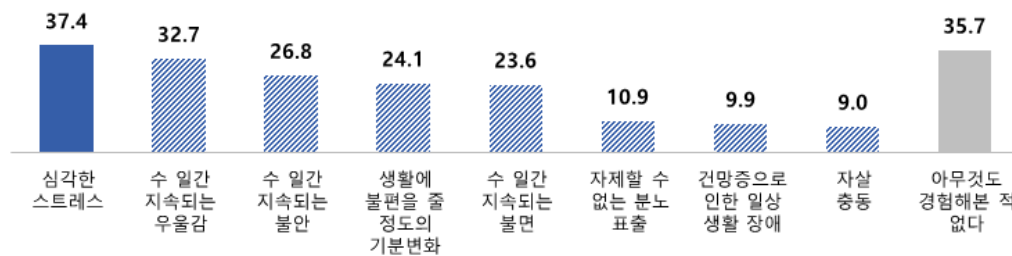
4. 정신적 어려움 경험_복수응답

문. 지난 1년 동안 경험하신 적이 있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정신적 어려움 경험 64.3%

- 지난 1년 간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64.3%로 서울시 청년 10명 중 6명은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경험한 적 있는 정신적 어려움으로는 심각한 스트레스가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32.7%,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 2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성세대의 경우 심각한 스트레스 30.2%,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27.4%,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 22.2%,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분변화 2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복수응답, Base: 전체, 5% 미만 응답 제외, 단위: %)



통계표

(복수응답, Base: 전체, 5% 미만 응답 제외,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심각한 스트레스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분변화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	자제할 수 없는 분노 표출	건망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자살 충동	아무것도 경험해본 적이 없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37.4	32.7	26.8	24.1	23.6	10.9	9.9	9.0	35.7
2020년 기성세대	(500)	30.2	27.4	21.0	21.6	22.2	8.4	10.8	6.0	36.8
성	남성 (1,483)	31.6	25.7	22.4	18.7	20.4	8.8	7.5	7.6	42.2
	여성 (1,517)	43.0	39.6	31.2	29.3	26.8	13.0	12.3	10.3	29.3
연령	만18세~24세 (798)	40.4	35.7	29.8	27.1	23.9	9.4	8.5	11.2	34.7
	25세~29세 (784)	40.3	33.9	28.6	24.7	23.5	12.6	10.7	7.7	35.1
	30세~34세 (695)	33.5	30.5	23.6	23.0	25.0	10.5	9.2	7.8	37.4
	35세~39세 (723)	34.6	30.3	24.8	21.2	22.1	11.1	11.3	9.1	35.8
거주 권역	도심권 (154)	36.4	31.8	28.6	26.6	24.0	17.5	15.6	11.0	34.4
	동북권 (890)	38.3	33.6	28.4	24.4	23.6	10.3	9.0	8.4	35.7
	서북권 (362)	37.8	40.6	32.0	26.2	27.1	10.8	10.8	13.8	32.9
	서남권 (962)	34.3	29.7	23.6	21.3	22.0	10.3	10.0	6.5	38.0
	동남권 (632)	40.7	31.8	26.1	26.1	24.1	11.1	9.3	10.1	34.0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38.2	33.6	27.9	23.5	23.9	10.0	9.1	9.2	35.5
	비동거·비독립 (292)	38.0	36.6	33.2	25.0	26.0	11.6	10.6	10.6	33.9
	독립 (1,162)	36.1	30.6	23.8	24.6	22.6	12.0	10.8	8.2	36.4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40.8	37.7	30.0	26.3	27.4	11.3	9.9	10.6	33.1
	2인이상, 동거 (1,546)	38.2	33.6	27.9	23.5	23.9	10.0	9.1	9.2	35.5

※ 5% 미만 응답: '알코올 문제' 4.1%, '환청, 환시, 망상적 생각' 3.5%, '자해행동' 2.4%, '기타 중독 문제' 2.2%, '도박중독' 문제 0.8%, '약물 중독 문제' 0.7%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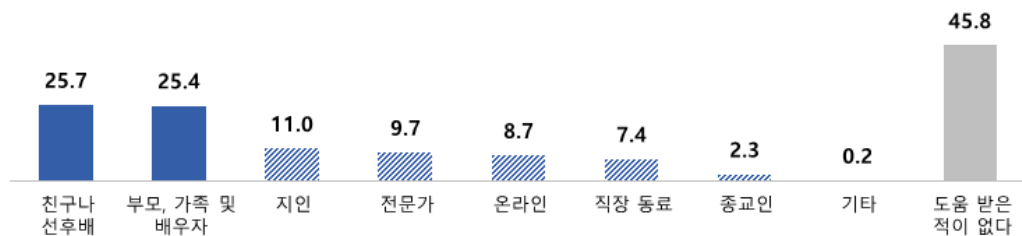
5. 정신적 어려움 경험 시 도움 받은 방법_복수응답

문. 최근 1년간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가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움 받은 경우를 모두 골라 주세요

친구나 선후배 25.7%, 부모 가족 및 배우자 25.4%

-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최근 1년 간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 받은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친구나 선후배(25.7%), 부모, 가족 및 배우자(25.4%)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도움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45.8%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여성의 경우 부모, 가족 및 배우자에게 도움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기성세대의 경우 부모, 가족 및 배우자(23.4%), 친구나 선후배 16.3%, 지인 10.9% 등의 순임.

(복수응답, Base: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응답자, 단위: %)



통계표

(복수응답, Base: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응답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친구나 선후배	부모 가족 및 배우자	지인	전문가	온라인	직장 동료	종교인	기타	도움받은 적이 없다
2020년 청년세대		(2,754)	25.7	25.4	11.0	9.7	8.7	7.4	2.3	0.2	45.8
2020년 기성세대		(441)	16.3	23.4	10.9	5.9	3.9	9.8	4.1	0.5	52.6
성	남성	(1,306)	25.0	23.0	12.7	9.1	7.7	9.1	2.1	0.2	48.6
	여성	(1,448)	26.2	27.6	9.4	10.2	9.5	5.9	2.4	0.3	43.2
연령	만18세~24세	(739)	29.9	28.1	11.1	8.5	6.8	3.1	2.4	0.3	45.5
	25세~29세	(715)	29.2	20.8	11.9	10.6	10.1	8.0	2.0	0.1	44.1
	30세~34세	(633)	22.7	24.2	10.4	9.0	7.9	8.7	2.1	0.2	48.3
	35세~39세	(667)	19.9	28.5	10.3	10.5	10.0	10.5	2.7	0.3	45.4
거주 권역	도심권	(148)	23.0	27.0	10.1	14.9	10.8	12.2	3.4	0.0	41.2
	동북권	(817)	26.4	28.3	11.8	8.4	8.1	7.0	2.6	0.1	45.3
	서북권	(333)	21.0	23.7	9.0	10.5	7.8	5.7	2.4	0.3	51.4
	서남권	(879)	25.8	23.4	9.8	9.7	8.0	6.8	1.7	0.3	48.1
	동남권	(577)	27.7	25.0	13.0	9.5	10.6	8.8	2.4	0.2	40.7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426)	26.4	23.6	10.9	8.7	8.7	5.5	2.3	0.2	48.7
	비동거 · 비독립	(261)	30.7	24.5	13.4	11.1	10.7	6.9	2.3	0.4	38.7
	독립	(1,067)	23.5	28.0	10.5	10.6	8.2	10.1	2.2	0.2	43.5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32)	28.7	16.0	11.3	9.3	7.4	8.1	1.6	0.2	50.0
	2인이상 동거	(1,426)	26.4	23.6	10.9	8.7	8.7	5.5	2.3	0.2	4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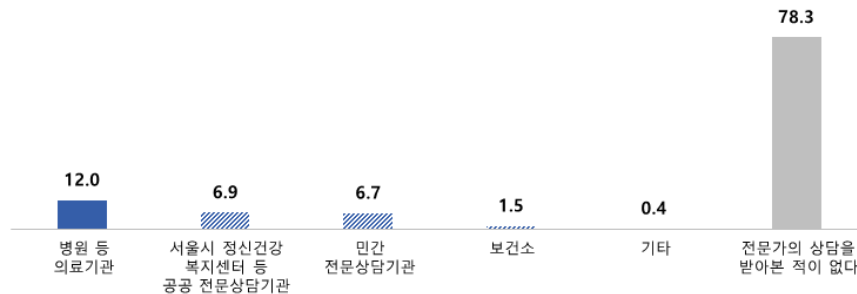
6. 정신건강 상담 방문 기관_복수응답

문. 귀하는 지금까지 우울, 불안, 자살충동 등 마음의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 (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방문해 보신 기관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 21.7%

- 서울 청년 10명 중 2명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방문한 기관에 대해 병원 등 의료기관이 12.0%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서울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 공공 전문상담기관 6.9%, 민간 전문상담기관 6.7%, 보건소 1.5%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78.3%로 나타남.
- 기성세대의 경우 전문가의 상담 받아본 경험이 16.8%로 청년세대보다 낮게 나타남.

(복수응답,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복수응답,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병원 등 의료기관	공공 전문상담기관	민간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기타	전문가의 상담 받아본 적이 없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12.0	6.9	6.7	1.5	0.4	78.3
2020년 기성세대	(500)	8.4	5.6	4.2	1.4	0.2	83.2
성	남성 (1,483)	12.5	7.8	7.0	1.9	0.1	78.6
	여성 (1,517)	11.5	6.0	6.4	1.1	0.7	78.1
연령	만18세~24세 (798)	9.6	5.1	5.8	1.5	0.6	81.3
	25세~29세 (784)	11.6	7.5	7.7	1.7	0.6	77.2
	30세~34세 (695)	11.4	7.1	6.5	1.4	0.3	79.1
	35세~39세 (723)	15.5	8.0	6.9	1.2	0.0	75.5
거주 권역	도심권 (154)	17.5	10.4	9.7	3.2	0.0	68.2
	동북권 (890)	10.7	6.2	5.8	1.6	0.3	81.0
	서북권 (362)	12.2	6.1	6.9	0.6	0.8	79.3
	서남권 (962)	11.2	6.5	5.6	1.2	0.4	79.7
	동남권 (632)	13.4	8.1	8.7	1.7	0.3	74.4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10.2	6.3	6.3	1.0	0.5	80.5
	비동거 · 비독립 (292)	12.3	7.9	7.5	1.7	0.3	75.7
	독립 (1,162)	14.2	7.5	7.0	2.1	0.3	76.2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13.0	5.7	4.9	1.5	0.2	80.1
	2인이상, 동거 (1,546)	10.2	6.3	6.3	1.0	0.5	80.5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7. 정신건강 상담 선호 기관

문. 귀하가 마음 건강의 문제로 전문가 상담을 받는다면 어느 곳을 가장 선호하십니까?

병원 등 의료기관 48.3% > 공공 전문상담기관 28.5%

- 전문가와 상담 시, 가장 선호하는 기관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이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공공 전문상담기관 28.5%, 민간 전문상담기관 1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병원 등 의료기관	공공 전문상담기관	민간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기타
2020년 청년세대		(3,000)	48.3	28.5	17.5	3.4	2.4
2020년 기성세대		(500)	49.8	31.6	14.8	1.8	2.0
성	남성	(1,483)	49.2	27.1	17.5	4.0	2.1
	여성	(1,517)	47.3	29.9	17.4	2.7	2.6
연령	만18세~24세	(798)	45.1	32.2	16.4	3.4	2.9
	25세~29세	(784)	47.4	29.0	17.9	4.0	1.8
	30세~34세	(695)	49.9	27.2	17.7	2.6	2.6
	35세~39세	(723)	51.0	25.3	18.0	3.5	2.2
거주 권역	도심권	(154)	53.2	27.9	13.0	3.2	2.6
	동북권	(890)	48.0	30.7	16.2	2.9	2.2
	서북권	(362)	46.4	29.0	17.1	5.0	2.5
	서남권	(962)	46.8	28.3	18.4	3.8	2.7
	동남권	(632)	50.8	25.8	19.1	2.4	1.9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48.6	30.3	15.7	3.3	2.2
	비동거 · 비독립	(292)	44.9	26.4	19.9	5.1	3.8
	독립	(1,162)	48.7	26.8	19.3	3.0	2.2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50.3	24.7	19.2	3.3	2.4
	2인이상, 동거	(1,546)	48.6	30.3	15.7	3.3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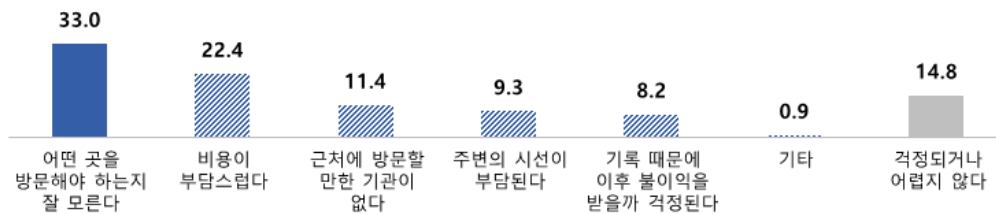
8-1. 정신건강 기관 방문 어려운 이유_1순위

문. 귀하가 마음 건강 문제로 병원,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을 방문할 때 걱정되거나 방문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곳을 방문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33.0%

- 기관 방문 시 어려운 이유 1순위로 어떤 곳을 방문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응답이 3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병원비나 약값, 상담비용 등 비용이 부담스럽다 22.4%, 근처에 방문할만한 기관이 없다 1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려수 (명)	어떤 곳을 방문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비용이 부담스럽다	근처에 방문할 만한 기관이 없다	주변의 시설이 부담된다	기록때문에 이후 불이익 받을까 걱정된다	기타	걱정되거나 어렵지 않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33.0	22.4	11.4	9.3	8.2	0.9	14.8
2020년 기성세대	(500)	33.4	18.0	8.8	10.0	8.2	0.4	21.2
성	남성	(1,483)	31.7	19.1	13.1	10.0	6.9	18.3
	여성	(1,517)	34.2	25.6	9.8	8.5	9.5	11.4
연령	만18세~24세	(798)	32.2	24.3	9.1	12.0	9.3	12.2
	25세~29세	(784)	32.8	22.8	12.0	7.1	8.5	16.2
	30세~34세	(695)	30.9	22.4	12.2	7.9	8.9	16.7
	35세~39세	(723)	36.0	19.8	12.6	9.8	5.9	14.5
거주 권역	도심권	(154)	31.8	22.7	16.2	6.5	9.7	11.0
	동북권	(890)	31.3	21.5	12.1	8.9	9.7	15.7
	서북권	(362)	34.3	24.0	11.6	10.2	6.1	12.2
	서남권	(962)	34.3	22.0	9.8	9.9	7.7	15.6
	동남권	(632)	32.8	23.3	11.7	9.0	7.8	14.9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32.7	22.8	10.3	8.6	9.1	15.4
	비동거 · 비독립	(292)	31.5	27.7	8.9	10.6	8.9	11.6
	독립	(1,162)	33.7	20.5	13.6	9.8	6.8	14.9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32.0	24.9	11.0	9.9	7.5	13.9
	2인이상, 동거	(1,546)	32.7	22.8	10.3	8.6	9.1	15.4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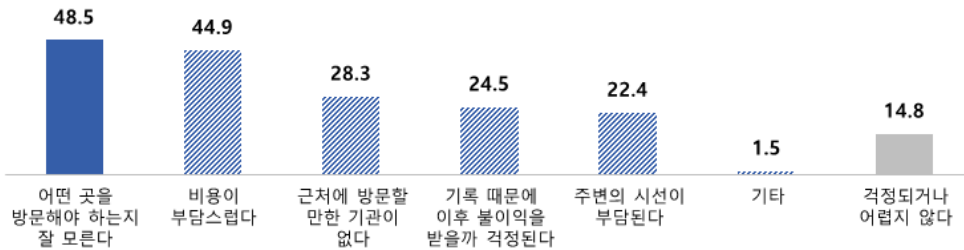
8-2. 정신건강 기관 방문 어려운 이유_1+2순위_복수응답

문. 귀하가 마음 건강 문제로 병원,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을 방문할 때 걱정되거나 방문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골라 주세요

어떤 곳을 방문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48.5%

- 기관 방문 시 어려운 이유 1+2순위로 어떤 곳을 방문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응답이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병원비나 약값, 상담비용 등 비용이 부담스럽다 44.9%, 근처에 방문할 만한 기관이 없다 2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여성의 경우 기록 때문에 이후 불이익 받을까 걱정된다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복수응답,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복수응답,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어떤 곳을 방문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비용이 부담스럽다	근처에 방문할만한 기관이 없다	기록때문에 이후 불이익 받을까 걱정된다	주변의 시선이 부담된다	기타	걱정되거나 어렵지 않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48.5	44.9	28.3	24.5	22.4	1.5	14.8
2020년 기성세대		(500)	44.4	37.6	27.4	23.0	24.4	0.8	21.2
성	남성	(1,483)	46.8	38.8	30.7	21.8	23.8	1.3	18.3
	여성	(1,517)	50.2	50.9	25.9	27.2	21.1	1.6	11.4
연령	만18세~24세	(798)	50.9	47.0	23.6	25.8	26.9	1.4	12.2
	25세~29세	(784)	45.7	47.6	27.0	25.6	20.0	1.3	16.2
	30세~34세	(695)	47.8	44.7	30.2	23.3	19.3	1.2	16.7
	35세~39세	(723)	49.8	39.8	32.9	23.0	23.1	2.1	14.5
거주 권역	도심권	(154)	51.3	42.9	31.2	27.3	23.4	1.9	11.0
	동북권	(890)	49.0	43.8	27.5	25.5	21.1	1.3	15.7
	서북권	(362)	52.2	47.8	29.6	22.7	20.4	2.8	12.2
	서남권	(962)	48.1	44.4	27.9	24.1	23.0	1.2	15.6
	동남권	(632)	45.7	46.0	28.5	24.1	24.4	1.1	14.9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48.3	45.9	26.5	25.1	21.5	1.6	15.4
	비동거 · 비독립	(292)	52.4	50.3	22.3	28.1	21.6	2.1	11.6
	독립	(1,162)	47.8	42.2	32.2	22.8	23.9	1.1	14.9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46.8	46.4	29.6	24.3	23.8	0.9	13.9
	2인이상, 동거	(1,546)	48.3	45.9	26.5	25.1	21.5	1.6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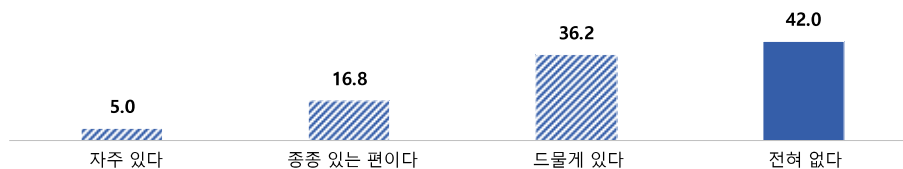
9. 코로나 블루 경험

문. 귀하는 최근 2주간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경험한 적이 있다 58.0%

- 최근 2주 간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58.0%(자주 있다 5.0% + 종종 있는 편이다 16.8% + 드물게 있다 36.2%)로 서울시 청년 10명 중 5명은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여성, 동남권에서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자주 있다	종종 있는 편이다	드물게 있다	전혀 없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5.0	16.8	36.2	42.0
2020년 기성세대		(500)	3.0	15.0	41.8	40.2
성	남성	(1,483)	3.9	13.6	31.5	51.0
	여성	(1,517)	6.2	19.9	40.8	33.1
연령	만18세~24세	(798)	5.4	18.2	32.0	44.5
	25세~29세	(784)	6.5	17.9	34.8	40.8
	30세~34세	(695)	4.6	15.7	38.3	41.4
	35세~39세	(723)	3.6	15.1	40.4	40.9
거주 권역	도심권	(154)	6.5	20.8	30.5	42.2
	동북권	(890)	6.0	16.7	35.3	42.0
	서북권	(362)	7.2	16.0	35.6	41.2
	서남권	(962)	3.3	14.8	37.6	44.3
	동남권	(632)	4.9	19.3	37.0	38.8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5.6	16.4	34.1	43.9
	비동거 · 비독립	(292)	4.8	19.9	35.6	39.7
	독립	(1,162)	4.4	16.4	39.2	40.0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4.9	19.2	34.7	41.3
	2인이상, 동거	(1,546)	5.6	16.4	34.1	43.9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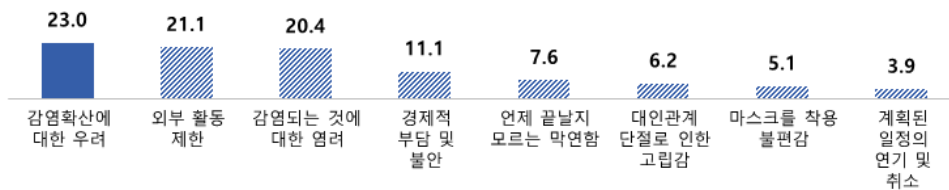
10-1. 코로나 블루 경험 원인_1순위

문. 귀하가 최근 2주간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염확산 우려 23.0% > 외부 활동/신체적 활동 제한 21.1%

- 최근 2주간 코로나 블루를 느낀 응답자를 대상으로 최근 2주 간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 블루를 느낀 이유 1순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가 2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외부 활동 및 신체적 활동 제한 21.1%, 나와 가족이 감염되는 것에 대한 염려 2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Base: 코로나 블루를 느낀 응답자, 1% 미만 응답 제외, 단위: %)



통계표

(Base: 코로나 블루를 느낀 응답자, 1% 미만 응답 제외,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	외부 활동 제한	감염되는 것에 대한 염려	경제적 부담 및 불안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연함	대인관계 단절로 인한 고립감	마스크 착용 불편감	계획된 일정의 연기 및 취소
2020년 청년세대	(1,741)	23.0	21.1	20.4	11.1	7.6	6.2	5.1	3.9
2020년 기성세대	(299)	29.1	12.0	30.4	8.4	6.4	6.0	2.3	2.7
성	남성 (726)	27.4	18.3	20.5	9.9	6.9	8.3	4.7	2.9
	여성 (1,015)	19.8	23.2	20.4	12.0	8.1	4.7	5.4	4.6
연령	만18세~24세 (443)	19.4	23.3	18.1	10.6	6.8	9.7	5.4	5.6
	25세~29세 (464)	22.6	18.8	21.8	12.5	7.8	4.5	5.4	5.6
	30세~34세 (407)	24.1	21.6	23.3	9.3	8.4	4.4	5.2	2.0
	35세~39세 (427)	26.0	21.1	18.7	11.9	7.5	6.1	4.4	2.1
거주 권역	도심권 (89)	31.5	14.6	15.7	12.4	7.9	9.0	5.6	3.4
	동북권 (516)	20.2	22.9	21.5	11.2	7.2	5.8	4.7	5.0
	서북권 (213)	26.8	19.7	13.1	11.3	12.2	8.5	5.2	2.3
	서남권 (536)	22.9	19.6	21.5	11.8	8.0	6.0	5.4	3.7
독립여부	동남권 (387)	22.7	23.3	22.7	9.8	4.9	5.2	5.2	3.6
	부모와 동거 (868)	22.8	21.7	21.4	10.4	7.6	5.8	4.7	4.3
	비동거 · 비독립 (176)	18.2	22.7	21.6	10.8	4.5	7.4	9.1	4.0
	독립 (697)	24.4	20.1	18.9	12.2	8.3	6.5	4.6	3.4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266)	24.1	19.9	11.7	16.2	11.7	7.9	3.4	4.5
	2인이상, 동거 (868)	22.8	21.7	21.4	10.4	7.6	5.8	4.7	4.3

※ 1% 미만 응답: '잘못된 정보 과잉으로 인한 피로' 0.8%, '자녀, 어르신 등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 0.4%, 기타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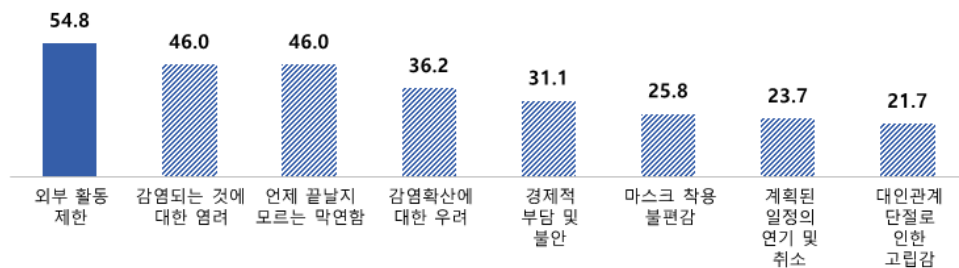
10-2. 코로나 블루 경험 원인_1+2+3순위_복수응답

문. 귀하가 최근 2주간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세 가지만 선택하여 주세요

외부 활동/신체적 활동 제한 54.8%

- 최근 2주간 코로나 블루를 느낀 응답자를 대상으로 최근 2주 간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 블루를 느낀 이유 1+2+3순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외부 활동 및 신체적 활동 제한이 5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나와 가족이 감염되는 것에 대한 염려 46.0%,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연함 4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복수응답, Base: 코로나 블루를 느낀 응답자, 10% 미만 응답 제외, 단위: %)



통계표

(복수응답, Base: 코로나 블루를 느낀 응답자, 10% 미만 응답 제외,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외부 활동 제한	감염되는 것에 대한 염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연함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	경제적 부담 및 불안	마스크 착용 불편감	계획된 일정의 연기 및 취소	대인관계 단절로 인한 고립감
2020년 청년세대	(1,741)	54.8	46.0	46.0	36.2	31.1	25.8	23.7	21.7
2020년 기성세대	(299)	44.8	53.2	50.5	47.2	30.8	20.1	17.4	20.4
성	남성 (726)	51.8	47.0	40.8	41.2	30.4	20.9	22.7	27.3
	여성 (1,015)	56.9	45.2	49.7	32.6	31.5	29.3	24.4	17.6
연령	만18세~24세 (443)	54.9	41.8	46.0	31.8	31.2	27.1	24.6	31.2
	25세~29세 (464)	53.9	46.6	47.2	34.9	31.3	26.1	27.6	19.0
	30세~34세 (407)	58.7	47.4	44.7	37.6	28.7	26.3	22.1	14.7
	35세~39세 (427)	52.0	48.2	45.7	40.7	33.0	23.7	20.1	21.3
거주 권역	도심권 (89)	44.9	43.8	50.6	40.4	23.6	22.5	28.1	25.8
	동북권 (516)	58.3	46.3	45.7	32.8	30.8	24.2	24.2	21.9
	서북권 (213)	53.1	44.1	47.4	36.6	33.8	28.6	23.9	20.2
	서남권 (536)	51.7	45.5	47.9	37.3	33.2	27.6	24.4	19.0
	동남권 (387)	57.6	47.5	41.6	38.0	28.7	24.5	20.9	24.8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868)	55.5	46.2	46.5	35.7	31.3	26.4	24.5	20.6
	비동거 · 비독립 (176)	54.5	44.3	45.5	28.4	33.5	23.9	26.7	26.7
	독립 (697)	53.9	46.1	45.3	38.7	30.1	25.5	22.0	21.7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266)	53.4	32.7	55.3	36.1	32.3	27.8	25.2	25.6
	2인이상, 동거 (868)	55.5	46.2	46.5	35.7	31.3	26.4	24.5	20.6

※ 10% 미만 응답: '잘못된 정보 등 정보 과잉으로 인한 피로' 9.4%, '자녀, 어르신 등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 4.8%, 기타 0.7%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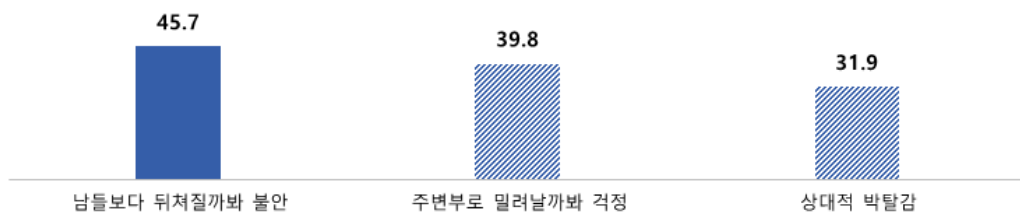
11. 사회 불안 (동의 비율)

문. 귀하는 생활하면서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들보다 뒤쳐질까봐 불안 45.7%

- 생활하면서 느끼는 사회 불안에 대한 동의 비율로 남들보다 뒤쳐질까봐 불안하다가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변부로 밀려날까봐 걱정 39.8%, 상대적 박탈감 31.9% 순으로 나타남.

(긍정%,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긍정%,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남들보다 뒤쳐질까봐 불안	주변부로 밀려날까봐 걱정	상대적 박탈감
2020년 청년세대		(3,000)	45.7	39.8	31.9
2020년 기성세대		(500)	31.2	31.0	27.0
성	남성	(1,483)	40.7	35.7	28.1
	여성	(1,517)	50.6	43.8	35.5
연령	만18세~24세	(798)	52.8	43.0	31.0
	25세~29세	(784)	47.3	41.3	34.2
	30세~34세	(695)	42.6	39.0	31.4
	35세~39세	(723)	39.1	35.5	30.8
거주 권역	도심권	(154)	47.4	41.6	28.6
	동북권	(890)	46.1	40.9	31.7
	서북권	(362)	51.1	45.0	34.3
	서남권	(962)	43.0	36.9	31.3
	동남권	(632)	45.7	39.4	32.4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48.9	40.9	32.5
	비동거 · 비독립	(292)	52.7	44.5	35.3
	독립	(1,162)	39.7	37.3	30.2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44.6	43.5	34.7
	2인이상, 동거	(1,546)	48.9	40.9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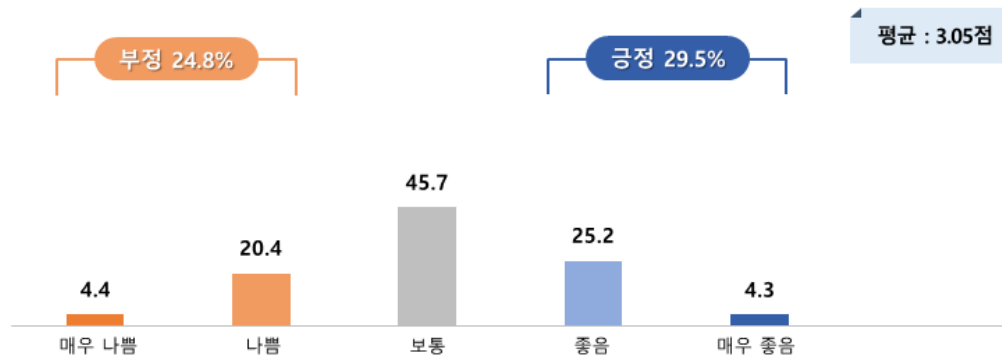
12. 마음 건강 상태

문. 귀하는 현재 본인의 마음 건강이 전반적으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는 5점 평균 3.05점

- 현재 마음 건강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 긍정의 비율은 29.5%, 부정의 비율은 24.8%로 나타났고, 5점 평균 점수는 3.05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기성세대의 경우 긍정 비율이 27.2%, 부정비율이 14.4%로 평균 3.13점으로 청년세대 보다 높게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나쁨 ①	나쁨 ②	보통 ③	좋음 ④	매우 좋음 ⑤	부정 (①+②)	보통 ③	긍정 (④+⑤)	5점 평균 (점)
2020년 청년세대		(3,000)	4.4	20.4	45.7	25.2	4.3	24.8	45.7	29.5	3.05
2020년 기성세대		(500)	1.8	12.6	58.4	25.6	1.6	14.4	58.4	27.2	3.13
성	남성	(1,483)	4.7	17.2	44.2	28.9	5.1	21.8	44.2	34.0	3.13
	여성	(1,517)	4.2	23.5	47.1	21.7	3.6	27.7	47.1	25.2	2.97
연령	만18세~24세	(798)	4.6	22.6	41.1	26.9	4.8	27.2	41.1	31.7	3.05
	25세~29세	(784)	5.1	19.9	46.2	24.4	4.5	25.0	46.2	28.8	3.03
	30세~34세	(695)	3.5	20.6	47.9	23.6	4.5	24.0	47.9	28.1	3.05
	35세~39세	(723)	4.3	18.4	47.9	25.9	3.6	22.7	47.9	29.5	3.06
거주 권역	도심권	(154)	5.2	15.6	48.7	27.3	3.2	20.8	48.7	30.5	3.08
	동북권	(890)	4.9	21.0	42.6	27.2	4.3	26.0	42.6	31.5	3.05
	서북권	(362)	5.2	24.0	47.8	18.8	4.1	29.3	47.8	22.9	2.93
	서남권	(962)	3.7	19.0	48.4	24.2	4.6	22.8	48.4	28.8	3.07
	동남권	(632)	4.0	20.7	43.7	27.2	4.4	24.7	43.7	31.6	3.07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4.5	22.5	44.5	24.3	4.2	27.0	44.5	28.5	3.01
	비동거 · 비독립	(292)	5.8	18.5	45.5	25.0	5.1	24.3	45.5	30.1	3.05
	독립	(1,162)	4.0	18.1	47.2	26.5	4.3	22.0	47.2	30.8	3.09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5.7	22.7	44.6	22.1	4.9	28.5	44.6	26.9	2.98
	2인이상, 동거	(1,546)	4.5	22.5	44.5	24.3	4.2	27.0	44.5	28.5	3.01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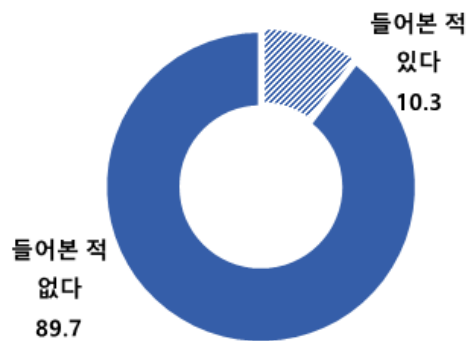
13. [서울시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인지도

문. 귀하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을 들어본 적 있다 10.3%, 들어본 적 없다 89.7%

-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10.3%,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은 89.7%로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들어본 적 있다	들어본 적 없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10.3	89.7
성	남성	(1,483)	11.3	88.7
	여성	(1,517)	9.4	90.6
연령	만18세~24세	(798)	9.0	91.0
	25세~29세	(784)	12.1	87.9
	30세~34세	(695)	9.8	90.2
	35세~39세	(723)	10.4	89.6
거주 권역	도심권	(154)	16.2	83.8
	동북권	(890)	10.2	89.8
	서북권	(362)	6.9	93.1
	서남권	(962)	9.0	91.0
	동남권	(632)	13.0	87.0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10.3	89.7
	비동거 · 비독립	(292)	8.6	91.4
	독립	(1,162)	10.8	89.2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8.4	91.6
	2인이상, 동거	(1,546)	10.3	8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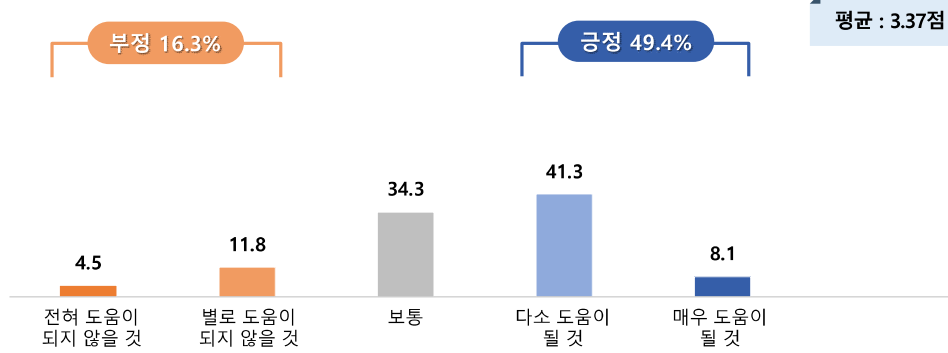
14. [서울시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도움 정도

문.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은 청년의 마음건강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긍정 지수는 5점 평균 3.37점

- 서울시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긍정 비율은 49.4%, 부정 비율은 16.3%로 나타났고, 5점 평균 3.37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기성세대의 경우 긍정 비율이 56.6%, 부정비율이 10.8%로 나타났고, 평균 3.49점으로 청년세대보다 높게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②	보통이다 ③	다소 도움이 될 것 ④	매우 도움이 될 것 ⑤	부정 (①+②)	보통 ③	긍정 (④+⑤)	5점 평균 (점)
2020년 청년세대	(3,000)	4.5	11.8	34.3	41.3	8.1	16.3	34.3	49.4	3.37
2020년 기성세대	(500)	2.2	8.6	32.6	50.8	5.8	10.8	32.6	56.6	3.49
성										
남성	(1,483)	6.7	13.4	34.5	37.6	7.9	20.1	34.5	45.4	3.27
여성	(1,517)	2.3	10.2	34.1	45.0	8.4	12.5	34.1	53.3	3.47
연령										
만18세~24세	(798)	3.3	9.0	32.3	45.0	10.4	12.3	32.3	55.4	3.50
25세~29세	(784)	4.5	11.7	33.8	41.6	8.4	16.2	33.8	50.0	3.38
30세~34세	(695)	4.6	14.0	35.3	38.7	7.5	18.6	35.3	46.2	3.31
35세~39세	(723)	5.7	12.9	36.1	39.4	5.9	18.5	36.1	45.4	3.27
거주 권역										
도심권	(154)	3.9	13.6	37.7	33.1	11.7	17.5	37.7	44.8	3.35
동북권	(890)	3.4	9.8	34.0	44.4	8.4	13.1	34.0	52.8	3.45
서북권	(362)	5.8	10.2	32.6	41.7	9.7	16.0	32.6	51.4	3.39
서남권	(962)	5.0	13.4	34.0	40.3	7.3	18.4	34.0	47.6	3.31
동남권	(632)	4.6	12.7	35.3	40.2	7.3	17.2	35.3	47.5	3.33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2.8	12.2	35.6	41.0	8.4	14.9	35.6	49.4	3.40
비동거 · 비독립	(292)	5.5	8.2	33.9	43.5	8.9	13.7	33.9	52.4	3.42
독립	(1,162)	6.5	12.2	32.6	41.1	7.6	18.7	32.6	48.7	3.31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6.6	12.8	31.3	41.5	7.7	19.4	31.3	49.2	3.31
2인이상, 동거	(1,546)	2.8	12.2	35.6	41.0	8.4	14.9	35.6	49.4	3.40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

• 취업/학업, 가족,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만한 곳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공부하는 게 외롭거든요.(20대 초중반 남성)
-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 아니지만 최근에는 취업때문에 조금 받는 것 같아요.(20대 초중반 남성)
- 요즘은 여러 가지 가치관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아요. 취준을 하든, 어떤 공부를 하든, 내가 이걸로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내가 이걸로 뭘할 수 있을지.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결혼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되게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일단 불면증이 오더라고요. 아니면 새치가 생기거나.(20대 초중반 남성)
- 저도 평소 스트레스 많이 받는 편이어서 먹는 것으로 주로 해소하다가 몸이 탈이 나서 수술을 했어요. 악순환의 반복이었어요. 먹는 것으로 해소하니까 체중이 늘고 주변에서 잔소리를 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더 먹고. 스트레스 정도가 심해서 새벽 4시까지 잠을 못자곤 했어요.(20대 초중반 남성)
- 저는 취업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제일 힘든 것 같아요.(20대 초중반 여성)
- 저는 인간관계랑 경쟁상황에서 스트레스 받아요.(20대 초중반 여성)
- 저는 학업이랑 진로 스트레스가 크고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20대 초중반 여성)
- 상사와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불면은 온적 있어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가족들과 사이 안 좋을 때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평소에는 안 받고 직장 다닐 때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번에 이직 준비하면서 많이 받는 것 같긴 해요. 제가 퇴직할 때 제 의사와 다른 게 있어서 그때 심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게 깊어지면 우울감이 올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전 스트레스 달고 사는 편이에요. 길이 조금이라도 막힌다든지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서 낯가림이 지 그런 거 하나하나 더 스트레스받아요. 지금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건 이직한지 얼마 안 되서 정착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 성과로 진행하는데 그쪽에 제일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전 항상 달고 사는 게 소화불량하고 거식증이에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업무 자체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업무를 둘러싼, 혹은 그 외 사생활을 둘러싼,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제가 민감한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사수랑 트러블이 있었는데 같이 싸우질 못하니까, 혼자 계속 참게 되다보니 그 분이 제 눈에 보이기만 해도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그 시기는 밥을 안 먹었던. 거식증까지는 아니지만 끼니를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마음건강 어려움 대처 방법 >

- **운동, 산책, 취미생활, 동료/친구/가족과의 모임**을 하면서 **스트레스 상황을 잊으려고 노력함**.
 - 공부하는 당시에는 해소를 못하고 혼자 속으로 삭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운동으로 해소하고 있어요.(20대 초중반 남성)
 - 산책하면서 노래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20대 초중반 남성)
 -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쇼핑을 하고요, 여자친구를 만날 때도 있고 동아리 모임에 갈 때도 있고.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든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저의 전체적인 고민에 있어서 해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20대 초중반 남성)
 - 비만대사센터라는 곳에 방문해서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 푸는 것에 대한 상담받고, 치료도 받고, 운동으로 스트레스 푸는 방법으로 바꿨죠. 그래서 지금 10kg 정도 줄었어요. 감량하면서 체중 스트레스를 다른 방향으로 푸는 것 같아요.(20대 초중반 남성)
 -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정리하는 스타일이라, 막 다른 거 하면서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힘든 활동 하면서 생각이 안 나게끔. 순간적으로는 그거 할 때는 도움이 돼요.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용 없는 것 같아요.(20대 초중반 여성)
 - 산책하면서 힐링하거나 공포영화를 봐요.(20대 초중반 여성)
 - 해소라기보다 그냥 일을 더 해요. 바쁘게 살면 아예 잊어버리게 하는 것 같아요.(20대 초중반 여성)
 -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스트레스 안 받도록 노력을 해요. 헬스장이나 운동도 있고, 아니면 취업공부 하다가 부동산이나 제가 좋아하는 분야로 돌려서 사람들도 만나고.(20대 초중반 여성)
 - 저는 저만의 방법을 못 찾아서. 원래는 잘될 거라고 회피했는데, 요즘은 그냥 아, 우울하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여요. 그대로 지나가기를 기다려요.(20대 초중반 여성)
 - 가끔씩 친구들 만나서 사는 얘기하고. 기분 좋게 만나서도 항상 끝은 힘들다 하고 끝나요.(20대 초중반 여성)
 - 취미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해요. 효과는 낮지만 안 하는 것 보다 나으니깐요. 요즘 받는 스트레스로는 그 정도까지는 안가는 데 전에 있던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는 불면과 우울감이 온 것 같아요. 그때는 지인들과 이야기 하면서 풀었어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스트레스 받으면 그 분야를 제 머리에서 지워요. 다른걸 자꾸 생각해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게임 하거나 만화 보거나, 여자친구나 정말 친한 친구들과 시간 보내면서 그 동안 있던 일을 잊어버리려고 해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업무 끝나고 동료들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풀린 것 같아요.(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얘기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방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마음 잘 맞는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고 친구들이 그거에 대해서 욕해주면 어느 정도 풀리더라고요. 괜히 거기서 제 감정을 더 분출하면 저만 안 좋은 거니까. 그냥 친구들과하고 얘기하면서 풀어요.(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저는 다른 사람에게는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고 집에서 일기를 써요.(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저는 다른 관심 거리가 생기게 만들었어요. 취미생활을 하면서 집중하면 그거 하는 시간 동안만큼은 편해지더라고요. 퇴근 이후의 삶을 알차게, 즐겁게(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 마음건강 상담 기관 방문이 어려운 이유, 도움 정도 >

- 사람들의 인식, 보건 기록, 심리적 거부감, 번거로움, 비용의 문제로 상담 기관 방문이 어려움.
- 전화, 화상 상담이나 찾아오는 방문서비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저는 제가 괜찮다고 생각해도 안 괜찮을 수 있으니까 정신건강 관련해서 검사 한번 받아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찾아보니 비용이 들어서 못했어요.(20대 초중반 남성)
 - 저는 비용도 비용인데, 사람들 인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런 거 하고 나면 보건기록에 남아서 취직할 때 힘들다 라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할 때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20대 초중반 남성)
 - 저도 사람들의 인식도 인식이고 제 인식도 되게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정신과를 다닐 정도인가? 이런 심리적인 허들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20대 초중반 남성)
 - 저도 처음에는 되게 망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 찌 걸 빼려고 노력해야지, 왜 병원에 가려고 하나, 이런 시선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제가 살찐 이유도 너무 스트레스가 크고 이걸 해소를 하는 게 먹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걸.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약물 도움도 받으니까 편해지고, 다른 것으로 푸는 방법을 알려주니까. 도움을 받고, 지금 오히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초반에는 망설였던 것 같아요. 사람이 눈이라는 게 어찌 보면 무서워요.(20대 초중반 남성)
 - 저는 어렸을 때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 거 하는 게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 찾아봤어요. 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상하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가볍고 라이트해진 느낌이라서 한번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궁금하기도 하구요.(20대 초중반 남성)
 - 제 얘기를 하는 게 부끄럽고. 전문가를 통해서 얘기하려면 저는 전화가 아니라 대면을 생각해서 찾아 가야 하는데 그게 번거롭기도 하고(20대 초중반 여성)
 -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들어서. 공공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혼자 해소하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20대 초중반 여성)
 - 저도 비슷한데, 전문가한테는 비용도 있고 시간도 내기 어려워. 저도 몰랐는데 가볍게 전화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도 해볼 것 같아요.(20대 초중반 여성)
 - 전화도 부담스러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메일이나 화상톡으로 상담할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에 대해서는 방문하는 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찾아오는 상담서비스가 좋을 것 같아요.(20대 초중반 여성)
 - 회사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적 있었어요. 스트레스를 어떤 점에서 받고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지 심리분석 있잖아요. 그런걸 해본 경험이 있어요. 도움이 되었어요. 개인적으로도 해볼 생각이 있어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상담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내 문제를 남이 들어서 해결이 안될 것 같아요. 입만 아플 것 같고. 완전 어렸을 때 제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고 엄마가 심리상담사에게 데려간 적 있는데 얘기해보니까 전혀 도움이 안되더라고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전화로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것 같아요. 저의 치부를 드러내는 느낌인데 얼굴을

드러내기는 부담스러워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필요 없는 거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그 정도 도움까지 받아야 하는 스트레스인가? 라는 생각이 있어서 방문할 필요성을 못느꼈어요.(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진입장벽을 낮춰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마음 먹고 병원에 가려면, 그런 시선들이 있잖아요. 정신병원 다녀왔다 하면, 저 사람 우울증이 너무 심한가 보다 하고.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 공감해주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나 가족들의 경우는, 그분들도 나름의 스트레스가 있는데 제가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그 자체도 스트레스를 주는 일 같아서, 전문가에게 받아서 공감이든 해결방법이든 구하고 싶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걸 간과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걸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그런 걸 조금 다양한 사람들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감기 걸리면 병원 가듯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광고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게 필요해 라고 해서 찾아보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광고를 많이 해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디서나 접할 수 있게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저도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문성을 높이고 익명성도 보장되면 좋을 것 같아요.(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코로나 블루 경험 여부 >

- **외롭고 단절된 느낌, 학업에 지장, 주변인의 우울감에 동화, 감염 시 사람들의 시선 걱정 등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생활에 힘들어하고 있음.**
 - 코로나 이전 시대를 생각해보면 그 때보다 사람과 사람들끼리 되게 예민해진 느낌이라서, 저도 별거 아닌 거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고.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가 딱딱해지거나 서로 간에 관계가 예민 코로나 때문에 즐길거리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운동시설도 다 닫고, 술집도 닫고, 여행도 못 가고, 그렇다 보니까, 집에만 박혀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우울감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코로나 영향이 큰 것 같고.(20대 초중반 남성)
 - 저도 비슷한데, 운동으로 스트레스 푸는데 운동시설이 다 폐쇄되고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9시면 다 문 닫아야 한다니까 나가야 하고, 남자들끼리 모텔 가서 술 마실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20대 초중반 남성)
 - 친구들 만나지 못하고,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있는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그런 걸 전혀 못하니까 단절되고 외롭고, 소통이 갇힌 느낌. 그래서 힘들었어요.(20대 초중반 여성)
 - 저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데 이런 모임을 신청해도 다 취소가 되니까. 강제로 못 만나게 되니까,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온라인은 텍스트로 주고받는 것 자체도 한계가 있어서, 확실히 만나는 게 좋아요.(20대 초중반 여성)

- 저는 TV 틀면 자꾸 무서운 내용만 나오고, 그 때도 마스크 때문에 사러 가야 하는데, 가족들이 이었으면 의지가 됐을 텐데 하는 것도 있었고. 혼자 살면서 걱정되는 게 아프거나, 무슨 일 당하면 고독사할까 봐 무서웠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20대 초중반 여성)
- 학업이 너무 힘든데 학교를 못 가니까 사이버 강의를 듣는데, 제가 아는지, 모르는지도 잘 모르겠고, 질문하기도 어렵고. 학교생활도 잘 못하니까 그것도 힘들었어요.(20대 초중반 여성)
- 저는 건강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나갈 때마다 어디 만질 때마다 손소독제 해야 하니까 손을 여러 번 씻어야 하니까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20대 초중반 여성)
- 제 주변인이 그러니까 저까지 덩달아 처지는 그런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냥 본인들 생계와 연결된 부분이 있고 하지 말라는게 많잖아요. 모임 금지나 얼마 전에는 2단계까지 갔을 때도 문 많이 닫아서 돌아다니지도 못하니까 힘들었어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여행을 못 가서 답답했어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저는 못 느꼈는데 주변에서 힘들다고 얘기하고 하지 말아라 제한하는 게 많았을 때 그때 그런 감정 호소하시는 분이 주변에 많았어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사람들 만나기가 조심스러워지니까 안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혼자 있게 되다 보니까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친구들 잘 못 만나는 것도 있고, 마스크를 쓰니까 갑갑한 것도 있고,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걱정되는 게 제가 편두통이 있는데 편두통이 생길 때마다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아닌지,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져요.(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지금은 이동하는 것에 제약이 많아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게 없으니까 그게 되게 우울했던 것 같아요.(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저는 제가 걸릴까 봐 걱정되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까 봐, 지금은 덜해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언론에서 어디 갔다 온 누구, 하면서 그 사람 자체를 엄청 공격하는 게 너무 두드러졌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어디를 갔다가 진짜 몸이 안 좋아서 걸릴 수도 있는데, 그게 마치 제가 큰 잘못을 해서 걸린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걱정되어서, 자기 검열이 너무 심해진 것 같고. 그런 걱정이 많이 되어서 밖에도 안 나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청년 마음건강 정책 >

-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 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용해보고 싶음.
- 결국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꺼려져 시작부터 어려움.
 - 해보고 싶어요(20대 초중반 남성)
 - 서울청년포털이라는 일자리 포털에 들어갔는데 있더라고요. 그걸 마지막 날에 알아서 급하게 신청했어요. 학업, 진로가 제일 스트레스라서 그런 것으로 상담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 개인얘기 부모님 얘기, 친구 얘기 같이 하면서, 제 얘기를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상담사 분이 정말 제 마음에 공감해주고요, 진정한 위로도 해주시고 해서 정말 좋았어요.(20대 초중반 여성)

- 저는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마음건강이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뭘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건지. 그런데 만약 심리치료를 한다고 해도 온라인으로 하는 건 그렇게 와 닿지 않고, 결국은 만나야 하는 건데.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꺼려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정신과는 가면 돈도 들고, 갔는데 제가 그렇게 극심한 우울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까 봐 잘 못 가는데. 저는 병원도 그래서 잘 안 가거든요. 갔는데 별로 안 심하다고 할 것 같아서. 특히나 정신과는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 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상담을 하든 정신과를 가든, 저는 그 사람들이 해결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공감해주는 거에서 위로를 얻는 것 같아요. 공감해준다는 거 자체가 사람들에게 마음의 치유가 되나 보다 싶어서. 그런 지원책이 있으면 저는 활용해볼 것 같아요.(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Part. 8

사회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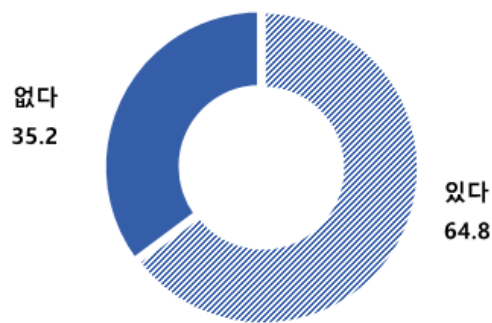
1. 가족 외 도움 요청 대상 유무

문. 귀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족(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친척 등) 이외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습니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다 64.8%, 없다 35.2%

-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족 이외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은 64.8%, 없다는 응답은 35.2%로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64.8	35.2
2020년 기성세대		(500)	64.4	35.6
성	남성	(1,483)	62.9	37.1
	여성	(1,517)	66.7	33.3
연령	만18세~24세	(798)	73.2	26.8
	25세~29세	(784)	64.8	35.2
	30세~34세	(695)	60.7	39.3
	35세~39세	(723)	59.6	40.4
거주 권역	도심권	(154)	62.3	37.7
	동북권	(890)	66.1	33.9
	서북권	(362)	59.4	40.6
	서남권	(962)	63.4	36.6
	동남권	(632)	69.0	31.0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66.4	33.6
	비동거 · 비독립	(292)	65.4	34.6
	독립	(1,162)	62.6	37.4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55.6	44.4
	2인이상, 동거	(1,546)	66.4	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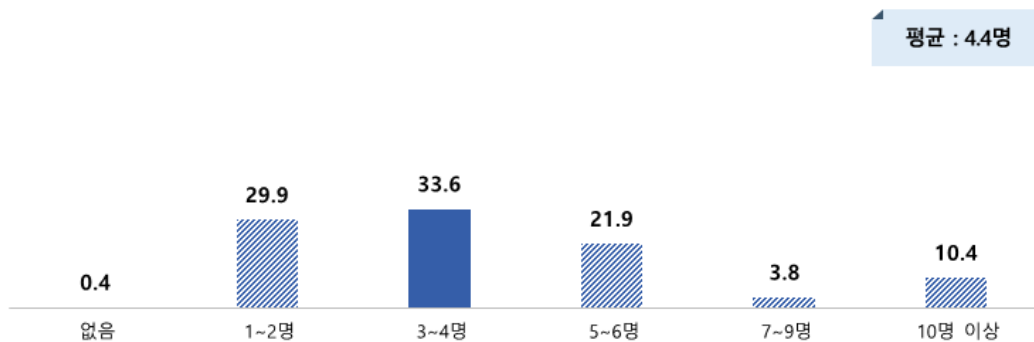
2. 가족 외 도움 요청 대상 수

문. 그렇다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은 평균 4.4명

-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의 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3~4명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2명 29.9%, 5~6명 21.9%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체 평균 수는 4.4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Base: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한 응답자, 단위: %)



통계표

(Base: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한 응답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없음	1~2명	3~4명	5~6명	7~9명	10명 이상	평균 (명)
2020년 청년세대		(1,945)	0.4	29.9	33.6	21.9	3.8	10.4	4.4
성	남성	(933)	0.2	24.9	33.3	24.0	4.2	13.4	5.0
	여성	(1,012)	0.6	34.6	33.9	19.9	3.5	7.6	3.9
연령	만18세~24세	(584)	0.2	21.7	32.4	23.3	6.8	15.6	5.5
	25세~29세	(508)	0.6	29.1	33.1	25.2	2.8	9.3	4.2
	30세~34세	(422)	0.7	32.2	36.5	20.9	2.4	7.3	3.8
	35세~39세	(431)	0.2	39.7	33.2	16.9	2.3	7.7	3.8
거주 권역	도심권	(96)	0.0	36.5	35.4	14.6	2.1	11.5	4.2
	동북권	(588)	0.2	29.1	33.7	23.8	3.2	10.0	4.3
	서북권	(215)	0.0	32.6	28.8	23.3	4.2	11.2	4.6
	서남권	(610)	0.3	27.4	36.2	22.3	4.1	9.7	4.4
	동남권	(436)	1.1	31.9	31.9	19.5	4.4	11.2	4.5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027)	0.5	27.7	33.9	22.4	4.3	11.3	4.5
	비동거 · 비독립	(191)	0.5	27.2	29.8	24.6	7.9	9.9	4.7
	독립	(727)	0.3	33.8	34.3	20.4	2.1	9.2	4.2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252)	0.0	32.9	36.1	19.0	1.6	10.3	4.4
	2인이상, 동거	(1,027)	0.5	27.7	33.9	22.4	4.3	11.3	4.5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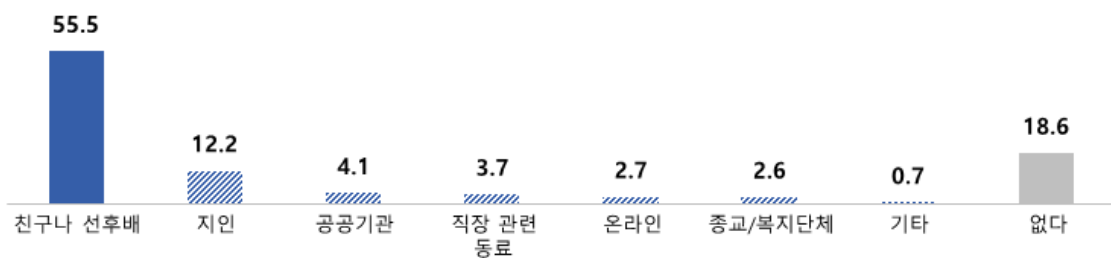
3. 가족 외 주 도움 요청 대상

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족 이외에 주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 같습니까?

친구나 선후배 55.5% > 지인 12.2%

- 가족 이외에 도움을 요청할 대상으로 친구나 선후배가 5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인 12.2%, 공공기관 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친구나 선후배	지인	공공기관	직장 관련 동료	온라인	종교/복지 단체	기타	없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55.5	12.2	4.1	3.7	2.7	2.6	0.7	18.6
2020년 기성세대		(500)	43.4	22.0	4.8	6.8	2.0	3.0	0.0	18.8
성	남성	(1,483)	53.0	13.9	4.5	4.1	1.4	2.7	0.5	20.0
	여성	(1,517)	57.9	10.5	3.7	3.2	4.0	2.6	0.9	17.3
연령	만18세~24세	(798)	65.4	8.6	3.4	1.1	3.0	2.1	1.1	15.2
	25세~29세	(784)	57.3	11.7	2.8	3.3	2.6	3.3	0.9	18.1
	30세~34세	(695)	52.9	12.7	5.0	4.2	2.6	2.4	0.1	20.0
	35세~39세	(723)	45.0	16.2	5.3	6.4	2.6	2.6	0.4	21.6
거주 권역	도심권	(154)	53.2	12.3	5.8	3.9	2.6	3.2	1.3	17.5
	동북권	(890)	56.7	12.9	2.8	3.5	2.8	3.0	0.6	17.6
	서북권	(362)	53.3	11.0	3.9	1.9	2.2	3.6	0.3	23.8
	서남권	(962)	55.2	12.4	4.1	3.7	3.1	2.2	0.6	18.7
	동남권	(632)	55.9	11.6	5.5	4.7	2.2	2.1	0.9	17.1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59.2	10.2	3.9	2.4	3.2	2.7	0.6	17.9
	비동거 · 비독립	(292)	51.0	12.3	4.5	2.7	3.1	3.1	1.7	21.6
	독립	(1,162)	51.6	14.8	4.2	5.6	2.0	2.4	0.5	18.8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54.3	12.8	3.5	4.4	0.9	1.8	1.1	21.2
	2인이상, 동거	(1,546)	59.2	10.2	3.9	2.4	3.2	2.7	0.6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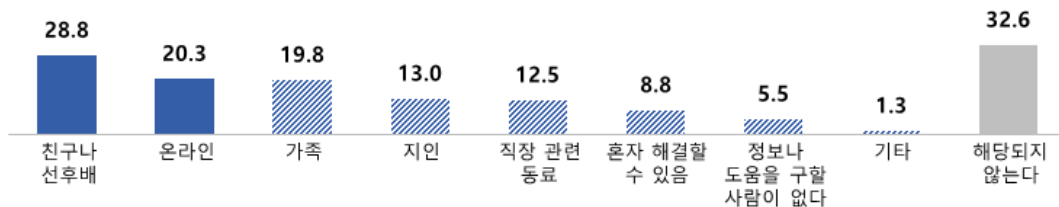
4. 일자리 관련 도움 받은 대상_복수응답

문.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다음 중 일자리, 취업, 창업 등과 관련한 정보를 얻거나 도움을 구한 경우를 모두 골라 주세요.

친구나 선후배 28.8% > 온라인 20.3%

- 최근 1년 간 일자리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대상으로 친구나 선후배가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남.

(복수응답,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복수응답,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친구나 선후배	온라인	가족	지인	직장 관련 동료	혼자 해결할 수 있음	정보도움 구할사람 없다	기타	해당되지 않는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28.8	20.3	19.8	13.0	12.5	8.8	5.5	1.3	32.6
성	남성	(1,483)	33.2	18.8	21.8	15.0	14.6	6.9	4.4	0.9	33.8
	여성	(1,517)	24.5	21.7	17.9	11.1	10.4	10.7	6.7	1.6	31.4
연령	만18세~24세	(798)	38.8	23.6	27.2	12.3	5.6	9.0	5.4	2.1	26.1
	25세~29세	(784)	32.4	23.6	18.4	15.8	13.8	8.9	7.4	1.4	25.6
	30세~34세	(695)	23.2	18.7	14.5	12.7	14.5	8.5	4.5	0.4	39.6
	35세~39세	(723)	19.4	14.5	18.4	11.1	16.6	8.9	4.7	1.0	40.7
거주 권역	도심권	(154)	30.5	18.2	24.0	18.8	15.6	10.4	3.2	0.0	27.3
	동북권	(890)	30.8	21.2	20.2	12.8	10.9	8.7	5.6	1.5	31.2
	서북권	(362)	27.9	21.5	18.8	12.7	11.6	8.6	6.4	0.8	32.9
	서남권	(962)	27.5	18.0	17.3	12.2	12.7	9.7	6.0	1.7	34.2
	동남권	(632)	28.2	22.2	22.8	13.3	14.1	7.6	4.7	0.9	33.2
독립여부	동거	(1,546)	30.4	22.1	21.6	12.9	9.6	9.0	6.9	1.3	30.1
	비동거 · 비독립	(292)	37.7	29.1	26.7	16.4	13.7	5.5	4.5	3.1	24.3
	독립	(1,162)	24.5	15.7	15.7	12.2	15.9	9.5	4.0	0.8	38.0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28.7	19.0	10.2	12.8	16.6	9.5	4.6	0.4	36.0
	2인이상, 동거	(1,546)	30.4	22.1	21.6	12.9	9.6	9.0	6.9	1.3	30.1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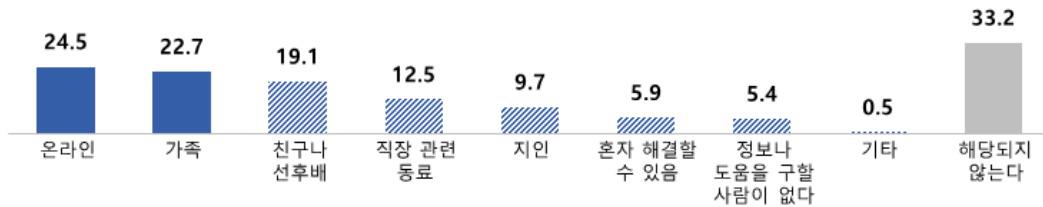
5. 부동산, 주식 관련 도움 받은 관계_복수응답

문.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다음 중 부동산, 주식 등과 관련한 정보를 얻거나 도움을 구한 경우를 모두 골라 주세요.

온라인 24.5% > 가족 22.7% > 친구나 선후배 19.1%

- 최근 1년 간 부동산, 주식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관계로 온라인(현실에서는 모르지만 소셜 미디어 등으로 알고 지내는 지인, 익명 게시판 관련 커뮤니티 등)이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남.

(복수응답,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복수응답,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온라인	가족	친구나 선후배	직장 관련 동료	지인	혼자 해결할 수 있음	정보도움 구할사람 없다	기타	해당되지 않는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24.5	22.7	19.1	12.5	9.7	5.9	5.4	0.5	33.2
성	남성	(1,483)	23.0	21.0	22.5	15.8	10.2	6.8	4.9	0.3	32.3
	여성	(1,517)	25.9	24.3	15.8	9.3	9.3	4.9	6.0	0.8	34.1
연령	만18세~24세	(798)	18.8	22.1	13.7	5.3	5.3	4.9	4.3	0.8	44.2
	25세~29세	(784)	26.1	20.9	20.7	12.0	11.2	4.7	6.9	0.6	31.1
	30세~34세	(695)	26.6	22.7	22.6	18.0	11.9	6.3	5.3	0.3	29.8
	35세~39세	(723)	26.8	25.3	20.1	15.8	10.9	7.7	5.3	0.4	26.7
거주 권역	도심권	(154)	24.7	29.2	23.4	11.7	15.6	3.2	3.9	0.6	27.9
	동북권	(890)	25.1	20.9	19.6	12.5	9.7	6.0	6.3	0.4	32.7
	서북권	(362)	22.7	21.8	14.6	9.9	6.6	4.7	6.6	0.6	39.2
	서남권	(962)	24.4	21.4	19.0	12.2	9.3	6.8	5.2	0.5	33.1
	동남권	(632)	24.7	26.1	20.1	14.7	10.9	5.7	4.3	0.6	32.1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22.1	21.8	17.1	8.4	7.6	4.5	5.7	0.6	39.8
	비동거 · 비독립	(292)	24.7	21.9	15.4	9.2	9.9	7.2	4.5	0.3	35.6
	독립	(1,162)	27.6	24.1	22.7	18.8	12.6	7.3	5.3	0.5	23.8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27.6	13.7	22.5	19.4	11.3	8.4	6.6	0.7	28.9
	2인이상, 동거	(1,546)	22.1	21.8	17.1	8.4	7.6	4.5	5.7	0.6	39.8

6. 동네 친구 유무

문. 귀하는 동네에 알고 지내는 친구가 있습니까?

알고 지내는 친구가 있다 57.3%, 없다 42.7%

- 동네에 알고 지내는 친구가 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은 57.3%, 없다는 42.7%로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57.3	42.7
성	남성	(1,483)	59.0	41.0
	여성	(1,517)	55.6	44.4
연령	만18세~24세	(798)	73.6	26.4
	25세~29세	(784)	57.4	42.6
	30세~34세	(695)	50.5	49.5
	35세~39세	(723)	45.8	54.2
거주 권역	도심권	(154)	56.5	43.5
	동북권	(890)	60.2	39.8
	서북권	(362)	50.3	49.7
	서남권	(962)	55.6	44.4
	동남권	(632)	60.0	40.0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65.2	34.8
	비동거 · 비독립	(292)	61.3	38.7
	독립	(1,162)	45.8	54.2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42.8	57.2
	2인이상, 동거	(1,546)	65.2	34.8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7. 동네 친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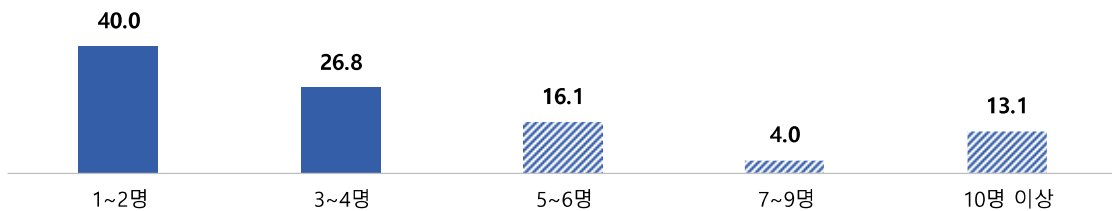
문. 그렇다면 몇 명 정도 됩니까?

1~2명 40.0% > 3~4명 26.8% > 5~6명 16.1%

- 동네에 알고 지내는 친구가 있다고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동네에 알고 지내는 친구의 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1~2명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4명 26.8%, 5~6명 1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Base: 동네에 알고 지내는 친구가 있다고한 응답자, 단위: %)

평균 : 4.8명



통계표

(Base: 동네에 알고 지내는 친구가 있다고한 응답자, 단위: %)

구분		사선수 (명)	1~2명	3~4명	5~6명	7~9명	10명 이상	평균 (명)
2020년 청년세대		(1,719)	40.0	26.8	16.1	4.0	13.1	4.8
성	남성	(875)	31.5	27.4	18.1	5.4	17.6	5.8
	여성	(844)	48.7	26.2	14.0	2.6	8.5	3.8
연령	만18세~24세	(587)	27.4	28.6	18.7	5.3	19.9	6.4
	25세~29세	(450)	42.4	26.0	14.9	4.7	12.0	4.4
	30세~34세	(351)	48.7	26.5	13.7	2.6	8.5	3.8
	35세~39세	(331)	49.5	25.1	15.4	2.4	7.6	3.6
거주 권역	도심권	(87)	43.7	29.9	19.5	2.3	4.6	4.1
	동북권	(536)	37.5	28.0	17.5	3.7	13.2	4.7
	서북권	(182)	44.0	26.9	12.1	4.9	12.1	4.5
	서남권	(535)	39.1	29.0	12.0	5.2	14.8	4.9
	동남권	(379)	42.0	21.4	20.8	2.6	13.2	4.9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008)	35.9	26.8	16.9	5.4	15.1	5.2
	비동거 · 비독립	(179)	39.7	31.3	14.5	1.1	13.4	5.0
	독립	(532)	47.7	25.4	15.0	2.4	9.4	3.9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194)	54.6	23.2	12.9	2.6	6.7	3.5
	2인이상, 동거	(1,008)	35.9	26.8	16.9	5.4	15.1	5.2

8. 가입 모임 종류_복수응답

문. 귀하는 다음 중 가입하고 있는 모임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주세요

가입한 모임이 있다 39.3%

- 서울 청년 10명 중 약 4명은 가입한 현재 가입하고 있는 모임이 있고, 모임의 종류로는 동네 모임이 16.7%, 동네나 직장 관련 없는 모임 13.7%, 직장 내 모임 11.0%, 온라인으로만 주로 진행되는 모임 10.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가입하고 있는 모임이 없다는 응답은 60.7%로 나타남.

(복수응답,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복수응답,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동네 모임	동네나 직장 관련 없는 모임	직장 내 모임	온라인으로만 주로 진행되는 모임	기타	가입하고 있는 모임이 없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16.7	13.7	11.0	10.4	0.6	60.7
성							
남성	(1,483)	20.4	14.6	14.2	10.2	0.4	57.3
여성	(1,517)	13.0	12.9	7.8	10.6	0.7	64.0
연령							
만18세~24세	(798)	19.7	11.2	6.5	8.4	0.9	64.3
25세~29세	(784)	14.9	15.3	12.1	9.7	0.5	60.3
30세~34세	(695)	15.4	14.4	11.4	11.8	0.7	60.6
35세~39세	(723)	16.5	14.2	14.4	12.0	0.1	57.3
거주 권역							
도심권	(154)	18.8	16.9	13.0	15.6	0.6	50.6
동북권	(890)	18.4	14.3	12.4	10.3	0.4	59.6
서북권	(362)	11.0	11.9	7.5	7.7	0.6	68.0
서남권	(962)	15.1	11.7	9.9	9.7	0.8	63.0
동남권	(632)	19.3	16.3	12.3	11.9	0.3	57.1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17.0	13.6	8.9	10.3	0.6	62.6
비동거 · 비독립	(292)	15.8	12.3	9.6	9.6	0.7	62.3
독립	(1,162)	16.4	14.3	14.1	10.8	0.5	57.7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15.0	12.4	10.8	9.7	0.4	63.4
2인이상, 동거	(1,546)	17.0	13.6	8.9	10.3	0.6	62.6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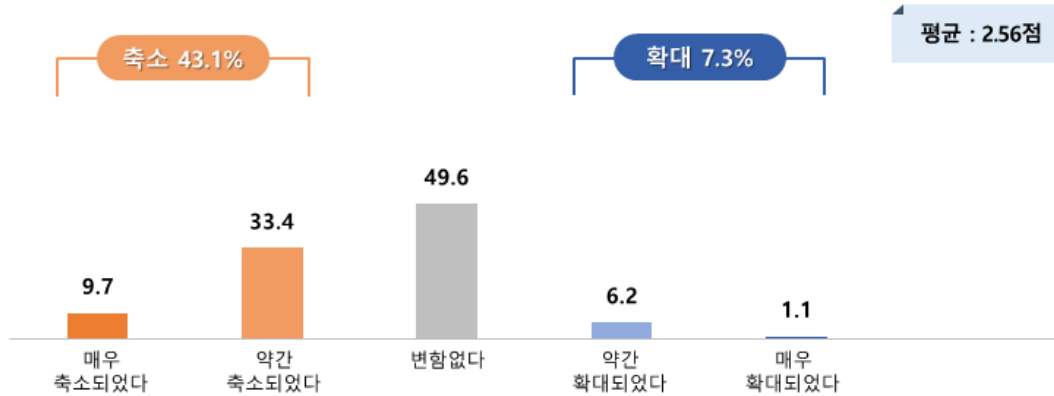
9.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관계 변화

문. 귀하는 코로나19로 본인의 사회적 관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관계 변화에 대한 환산 점수는 5점 평균 2.56점

-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관계 변화에 대하여 확대되었다는 응답은 7.3%, 축소되었다는 응답은 43.1%로 나타났고, 5점 평균 점수는 2.56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축소됨 ①	약간 축소됨 ②	변함없다 ③	약간 확대됨 ④	매우 확대됨 ⑤	축소 (①+②)	변함없음 ③	확대 (④+⑤)	5점 평균 (점)
2020년 청년세대		(3,000)	9.7	33.4	49.6	6.2	1.1	43.1	49.6	7.3	2.56
2020년 기성세대		(500)	12.6	38.2	43.2	6.0	0.0	50.8	43.2	6.0	2.43
성	남성	(1,483)	9.2	31.3	51.4	7.0	1.1	40.5	51.4	8.1	2.59
	여성	(1,517)	10.1	35.5	47.9	5.4	1.1	45.6	47.9	6.5	2.52
연령	만18세~24세	(798)	8.0	32.8	52.6	5.4	1.1	40.9	52.6	6.5	2.59
	25세~29세	(784)	8.9	31.8	50.3	7.8	1.3	40.7	50.3	9.1	2.61
	30세~34세	(695)	8.2	36.3	49.2	5.6	0.7	44.5	49.2	6.3	2.54
	35세~39세	(723)	13.7	33.2	46.1	5.9	1.1	46.9	46.1	7.1	2.48
거주 권역	도심권	(154)	11.7	34.4	45.5	7.1	1.3	46.1	45.5	8.4	2.52
	동북권	(890)	9.0	33.5	49.0	7.5	1.0	42.5	49.0	8.5	2.58
	서북권	(362)	9.7	37.0	48.6	3.9	0.8	46.7	48.6	4.7	2.49
	서남권	(962)	8.7	32.3	53.2	4.6	1.1	41.1	53.2	5.7	2.57
	동남권	(632)	11.6	32.8	46.7	7.9	1.1	44.3	46.7	9.0	2.54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8.9	32.1	52.1	5.9	1.1	40.9	52.1	7.0	2.58
	비동거 · 비독립	(292)	8.9	33.9	50.7	4.8	1.7	42.8	50.7	6.5	2.57
	독립	(1,162)	10.9	35.1	46.1	7.0	0.9	46.0	46.1	7.8	2.52
가구유형	1인가구, 경제독립	(453)	12.4	33.6	47.9	5.7	0.4	45.9	47.9	6.2	2.48
	2인이상, 동거	(1,546)	8.9	32.1	52.1	5.9	1.1	40.9	52.1	7.0	2.58

10. 네트워크 속성 (긍정 비율)

문. 다음은 귀하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뢰할 만한 주변인 35.8% > 충분한 사회적 네트워크 33.8%

-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의 긍정 비율로 신뢰할 만한 주변인이 35.8%로 충분한 사회적 네트워크 33.8%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긍정%,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긍정%,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신뢰할 만한 주변인	충분한 사회적 네트워크
2020년 청년세대		(3,000)	35.8	33.8
2020년 기성세대		(500)	25.4	21.4
성	남성	(1,483)	35.5	33.2
	여성	(1,517)	36.1	34.4
연령	만18세~24세	(798)	44.1	43.0
	25세~29세	(784)	38.1	36.1
	30세~34세	(695)	30.1	29.6
	35세~39세	(723)	29.6	25.2
거주 권역	도심권	(154)	32.5	24.7
	동북권	(890)	37.0	36.2
	서북권	(362)	32.3	25.7
	서남권	(962)	35.1	34.7
	동남권	(632)	38.0	35.9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37.4	35.4
	비동거 · 비독립	(292)	38.7	37.7
	독립	(1,162)	33.0	30.7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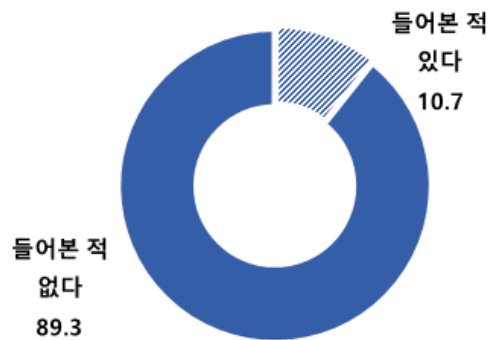
11. [서울시 청년 커뮤니티 사업] 인지도

문. 귀하는 서울시가 동네 포레 사람들이 같이 운동이나 취미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임을 지원하는 청년 커뮤니티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 청년 커뮤니티 사업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 10.7%, 없다 89.3%

- 서울시 청년 커뮤니티 사업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10.7%, 없다는 응답은 89.3%로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들어본 적 있다	들어본 적 없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10.7	89.3
성	남성	(1,483)	12.4	87.6
	여성	(1,517)	9.0	91.0
연령	만18세~24세	(798)	10.5	89.5
	25세~29세	(784)	10.2	89.8
	30세~34세	(695)	9.8	90.2
	35세~39세	(723)	12.3	87.7
거주 권역	도심권	(154)	15.6	84.4
	동북권	(890)	12.1	87.9
	서북권	(362)	8.3	91.7
	서남권	(962)	8.3	91.7
	동남권	(632)	12.5	87.5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10.3	89.7
	비동거 · 비독립	(292)	8.6	91.4
	독립	(1,162)	11.8	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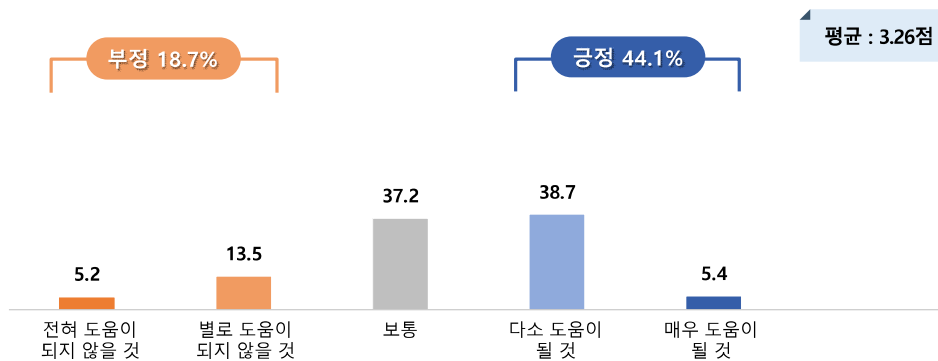
12. [서울시 청년 커뮤니티 사업] 도움 정도

문. 서울시가 동네에서 또래 사람들이 같이 운동이나 취미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임을 지원하는 청년 커뮤니티 사업은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를 확대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청년 커뮤니티 사업에 대한 도움 정도는 5점 평균 3.26점

- 서울시 청년 커뮤니티 사업의 도움 정도에 대해 긍정 응답은 44.1%, 부정 응답은 18.7%로 나타났고, 5점 평균 환산 점수는 3.26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②	보통이다 ③	다소 도움이 될 것 ④	매우 도움이 될 것 ⑤	부정 (①+②)	보통 ③	긍정 (④+⑤)	5점 평균 (점)
2020년 청년세대	(3,000)	5.2	13.5	37.2	38.7	5.4	18.7	37.2	44.1	3.26
2020년 기성세대	(500)	2.4	8.8	35.8	49.8	3.2	11.2	35.8	53.0	3.43
성										
남성	(1,483)	6.9	13.9	36.3	36.8	6.1	20.8	36.3	43.0	3.21
여성	(1,517)	3.5	13.1	38.2	40.5	4.7	16.6	38.2	45.2	3.30
연령										
만18세~24세	(798)	4.1	10.9	36.1	42.4	6.5	15.0	36.1	48.9	3.36
25세~29세	(784)	5.9	14.2	35.7	38.1	6.1	20.0	35.7	44.3	3.24
30세~34세	(695)	4.5	14.1	41.0	36.4	4.0	18.6	41.0	40.4	3.21
35세~39세	(723)	6.2	15.1	36.5	37.5	4.7	21.3	36.5	42.2	3.19
거주 권역										
도심권	(154)	6.5	11.7	40.9	33.1	7.8	18.2	40.9	40.9	3.24
동북권	(890)	4.2	14.2	34.7	41.5	5.5	18.3	34.7	47.0	3.30
서북권	(362)	7.7	11.0	38.1	38.1	5.0	18.8	38.1	43.1	3.22
서남권	(962)	5.3	13.3	38.9	37.3	5.2	18.6	38.9	42.5	3.24
동남권	(632)	4.6	14.7	36.9	38.6	5.2	19.3	36.9	43.8	3.25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4.3	12.5	38.6	38.9	5.8	16.8	38.6	44.6	3.29
비동거비독립	(292)	7.2	11.0	36.3	38.7	6.8	18.2	36.3	45.5	3.27
독립	(1,162)	5.8	15.5	35.7	38.5	4.6	21.3	35.7	43.0	3.21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13. [서울시 청년 커뮤니티 사업] 참여 어려움 원인

문. 귀하가 이와 같은 청년 커뮤니티 사업에 참여하신다면, 참여하기에 어려움이 되는 가장 주된 요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청년 커뮤니티 사업을 잘 모른다 26.5%

- 서울시 청년 커뮤니티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주된 요인으로 청년 커뮤니티 사업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남.

(Base: 전체, 기타 0.5% 제외,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기타 0.5% 제외,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청년 커뮤니티 사업을 잘 모른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	원하는 시간대에 모임이나 프로그램이 없다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	관심이 가는 내용의 모임이나 프로그램이 없다	동네 모임에 관심이 없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26.5	19.7	12.1	11.2	6.5	23.5
성							
남성	(1,483)	25.4	15.2	11.7	12.6	7.1	27.4
여성	(1,517)	27.7	24.1	12.5	9.8	5.9	19.6
연령							
만18세~24세	(798)	30.5	24.8	8.5	10.3	6.4	19.4
25세~29세	(784)	29.7	17.7	13.3	11.2	5.2	22.3
30세~34세	(695)	24.6	18.8	13.1	9.8	6.6	26.5
35세~39세	(723)	20.6	17.0	13.8	13.4	8.0	26.4
거주 권역							
도심권	(154)	25.3	14.9	13.6	14.3	12.3	19.5
동북권	(890)	27.8	20.0	10.2	10.7	7.2	23.5
서북권	(362)	25.7	22.4	11.6	10.2	5.8	24.3
서남권	(962)	27.2	18.9	12.6	11.0	5.6	24.0
동남권	(632)	24.5	20.1	13.9	11.9	6.0	23.3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29.4	21.0	10.4	9.4	6.1	23.2
비동거 · 비독립	(292)	26.0	20.2	9.6	13.7	6.5	23.6
독립	(1,162)	22.9	17.8	15.0	12.8	7.1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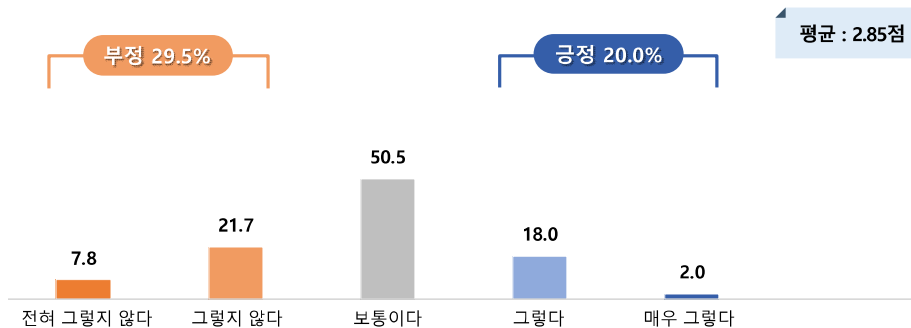
14. 서울시 청년지원사업 자격 조건 적절성

문. 귀하는 참여해보셨거나, 참여하려 했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 참여하지 못하신 청년 지원 사업의 연령, 가구, 소득, 직업 소득 등 지원 자격 조건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격조건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5점 평균 2.85점

- 사업에 참여했거나 자격이 맞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청년지원사업 자격 조건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 긍정 응답은 20.0%, 부정 응답은 29.5%로 나타났고, 5점 평균 환산 점수는 2.85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Base: 사업에 참여했거나, 자격이 맞지 않은 응답자, 단위: %)



통계표

(Base: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자격이 맞지않은 응답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부정 (①+②)	보통 ③	긍정 (④+⑤)	5점 평균 (점)
2020년 청년세대		(2,244)	7.8	21.7	50.5	18.0	2.0	29.5	50.5	20.0	2.85
성	남성	(1,075)	8.2	18.5	52.1	18.5	2.7	26.7	52.1	21.2	2.89
	여성	(1,169)	7.4	24.7	49.2	17.5	1.3	32.1	49.2	18.7	2.81
연령	만18세~24세	(517)	5.4	19.7	50.9	20.5	3.5	25.1	50.9	24.0	2.97
	25세~29세	(615)	9.8	23.3	44.6	20.8	1.6	33.0	44.6	22.4	2.81
	30세~34세	(552)	7.8	20.7	53.6	16.7	1.3	28.4	53.6	17.9	2.83
	35세~39세	(560)	7.7	23.0	53.9	13.8	1.6	30.7	53.9	15.4	2.79
거주 권역	도심권	(118)	6.8	24.6	47.5	18.6	2.5	31.4	47.5	21.2	2.86
	동북권	(667)	7.6	21.1	49.3	19.6	2.2	28.8	49.3	21.9	2.88
	서북권	(262)	7.6	22.1	51.1	17.9	1.1	29.8	51.1	19.1	2.83
	서남권	(737)	8.1	20.5	53.1	16.0	2.3	28.6	53.1	18.3	2.84
	동남권	(460)	7.6	23.7	48.9	18.5	1.3	31.3	48.9	19.8	2.82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119)	6.5	22.8	49.9	18.9	2.0	29.3	49.9	20.8	2.87
	비동거 · 비독립	(204)	8.8	19.1	49.0	21.1	2.0	27.9	49.0	23.0	2.88
	독립	(921)	9.0	21.1	51.8	16.2	2.0	30.1	51.8	18.1	2.81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15-1. 서울시 청년지원사업 정보제공경로_1순위

문. 서울시의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어떤 경로로 제공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서울시 및 관련 사업 소셜 미디어 24.8% > 서울시 홈페이지 24.1%

- 서울시 청년지원사업의 정보 제공 경로 1순위로 서울시 및 관련 사업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네이버 밴드 등)가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울시 홈페이지 24.1%, 인터넷 포털 뉴스 기사 1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서울시 및 관련 사업 소셜 미디어	서울시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 뉴스 기사	서울시 및 관련 사업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의 포스터나 인쇄물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 공무원 안내	기타	청년 지원 사업 정보에 관심이 없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24.8	24.1	19.0	10.6	6.1	1.5	1.2	12.7
성	남성	(1,483)	22.0	22.3	20.8	10.7	6.1	1.8	0.9	15.6
	여성	(1,517)	27.6	25.8	17.3	10.6	6.1	1.2	1.5	9.8
연령	만18세~24세	(798)	33.3	25.4	17.0	6.3	6.4	1.5	1.0	9.0
	25세~29세	(784)	26.0	25.4	17.2	11.2	5.9	1.8	1.5	11.0
	30세~34세	(695)	20.4	20.0	23.7	12.1	6.0	1.2	1.2	15.4
	35세~39세	(723)	18.3	25.0	18.7	13.4	6.2	1.4	1.1	15.9
거주 권역	도심권	(154)	28.6	24.7	16.9	9.7	4.5	1.9	1.3	12.3
	동북권	(890)	23.8	24.0	18.9	10.3	8.4	1.5	2.1	10.9
	서북권	(362)	27.9	21.8	17.4	10.5	5.0	1.9	1.1	14.4
	서남권	(962)	23.7	24.0	21.2	10.5	6.0	1.0	0.8	12.7
	동남권	(632)	25.2	25.3	17.4	11.6	4.1	1.7	0.5	14.2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27.7	24.1	17.9	9.2	6.3	1.5	1.0	12.4
	비동거 · 비독립	(292)	26.7	21.2	20.5	8.9	7.9	1.4	1.4	12.0
	독립	(1,162)	20.4	24.8	20.1	13.0	5.5	1.5	1.5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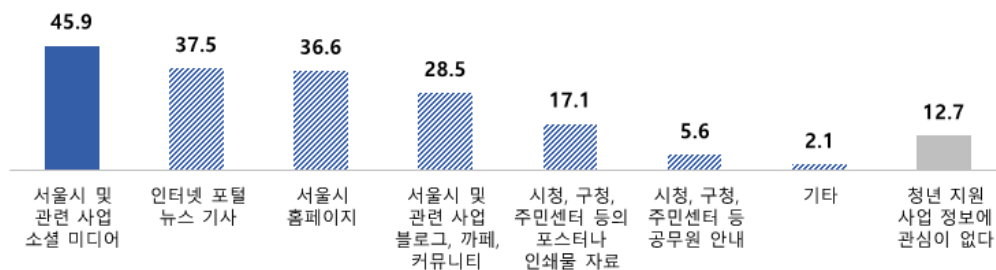
15-2. 서울시 청년지원사업 정보제공경로_1+2순위_복수응답

문. 서울시의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어떤 경로로 제공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세요

서울시 및 관련 사업 소셜 미디어 45.9% > 인터넷 포털 뉴스 기사 37.5%

- 서울시 청년지원사업의 정보 제공 경로 1+2순위로 서울시 및 관련 사업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네이버 밴드 등)가 4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인터넷 포털 뉴스 기사 37.5%, 서울시 홈페이지 3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복수응답,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복수응답,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서울시 및 관련 사업 소셜 미디어	인터넷 포털 뉴스 기사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및 관련 사업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의 포스터나 인쇄물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 공무원 안내	기타	청년 지원 사업 정보에 관심이 없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45.9	37.5	36.6	28.5	17.1	5.6	2.1	12.7
성									
남성	(1,483)	43.2	39.3	34.3	26.6	16.5	6.5	1.4	15.6
여성	(1,517)	48.6	35.7	39.0	30.3	17.7	4.8	2.8	9.8
연령									
만18세~24세	(798)	54.5	37.0	41.7	22.3	17.5	5.1	1.9	9.0
25세~29세	(784)	49.5	36.0	36.2	30.5	16.8	5.5	2.8	11.0
30세~34세	(695)	40.3	40.7	31.8	29.2	17.0	6.5	2.4	15.4
35세~39세	(723)	38.0	36.7	36.1	32.4	16.9	5.5	1.2	15.9
거주 권역									
도심권	(154)	48.1	37.7	37.7	28.6	15.6	4.5	1.9	12.3
동북권	(890)	44.9	39.1	37.9	25.5	20.7	5.3	2.8	10.9
서북권	(362)	47.2	35.9	34.3	27.6	16.6	6.1	2.5	14.4
서남권	(962)	45.1	38.5	35.4	30.8	16.7	5.2	1.8	12.7
동남권	(632)	47.3	34.7	37.8	29.6	13.1	6.8	1.4	14.2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48.1	36.9	37.5	26.5	17.6	5.4	1.9	12.4
비동거 · 비독립	(292)	52.7	36.6	31.5	25.7	19.2	7.9	1.7	12.0
독립	(1,162)	41.3	38.6	36.8	31.8	15.8	5.4	2.5	13.3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족 이외에 도움 받는 사람 ＞

-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족 이외에는 친구에게 도움을 받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 같음
 - 그냥 일상적인 고민은 친구한테 도움을 구할 수 있는데, 진짜 어려운 환경에 있다가나 하면 그런 걸 타개할만한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20대 초중반 남성)
 - 저는 주변에 도움을 찾아서 묻는 편이에요. 취업성공패키지 할 때도 담당자에게도 계속 물어보고 했어요.(20대 초중반 남성)
 - 어려움을 겪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을 것 같아요.(20대 초중반 여성)
 - 저도 그런 심각한 문제는 전문가를 찾는 게 맞는데, 일상적인 문제는 친한 친구에게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나이가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이미 겪었거나 겪고 있을 확률이 높아서 이런 방법을 미리 알고 있지 않을까싶어서요.(20대 초중반 여성)
 -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편이에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친구들에게 도움 요청은 안 할 것 같고 뭔가 가족들이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전 직장애 쉬고 있던 상사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임기응변도 훌륭하시고 정세나 정보 쪽에 밝으셔서 사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저는 직장동료인 것 같아요. 살면서 스트레스 받는 건 거의 직장때문이라 제가 직장 내 인간관계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직장동료 같아요.(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저는 친구들에게. 아무래도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 저한테 도움되는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돈도 혹시 필요하게 되면 빌릴 수 있을 것 같아요.(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오래된 친구들. 안 좋은 일이나 급한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아는 언니도 10년 넘게 알아온 언니여서 힘들 때 고민상담도 하고 실제 도와주기도 했거든요.(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가족과 주위사람을 포함해서 취업이나 창업, 부동산, 주식 같은 경제적 정보를 얻는 사람 ＞

- 주로 가족에게 정보를 얻고, 그 다음으로 친구가 많음. 주위 사람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음.
 - 취업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선배들에게, 주식 같은 경제정보는 부모님께(20대 초중반 남성)
 - 저는 관심을 주로 친구들과 공유하는 편이에요. 부모님에게는 말하기 꺼려져서. 걱정하고 잔소리만 하시니까.(20대 초중반 남성)
 - 저는 재정적인 문제는 친구에게 가장 먼저 물어봐요.(20대 초중반 여성)
 - 부동산, 주식이라고 하면, 사회초년생 말고는 친구들 중에서는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동산 관련 책이나 유튜브를 보면서 정보를 찾아요.(20대 초중반 여성)
 - 경제적인 거 물어볼 때는 아버지를 제일 많이 찾아요.(20대 초중반 여성)
 - 전 아버지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딱히 없어요. 제 돈으로 하는 거니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 안 해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가족. 엄마, 친오빠에게 정보를 얻어요.(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가입하고 있는 모임 종류 >

• 주식, 독서, 운동 모임

- 학교 동아리, 외부 동아리(20대 초중반 남성)
- 예전에는 술마시고 했는데 지금은 술 마시는 게 싫어서 동아리를 안해요.(20대 초중반 남성)
- 관심사가 재테크 주식에 관심이 있어서 재테크 모임, 사진 찍는 모임, 최근에 양천구에서 진행하는 나이트워크라고 밤에 걷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참여하면서 사는 동네에 대한 애정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임이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식물 키우는 사람들 취미모임 있으면 하고 싶어요.(20대 초중반 여성)
- 가입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게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주변 구역마다 마포구 섹터, 강동구 섹터 해서 자신들의 취미나 취향을 모아서 소모임 같은걸 개최하는 앱이 있어요. 저는 취미가 공기총 사격이라서 소모임을 한 세번정도 주최했어요. 올 때마다 7-8명씩 모이고 해서 재미있게 놀았어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공식적인 모임이나 그런 건 없고요. 친한 친구들만 모이고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두 개가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데, 서핑모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독서모임처럼 독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모임인데, 면접 때문에 그걸 시작했지만 많이 도움이 되어서 아직 유지하고 있어요.(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가입하고 있는 모임의 도움정도 >

•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

- 그냥 만나서 떠드는 정도예요. 나쁘지 않아요.(20대 초중반 남성)
- 일단 공통점과 관심사가 같고 지역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그 안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으니까 저는 좋은 것 같아요.(20대 초중반 여성)
- 굳이 혼자 하려면 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20대 초중반 여성)
- 제 업무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하는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술, 화폭, 전달력이 중요한데, 독서 모임을 통해서 피드백도 받고 제 의견도 얘기하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청년 커뮤니티 관련 지원 정책 >

• 운동과 같은 취미 분야의 토레 모임에 관심이 있음.

- 운동같은 모임 하고 싶어요. 토레 친구들과 진로 고민하는 모임(20대 초중반 남성)
- 이런걸 하면 사진을 보내라든지 요구하는게 많을 것 같아서 안 할 것 같아요.(20대 초중반 남성)
- 해보지 않았고 알아보기만 했는데, 요즘 것들이라고 청년공간이 있다고 거기서 모임도 많이 열리는데, 아직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참여한 적은 없고 거기 공간을 이용해서 공부한 적은 있어요.(20대 초중반 여성)
- 취미에 관련된 게 많아서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20대 초중반 여성)
- 실내 체육 운동이나 영화 같은 문화생활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 안 해 봤던걸 지원이 되거나 우선권이 되면 체험 식으로 한번 해볼 것 같아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저도 비슷하게 배드민턴, 스쿼시, 테니스 받고 싶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정부에서 일일 강사도 같이 지원해주면 좋겠어요.(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성)
 - 저는 동네 친구들이 없다 보니까 동네에 또래들 모임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듣는 것도 많아질 테니까 제 생각도 넓어질 것 같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같은 곳에 살지만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다른 환경에 있을 거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또래가 모여서 언학원을 가거나 맛집 가거나 하고 싶어요.(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지원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모임을 하려면 일단 돈이 들어가니까 비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저는 모임이 유지되려면 마음이나 성향이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면, 그게 자발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모임을 하려면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이 있어야지, 안 맞으면 결국 스트레스 받아서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안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 청년 커뮤니티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

-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 나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 온라인,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큰 거부감이 있어서 한번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입하지 않을 것 같아요.(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카테고리를 세분화해서 여기 들어가면 내 성향에 잘 맞을 것 같다 하는 게 드러나게 보이면 혹시 참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
-

Part. 9

가치관

1. 사회 신뢰 (긍정 비율)

문. 다음 각 영역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공적 기관 19.9% > 민간 기업 13.3%

- 사회 신뢰의 긍정 비율로 공적 기관이 19.9%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민간 기업 13.3%, 사회 전반 11.4%, 시민사회/종교/비영리단체 11.2%, 타인 8.4%의 순으로 나타남.

(긍정%,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긍정%,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공적 기관	민간 기업	사회 전반	시민사회/종교/ 비영리단체	타인
2020년 청년세대		(3,000)	19.9	13.3	11.4	11.2	8.4
2020년 기성세대		(500)	16.8	9.8	10.0	18.4	4.6
성	남성	(1,483)	20.8	15.6	13.1	12.7	10.4
	여성	(1,517)	18.9	11.1	9.6	9.8	6.5
연령	만18세~24세	(798)	20.9	12.3	10.3	10.7	7.8
	25세~29세	(784)	18.8	14.0	11.1	10.6	9.9
	30세~34세	(695)	20.4	13.2	10.8	10.6	8.1
	35세~39세	(723)	19.4	13.7	13.4	13.1	7.9
거주 권역	도심권	(154)	22.1	16.2	14.3	14.3	9.7
	동북권	(890)	21.0	13.8	13.4	11.6	9.9
	서북권	(362)	19.3	11.9	9.9	11.9	5.5
	서남권	(962)	18.3	12.2	9.3	10.4	6.8
	동남권	(632)	20.4	14.4	11.9	10.9	10.3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18.8	12.2	10.2	9.6	7.2
	비동거 · 비독립	(292)	24.7	14.0	17.1	13.4	11.6
	독립	(1,162)	20.1	14.6	11.5	12.9	9.2

2. 가치관 속성 (긍정 비율)

문.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 53.5%, 포용과 이해 53.2%

- 가치관에 대한 긍정 비율로 나는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살고 있다 53.5%,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53.2%로 나타남.

(긍정%,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긍정%,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	포용과 이해
2020년 청년세대		(3,000)	53.5	53.2
2020년 기성세대		(500)	55.8	48.0
성	남성	(1,483)	54.0	52.2
	여성	(1,517)	53.0	54.3
연령	만18세~24세	(798)	55.0	61.0
	25세~29세	(784)	52.9	52.3
	30세~34세	(695)	51.2	47.9
	35세~39세	(723)	54.6	50.8
거주 권역	도심권	(154)	54.5	53.9
	동북권	(890)	54.0	53.5
	서북권	(362)	48.6	50.0
	서남권	(962)	54.0	50.7
	동남권	(632)	54.6	58.4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50.0	53.8
	비동거 · 비독립	(292)	52.4	53.1
	독립	(1,162)	58.4	52.5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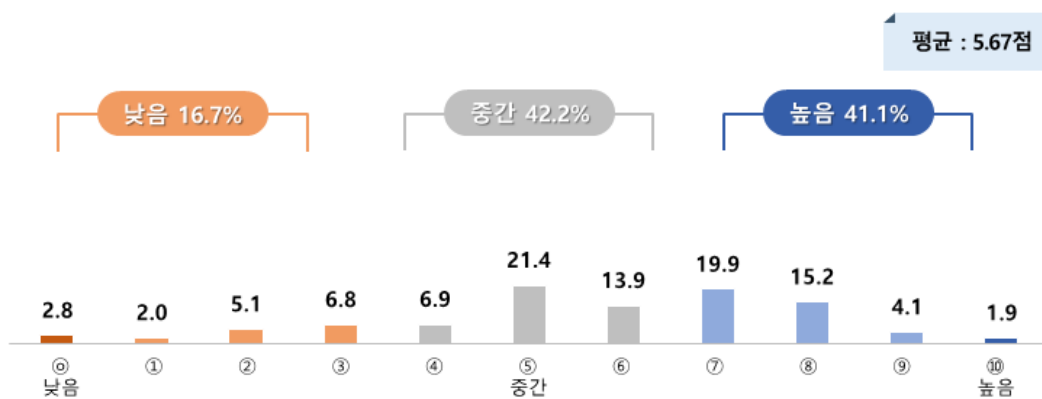
3. 주관적 행복

문. 다음은 귀하의 주관적 행복과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느끼는 정도를 낮을수록 0에 가깝게, 높을수록 10에 가깝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관적 행복 만족도는 10점 평균 5.67점

- 주관적 행복에 대한 만족도로 높음 비율은 41.1%, 낮음 비율은 16.7%, 중간 비율은 42.2%로 나타났고, 10점 평균 환산 점수는 평균 5.67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낮음 (0+1+2+3)	중간 (4+5+6)	높음 (7+8+9+10)	10점 평균 (점)
2020년 청년세대		(3,000)	16.7	42.2	41.1	5.67
2020년 기성세대		(500)	13.4	52.8	33.8	5.57
성	남성	(1,483)	16.7	41.1	42.2	5.69
	여성	(1,517)	16.7	43.4	39.9	5.65
연령	만18세~24세	(798)	15.7	37.7	46.6	5.85
	25세~29세	(784)	17.9	42.5	39.7	5.54
	30세~34세	(695)	15.5	46.3	38.1	5.64
	35세~39세	(723)	17.7	43.0	39.3	5.64
거주 권역	도심권	(154)	16.9	43.5	39.6	5.60
	동북권	(890)	17.1	41.1	41.8	5.68
	서북권	(362)	20.4	43.1	36.5	5.34
	서남권	(962)	16.2	43.0	40.7	5.72
	동남권	(632)	14.7	41.8	43.5	5.79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18.6	41.4	40.0	5.59
	비동거 · 비독립	(292)	16.1	44.5	39.4	5.61
	독립	(1,162)	14.4	42.8	42.9	5.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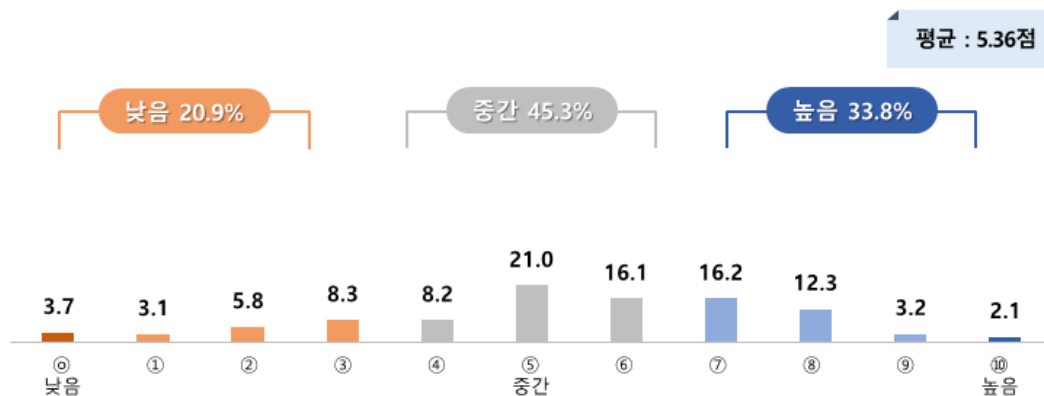
4. 삶의 질 만족도

문. 다음은 귀하의 주관적 행복과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느끼는 정도를 낮을수록 0에 가깝게, 높을수록 10에 가깝게 응답해 주십시오

삶의 질 만족도는 10점 평균 5.36점

- 삶의 질 만족도로 높은 비율은 33.8%, 낮음 비율은 20.9%, 중간 비율은 45.3%로 나타났고, 10점 평균 점수는 5.36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Base: 전체, 단위: %)



통계표

(Base: 전체,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낮음 (0+1+2+3)	중간 (4+5+6)	높음 (7+8+9+10)	10점 평균 (점)
2020년 청년세대		(3,000)	20.9	45.3	33.8	5.36
2020년 기성세대		(500)	20.0	49.6	30.4	5.30
성	남성	(1,483)	20.5	44.8	34.7	5.41
	여성	(1,517)	21.0	46.1	32.9	5.31
연령	만18세~24세	(798)	19.5	43.1	37.3	5.50
	25세~29세	(784)	23.9	42.9	33.3	5.23
	30세~34세	(695)	19.1	49.5	31.4	5.34
	35세~39세	(723)	20.3	46.9	32.8	5.36
거주 권역	도심권	(154)	16.9	52.6	30.5	5.34
	동북권	(890)	20.8	44.6	34.6	5.39
	서북권	(362)	28.5	42.8	28.7	4.99
	서남권	(962)	19.6	45.5	34.8	5.42
	동남권	(632)	19.0	46.2	34.8	5.44
독립여부	부모와 동거	(1,546)	24.1	43.8	32.1	5.21
	비동거 · 비독립	(292)	19.2	47.9	32.9	5.29
	독립	(1,162)	16.8	47.0	36.2	5.57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Part. 1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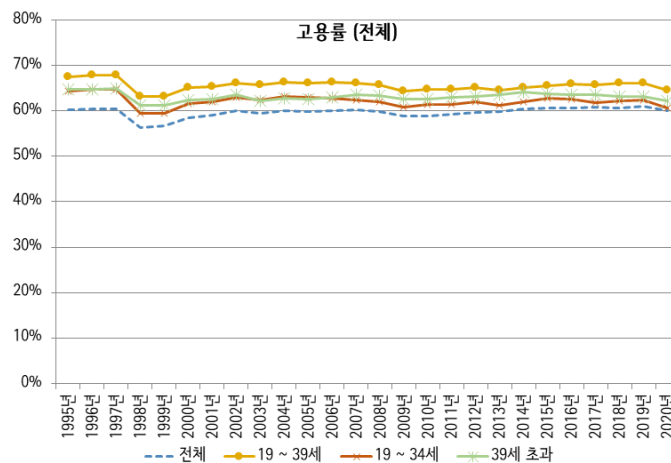
1. 청년 일자리 현황

1) 청년 일자리 현황

- 청년 고용률
 -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연령별 고용률 (전국청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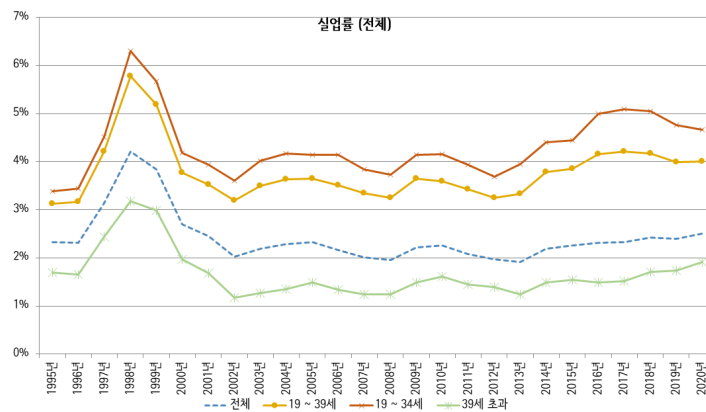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청년 실업률
 - 청년 실업률은 4~5%대를 유지하면서 2017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40대 이상 기성세대는 2013년 이후 1~2%대에서 정체하거나 소폭 증가해옴.

연령별 실업률 (전국청년)

(단위: %)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청년 체감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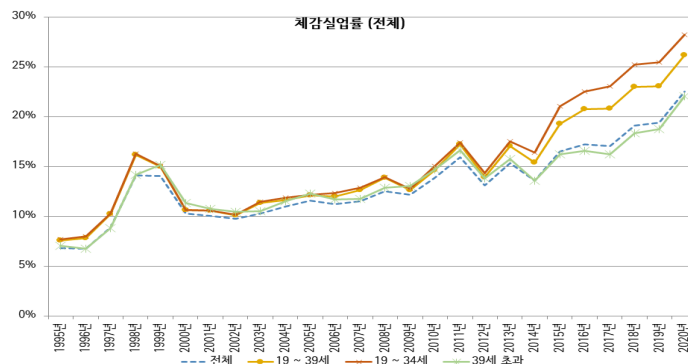
- 만19~34세의 청년 체감실업률은 25%가 넘으며 청년의 범위를 19~39세미만으로 확장하면 체감 실업률이 27%대에 육박함.
- 특히 모든 집단에 걸쳐 체감실업률이 2019년 대비 3%p가까이 증가했음. 여성 청년의 체감실업률은 30%에 근접해 가장 높음.
- 기존의 실업률이 단기 아르바이트생과 졸업반 학생, 경력단절여성 등을 포함하지 않는 반면 체감 실업률은 위의 집단을 반영해 임시일자리에 많이 진입해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더 잘 반영함.
- 올해 코로나19 위기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고용이 대폭 줄어들면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이 증가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용보조지표3 확장실업률(체감실업률)

$$\frac{\text{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 \text{실업자} + \text{잠재 경제활동인구}}{\text{경제활동인구} + \text{잠재 경제활동인구}}$$

▶ 연령별 체감실업률 (전국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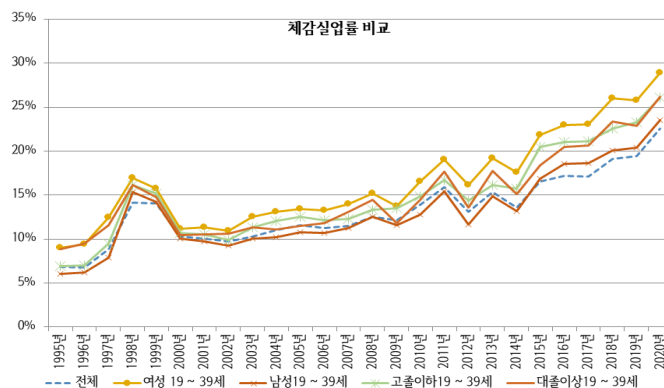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집단별 체감실업률 비교 (전국청년)

(단위: %)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청년 일자리만족도

- 서울청년 3천명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에 따르면 소득, 안전성, 장래성, 자아실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년들이 현재 일자리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물었을 때 전체 청년의 35.6%가 '만족하지 않는다', 38.6%가 '보통이다', 25.9%가 '만족한다'고 답함.
- 25~29세 미만의 여성,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청년, 월 근로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청년, 여성 1인 가구, 그리고 서울생활 새내기 집단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특히 많았음.
- 고용형태별로 보면 임시직, 파트타임 등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집단에서 불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음.
- 일자리에 대한 불만족은 잦은 이직, 퇴사 등 고용 불안정과 소득중단으로 이어지면서 안정적 생애 설계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
- 실제 한국 청년들의 퇴사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임. 청년층의 첫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5.9개월에 불과하고(통계청, 2018년)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은 27.7%에 이룸. (한국경영자총협회, 2016년)
- 직장 갑질 근절 등 직장 내 민주주의 문화 형성, 고용 안정, 지속적인 학습과 훈련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일자리 만족도를 높이고, 만약 퇴사 및 이직이 불가피할 경우라면 소득중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청년 일자리 만족도 (서울청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전체		(2,388)	35.6	38.6	25.9
성별 및 연령	여 25~29세	(329)	42.9	33.4	23.7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94)	42.8	38.7	18.6
월 근로 소득	200만원 미만	(809)	46.2	35.1	18.7
여성 1인가구		(235)	44.7	38.3	17.0
서울생활 새내기		(197)	41.6	38.6	19.8

출처: 서울청년 실태조사

2) 코로나19 이후

-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세계 경제위기는 국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침. 특히 관광 및 여행, 항공, 요식업 등의 서비스 등은 감염병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음. 위의 항공 등은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종사하는 대표적 산업이었음. 그러나 감염병으로 인해 급격한 매출 감소와 이에 따른 대량 해고, 고용 취소, 신규채용 무산 등의 상황이 이어짐.
- 그 외의 산업에서도 비용절감을 위해 시간제 고용 및 기간제 근로 등의 고용형태를 줄이는 경향을 보임. 취업기의 청년들이 많이 분포한 산업과 고용형태의 축소는 청년들에게 큰 타격을 줌.
-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겪은 일자리에서의 변화
 - 본 조사에서 서울청년 3,000명에게 코로나19 이후 소득 감소, 근무나 영업시간의 축소, 고용 취소나 해고 및 폐업 등 일자리에서의 변화를 경험한지 있는지 질문함. 이에 조사대상 청년들의 4분의 1인 25.3%가 소득 감소를 경험했고 해고나 폐업 등 일자리를 잃은 청년도 15% 가까이 됐음.
 - 소득감소 경험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의 경우 40%를 상회했고, 근무나 영업시간의 축소로 인한 타격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와 파트타임에서 유독 높았음.
 - 대체로 불안정노동자, 자영업자가 받은 타격이 큰 것으로 확인됨. 청년층의 창업 장려 정책은 사실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청년들의 경력단절을 메워줄 적극적 일자리 정책이 필요한 국면임.
 - 한편, 본인이나 가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있다'는 응답이 40.6%('없다' 59.4%)에 이른 가운데, 월평균 소득이 낮은 층에서 특히 소득 감소 경험이 높게 나타남. 또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인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소득 감소를 경험한 비율도 60% 이상으로 높았음. 코로나19가 청년층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에서 겪은 변화 (서울청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소득 감소	근무나 영업 시간의 축소	고용 취소, 해고 원하지 않는 무급 휴가, 폐업	해당되는 경우 없다
전체		(3,000)	25.3	22.4	14.8	55.2
성별 및 연령	남 35~39세	(363)	32.8	27.8	14.0	44.9
경제독립 1인가구		(453)	26.5	24.9	15.5	52.1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102)	41.8	24.5	5.9	28.4
서울생활 새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		(82)	26.8	34.6	11.0	26.8

출처: 서울청년 실태조사

▶ 개인 월 소득 및 일자리 유형별 본인이나 가족 소득 감소 경험 (서울청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소득감소 경험 있다	소득감소 경험 없다
전체		(3,000)	40.6	59.4
개인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421)	44.3	55.7
	200~300만원 미만	(813)	39.9	60.1
	300~400만원 미만	(410)	37.6	62.4
	400만원 이상	(356)	31.2	68.8
일자리 유형	풀타임	(165)	36.5	63.5
	파트타임	(161)	45.6	54.4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184)	60.9	39.1
	무직자	(612)	36.8	63.2

출처: 서울청년 실태조사

- 코로나19로 인해 더 어려워진 취업
 - 조사에 임한 청년들 중 61.2%가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구직, 고용유지, 창업 등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답함.
 -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전망에 대한 응답을 연령별로 구분해보면, 만18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년 집단에서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가장 높았고, 성별 구분에서는 여성(63.6%)이 남성(58.8%)보다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음.
 - 근로소득 분위에 따라 소득이 적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 관련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전망 (서울청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어렵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어려울 것이다
전체		(3,000)	12.2	26.6	61.2
성별	남성	(1,421)	12.1	29.1	58.8
	여성	(813)	12.3	24.1	63.6
연령	만18세 이상 24세 미만	(410)	8.1	21.8	70.1
근로소득	200만원 미만	(356)	14.0	28.2	57.8
	200~300만원 미만	(165)	18.5	30.5	51.0
	300~400만원 미만	(161)	17.1	37.4	45.5
	400만원 이상	(184)	10.2	20.4	69.4

출처: 서울청년 실태조사

- 선호하는 일자리 정책 유형
 - 청년들은 일자리 정책 방향과 관련해 '민간기업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45.0%)를 가장 많이 선호한다고 답함. '청년 역량 개발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는 29.9%, '공공부문의 고용창출 확대'는 24.1%가 선호한다고 답함.
 -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이 보다 현실적이고 더 많은 수의 일자리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으로 보임.

▶ 선호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 유형 (서울청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민간기업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청년 역량 개발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공공부문의 고용창출 확대
전체	(3,000)	45.0	29.9	24.1

출처: 서울청년 실태조사

2. 청년 일자리 정책 현황

1) 청년 일자리 정책

- 서울시 및 정부의 일자리 정책 유형
 - 서울시의 청년 취업지원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청년이 취업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주는 사업, △청년의 취업준비 과정을 돕는 사업, 그리고 △청년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사업으로 나뉨.
 - 서울시의 대표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청년수당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을 주고 취업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서울시는 수혜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외에도 청년 당사자가 방문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서울 일자리카페의 경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저렴하게 모임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 취업날개 사업은 면접에 필요한 양복과 같은 의류를 대여함.
 - 청년을 직접 고용하는 사업은 서울형 뉴딜일자리가 대표적임. 서울형 뉴딜일자리란 청년들이 공공기관에서 경력을 쌓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 그러나 단기 계약직 일자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함.
 - 고용노동부는 대표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운영해왔음.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은 청년 참여자도 모집하는데, 진로탐색을 포함한 1단계에 참여했을 때 최대 20만원을 지급함. 직업 훈련 과정을 모은 2단계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는 교육비와 훈련비를 지급함. 취업에 성공했을 시에도 근무기간에 따라 3개월, 6개월, 12개월 근무시 각각 30만원, 40만원, 80만원을 지급함.
- 타 지자체 일자리 정책 현황
 -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알선 외에도 청년 유입을 유도해야하는 거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지방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장점을 알리려는 시도가 더러 보임.
 -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같은 선도적인 정책들은 타 지역으로 전파되어 지역의 사정에 맞게 해석됨.
 - 경기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공통적으로 중소기업 재직청년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급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취업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청년의 임금을 올려 중소-대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함임. 경기도의 청년 마이스터 통장 역시 일하는 청년에게 추가적인 소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부산광역시는 청년수당의 부산버전인 '청년디딤돌카드'를 운영하고 있음. 다만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지급하고 있음. 또한 '취업준비땅'이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의 상태를 점검, 분석하고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 청년 친화적이고 물리적·시간적 제약 없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임. 구글플레이스토어 기준 5천회 이상 다운로드 됨.
 - 인천광역시는 기존의 취업 및 창업정책에 더해 시 특성에 맞춘 분야별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음. 의코코디네이터, 마이스산업 종사자 양성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 국제기구 주최 행사에서 일을 하고 수료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음. 청년의 일자리를 복지 차원에서

- 접근하면서도 지역의 수요에 맞는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것이 눈에 띈.
- 대구광역시는 타 지역에서 교육을 받은 대구 출신 청년들이 대구로 돌아오도록 유도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음. 지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의 욕구와 현황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수집함. 또 타 지역 청년이 대구 소재 일자리를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함.
 - 광주광역시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재해석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교통수당을 30만원 지급함. 이외에도 5개월간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취업지원 정책과 6개 유형(공공기관형, 공익활동형, 기업형, 사회복지형, 사회적경제형, 청년창업기업형)의 현장 실습 경험을 제공하고 주 25시간의 근무시간에 대한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일 경험 이외 자기 진로 준비의 시간과 기초생활을 위한 소득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는 기업이나 조직이 특정 분야에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함. 최근 젠더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전소재 시민단체, 출차·출연기관,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젠더 관점의 업무를 하는 청년 인건비의 90%를 보전함.
 - 세종특별자치시는 사회적경제, 사회복지 등 분야의 조직 혹은 스타트업에서 청년을 고용할 경우 2년간 월 180만원까지의 인건비를 지원함. 청년의 실업 문제와 특정 산업의 육성, 그리고 기업과 조직의 구인난 해결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려는 시도가 돋보임.
- 청년 일자리 정책의 보완점
 - 현재의 일자리 지원 정책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준점이 맞춰져 있음. 이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청년은 충분한 자원을 가진 청년과 경쟁하게 됨. 점차 기업에서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기준, 이른바 ‘스펙’이 높아지며 출발선 자체에 도달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있음.
 -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자를 비롯, 저소득층의 청년들을 지원하는 별도의 라운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주요 일자리 정책 현황 (서울시 및 중앙정부)

정책	내용	주관기관	연령 기준	소득 기준	기타 기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 추가채용 1명당 3년간 연 최대 9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만15~34세	-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자
취업성공패키지Ⅲ_청년	단계별로 참여수당 지급 취업시 성공수당 지급	고용노동부	만18~34세	-	미취업자 및 졸업예정자 니트족, 영세자영업자 등
서울 일자리카페	이력서 촬영, 면접교육, 맞춤 컨설팅 등	서울시	만19~39세	-	-
서울형 뉴딜일자리	최대 23개월 일자리 제공	서울시	만18세 이상	-	미취업자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 지원	서울시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소득 4분위 이하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 및 서울거주자
청년수당	6개월간 월 50만원	서울시	만19~34세	월 건보료 기준 이하 지역가입자: 254,909원 직장가입자: 237,652원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상 경과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취업날개	면접 정당 대여	서울시	만19~34세	-	서울소재 재학생 및 서울 거주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지역정착지원형	2년 동안 연 2,400만원 내외 인건비 지원, 청년 정착 지원금 지급, 2년 근무 후 지역 창업 및 취업시 1,000만원 지급	행정안전부	만39세 이하	-	마을기업, 협동조합, 농어업법인, 중소기업 등 지역기반 법인 단체 근로자

출처: 서울특별시 청년청 누리집, 복지로 누리집, 행정안전부 누리집

▣ 주요 일자리 정책 현황 (타 지방자치단체)

정책	내용	주관기관	연령 기준	소득 기준	기타 기준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연간 100만원 상당 복지혜택 제공	부산광역시	만18~34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부산소재 중소기업 3개월 이상 재직자 사용처는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검진으로 한정
부산청춘드림카 지원사업	2년간 월 20만원까지 전기차 렌트 비용 지원	부산광역시	만21~39세	-	1년 이내 신규취업자
청년디딤돌카드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	부산광역시	만18~34세	-	졸업·종퇴 2년 초과 미취업자
취업준비탕	취업 및 진로탐색 설계 지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부산광역시	-	-	-
청년 귀환 프로젝트	소셜미디어에 지역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출향청년의 유형과 현황을 분석. 대구 탐방 프로그램 운영	대구광역시	만19~39세	-	대구에 관심있는 전국 청년 대상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국제기구 주최 각종 행사 및 회의 진행 지원 청년 시간별 고용	인천광역시	-	-	인천소재 대학(원)생 중 영어능통자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및 지원 사업	외국인 환자 응대 관련 교육 지원 및 취업 정보 제공	인천광역시	-	-	-
인천 Young-Mice 리더 육성	MICE관련 교육 및 창업지원	인천광역시	만19~25세	-	수도권 거주자 지원 가능
광주 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	5개월간 50만원씩 지급, 구직지원 프로그램 제공 급여와 교육활동비(5개월)	광주광역시	만19~34세	중위소득 150% 미만	졸업 후 2년 경과 미취업자
광주청년일경험드림	(4대보험 및 2020년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적용 1시간당 10,353원)	광주광역시	만 19~34세	-	미취업자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	30만원 충전 교통카드 지급	광주광역시	만19~34세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자
청년취업 광주나래(정장대여) 서비스	청년구직자 면접 정장 무료대여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광주광역시	만18~39세	-	실제 면접 참여자
젠더공감 2030 청년활동가 양성	젠더 관련 청년 모니터링단 및 활동가 양성 및 파견 사업체는 인건비의 10%만 부담	대전광역시	만19~39세	-	미취업자, 사회적경제 조직 등 지역내 기업으로 파견
울산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6개월간 월 30만원씩 지원	울산광역시	만18~34세	중위소득 150% 미만	졸업 후 2년 경과 미취업자
울산청년 일+행복 카드 지원사업	연간 100만원 상당 복지혜택 제공	울산광역시	만18~39세	중위소득 150% 미만	울산소재 중소기업 3개월 이상 재직자 사용처는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검진으로 한정
톡톡스트리트 운영	3년간 판매공간 지원	울산광역시	만18~39세	-	고용보험 미가입자, 7년내 창업자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정책	내용	주관기관	연령 기준	소득 기준	기타 기준
세종시 사회복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년간 인건비 월 200만원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만18~39세	-	미취업자, 사회복지 분야 조직 고용 지원
청사진(청년 사회적경제 진출) 프로젝트	2년간 인건비 월 200만원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만18~39세	-	미취업자,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고용 지원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면접 1회당 3.5만원, 6회까지 지급	경기도	만18~39세	-	지역화폐로 지급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청년 마이스터 통장	2년간 월 30만원 지급	경기도	만18~34세	월 소득 260만원 미만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경기도 거주자
청년 복지포인트	연간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경기도	만18~34세	월 소득 260만원 이하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경기도 거주자, 자산형성 사업 참여자 중복수혜 가능
생명카 지원사업	8개월간 월 50만원까지 차량 렌트 비용 지원	청주시	만21~39세	-	중소기업 1년 이내 신규취업자

출처: 부산청년플랫폼 누리집, 경기청년포털 누리집, 대구 청년정책 누리집, 광주청년센터 누리집
세종특별자치시 세청나래 누리집, 대전청년 청춘광장 누리집,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누리집

2)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정책

- 코로나19 위기로 많은 청년들이 해고, 근무시간 단축, 급여 삭감 등 심각한 영향을 받음.
- 이에 서울시는 청년청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내놓음.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정책은 실업수당 지원, 사업비 지원, 일자리 알선 및 제공 등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 서울 희망일자리 사업은 청년 매니저 희망일자리, 학교생활지원, 자치구 청년 희망일자리, 자기주도형 희망일자리, 청년 디지털 소셜임팩트 희망일자리 등 총 5개 분야에서 5천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 유형에 따라 짧게는 주 25시간에서 길게는 40시간까지 4~5개월간 일 할 수 있도록 함.
- 청년 프리랜서 신속 지원 사업은 청년 프리랜서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을 지급. 온라인 영상 제작업체 등이 청년 프리랜서 촬영자, 편집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긴급수당 지원 사업은 소득보전 사업의 일환으로 중위소득 150% 미만을 대상으로 함. 대상자 중 코로나19로 실직 및 폐업을 경험한 청년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고 재도약 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2개월간 지급
- 경기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청년 희망 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층 공공일자리를 보다 확대, 진행하고 있음. 8월에 1차, 9월에 2차를 통해 총 662명을 모집

▣ 주요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정책 현황

정책	내용	주관기관	연령 기준	소득 기준	기타 기준
긴급수당 지원	2개월간 월 50만원 지급	서울시	만19~34세	중위소득 150% 미만	코로나19로 실직 및 폐업을 경험한 청년
비영리단체 일경험 공공프로젝트 일자리사업	3개월간 일자리 제공	서울시	만19~34세	-	고용보험 미가입자
청년 공공프로젝트 일자리사업	비영리적 기관 참여자 고용비용 및 필요경비 지원	서울시	만19~34세	-	서울거주자
청년 소상공인 긴급 지원 사업	청년 소상공인의 도시락을 구입해 취약계층에 전달	서울시	만19~39세	-	-
청년 프리랜서 신속 지원사업	사업비 1천만원 지원	서울시	만19~39세	대표자 연령이 만19~39세	서울 소재
청년 희망일자리	단기 일자리 제공	서울시	만19~34세	-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 및 폐업을 경험한 청년
경기 청년 희망 일자리 사업	청년층 공공일자리 확대,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4대 보험 가입	경기도	만18세~39세	-	도청 및 출차·출연기관 등
코로나19 입원, 격리해제가구 생활지원비	가구원 수에 따라 45만원부터 최대 145만원까지 지급	경기도 수원시	-	-	유급휴가비용 미지급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개월간 월 50만원 지급	전라남도	-	-	월 소득 25%이상 감소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1년간 2,400만원 내외 임금 지원, 비대면·디지털분야 자격증 취득 지원	행정안전부	만39세 이하	-	디지털·비대면분야 지역기업 근로자

출처: 서울특별시 청년청 누리집, 행정안전부 누리집, 온라인 청년센터 누리집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3. 청년당사자 및 전문가 정책 평가

1) 청년당사자 정책평가

- 청년 당사자들의 정책 평가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 정책별로 인지도, 참여경험, 참여의향, 도움정도를 살펴봄.
 - 인지도는 청년수당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 서울형 뉴딜일자리 > 서울 일자리카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23.8점의 인지도 점수를 받은 서울 일자리카페와 50.8점을 받은 청년수당은 두 배가 넘는 인지도의 차이를 보임.
 - 참여의향은 서울 일자리카페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 서울형 뉴딜일자리 > 청년수당 순으로 높게 나타남. 서울 일자리카페의 경우 이용에 조건이 없어 큰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반면 인지도가 높은 청년수당의 경우 그 조건이 까다롭다는 인식이 있어 참여의향이 낮게 나타남.
 - 도움정도는 청년수당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 서울형 뉴딜일자리 > 서울 일자리카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일자리 정책 중 청년수당은 인지도와 도움정도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참여 조건이 까다롭다는 인식 탓에 참여의향이 낮게 나온 것으로 풀이됨.
- 대체로 청년들의 자격증 취득,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이 큼. 그러나 민간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교육의 질과 방식에 대해 그리 선호하지는 않은 듯 보임. 더불어 청년 대상 집단 심층면접에서는 이미 취업에 필요한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으니 교육을 지원하기보다는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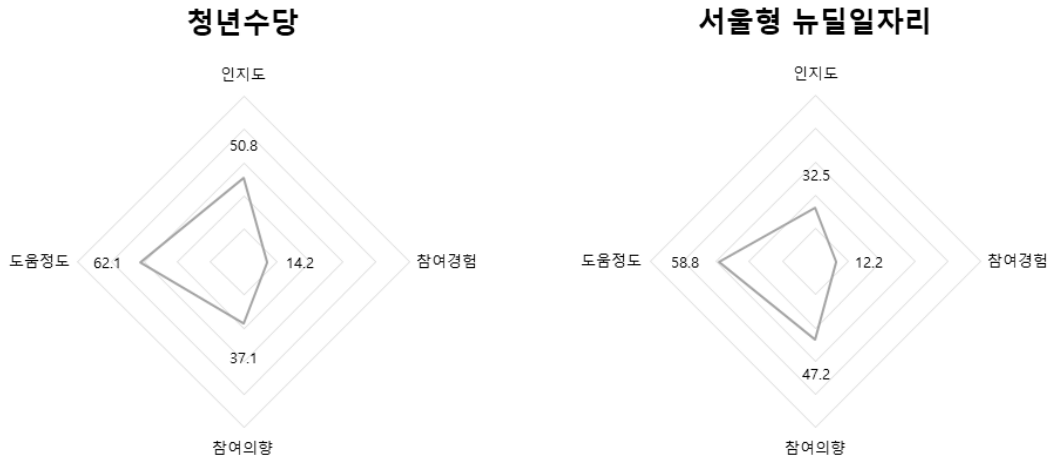
“취업하고 싶다는 생각에 고급 기술을 배우고 포트폴리오를 남기고 싶다는 생각에 들어갔는데, 이게 국가지원이다 보니까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과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온다. 그러니까 수업 수준이 되게 낮았다” - 이○○, 20대 중반

“강사님도 이게 사기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더라. 이건 내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터무니 없이 하루에 8시간에 6개월, 이런 식으로 하더라. 이건 시간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았다” - 이○○, 20대 중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사람들이 준비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스펙이 충분한 사람들이 많은데 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취업하는 사람들이 적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적인 측면이나 교육으로 사람을 일자리에 적합하게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일자리 자체의 수를 늘리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 - 김△△, 25세

청년수당 및 서울형 뉴딜 일자리 평가

(단위: 점)



출처: 서울청년 실태조사

- 청년들은 청년수당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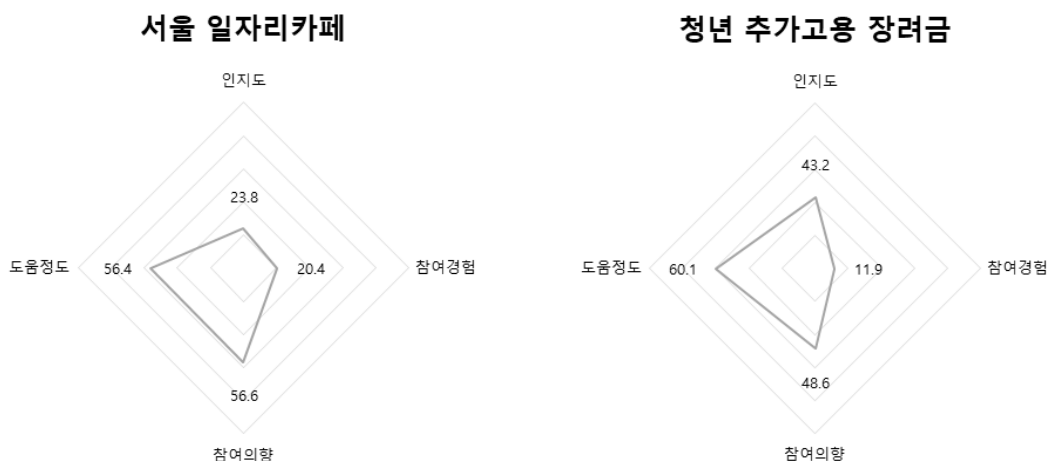
“6개월간 50만원 지원해주는 게 있었는데 조건도 까다롭고 경쟁률도 셌다. 지원해봤는데 떨어졌고, 취성패도 해볼까 했는데 친구가 그걸 했다. 그런데 취업이 잘 안 되다고 해서 저도 결국 안 했다” - 이○○, 32세

- 서울시 뉴딜일자리 경우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탓에 유의미한 경험을 쌓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취업성공패키지와 서울시 뉴딜 일자리 이런 거 찾아 봤는데, 너무 단기간이다 보니까, 이거에도 사람이 많이 몰리고 기간이 너무 짧다.” - 김○○, 27세

서울 일자리카페 및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평가

(단위: 점)



출처: 서울청년 실태조사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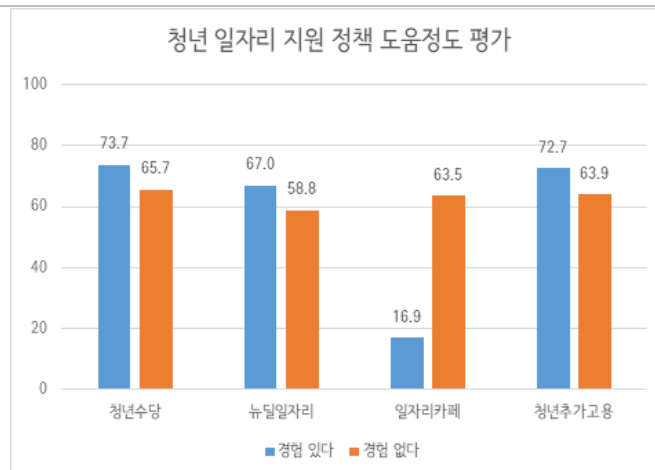
부록

• 일자리 정책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평가

- 정책 참여자와 비참여자간 일자리 정책 도움정도를 비교한 결과, 청년수당, 뉴딜일자리, 청년추가 고용 모두 정책에 참여해본 청년이 그렇지 못한 청년보다 정책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참여자들이 대체적으로 8~11점 정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정책효능감이 비교적 높게 형성 되고 있음.
- 그러나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의 경우 참여자들의 도움정도 평가 점수가 20점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평가 대상의 타 정책들은 수혜자들이 체감하는 직접적 효능감이 큰 정책인 반면, 일자리카페 정책의 특성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지원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으로 보임.
- 비참여자들도 대체적으로 정책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일자리 정책 도움정도 평가

(단위: 점)



※정책 인지층을 대상으로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평가를 비교함
출처: 서울청년 실태조사

2) 전문가 정책평가

- 코로나19로 많은 수의 청년들이 일자리와 소득을 잃음. 자산형성, 주거마련보다 당장 한 달을 버틸 수 있도록 소득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임.
- 청년들이 당장 소득을 위해 플랫폼 노동에 진입하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청년들에게 빠르고 간단한 방법으로 자원을 제공하고 재취업이나 진로변경을 돕는 게 바람직함.

4. 해외사례

1) 대표적인 해외사례

- 아일랜드 발리문의 청년보장제
 - 아일랜드의 도시 발리문(Ballymun)에서 수행된 정책으로 경기가 침체되자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음.
 - 이 지역에 사는 18~24세 미만의 청년들은 지역의 일자리 센터에 등록. 청년은 상담원과의 개별 미팅 뒤 일자리, 훈련, 인턴, 일 경험, 학업유지 중 하나를 제안 받음.
 - 사업을 주관하는 지역추진단은 청년 개인의 역량을 파악해 취업능력에 따라 세 집단으로 구분함.
 - 집단1은 중등학력 이하 수준의 청년, 근로경험이 없는 청년, 독해나 수학 등 학습에 문제가 있는 청년, 범죄기록 등이 있는 청년들로 구성됨. 이들은 국가에서 정한 추가적인 교육을 받고 공공부문에 고용되거나 교육연계 프로그램에 들어감.
 - 집단2는 고등학력 이하 수준의 청년, 제한된 근로 경험 청년으로 추가적인 교육훈련과 공공지원 고용 서비스를 받음.
 - 집단3은 고등학력 자격자나 직업 경험이 풍부한 청년으로 민간 부분고용이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 받음.
 - 청년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지 않고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집단을 구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싱가포르의 중소기업 청년고용 정책 (SME Talent Programme)
 - 싱가포르의 기술교육원, 전문대학, 일반대학교의 재학생과 중소기업을 연결시킴. 중소기업은 청년의 인턴십 보수의 70%까지 정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음. 청년은 중소기업에서 인턴십, 장학금, 취업 후 훈련을 받을 수 있음.
 - 인턴십 프로그램은 졸업반 학생들의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로 3~6개월 간 진행되며 매월 정책의 생활비가 지급됨. 신규 졸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경우에는 취업보너스가 지급됨.
 - 청년은 최소 1년간 해당 기업에서 일해야 하고 기업은 청년에게 각종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시장임금의 중위임금 이상을 급여로 지급해야 함.

2) 남아프리카공화국 임금보조 사회실험(2009)¹⁾

- 인종차별과 청년실업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청년실업 문제는 인종차별과 깊게 연결되어 있음.
 - 2008년 4분기를 기준으로 볼 때 아프리카계 청년의 확대실업률(체감실업률)은 55.2%로 백인 실업률 (9.2%)의 6배가 넘음. 2012년에 들어서서도 피부색에 따른 청년 확대실업률 차이는 40%p 가까이

1)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임금보조 사회실험은 국내에는 다소 생소한 유형의 정책일 수 있으나,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함.

되며, 2011년 기준 백인 가구의 연 평균 소득은 약 5천만원인 반면 흑인 가구는 약 850만원임.

- 차별받는 소외계층을 위한 강력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었음.
- 바우처를 통한 임금보조
 - 임금보조 프로그램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객체에 따라 유형이 달라짐.
 -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의 경우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 청년을 고용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등의 유형도 존재함.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바우처 실험은 청년에게 국가의 임금보조를 보장하는 일종의 쿠폰을 주고, 이 청년이 쿠폰을 통해 일자리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식
- 실험 의도
 - 사회적으로 배제되어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사회실험을 진행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취업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일의 경험
 - 신입사원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첫 일자리를 갖기 어려움.
 -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첫 시작을 끊을 수 있도록 지원
- 임금보조의 기간과 규모
 - 20~24세 이하의 청년이 참여하며 총 R5,000(미화 500달러 정도)의 보조금 지급
 - 회사는 6개월간 분할해 월 R833 (미화 90달러 정도)의 임금보조를 받음.
 - 회사는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청년은 상용직으로 고용되어있어야 하나 계약형태에 제한은 없음.
- 실험 방법
 - 2009년 4,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기준치 평가
 - 2010년 두 번째 기준치 평가 및 2,000여명에게 바우처 전달
 - 바우처는 지역, 성별, 학력, 연령, 가구 내 일하는 사람의 수, 그리고 전년도(2009) 경제활동 여부를 중심으로 청년을 할당해 전달
 -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효과 측정
- 실험의 문제점
 - 실험에 참여하는 청년과 기업 모두 바우처에 대해 알고있어야 함.
 - 회사는 바우처의 기능을 신뢰하고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고용절차를 밟아야 함.
 - 사회 실험군에 들어있는 청년이 정책을 지원받지 않는 집단(통제군)에 있는 청년이 같은 직장에 지원한다면 바우처의 효과가 통제군에게도 미칠 수 있음.

- 청년 고용이 기존에 고용되어 있던 비청년 노동자의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함.

• 실험 결과

- 바우처를 받은 청년은 취업할 확률이 25% 더 높았음. 이 효과는 바우처가 배포된지 2년 뒤에도 일부 지속됨.
- 절반 이상의 회사들은 바우처가 있는 청년을 고용하기 위해 기존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함. 이들은 더 신뢰할 수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

3) 해외사례의 시사점

• 청년의 스펙 쌓기와 경쟁을 요구하는 한국의 취업지원 정책

- 현재 한국의 청년 취업지원 정책은 청년이 더 준비된 노동자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 방식은 청년의 취업이 어려운 이유를 청년의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전제함.
- 가정환경, 장애 등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오래, 더 많이 준비하라고 요구하고 그 준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현실임.
- 그러나 일자리와 소득이 지금 당장 필요한 저소득, 저자산 청년들에게는 취업을 준비할 시간과 자원을 지원해주는 것 보다 일자리 자체를 주는 것이 필요

• 바우처 사업의 특성

- 바우처를 통한 고용 지원금은 청년이 지금 당장 취업 준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당장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청년은 급히 필요한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사업주는 저렴한 비용으로 청년을 고용할 수 있음.
- 고용 지원금 바우처는 청년이 현금화할 수 없고 고용이 돼야만 지출이 발생함.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Part. 2

자산

1. 청년의 자산과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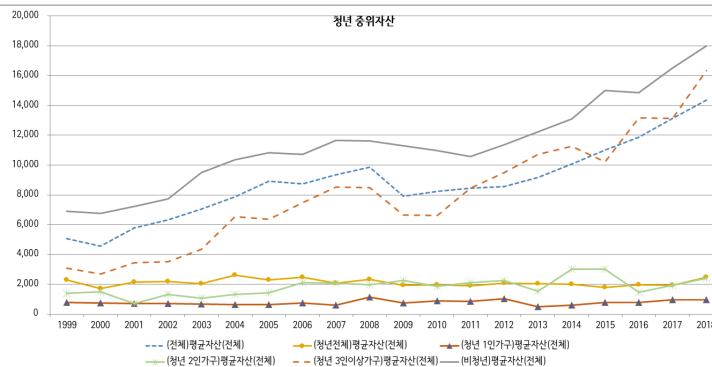
1) 청년 자산 현황 및 인식

• 청년 중위 자산 현황

- 한국노동패널조사(한국노동연구원)를 통해 청년 자산의 변화를 시계열로 살펴보면 청년들의 자산은 거의 일정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데 반해 기성세대와 청년 3인 이상 가구는 계속 상승하고 있음.

▶ 청년가구 규모별 중위자산 (전국청년)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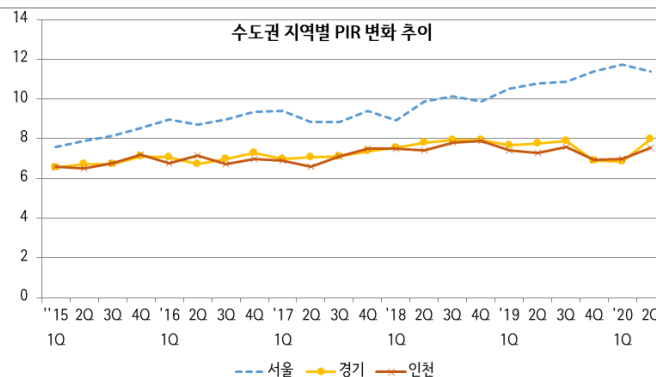
출처: 한국노동패널조사

• 지역별 평균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청년들이 집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음. 그 결과 청년들과 기성세대, 또는 청년세대 내부의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지역별 평균 아파트 가격을 평균 연 가구소득으로 나눈 소득대비 주택가격비(Price-to-Income Ratio)을 보면 서울의 경우 그 숫자가 2015년 1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해왔음.
- 청년 역시 가구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수도권 내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 수도권 지역별 아파트 가격대비 평균가구 소득 비율

(단위: 년)



출처: KB부동산 리브온

• 청년 내 자산격차

- 본 조사에 따르면 서울 청년은 평균 1억 2,705만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음. 그 중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9,142만원에 달함. 이는 약 72.0%에 달하는 비율로, 청년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조사 대상인 서울 청년들 중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28.9%(866명)에 불과함. 부동산 자산이 있는 청년과 없는 청년의 총 자산(금융, 기타 자산 등)을 비교하면 없는 청년은 1,948만원, 있는 청년은 3억9천212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른 자산격차가 매우 큼이 확인됨.
- 부동산, 금융 등 자산이 전혀 없는 청년도 772명으로 청년 4명 중 1명에 이름.
- 자산 중에서도 부동산 자산격차를 줄이거나 이로 파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유형별 자산 보유여부와 자산 격차 현황 (서울청년)

(단위: 만원)

구분	사례수 (명)	부동산	금융	기타	계
전체	(3,000)	9,142	2,951	612	12,705
부동산 자산 보유	(866)	31,671	5,914	1,627	39,212
부동산 자산 미보유	(2,134)	0	1,748	200	1,948
자산 보유	(2,228)	12,310	3,973	824	17,107
자산 미보유	(772)	0	0	0	0

※ 각 유형별 자산이 포함하는 범위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 토지, 기타 부동산 가격/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포함/다른 부동산을 사기 위해 낸 계약금, 중도금 포함/전세나 반전세로 있는 경우 보증금 포함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갯돈, 남에게 빌려준 돈 등

기타자산: 가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나 설비, 물건 등 동산 자산 / 자가용, 트럭, 등 자동차 / 운동클럽 회원권, 귀금속, 골동품, 상품권 등

출처: 서울청년 실태조사

• 자산격차와 경제적 안정감

- 자산에 따라 경제적인 불안감(안정감)도 확연히 차이를 보임. 자산이 없는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더욱 불안함을 느끼고 있음.
- 부동산, 금융, 기타 자산이 전혀 없는 청년 772명 중 21.0%가 경제적으로 스스로 안정적이라고 대답했으나 자산의 총합이 3억 이상인 청년은 368명 중 38.9%가 안정적이라고 답함.
- 청년들의 경제적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해 자산격차 해소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를 알 수 있음.

자산규모별 경제적 안정감 (서울청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통이다	안정적이다	계
전체	(3,000)	34.5	37.9	27.6	100.0
자산 없음	(772)	36.5	42.5	21.0	100.0
1억미만	(1,559)	39.3	33.5	27.2	100.0
1억이상 3억 미만	(301)	27.2	39.9	32.9	100.0
3억 이상	(368)	15.8	45.4	38.9	100.0

출처: 서울청년 실태조사

- 자산 및 연령별 경제적 전망
 - 자산의 격차에 따라 경제적 전망도 차이가 남.
 - 자산이 없는 청년은 55.6%만이 향후 5년 동안 자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한 반면, 자산이 있는 청년은 62.8%가 그렇게 응답함.
 - 연령별로는 만18~24세 청년의 75.4%가 향후 자신의 자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나이가 어릴수록 자산 증가에 낙관적으로 조사됨.
 - 낮은 연령 집단의 절대 자산 규모가 적기도 하지만,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경험하며 기대했던 것 보다 소득이 적고 자산 증가가 녹록치 않음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자산규모별 자산변화 전망 (서울청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줄어들 것이다	비슷할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계
전체	(3,000)	8.0	27.1	64.8	100.0
자산 없음	(772)	8.3	36.1	55.6	100.0
1억미만	(1,559)	8.5	22.3	69.2	100.0
1억이상 3억 미만	(301)	5.3	26.3	68.4	100.0
3억 이상	(368)	7.9	29.3	62.8	100.0

출처: 서울청년 실태조사

연령별 자산변화 전망 (서울청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줄어들 것이다	비슷할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계
전체	(3,000)	8.0	27.1	64.8	100.0
만 18~24세	(798)	5.0	19.6	75.4	100.0
만 25~29세	(784)	7.1	24.2	68.7	100.0
만 30~34세	(695)	7.3	33.7	59.0	100.0
만 35~39세	(723)	13.0	32.4	54.6	100.0

출처: 서울청년 실태조사

• 자산형성 사업의 보편성 vs 선별성

- 자산형성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식을 조사함. 받는 혜택이 적더라도 모두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많은 도움이 필요한 소수의 청년을 지원하겠다는 주장 중 더 동의하는 쪽을 고르도록 질문함.
- 조사 대상 청년들의 2/3에 가까운 65.9%가 적은 지원금이라도 다수의 청년을 대상으로 보편적 혜택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함.
- 지원이 더 필요한 소수의 청년을 선별해 실질적 혜택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32.0%였음.
- 청년 대부분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움을 받기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2) 부채

• 부채보유 청년의 증가

- 전국적으로 부채를 가진 청년가구의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음. 특히 30세 미만의 청년의 경우 1년 동안 6%p 이상 증가함.
- 부채는 청년이 새로운 일이나 직장, 혹은 삶의 다른 계획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감소시킴. 청년의 부채가 많을수록 사회의 역동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음. 청년들이 창업, 고등교육 등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부채상황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연령별 부채보유 청년가구 변화 (전국청년)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30세 미만	47.7	50.8	57.0
39세 미만	72.1	75.2	75.3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 청년의 부채 발생 이유

- 본 조사에서 청년들은 부채가 발생한 이유로 주거비를 가장 많이 꼽았음.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거비로 인한 부채 발생 비율이 증가함.
- 다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경우 주거비보다 학자금과 생활비 때문에 채무가 발생한 경우가 더 많았음. 해당 연령에서는 부모와 동거하거나 주거비를 부모가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청년의 다양한 방식의 주거 계약 형태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연령별 부채발생 이유 (서울청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주거비	생활비 마련	학자금	가족 지원	의료비	다른 부채 변제	결혼 준비 자금	창업 자금	기타
전체	(1,257)	45.8	37.4	27.6	13.0	9.6	8.8	3.0	2.5	2.4
만 18~24세	(228)	20.6	34.2	59.2	10.1	6.6	6.1	1.8	2.6	1.3
만 25~29세	(326)	34.4	37.1	37.4	14.1	12.6	8.9	1.8	3.4	1.8
만 30~34세	(313)	55.0	40.6	16.9	13.7	10.9	7.0	2.9	1.0	2.2
만 35~39세	(390)	62.8	36.9	9.5	13.1	7.9	11.8	4.9	3.1	3.6

※ 주거비: 전월세 자금 대출 등

※ 생활비: 식비, 의료비, 교통, 통신비 등

※ 가족지원: 사적이전이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포함

출처: 서울청년 실태조사

2. 금융 지원 정책

• 금융 지원 정책 현황

- 금융 지원 정책은 자산형성 지원 정책과 채무 상환 지원 정책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음.
- 자산형성 정책은 사실상 모두 근로를 조건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음. 소득이 있는 청년이 조금 더 빠르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 저축액에 회사나 정부가 적립금을 더하는 방식임. 일부 정책의 경우 금융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일정 수준의 자산과 소득을 확보해 탈수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채무상환 지원 정책은 학자금 대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이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자산형성 정책의 문제점

① 자산규모와 복지서비스 연계

- 자산 규모는 개인과 가구의 경제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임. 경제적 기준에 따라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선별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자산의 형성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총량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부양의무제가 현존하는 한 자산형성은 위기가구를 더 큰 위험으로 빠트릴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장애물이 됨.

② 자산형성 정책과 고용 연계의 한계

- 자산형성 정책은 청년을 돕는 동시에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는 방향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음
- 청년의 입장에서 큰 기업 대신 중소기업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함.
- 일을 하지 않는 청년, 돌봄이나 가사를 담당하는 여성의 경우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자산형성 정책에 참여할 수 없음. 이는 일을 하기 힘든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도 해당하는 사항임.

③ 형성된 자산의 사용처 문제

- 현재 자산형성 정책은 수령한 자산의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금융 교육을 의무화 하는 정책도 있지만 사용처를 제한하지는 않음.
- 해외, 특히 미국의 경우 사용처를 생애 첫 주택 구매, 창업, 대학원 교육비 지출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청년이 형성된 자산으로 무리하게 금융상품을 구매하거나, 빠르게 탕진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 프로그램 시작시에 사용처를 서약할 경우 적립비율을 높여 주는 등 건전한 자산 사용을 위한 유인책을 고민해야 함.

• 타 지자체 금융 지원 정책 현황

- 타 지자체 역시 매칭펀드 형식의 자산형성 정책을 지자체 청년 관련 홈페이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지자체가 자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있는 중앙정부 정책에 보조금을 더하는 형식의 정책을 운영하는 경우도 더러 있음.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 서울수도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과 비슷하거나 중첩되는 사업을 진행하기보다 보완·보조적 지원방식도 고민할 수 있음. 수혜 청년의 수를 늘리거나 수령액을 늘리는 방식을 통해 사업에 청년의 정책과 관련된 혼선을 줄이고, 수혜자가 누리는 평균적인 편익의 양을 키울 수 있음. 단, 현재 기업에게 지원되는 자산형성 정책이 기업의 인건비 보조 정책으로 악용된다는 일부 인식이 있는 만큼 지원이 청년에게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함.
- 부산광역시는 '청년저축계좌'와 '희망날개통장' 두 유형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최종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산의 규모가 작고 수령에 필요한 조건이 까다로움. 금융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사용처에 대해 증빙까지 해야 함.
-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칭펀드 정책인 '청년 연금'을 진행했으나 수혜자 선정 기준과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되어 결국 종료함.
- 대구와 대전의 경우 기존에 있는 자산형성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함. 청년과 기업이 고용노동부가 운영중인 자산형성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기업이나 청년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함.
- 인천, 부산, 광주도 자체적으로 매칭펀드 방식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단, 광주의 경우 청년 적립가능액이 총 100만원, 매칭액이 100만원으로 200만원까지 모을 수 있고, 적립기간도 10개월로 짧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주요 자산형성 지원 정책 현황(서울시 및 정부)

정책	내용	주관기관	연령 기준	소득 기준	기타 기준
내일채움공제	5년간 월 100,000원 이상 적립 시 회사가 최소 월 240,000원 적립	고용노동부	-	-	중소기업 핵심인력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간 월 125,000원 적립시 1600만원 + 이자 3년간 월 165,000원 적립시 3,000만원 + 이자	고용노동부	만15~34세	월 급여 350만원 미만	중소·중견 기업 정규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간 월 120,000원 이상 적립시 회사가 최소 월 200,000원 적립	고용노동부	만15~34세	-	중소·중견 기업 정규직
내일키움통장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단 참여자의 경우 3년간 월 50,000원 또는 100,000원 적립시 최대 월 35만원 적립	보건복지부	-	조건부 수급자, 일반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사업 체 근무자
청년저축계좌	3년간 월 100,000원 적립시 정부지원금 월 300,000원 적립	보건복지부	만15~39세	기준중위소득 50%	근로·사업소득 발생자
청년희망키움통장	3년간 월 100,000원 적립시 비율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 (평균 월 316,000원) 지급	보건복지부	만15~40세	기준중위소득 30%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근로·사업소득 발생자 + 3년 이내 탈수급시 지급
희망키움통장	3년간 월 50,000원 또는 100,000원 적립시 비율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 (평균 월 350,000원) 지급	보건복지부	-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자
희망키움통장II	3년간 월 100,000원 적립시 월 100,000원 적립	보건복지부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및 차상위	근로·사업소득 발생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급자+7분위 이하 6개월치 대출이자 전액지원 소득 8분위 6개월치 대출이자 차등지원 다자녀 소득분위 상관없이 6개월치 대출이자 전액 지원	서울시	-	수급권자 및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및 대학원생 (졸업후 5년 미만 경과자)	주민등록상 서울시민
서울청년 징검다리 대출	최대 3천만원에 대한 이자 지원	서울시	만19~34세	생활임금대비 월소득구간 100%이하 ~ 200%초과	금융상담 및 교육 이수 시 우대금리 적용
청년미래투자 금융지원	대출이자 지원	서울시	만19~34세	-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 사업	신용유이자 해제를 위한 초입금 지원 (부채금액의 5%)	서울시	만19~34세	신용유이자	-
희망두배청년통장	2, 3년동안 월 100,000원 또는 150,000원을 적립시 1:1 비율로 적립	서울시	만18~34세	본인 소득 237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자
청년부채조정제도	부채감면, 4년 이내 상환유예, 10년 이내 분할상환 지원	신용회복 위원회	만29세 이하 미취업자	-	3개월 이상 연체자

*청년수당은 자산형성정책보다는 취업지원정책으로 구분하여 '일자리' 파트에서 별도 서술

출처: 서울특별시 청년청 누리집, 고용노동부 누리집, 보건복지부 누리집,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 주요 자산형성 지원 정책 현황 (타 지방자치단체)

정책	내용	주관기관	연령 기준	소득 기준	기타 기준
청년부비론	1,500만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부산광역시	만18~34세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후 6개월 이상 변제계획 이행 또는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후 24개월 이상 변제 계획 이행한 청년
청년저축계좌	3년간 월 100,000원 적립시 월 300,000원 적립	부산광역시	만15~39세	기준중위소득 50%	근로중인 청년이 교육이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시 지급
청년희망날개통장	3년간 월 100,000원 적립시 월 100,000원 적립	부산광역시	만15~34세	기준중위소득 80%	교육이수, 사용용도 증빙 필요 사용용도는 주택/주거비, 교육비, 결혼자금, 창업 및 운영자금으로 한정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재학기간 중 대출한 학자금의 이자 지원	부산광역시	-	소득분위 8분위	대학원생, 2년 이내 졸업생 중 미취업자, 16년 이후 한국장학재단 대출자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에 장려금 지원	대구광역시	-	-	-
드림 for 청년통장	3년간 월 100,000원 적립시 총 6,400,000원 적립	인천광역시	만39세 이하	연봉 2,800만원 이하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종사자
청년드림은행	재무상담 지원, 80만원 분할지원, 경제교육 제공	광주광역시	만19~39세	신용유이자, 신용유의 직전	-
청년13통장	10개월간 월 100,000원 적립시 월 100,000원 적립	광주광역시	만19~34세	월 소득 약 180만원 이하	-
대전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 기여분의 절반을 제공	대전광역시	-	-	-
청년 연금	3년간 월 최대 300,000원 적립시 월 100,000원 적립	경기도 / 사업종류	만18~34세	월 소득 250만원 미만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중소기업 재직자, 경기도 거주자, 고용연금 가입자
충북행복결혼공제	5년간 월 300,000원 적립시 최대 500,000원 적립	충청북도	만18~40세	-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농업인

출처: 부산청년플랫폼 누리집, 경기청년포털 누리집, 대구 청년정책 누리집, 광주청년센터 누리집
대전청년 청춘광장 누리집,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누리집

• 자산형성 정책 수정 설계안

- 기존 5개 자산형성지원 통장*을 목표와 대상을 일치(수급자/차상위)시킨 2개로 통합할 예정임.
- 이를 통해 대상 요건 등을 단순화하고, 정부지원금 비율도 기존 소득비례 등 다양한 방식에서 1:3 (본인적립금: 정부지원금)으로 일원화 함.
- 기존 희망키움통장 I, II,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을(가칭)희망저축계좌 I, II로 통합함.

▶ 자산형성 정책 수정 설계안

정책	정부지원금	지급요건	정책대상별 인센티브(선택)
(가칭) 희망저축계좌	1:3 (정률)	탈수급 또는 국민연금 추가납부	민간매칭금 자활기금
(가칭) 희망저축계좌II		심화사례관리	자자체 장려금 자활근로사업단 매출 중앙자산키움펀드

출처: 보건복지부 2020.08.10. 보도자료

• 정의당의 청년기초자산제도

- 2020년 1월 정의당은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내놓음. 부모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지 못한 ‘흙수저’ 청년도 자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을 확보할 수 있게 돕자는 것이 취지임.
- 만 20세가 되는 청년 전원에게 3,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 청년들이 지급금을 주거, 창업, 취업 준비, 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함.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유세 등 세수에 유사중복 청년사업 예산을 통합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임.
- 많은 자산을 상속한 청년의 경우 기초자산을 지급한 뒤 세금을 통해 환수하자는 계획

• 기초자산제도와 기본소득제도 비교

① 기본철학

- 청년 기초자산제도는 청년 내 자산격차가 크다는 전제 아래, 차이를 메꾸는 보충성의 원리에 기대고 있음.
- 반면 기본소득은 사회 구성원인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됨.

② 보편성의 차이

- 현재 정의당이 제시한 안에 따르면 정책이 시작될 당시에 20세가 넘는 국민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며, 이들이 사망하기 전 까지는 현실적인 의미에서 정책의 보편성을 확보할 수 없음.
- 기본소득의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함.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 해외의 기본자산 논의

- 미국에서는 1999년 에커만과 알스토트(Ackerman and Alstott)이 쓴 The Stakeholder Society (“이해당사자 사회”)에서 성년이 된 청년에게 미화 80,000달러를 지급하는 정책이 제안됨.
- 영국은 정부가 기본자산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기본자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부모가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함. 영국 정부는 기본자산을 지급하는 대신 부모가 아동을 위해 자산을 저렴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Child Trust Fund를 만들었음. 부모는 아동 명의의 계좌에 세제 혜택을 받고 저축을 하고, 아동은 만 18세가 되는 해에 저축액을 인출할 수 있음.

3. 청년당사자 및 전문가 정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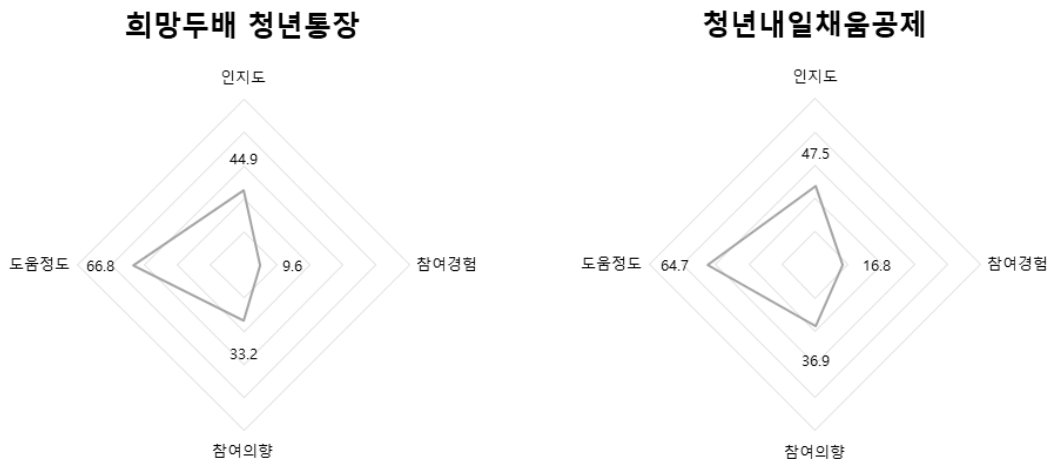
1) 청년당사자의 정책평가

- 청년 당사자들의 정책 평가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 정책별로 인지도, 참여경험, 참여의향, 도움정도를 질문했음.
- 인지도는 청년내일채움공제 > 희망두배 청년통장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 > 청년미래투자 금융지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청년미래투자 금융지원과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의 경우 대상자가 매우 한정되어 있어 인지도가 낮게 평가된 것으로 풀이됨.
- 참여의향은 청년미래투자 금융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 희망두배 청년통장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높게 순으로 나타남.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대학생만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참여의향이 낮게 나온 것으로 풀이됨. 청년미래투자 금융지원은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참여의향이 43.4점으로 가장 높았음.
- 도움정도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 > 청년미래투자 금융지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59.5점을 받은 청년미래투자 금융지원을 제외하고 모두 60점대로 비슷한 점수를 받음.
- 정책의 내용이 유사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조금 더 높은 인지도와 참여의향 점수를 받음.
- 자산형성정책에 가입하면 급한 일이 있을 때 목돈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일단 적금을 드는 게 자율적으로 빠져 쓸 수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신청 안했다” - 이△△, 27세

❏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청년내일채움공제 평가

(단위: 점)



출처: 서울청년 실태조사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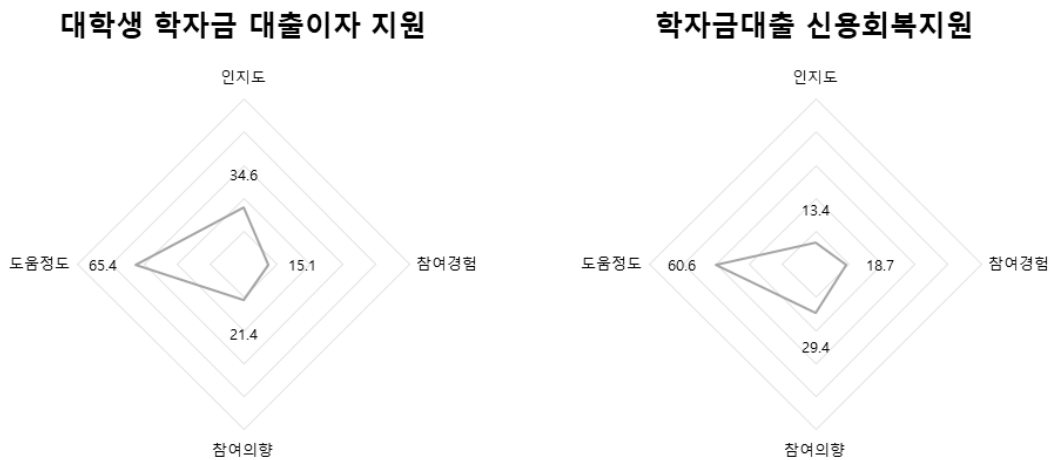
-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일부 기업이 악용하고 있다는 사례가 나타나며 청년들이 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이기도 함. 투명한 정책 집행을 위해 집행단계에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

“저도 교육지원 정책이 그나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되게 악용하는 분이 많아서 별로 도움이 안될 것 같고 공공기관의 단기간 일자리 확대도 수치상의 결과만 보고 싶어서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 같고 두 가지가 다 별로다” - 김○○, 28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해당이 안돼서 하지 못했고 최근에 뉴스를 봤다. 내일채움공제라고 해서 거기 있는 금액을 연봉에 포함시켜서 이에 처음부터 하니까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기업을 봤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 장○○, 31세

▶ 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 사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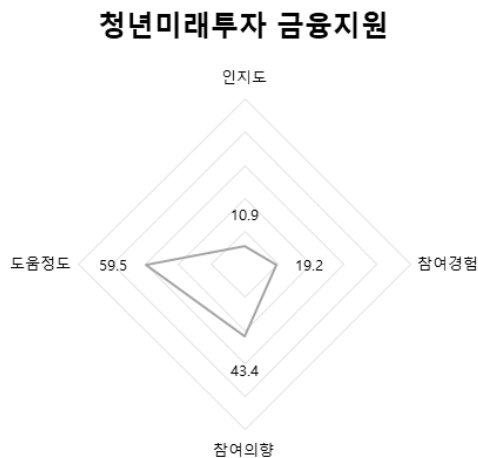
(단위: 점)



출처: 서울청년 실태조사

▶ 청년미래투자 금융지원 평가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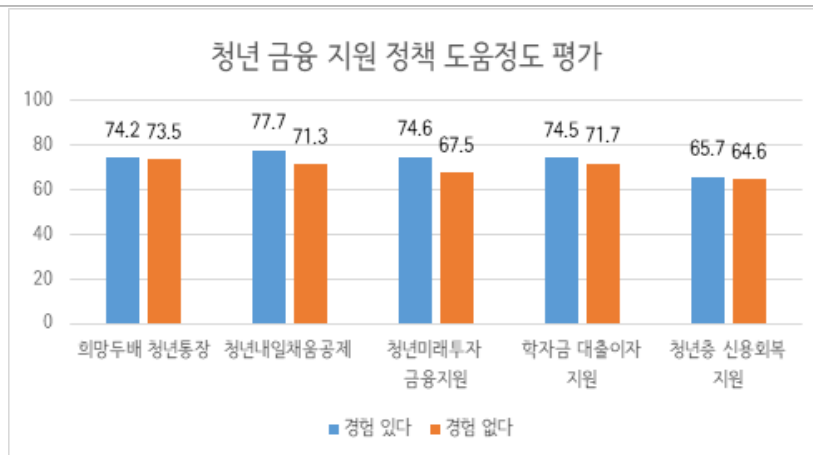


출처: 서울청년 실태조사

- 금융 정책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평가 비교
 - 정책 참여 청년과 비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의 도움정도를 평가한 결과, 두 집단 간 차이는 적었음. 정책 참여 경험이 있는 청년 집단은 비교적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기대한 것과 비슷하거나 더 만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정책에 대해 들어본 청년은 경험유무와 상관없이 70점 이상의 도움정도를 예상하고 있음. 이는 정책의 높은 확장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임.
 - 청년들은 일자리 지원 정책, 주거지원 정책보다도 자산형성 지원 정책에 더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음.

▶ 금융 정책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도움정도 평가

(단위: 점)



※정책 인지층을 대상으로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평가를 비교함
출처: 서울청년 실태조사

2) 전문가 정책평가

- 자산형성정책 참여자격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고, 청년 입장에서는 2~3년씩 같은 직장에서 일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음.
- 자산형성정책 참여기간
 - 코로나19 경제위기처럼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해고당하는 게 재직기간 2년 미만의 청년들임을 고려할 때 사업에 끝까지 참여하기 어려움.
- 높은 사업 참여 조건의 문제
 -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은 취업을 위한 자격증을 취득해야해 청년들이 부담을 느낌.

-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사업도 교육, 자활을 명목으로 참여자에게 성과와 증빙을 요구해 참여의향을 떨어트리는 경우가 있음.
- 부양의무제와 탈수급
 - 보건복지부가 수급층 청년을 대상으로 만든 희망키움통장은 서울시 사업보다도 더 높은 매칭율을 제공하지만 호응도가 낮음.
 -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에 청년이 탈수급 해야 하는데, 부양의무제로 인해 가족들의 경제상황이 연계되어 있어 스스로 탈수급을 결정할 수 없음. 자녀가 탈수급을 할 경우 부모가 얻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
- 경제위기 속 중장기 사업의 문제
 -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은 지금 당장 소득을 찾아야 하는 현실에 처해있는데,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다소 요원해 보일 수도 있음.
 - 정책 대상자의 수요를 재확인해 재원을 재분배하거나 수요자 맞춤형 홍보 진행을 고려해볼 만함.
- 자산형성정책 설계 제안
 - 현재의 자산형성정책은 정해진 기간에 저축을 완료하면 공공의 적립금을 얹어 목돈을 제공함.
 - 의도는 더 나은 주거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목돈을 빠르게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것
 - 전·월세 보증금 형성 지원이 목적이라면 사업 시작시에 보증금을 대출해주고 정해진 기간에 상환하면 차액을 탕감해주는 형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음.

4. 해외사례

1) 영국의 자산형성 지원 정책

- 아동신탁기금 (Child Trust Fund)
 - 2005년 1월 처음 실시된 정책으로 아동들의 저축 습관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됨.
 - 부모가 아동을 위해 아동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함. 가족들은 아동신탁기금에 입금할 수 있고 저축액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받음. 정부는 통장을 개설하면 250파운드를 지급하고 아동이 7세가 되는 해에 50파운드를 추가로 지급함. 아동들은 반드시 금융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아동이 18세가 될 때 저축액을 인출할 수 있음.
 - 저축액의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반대 논리였으며 결국 2011년 1월 폐지됨.
- 주니어 ISA (Junior Individual Savigns Accounts)
 - 아동신탁기금이 폐지된 이후 생긴 대체상품임.
 - 아동이 16세 미만인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16세 및 17세 아동은 스스로 개설 가능함. 현금 주니어 ISA는 저축액에 대한 세금을 면제
 - 주식 투자 주니어 ISA는 주식 투자 후 발생한 수익이나 배당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 연간 최고 저축액이 3,600파운드로 제한되어 있고 두 유형의 통장에 나눠 넣을 수 있음.
- 헬프 투 세이프 (Help to Save)
 - 2018년 4월 시행된 정책으로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설계됨.
 - 지원대상은 저소득 근로자 세제 혜택을 받는 근로빈곤층. 근로자가 월 50파운드까지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액의 50%를 추가로 적립함. 2년간 최대 1,800파운드를 모을 수 있고 원할 경우 2년 더 적립해 총 3,600파운드를 마련함.
 - 사용용도에 제한이 없고 가입자가 원하는 때 정부의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고 적립총액을 수령할 수 있음.

2) 싱가포르의 자산형성 지원 정책

- 아동발달계좌 (Child Development Account)
 - 미취학 아동의 건강과 초기교육을 돕기 위해 설계됨.
 - 2001년부터 아동이 태어나면 첫째와 둘째 아이에게는 싱가포르 4,000달러를 지급하고 셋째와 넷째 아이에게는 싱가포르 6,000달러를 지급함. 0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의 계좌에 가족이 적립을 하면 1:1의 비율로 정부에서 적립함.
 - 첫째와 둘째 아이에게는 싱가포르 6,000달러, 셋째와 넷째는 싱가포르 1만 2,000달러, 그 이후의 아동에게는 싱가포르 1만 8,000달러까지 부모가 적립할 수 있고 그 금액만큼 정부가 적립함.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 저축액은 아동보육, 의료비, 그리고 조기교육에 사용할 수 있고 아동이 6세가 되면 다음 자산형성 지원 계좌인 PSEA로 이전됨.
- 에듀세이브(Edusave)
 - 6세부터 16세까지의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설계
 - 주로 운동, 교재비, 학습 여행 등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필요한 부수적인 지출에 사용함. 부모는 따로 적립하지 않고 정부가 7세부터 11세 아동에게는 매년 싱가포르 230달러를, 12세부터 18세 아동에게는 290달러를 적립함.
 - 에듀세이브에서 쓰고 남은 돈은 PSEA로 이전됨.
- PSEA (Post Secondary Education Account)
 - 학생의 대학등록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됨.
 - 2008년 이후 7세부터 20세까지의 아동 청소년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첫째와 둘째 아이에게는 싱가포르 6,000달러, 셋째와 넷째는 싱가포르 1만 2,000달러, 그 이후의 아동에게는 싱가포르 1만 8,000달러까지 부모가 적립할 수 있고 그 금액만큼 정부가 적립함.
 - 저축액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채 30세에 도달하면 노후소득보장 상품인 Central Provident Fund로 이전됨.

3) 미국 오리건주 소상공인 사업 지원 프로그램 (Small Business Grant)

- 목적지정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 미국 오리건주의 자선단체인 머시 코어 노스웨스트(MERCY CORPS Northwest)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참여자를 오리건주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고 사업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게 목표
- 참여 자격
 - 실주거 부동산 자산과 퇴직연금을 제외한 가구 자산이 미화 2만 달러(2,300만원)이하
 - 가구원 수에 따라 연 가구 소득 제한 있으며 오리건주 안에서 사업체를 운영해야하고, 위의 지원 자격에 해당된다면 동업자 및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배우자도 참여할 수 있음.
- 지원 절차
 - 참여 희망자는 신청 전 단체가 운영하는 신용관리 및 사업체 운영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야 함.
 - 참여자는 최소 월 25달러씩 적립, 단체는 1:5의 비율로 적립(25달러 적립시 125달러 적립). 참여자는 최종적으로 1,000달러까지 적립하고 5,000달러가 더해진 6,000달러를 수령할 수 있음. 최소 참여기간은 13개월임.

-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4시간 분량의 사업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참여자는 구매할 물건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 작성 후 제출. 단체는 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제출된 계획서를 검토 및 승인
- 프로그램 종료 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이 환납됨.

• 특징

- 1대 5의 높은 매칭 비율을 설정하지만 수령 가능한 금액을 6,000달러로 한정해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의 부담을 줄임.
- 참여자의 월 최소 적립금은 25달러. 참여자가 역량과 계획에 따라 참여에 따른 부담을 조정할 수 있게 함.
- 소득이 불확실한 자영업자들이 중간에 탈락하지 않도록 최소 참여 기간을 13개월로 한정

4) 해외사례의 시사점

• 참여자의 유형 다양화

- 현재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산형성 지원 정책은 대부분 참여자를 저소득 중소기업 임금노동자로 한정함.
- 자영업자, 프리랜서의 경우 자산형성이 필요하지만 참여할 수 없음. 미국 오리건주 소상공인 사업 지원금 프로그램은 이들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짐.

• 사용처에 대한 관리

- 형성된 자산이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도움.
- 사업에 필요한 물품구매로 사용처를 한정하고 승인절차를 밟도록 일정 부분의 강제성도 가지고 있음.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Part. 3

주거

1. 청년 주거

1) 청년 주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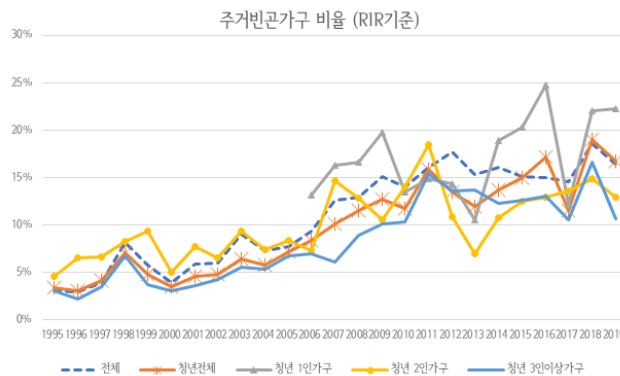
• 청년 주거 빈곤

- 청년 주거빈곤가구 비율을 통해 청년 주거현황을 살펴보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주거빈곤가구가 청년의 15% 이상임. 특히 청년 1인 가구는 22%가 넘는 청년들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음.
-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로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9%대로 여전히 일반 가구(6%미만)보다 높음.
-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측면으로 보나, 주거 환경으로 보나 비청년 가구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남.

※ 가구의 주거 빈곤은 보통 크게 두 방식으로 측정. 가구 소득대비 주거비 지출로 보는 방식에서는 주거비가 가구소득의 30%를 넘을 때 주거 빈곤 가구로 봄. 주거 환경을 중심으로 주거 빈곤 가구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필요한 주거 면적과 방의 구성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에 미달한 가구를 주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로 봄. 예컨대 청년들이 많이 살고있는 1인 가구의 경우 부엌이 없거나 총 주거면적이 14m²보다 작을 경우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임.

▶ RIR기준 주거빈곤가구 비율 (전국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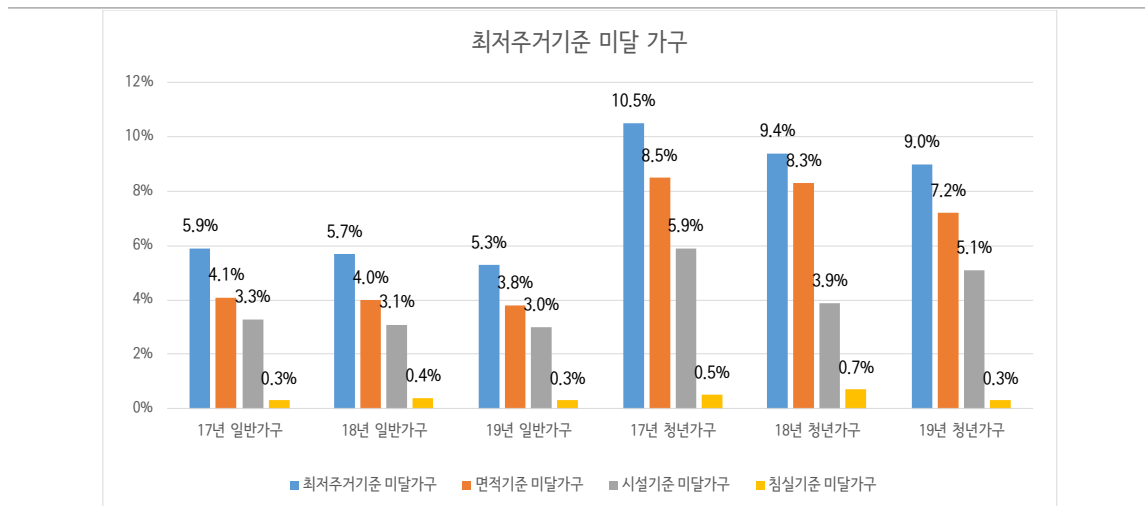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가계동향조사, 주택가격동향조사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전국청년)

(단위: %)



출처: 주거실태조사

2) 주거비 부담

• 주거비 부담

- 조사대상자의 68.6%가 주거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운데, 저소득층 및 월세 세입자일수록 ‘매우 크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특히 고시원 거주자에서 주거비 부담 질문에 ‘매우 크다’는 응답이 42.5%에 이룸. 소득 중단시 주거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부모에게서 독립해 사는 비동거 가구의 경우에도 상당한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음. 이 경우 고용 형태, 소득 수준에 따라 주거비 부담도 차이가 남. 풀타임과 그렇지 않은 임시직, 프리랜서 등의 경우 주거 유형, 주거비 부담 등에서 차이가 큼.
- 풀타임은 전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파트타임은 반전세/월세인 경우가 많음. 따라서 소득중단의 여파가 주거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파트타임, 프리랜서 층에서 소득 감소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감염병 영향으로 보임.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주거 점유 및 고용 계약 형태별 주거비 부담 인식 (서울청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부담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부담된다	계
전체		(3,000)	9.7	21.6	68.6	100.0
주거 점유형태	자가	(1,261)	12.6	24.1	63.3	100.0
	전세	(951)	7.4	19.2	73.4	100.0
	월세	(701)	7.0	21.5	71.5	100.0
	기타	(87)	16.1	12.6	71.3	100.0
고용 계약형태	풀타임	(1,658)	10.1	23.6	66.3	100.0
	파트타임	(161)	12.4	19.9	67.7	100.0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184)	7.6	21.2	71.2	100.0
	무직자	(612)	7.5	17.0	75.5	100.0

출처: 서울청년 실태조사

• 자산형성과 주거비

- 본 조사에서 청년 전체의 월 평균 소득(252만원) 중 주거비(35만원)가 차지하는 비율 17.3%임.
-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했으며, 동시에 월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 청년의 경우 월 평균 57만원을 월세로 지출. 이는 월 소득(235만원)의 38.1%에 달함. 이는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RIR)을 기준으로 보면 주거 빈곤층에 속함. 결국 월세 세입자 청년의 경우 소득에서 주거비를 제하면 소득의 약 60% 내에서 생활은 물론 향후 미래를 대비한 자산형성을 동시에 해야하는 셈임.

3) 주거취약 청년집단 유형

- 본 조사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주거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했지만 청년이 속한 집단별 요구점이 다름. 집단별로 필요한 주거의 형태, 경험하는 불편함이 다르므로 정책접근도 상이해야 함.
- 청년 1인가구는 지난 몇 년간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집단으로 전국과 서울에 모두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좁고 불편한 주거환경에서 지내며 돈을 모아 더 나은 주거환경을 준비하는 이른바 '몸테크'를 하는 청년도 있음. 본 조사에서는 부모의 지원을 받아 혼자 사는 청년과 스스로 벌어서 사는 독립 1인 청년을 구분해서 분석함.
- 청년 기혼가구는 독립적으로 가정을 꾸려갈 보금자리를 구해 정책수요가 잘 알려져 있음. 분석결과 결혼을 한 이후에도 부모와 함께 사는 부부가 있어 기혼 응답자와 결혼 후 분가한 응답자를 구분
- 아래에서 '룸메이트 가구'는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주거형태로 부모나 부부 등 가족이 아닌 친구, 직장동료 등과 같이 사는 가구를 뜻함. 많은 경우 혼자 독립해서 살기 어려운 청년들이 주거비를 나눠 낼 친구와 같이 살고 있음. 또, 최근 들어 셰어하우스와 같은 새로운 주거형태가 관심을 받고 있어 룸메이트 가구를 분리해 살핌.

- 서울생활 새내기는 서울에 주거지를 마련한 지 3년 미만의 집단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생활의 도움을 얻을 수 없는 등 불편함을 갖고 있음. 또 타지에서 생활한다는 점이 주거의 특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분석
- 부모 의존청년은 소득 없이 부모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청년으로 정의함. 이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단독 주거를 마련할 수 없으며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함. 이들 역시 주거문제에 있어 어려움. 특히 가족과의 불화 등이 도드라질 것으로 예상

• 청년가구 유형별 주거지 점유형태

- 조사 대상인 서울 청년 중 주거지를 소유한(자가) 청년 비율은 42.0%로 나타남. 청년 1인 가구와 서울생활 새내기 가구는 자가 비율이 10%대로 매우 낮게 나옴.
- 주거점유형태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청년들이 더욱 안정적인 형태의 주거로 넘어갈 수 있는 지원이 필요. 전월세 시장의 현황을 반영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함. 청년들에게는 직접적 지원 성격의 정책인 공공임대도 선호가 높음.

▶ 청년가구 유형별 주거지 점유형태 (서울청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 세 포함)	보증금 없는 월세	무상	기타
전체		(3,000)	42.0	31.7	20.8	2.5	2.0	0.9
청년 1인 가구	1인 가구	(603)	9.6	36.2	45.4	5.8	2.2	0.8
	1인 가구& 경제독립	(453)	10.2	41.5	42.6	3.5	2.0	0.2
청년 기혼가구	기혼/사실혼 (동거)	(660)	43.9	41.8	11.1	1.4	1.4	0.5
	결혼 후 분가	(584)	42.3	44.5	10.3	1.2	1.4	0.3
룸메이트 가구		(266)	31.2	26.7	35.3	2.6	3.0	1.1
서울생활 새내기		(254)	13.0	33.5	42.1	8.3	2.4	0.8
부모 의존청년		(415)	54.5	28.9	10.6	1.9	2.7	1.4

출처: 서울청년 실태조사

• 청년 주거의 질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은 부모와 같이 사는 청년보다 주거의 질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임. 또 면적이 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1인 가구 경우 불편함이 심할 것으로 보고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상의 불편함을 살펴봄.
- 조사대상자의 60% 가까이 되는 1인 가구 청년들이 집안의 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서울에서 거주한지 3년 미만의 서울생활 새내기 경우 71.2%가 집이 좁아 불편함을 호소함.
- 방음, 안전, 위생의 문제 역시 1인 가구의 30% 이상이 겪는 불편함으로 나타남.
- 부동산 자산 규모 별 주거 만족도를 살펴보면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불만족하는 비율은 감소, 만족하는 비율은 대체적으로 증가함.
- 특히 5억 이상의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청년의 경우 62.3%가 주거 환경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함.

▶ 혼자 살면서 느끼는 주거에서의 불편함 1, 2, 3순위 (서울청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집이 좁아 공간이 부족하다	방음이 잘 안된다 (층간 소음)	안전성이 떨어진다	위생 관리가 어렵다	누수, 곰팡 이, 결로 등 문제 발생 시 관리가 어렵다	더위나 추위에 취약하다	택배 받기가 어렵다	기타	해당되는 경우가 없다
1인 가구 전체	(603)	59.7	36.3	34.7	33.5	29.0	16.4	13.6	2.5	45.8
1인 가구&경제독립	(453)	60.9	38.2	33.3	34.0	29.4	15.9	13.2	2.2	45.0
서울생활 새내기	(660)	71.2	31.1	41.7	34.8	31.1	15.2	6.1	3.0	52.3

출처: 서울청년 실태조사

▶ 청년가구 유형별 부동산 점유 형태 (서울청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평균(100점)
전체		(3,000)	16.5	35.3	48.2	59.0
청년 1인 가구	1인 가구	(603)	23.4	41.3	35.3	52.5
	1인 가구& 경제독립	(453)	25.8	38.9	35.3	51.4
청년 기혼가구	기혼/사실혼 (동거)	(660)	15.3	36.7	48.0	58.4
	결혼 후 분가	(584)	15.2	36.1	48.6	58.7
룸메이트 가구		(266)	17.7	39.1	43.2	57.0
서울생활 새내기		(254)	21.7	37.0	41.3	55.8
부모 의존청년		(415)	12.0	34.9	53.0	62.5

출처: 서울청년 실태조사

부동산 자산 별 주거만족도 (서울청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평균(100점)
전체	(3,000)	16.5	35.3	48.2	59.0
부동산자산 없음	(2,134)	16.5	35.2	48.3	59.2
5천만원 미만	(163)	21.8	38.2	40.0	54.6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	(172)	23.6	30.9	45.5	54.7
1억 이상 3억 미만	(223)	16.6	37.2	46.2	57.3
3억 이상 5억 미만	(101)	13.9	43.6	42.6	58.9
5억 이상	(207)	7.8	30.0	62.3	65.6

출처: 서울청년 실태조사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2. 청년 주거 정책 현황

• 서울시 정책 현황

- 서울시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출 지원, 그리고 대출 이자 및 월세 지원으로 나뉜.
-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으로 서울 지하철 역 부근에서 민간 사업자가 건물을 지으면 서울시가 8년간 청년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함.
- 대출지원 정책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금융위원회, LH공사 등 다양한 공공기관이 제공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지원을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 가구에겐 까지 제공하면서 가장 넓은 범위를 담당하고 있음.
- 대출 이자 및 월세지원 정책은 주거를 목적으로 발생하는 월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 서울시는 월 20만원까지 10개월간 저소득 청년가구에 지급하고 있음.
- 서울시는 주택공급, 임차보증금 지원, 월 주거비 지원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주거지원 정책을 모두 제공하고 있음.

• 정책의 문제점

- 정부 혹은 서울시 등 시행 주체에 따라 연령, 소득, 기타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청년 입장에서 가장 적합한 정책을 찾기 어려움. 여러 시행주체의 중복사업을 정리하고, 청년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천해줄 수 있는 전달체계에 대한 요구가 있음.
- 시행 주체마다 다른 양식의 서류를 요구하면서 정책 접근성이 매우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함. 신청자가 정보 공유를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서울시와 주택도시기금 등 주요 시행 주체는 청년이 같은 서류를 여러 번 제출하지 않는 등 정책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정 수준 이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현재 공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품질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음. 역세권 등 도심 접근성보다 오히려 주거 면적 확대에 대한 수요 등 정책 대상자의 필요를 분석하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함.

• 타 지자체 주거 정책 현황

- 타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정책은 서울시의 주거지원정책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 다만 지역 경제사정에 따라서 지원 규모나 대상자의 범위가 일부 수정됨.
- 부산광역시의 경우 서울 정책을 참고해 만든 정책이 눈에 띈. '부산드림아파트'의 경우 서울시의 역세권청년주택의 부산 버전으로 볼 수 있음.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사업인 머물자리론과 청년월세 지원의 경우 정책 방식은 서울시와 유사하나 지원 규모와 대상을 비교적 제한하고 있음.
- 경기도는 주택을 임대해 제공하기보다는 기숙사를 짓거나 주택을 매입해 청년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음. 초기 비용은 더 많이 들지만 역세권 청년주택의 8년 임대 기한 제안을 둘러싼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음.
- 서울시도 공공임대주택이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형태의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해야 함.

- 대전광역시의 경우 부모와 비동거중인 청년 가구를 부모가구와 분리해서 보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시작해 청년 단독가구에도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법률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접근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서울수도 신규 정책 입안과 동시에 현재 정책 범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함.
- 경기도 수원시는 이사한 청년이 필요한 장비를 빌려주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전동드릴, 캐리어 등 이사에 필요한 물품과 더불어 불법촬영 감지장비를 빌려주고 있음. 또 집에서 행사 등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빔프로젝터를 대여하고 있음. 혼자 구매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사용 빈도가 높지 않은 장비를 공동자산화 한 점이 돋보임.
- LH공사와 경기도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사업은 IT, 문화컨텐츠 등 특정한 산업 내 스타트업 창업자와 종사자를 한 지역에 묶는 테마형 주거 환경을 제공함. 주거 공간을 개인의 공간을 넘어서 교류와 공동체의 공간으로 바꾸려는 시도로 서울수도 시도해 볼 만 함.
- 부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 다수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음. 서울시에도 9만호가 넘는 빈집이 있으며 이를 활용해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 청년 주거지원 정책 현황

정책	내용	주관기관	연령 기준	소득 기준	기타 기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우대금리 1.5% 적용	국토교통부	만19~34세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 맞춤형 월세자금 대출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	금융위원회	만19~34세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최대 7천만원 대출	금융위원회	만19~34세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지원	최대 2억원까지 대출	서울시	없음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	7년 이내 신혼부부, 무주택자
역세권청년임대주택	서울 지하철역 350m 이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서울시	만19~39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110%, 120% 이하	무주택자(공통)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역세권 청년주택 무이자 임차보증금 지원	최대 4500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대출	서울시	만19~39세	연소득 6천750만원 이하 / 자산 2억 3,700만원 이하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청년 월세지원	월 20만원까지 10개월간 지급	서울시	만19~39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최대 7000만원까지 최저 1.0% 금리로 대출	서울시	만19~39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공통) 대학생, 구직자, 사회초년생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최대 1억원 대출	주택도시 기금	만19~39세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최대 7천만원 대출	주택도시 기금	만19~34세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보증금 최대 3천 5백만원, 월세금 최대 960만원 대출	주택도시 기금	만19~34세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이하 /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
청년전세임대	최대 1~1.1억원 대출	NH공사	만19~39세	월평균 소득 265만원 이하 / 자산 2.37억 이하 /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대학생, 취업준비생

출처: 서울특별시 청년청 누리집,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금융위원회 누리집, NH공사 누리집, 국토교통부 누리집, 복지로 누리집

▶ 청년 주거지원 정책 현황 (타 지방자치단체)

정책	내용	주관기관	연령 기준	소득 기준	기타 기준
머물자리론	최대 3천만원 임차보증금 용자 및 이자 지원	부산광역시	만19~34세	본인 연소득 3천만원, 부모 6천만원, 부부 합산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부산드림아파트	역세권 지역에 건축 규제 완화를 해주고 부산시가 8년간 임대해 청년들에게 공급	부산광역시	-	신혼부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사회초년생 80%이하	취업 5년 이내, 결혼 7년 이내, 시 지정 우수 중소기업 근무 무주택자
부산청년 우리집 (부산쉐어하우스)	빈집을 제공받아 리모델링 후 청년에게 임대공급	부산광역시	만18~28세	-	청년 및 취업준비생, 입사 3년 미만 경과자
청년 월세 지원	월 10만원, 연 100만원 월세 지원	부산광역시	만18~34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취창업 재직 청년을 위한 월세 비용 지원	월 10만원 7개월간 지급	인천광역시	만19~39세	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4천만원 이하, 월세 월 40만원 이하, 1인가구, 재직청년
기존주택 매입 임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인천광역시	-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가구 1순위	시중 전세가의 30%로 임대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최대 1억 5천만원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광주광역시	만19~39세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본인 소득 4천만원 이하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직장인인 무주택자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협약 특별대출	1억5천만원까지의 임차보증금의 90%이나 7천만원까지 0.5% 이자로 대출	광주광역시	만19~39세	부모 연소득 7천만원, 본인 4천5백만원,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비동거 20대 청년의 가구를 독립세대로 보고 주거급여 별도 지급	대전광역시	만19~30세	중위소득 45% 이하	부모와 자녀 세대 모두 주거급여 대상자일 경우 적용
세종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	기숙사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호실당 30만원씩 10개 호실에 대한 월세 지원	세종특별 자치시	-	-	5년 미만 근무자에게 제공
경기도 기숙사	대학생 및 청년 대상 공공기숙사 제공	경기도	-	-	1년 이상 경기도 주민등록자
기숙사형 매입임대	학교 인근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대학생 기숙사로 제공	경기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미만 이하, 자산 7,500만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자	대학교 재학 및 입학/복학 예정자, 미혼 무주택자
청년매입임대	경기도가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청년에게 임대 2년씩 최대 6년 거주가능	경기도	만19~39세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가구 1순위	대학생, 취업준비생 대상. 대학교 졸업, 취업시 재계약 불가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정책	내용	주관기관	연령 기준	소득 기준	기타 기준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사업	내주택에 입주자 추천	경기도 성남시	만19~39세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100% 이하	성남시 전략사업 (예비)창업자 및 해당기업 종사자
슬기로운 자취생활	불법촬영탐지기, 캐리어, 전동드릴, 미니빔, 운동기구 대여	경기도 수원시	만19~39세	-	-
귀향 청년 빈집주택 수리비 지원	농가주택 매매나 5년이상 임대자에게 1천만원 수리비 지원	전라남도 고흥군	만19~49세	-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불가 고흥군 전입 3년 미만자,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자
청년주택수당	3년간 월 10만원 지급	경상북도 김제시	만19~39세	-	결혼 3년 이상 경과 유자녀 부부

출처: 부산청년플랫폼 누리집, 경기청년포털 누리집, 대구 청년정책 누리집, 광주청년센터 누리집
대전청년 청춘광장 누리집,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누리집, 세종특별자치시 세청나래 누리집

3. 청년당사자 및 전문가 정책 평가

1) 청년당사자 정책평가

- 청년 당사자들의 정책 평가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 정책별로 인지도, 참여경험, 참여의향, 도움정도에 대해 물었음.
 - 인지도에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 청년 월세지원 > 역세권 청년주택 > 청년 임차보증금 용자 지원 순으로 나타남. 청년 임차보증금 용자 지원의 경우 27.8점으로 매우 낮은 인지도 점수를 받음.
 - 참여의향은 청년 임차보증금 용자 지원 > 청년 월세지원 > 역세권 청년주택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순으로 높았음. 청년 임차보증금 용자 지원은 인지도가 낮지만 참여의향이 높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도움정도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 청년 임차보증금 용자 지원 > 청년 월세지원 > 역세권 청년 주택 순으로 나타남. 네 정책 모두 60점대 초반의 비슷한 점수를 받음.
 - 주거 지원 정책 중에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이 인지도와 도움정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음.
- 청년들은 주거 지원정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음. 다만 주거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출과 매매용 주택 공급을 원하는 의견이 있음.

“저도 집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도 하고 저는 처음부터 전세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제 힘으로 전세 어느 정도 되는 건 구할 수 있는 시기인데, 전세에서 매매로 올라가기는 갭이 너무 크다. 올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살 수만 있다면 사고 싶다” - 유○○, 30세

“저도 이○○님 말씀에 동감하게 집이 유일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것 같다. 차는 쓰면 쓸수록 감가상각 되는데, 집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상승폭이, 지방보다 서울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저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야 하나보다 라는 생각을 한다” - 한○○, 2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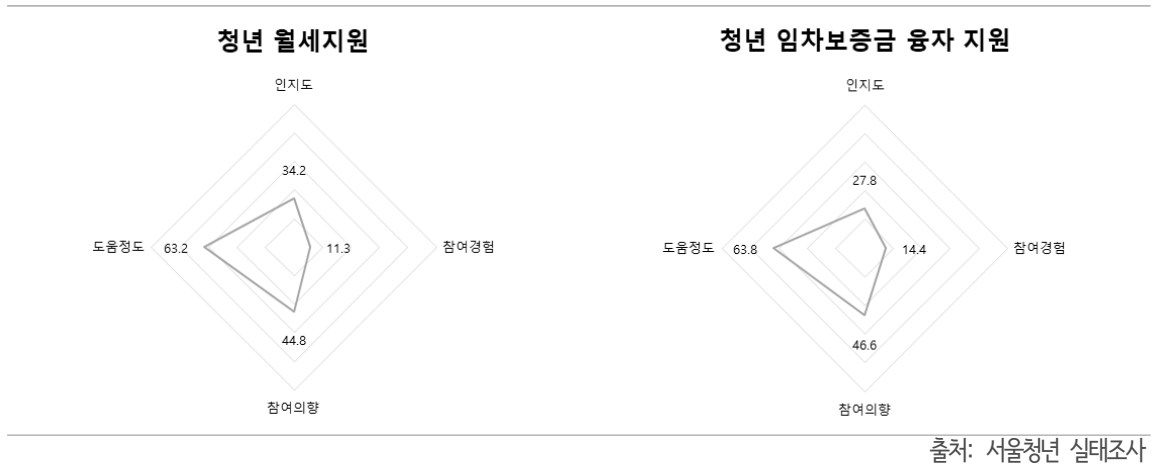
“일단 부동산도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다. 제가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차이가 큰집이 가장 좋은집이다” - 장○○, 31세

“집값이 계속 너무 많이 올라서 집을 빨리 사지 않으면 나중에 집 사기 힘들 것 같다” - 김△△, 25세

“집을 사면 월세가 안 드니까, 그걸로 좀 더 저를 위해 쓸 수 있을 것 같다” - 이△△, 27세

청년 월세지원과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평가

(단위: 점)



- 청년 월세지원에 대해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청년의 경우 당장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월세지원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

“주변에 월세 사는 친구들이 많기도 하고 일단 딱 눈에 보이는 게 줄어들면 뭔가 안정적인 것처럼 보인다” - 이○○, 29세

-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에 대해 공공의 자원이 지출된 이후 회수되지 않는 월세 지원 정책보다는 결과적으로 자산이 모이는 융자 지원 상품을 더 좋게 평가하는 의견도 있음.

“저는 월세는 임대인한테 주는 것이다 보니까 제가 계속 돈이 없어지는 거지, 모을 수는 없다. 차라리 대출이 낮겠다고 생각하는 게 원금을 계속 갚아나가면 제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 유○○, 30세

“조금 꼬아서 생각하면 집을 구하는데 보증금이나 융자를 지원해준다는 게 기초를 마련해주는 느낌인데 월세를 지원해주는 건 그냥 돈을 뿌리는 것 같다” - 김○○, 28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과 역세권 청년주택 평가

(단위: 점)



-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참여할 의향은 있는 경쟁률이 너무 높고 조건이 까다로워 지원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음.

“SH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데 너무 확률도 적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제한조건도 까다롭고 빛 좋은 개살구다” - 장○○, 31세

-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공공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품질에 대한 불신이 있음.

“공공주택이라고 하면 약간 믿음이 안 가는 것 같다” - 장○○, 31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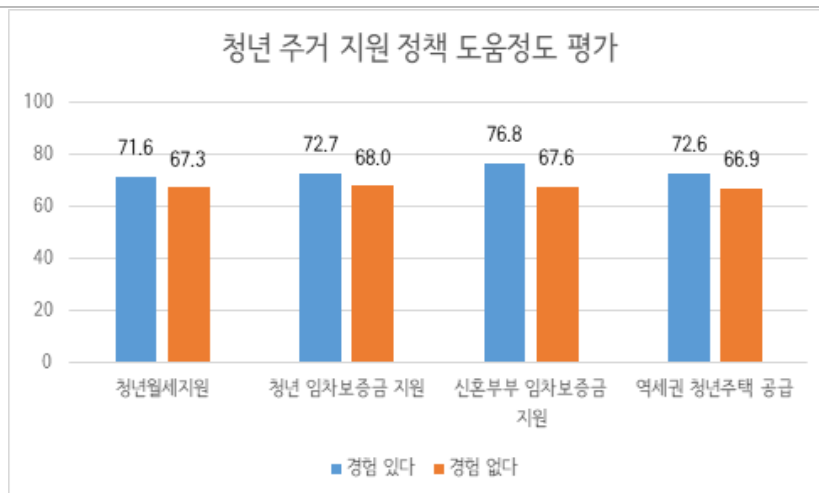
“뭔가 사후처리라고 해야 하나, 뒤처리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잘 안 될 것 같고, 공공주택에 허위로 들어가거나 주민들간에 논쟁이 생겼을 때 해결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좀 걱정된다” - 이△△, 27세

“공공주택의 경우는 싸거나 퀄리티가 좋지는 않더라” - 설○○, 25세

- 주거 지원 정책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평가
 - 정책 참여 청년과 비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의 도움정도를 평가한 결과, 두 집단 5점 정도의 차이가 있었음.
 - 정책 참여 경험이 있는 청년 집단은 비교적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기대한 것과 비슷하거나 더 만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최근 대상자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정책이 참여자로부터 도움정도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음.

▶ 정책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주거지원 정책 도움정도 평가

(단위: %)



※정책 인지층을 대상으로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평가를 비교함
출처: 서울청년 실태조사

2) 전문가 정책평가

- 1인가구, 신혼부부 중심의 청년주택의 한계
 - 서울살이 새내기 학생의 경우 월세를 나눠내기 위해 2-3인이 동거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정책 범위에 들어가지 않음.
 - 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의 경우 물량이 공급되고 있지만 면적이 너무 작아 아이를 키우기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짐.
- 임대주택의 품질문제
 - 주변 환경이 터무니없이 불량하거나, 면적이 너무 작거나, 창문이 없는 등 최소생활을 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있음.
 - 호텔을 개조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바닥이 카펫으로 되어 있어 생활에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었음.
 - 역세권 임대주택의 경우 건설비용이 비싸 면적이 매우 좁게 지어지니 청년 혼자 살기에도 불편한 경우 다수. 정책 수요자의 니즈를 조사해 도심과의 거리보다 충분한 면적 확보를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함.

4. 해외사례

1) 해외사례 정리

- 영국의 로위 가디언스(Lowe Guardians)
 - 영국은 주거비가 비싼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저소득, 저자산 청년들은 소득에 비해 높은 주거비 부담을 경험하고 있음.
 - 스타트업인 로위 가디언스는 청년들을 빈집의 관리자로 소개해 주거를 제공. 빈집의 주인들을 설득해 무료로 확보한 뒤, 집을 청소하고 청년이 월 400파운드(약 59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
 - 청년은 저렴한 가격에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집주인은 빈집을 손쉽게 관리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음. 빈집에 청년이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를 활성화 해 공공의 이익으로 이어짐.
- 바르셀로나의 임차인 보호 정책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임차인들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바르셀로나 시 정부는 2020년 3월 13일 국가경계령이 발표된 이후 최대 6개월간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강제퇴거를 금지
 - 국가경계령 발효 당일로부터 3개월 미만의 기간안에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은 최대 6개월까지 자동 연장되도록 함.
 - 주택을 1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대 4개월간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게 함. 또 3년간 분할납부 할수 있도록 조치함.

- 소규모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를 유예 요청을 거부할 수 있음. 그 경우 임대인은 스페인 금융공사로부터 임대료를 대출받아 6개월치 월세에 대해 10년동안 무이자로 상환할 수 있음.
- 젠더 폭력 피해자, 노숙인, 취약계층은 600유로 상당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공과금 및 관리비 항목으로 200유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바르셀로나시가 운영하는 주택재활시설에 사는 임대인 8,748가구는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이후에 분납하도록 조치함. 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임대료를 맞춰 감액함.

2) 포이어 모델(The Foyer Model)

- 목적성 단기주거정책으로 포이어 모델은 교육, 취업준비, 직업훈련중인 청소년에게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주거를 제공. 단순한 주거정책이 아니라 취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과 차별점이 있음.
- 운영 방식
 - 입주한 청소년은 직업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하겠다고 서약
 - 주거 제공기관은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
 - 취업 지원이 상위의 목표이며 취업할 수 있도록 주거가 부수적으로 제공됨.
- 지원 내용
 - 종합적으로 취업을 지원
 - 취업 관련 지원 할 멘토 상주
 - 거주자간의 교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공
 - 취업 후 퇴거하는 거주자가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
 - 청소년 개인의 필요에 맞춘 서비스 제공

3) My Foundations(Transitional Housing Plus)

- 포이어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
 - 거주기간인 6개월에서 18개월은 청소년이 자립을 위해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임.
 - 사업 수행기관이 건물과 사업비를 마련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 대안
 - 거주자는 6개월 단위로 임대를 갱신할 수 있으며 최장 5년까지 거주할 수 있음.

- 5년 동안 임대료를 서서히 올려 청년이 더 높은 소득을 올리도록 유도함.
- 시설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외부 기관에 교육, 상담 등 업무를 위탁해 시설마련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줄임.
- 거주자에게 직업훈련 참여와 관련된 서약을 요구하지만 더 유연한 형태의 참여를 요구하기도 함.

4) 해외사례의 시사점

- 종합적인 청년 자립 지원 정책의 필요성
 - 현재 한국의 청년 정책은 영역에 따라 분절되어 있음. 즉 일자리, 주거, 자립 등의 문제가 모두 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이 어려움.
 -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주거비 마련이 어렵고 결국 자립하지 못하는 청년의 경우 한 가지의 서비스만 제공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예컨대 저렴한 비용의 주거가 마련되어도 소득이 없으면 유지가 불가능하고, 일자리가 있어도 목돈이 없다면 월세로 인한 지출로 목돈을 마련하는데 긴 시간이 걸림.
- 포이어 모델의 가능성
 - 포이어 모델의 경우 청소년 자활을 위한 시설이지만, 이를 한국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적용을 고려해볼만 함.
 - 한국 청년의 대학교 졸업 후 평균 10.8개월이 걸림. 이들이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6개월에서 1년 동안 살 만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음.
 - 특히 지방에서 올라와 취업을 준비하거나 대학교에서 나와 살아야하는 졸업생의 경우 취업할 때 까지 살 수 있는 임시거처가 필요
 -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유 공간, 시설들을 제공할 수 있음.

Part. 4

마음건강

1. 개요

1) 청년 마음건강 현황

- 한국 사회는 ‘울분사회’로도 불림. 한국인의 43.5%가 만성적인 울분 상태이며 심한 울분을 기준으로 하면 독일의 4배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2019년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에 의해 발표된 바 있음. 울분은 분노와도 다른 감정인데, 울분은 분노에 무력감이 결합된 복합적 감정임. 노력해도 달라지리라는 희망이 없을 때 울분이 됨. 해당 연구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20대와 30대 등 젊을수록 울분을 격하게 느끼고 있다는 점임.
- 코로나19로 취업이 막히고 인생 경로에 차질이 생긴 청년들이 심각한 우울감을 표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코로나19로 청년, 여성 등 약자층에 타격을 주면서, 우리 사회 약한 고리들이 해고, 휴직 등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도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20대 9만2130명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찾은 것으로 나타남. 2019년 전체 20대 환자(11만8166명)의 78%임. 지난해에는 2016년(6만3459명)의 2배 가깝게 정도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증가 폭이 큼.

▶ 2019-2020 우울증 환자 비교

(단위: 명, %)

구분	9세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2019년(A)	1,214	41,626	118,166	101,487	107,378	121,609	130,380	798,427
2020년 상반기(B)	557	22,627	92,130	75,151	79,075	86,627	100,910	592,951
전년대비 증가율%(B/A)	45.9	54.4	78.0	74.0	73.6	71.2	77.4	74.3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원이 의원실

- 자살률은 울분, 우울 등 마음건강의 심각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지난해 20대 여성의 자살률은 전년 대비 25.5% 늘었고, 올 1~8월 자살을 시도하는 20대 여성은 전체 자살시도자의 32.1%로 전 세대 통틀어 가장 많다고 보도되고 있음. 여전히 전체 자살률을 놓고 보면 남성 자살률이 여성보다 2~3배가량 높지만, 20대 여성 자살률의 증가 폭은 다른 세대와 성별을 훨씬 상회함.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해고 등 타격이 극심한 항공, 서비스 등 산업에 20대 여성들이 대거 취업하거나 준비하고 있거나 돌봄으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청년들의 마음 건강은 개인적인 기질의 차원을 넘어 사회 변화, 구조와 밀접한 연관을 지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부분임. 이미 선진국에서는 마음건강 등 정신건강과 우울,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경제·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정책 거버넌스와 체계를 가지고 있음.

2) 서울 청년의 '마음건강'

- 마음건강은 그 사회의 활력과 역동성, 신뢰와 연대, 문화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침. 사회 발전과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청년층의 마음건강은 사회의 미래와 연속성,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 특히 청년층은 하나의 코호트로 마음건강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공유하며 향후 중장년층으로 이동하게 됨. 따라서 청년층의 마음건강은 현재 시점에서만 다뤄질 이슈가 아니라 미래의 서울을 그려나가는 차원에서도 중히 다뤄져야 함.
- 학계에서는 비슷한 개념을 포괄하는 범위의 용어로 '정신건강'을 사용. '마음건강'의 학술적 용어 정립은 아직 다뤄지지 않았으나 '정신건강'에서 다뤄지는 분야와 크게 다르지 않음. 다만 정신건강은 의학의 한 분야로 정신질환까지 포괄하는 것에 반해, 마음건강은 일상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범주를 관리, 개선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보임. 상담학에서 다뤄지는 '마음챙김'(mindfulness)과도 다소 범위가 중첩됨.
- '마음건강'이라는 용어가 의학적 용어보다는 부드럽고 친근하며, 신체-마음의 대비를 이루고 있어 '마음'도 신체처럼 아플 수 있고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효과가 있음. 또한 신체가 아픈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듯 마음 역시 아프다면 상담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짐.
- 최근 서울시 및 기타 지자체, 상담 분야 등에서 '마음건강'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상의 관계와 내면의 심리상태, 우울감 및 고립감, 사회생활 지속의 어려움 등을 판별하고 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방향이 보임. 이 조사에서도 마음건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서울시 청년들의 심리상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자 함.
- 본 조사의 마음건강 내용과 선행연구 검토, 서울시 및 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책 사례, 해외 동향을 조사하고 청년당사자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 청년의 마음건강 현황과 관련 정책을 리뷰코자 함.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2. 서울 청년 마음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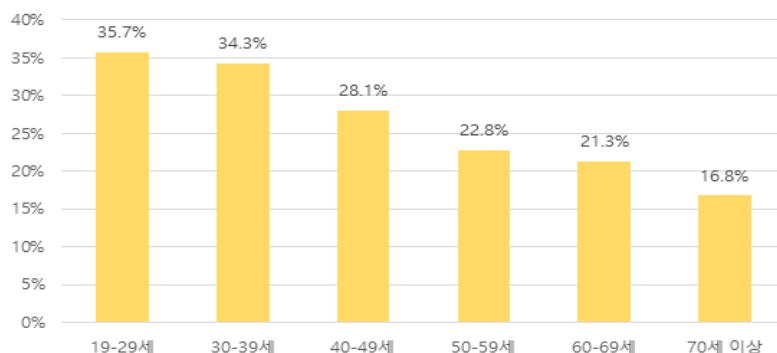
- 한국은 2003년 이후 매년 1만 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자살률 1위이며, 매일 38명이 자살(고의적 자해)로 사망하는데 이는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9명보다 약 4.3배 높은 수치(통계청)임.
- 청년의 경우 산업구조 변화로 취업문이 좁아지며, 졸업은 했지만 사회인으로서의 진입이 유예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높아지는 주거비 및 생활비로 인해 연애와 결혼을 포기 혹은 거부하는 등 경제·사회적으로 청년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음. 최근 십여년간 여러 청년 담론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상황에 따른 것임.
- 이와 같은 경제·사회적 상황은 청년들의 마음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이에 청년들이 느끼는 마음 건강의 실태를 통계지표 및 조사 자료를 통해 알아보고, 그들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코자 함. 특히 전국의 청년과 서울의 청년을 비교해 서울 청년들이 느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지도 알아봄.

1) 현황

- 스트레스 인지율(전국)
 - 해당항목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인 사람의 분율'을 나타내는 지표임(국민건강통계). 연령구간별로 20대는 35.7%, 30대는 34.3%에 달하는 청년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청년세대인 만19~39세의 스트레스가 타 연령구간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음.

▣ 각 연령구간별 스트레스 인지율

(단위: 점)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 수/만19세이상 분석대상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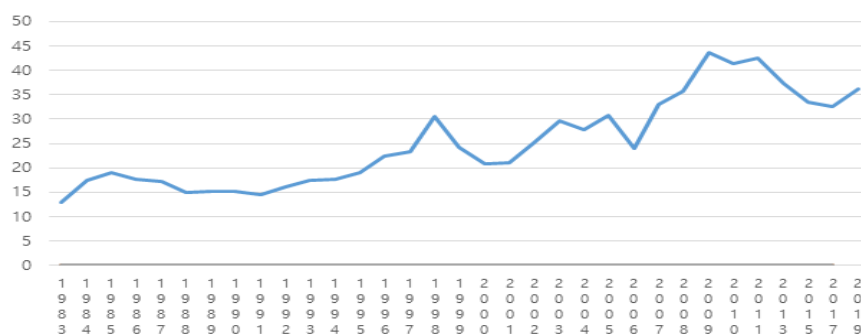
출처: 국민건강통계, 2018

• 자살률(전국)

- 자살률은 한 사회의 사회적 안정감 및 마음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임. 한국의 경우 2003년부터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위를 차지해오고 있고, OECD 자살률 평균의 2배를 기록하고 있음.
- 더욱이 10~30대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고의적 자해)이고, 20대의 사망원인 절반인 51%가 자살임.
- 청년세대의 자살률을 전체적으로 상향추세를 보이고 있음. 1983년부터 2019년까지 만19~39세의 자살률(십만 명 당)은 상향추세임. 청년세대와 노인세대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음.

▶ 만19~39세 인구 자살률 추이(인구 십만 명당)

(단위: 십만명)



※ 자살률 =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 연령별 5대 사망원인 사망률 및 구성비

(단위: 십만 명 당, %)

순위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
1위	고의적 자해(자살)	고의적 자해(자살)	고의적 자해(자살)	악성신생물	악성신생물	악성신생물	악성신생물	악성신생물
	5.9 (37.5%)	19.2 (51.0%)	26.9 (39.0%)	41.1 (28.7%)	119.6 (37.3%)	281.4 (43.1%)	695.0 (35.7%)	1402.6 (17.9%)
2위	악성신생물	악성신생물	악성신생물	고의적 자해(자살)	고의적 자해(자살)	심장 질환	심장 질환	심장 질환
	2.2 (13.7%)	4.2 (11.1%)	13.0 (18.9%)	31.0 (21.7%)	33.3 (10.4%)	57.0 (8.7%)	197.1 (10.1%)	972.2 (12.4%)
3위	운수사고	운수사고	심장질환	간 질환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1.8 (11.3%)	3.7 (9.9%)	3.9 (5.7%)	10.7 (7.5%)	25.4 (7.9%)	40.4 (6.2%)	152.3 (7.8%)	918.6 (11.7%)
4위	심장 질환	심장 질환	운수사고	심장 질환	간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폐렴	뇌혈관 질환
	0.7 (4.7%)	1.4 (3.6%)	3.8 (5.5%)	10.3 (7.2%)	23.4 (7.3%)	33.7 (5.2%)	137.2 (7.0%)	636.1 (8.1%)
5위	익사 사고	뇌혈관 질환	간 질환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간 질환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0.4 (2.8%)	0.5 (1.4%)	3.1 (4.5%)	8.2 (5.7%)	19.0 (5.9%)	23.5 (3.6%)	63.8 (3.3%)	325.7 (4.2%)

※ 악성신생물 :통상적으로 암으로 불리는 의학적 표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9

• 서울 청년의 우울감(PHQ-9)

- 정신의학 및 상담심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우울증 선별검사(PHQ-9)²⁾을 기준으로, 서울 청년들은 상태를 파악해봄. 보통 10점 이상인 경우부터 보다 엄밀한 우울증 검사를 요하는데, 조사 결과 서울 청년은 평균 8.03점으로 조사됨.
- 해당 항목의 경우 남성의 경우 7.39점으로 여성은 8.65점으로 조사되어 여성 청년의 우울감 지수가 다소 점수가 높게 조사됨. 가장 높은 점수가 조사된 집단은 여성 1인가구(서울 거주 여성×1인가구)로 9.20점으로 측정됨. 향후 정책에서 해당 집단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 요구됨.

▶ 서울 청년 우울감 조사(PHQ-9) 응답 분포

(단위: %)

구분	전혀 아니다			여러 날 동안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일에 대한 흥미 저하	27.2	32.9	21.4	41.2	39.2	43.3	18.6	17.0	20.3	13.0	10.9	15.0
가라앉은 느낌 혹은 우울감	35.9	41.4	31.5	39.5	36.4	41.8	15.1	13.1	16.8	9.5	9.0	9.9
과수면 혹은 수면 부족	35.2	41.1	29.5	33.5	31.6	35.7	18.6	16.2	20.8	12.7	11.2	14.0
피곤함 및 기력 저하	18.6	24.0	13.2	42.5	40.6	44.5	22.5	21.4	23.7	16.4	14.0	18.6
식욕 문제	38.3	45.1	31.5	35.5	32.3	39.0	17.9	15.8	19.7	8.3	6.8	9.8
부정적 느낌	52.3	55.8	48.7	25.8	23.2	28.5	15.1	14.7	15.5	6.9	6.3	7.4
집중도 하락	55.0	59.3	50.6	27.4	24.3	30.7	12.8	12.1	13.7	4.7	4.3	5.1
초조함	68.1	66.7	69.2	19.3	19.7	19.1	9.4	10.0	9.0	3.2	3.7	2.7
자해 생각	65.2	67.4	62.9	19.8	17.2	22.4	10.6	11.0	10.3	4.4	4.4	4.4

출처: 서울청년실태조사, 2020

- 특히 이번 조사에서 주의깊게 보아야 할 것은 우울감 조사 점수가 10점 이상인 청년들이 전체 1,061명으로 조사자의 1/3에 달하는 35.4%임. 이중 10~14점의 중간정도 우울증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558명으로 전체의 18.6%, 15~19점 사이의 중증도에 달하는 청년들은 330명으로 11.0%, 20점 이상의 심한 우울증을 나타내는 청년들은 173명으로 5.8%였음.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 블루’ 때문에 다소 우울감이 높게 측정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단기간에 종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시 당국에서는 청년들의 우울감 해소 및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각별한 케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서울 청년 우울감 조사(PHQ-9) 점수 구간별 분포

(단위: %)

구분	비고	사례수(명)	비율
0~4점	우울증 없음	(1,092)	36.4
5~9점	가벼운 우울증	(847)	28.2
10~14점	중간정도 우울증	(558)	18.6
15~19점	중등도 우울증	(330)	11.0
20점 이상	심한 우울증	(173)	5.8

출처: 서울청년실태조사,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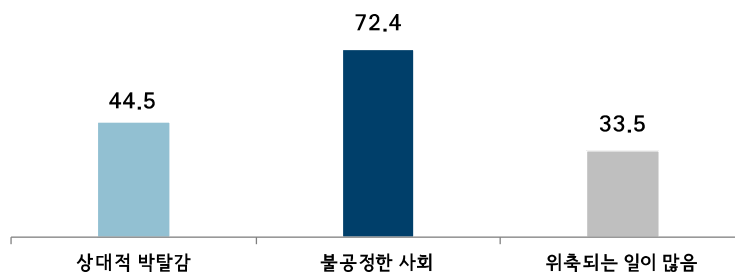
2) 문항의 9개 항목에 대해 ‘전혀 아니다’ 0점, ‘여러 날 동안’ 1점, ‘일주일 이상’ 2점, ‘거의 매일’ 3점으로 측정, 연구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0~4점은 우울증 없음. 5~9점 사이는 가벼운 우울증, 10~14점은 중간정도의 우울증, 15~19점은 중증도, 20점 이상이면 심한 우울증으로 평가함. 많은 연구에 따르면 보통 총합이 10점 이상일 경우 우울증 치료를 권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2) 청년 마음건강의 배경

- 지금의 2030 청년들은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의 변화 및 좁아진 취업문, 어려서부터 무한 경쟁에서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강박감, 심해지는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감, 부모세대와의 비교, 젠더 갈등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배경이 마음건강에 영향을 미침.
- 특히 서울은 청년들에게 각종 지원과 다양한 인프라를 접할 수 있는 곳이면서도 높은 주거비 및 생활비, 박탈감과 고립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공간임.
- 최근 코로나19로 학교, 학원, 직장, 소모임 등 청년들의 활동과 취업, 진로가 유예되자 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당장 취업 및 생업에 나서야 하는 청년들은 경제적 고통까지 겪고 있음.
- 상대적 박탈감 및 불안감
 - ‘세대균형 실태조사’(서울시, 2019)에 따르면 서울 청년들은 “우리사회는 정의에 어긋나고 불공정한 일이 많다” 72.4%, “상대적 박탈감을 자주 느낀다” 44.5%, “친구관계나 사회생활에서 위축되는 일이 많다”가 33.5%로 나타남. 특히 경제적 계층이 하층일수록 상대적 박탈감과 불공정성, 위축감이 많다고 느낌.

▶ 서울 청년이 느끼는 박탈감 및 위축감

(TOP2%, n=10,000, 단위: %)



출처: 세대균형 실태조사, 서울시(2019)

- 부모세대와의 비교 및 갈등
 - 인간관계 및 연애와 결혼, 취업, 내 집 마련 및 출산과 양육 등 전통적 삶의 단계별 과정에서 부모 세대보다 부담감을 가진 청년들이 많음. 위의 연구에 따르면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자신감 있다” 38.7%(기성세대 59.4%), “연애 및 결혼에 자신감 있다” 29.8%(기성세대 43.0%), “원하는 일자리를 갖는 것에 자신감 있다” 25.5%(기성세대 37.74%), “내 집 마련에 자신감 있다” 19.8%(기성세대 32.1%), “아이 양육에 자신감 있다” 16.7%(기성세대 39.1%)로 나타남. 이는 모두 부모 세대에 비해 낮은 수치로 청년과 부모가 느끼는 자신감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음.
 - 이는 청년과 부모의 갈등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됨. 청년들이 각 단계별로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의 격려와 지지가 필요한데 부모세대가 청년들이 느끼는 심적인 부담감을 이해하지 못할 때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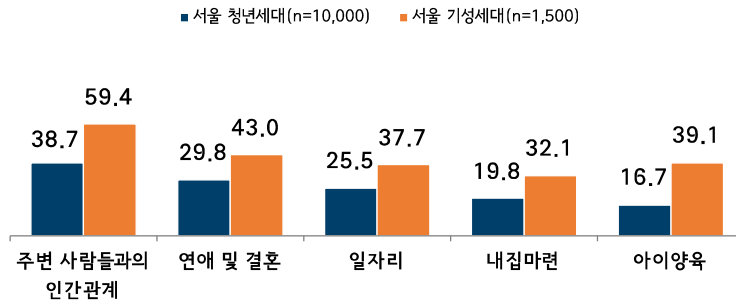
4장
결론

부록

- 더욱이 부모세대는 연애 및 결혼, 취업, 내집마련, 출산과 양육 등을 이행하며 이른바 '정상가족' 범주에 자식들이 진입하기를 바라는데, 각 단계별 자신감이 없는 청년들은 오히려 이를 포기하며 이탈하자 부모세대와의 갈등이 심해짐.

▶ 서울 청년과 기성세대의 항목별 자신감

(단위: %)



출처: 세대균형 실태조사, 서울시(2019)

• 젠더 갈등 및 격차

- 최근 한국사회의 청년세대 젠더갈등은 무척 첨예한 사안 중 하나임. 청년세대는 대학 등 고등 교육 진학시까지 비교적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교육 받으며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임.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에서 젠더 갈등, 여성/남성 혐오 및 차별의 양태가 생겨나게 됨.
-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매년 조사하는 성불평등지수에서는(아래 표) 한국은 중등교육 이상 받은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6%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데 반해, 경제활동 참가율은 약 19%나 차이를 보이고 있음. 또한 2019년 기준 남성 급여액의 67.8% 수준의 급여액을 받는 것으로 조사됨.
- 좁은 취업문에 청년 남성은 '알파걸'로 상징되는 청년 여성들의 약진에 위축되고, 반대로 청년 여성들은 취업 전선에서 보이지 않는 성별 차별로 좌절하는 경험을 겪게 됨. 또한 전통적인 남성 부양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문화들이 남아있어 청년 남성에게는 부담감으로, 청년 여성에게는 부조리함으로 다가와 갈등의 요소가 됨.
- 또한 올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겹치며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20대 여성 자살률이 4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불안정, 저소득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실직, 해고당하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물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우울감 및 자살 시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임.

한국 성불평등 지수(GII) 현황

(단위: 순위, 점, %)

구분		2013	2014	2015	2017	2018
순위		17	23	10	10	10
대상 국가수		152	155	188	189	189
점수		0.101	0.125	0.067	0.063	0.058
생식건강	모성사망비	16	27	11	11	11
	청소년 출산율	2.2	2.2	1.6	1.6	1.4
여성권한	여성의원비율	15.7	16.3	16.3	17	17
	중등교육 이상 받은 여성인구 비율(%)	77	77	88.8	89.8	89.8
	중등교육 이상 받은 남성인구 비율(%)	89.1	89.1	94.6	95.6	95.6
노동참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49.9	50.1	50	52.2	52.8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72	72.1	71.8	73.2	73.3

※ 점수가 0이면 완전 평등(no inequality), 1이면 완전 불평등

출처: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남성 대비 여성 임금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여자	월급여액	1,477	1,548	1,654	1,705	1,742	1,781	1,869	1,946	2,087	2,197
	남성대비비율	62.6	63.3	64.4	64	63.1	62.8	64	64.7	66.6	67.8
남자	월급여액	2,361	2,444	2,569	2,664	2,761	2,837	2,918	3,010	3,135	3,241

출처: 통계청

2019~2020년 상반기 여성 자살률 분포

(단위: 명)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2019년	207	312	333	325	214	227	195
2020년	296	306	333	319	242	151	223
증감률	43.0%	-1.9%	0.0%	-1.8%	13.1%	-33.5%	14.4%

출처: 보건복지부, 신동근 의원실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3. 정책 및 해외사례

1) 정부 및 지자체 정책 현황

- 2020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며 보건복지부 및 관련 부처,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이에 시 이상의 기초자치 단체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이행해야 함.
- 각 지자체별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 있음. 그 중 서울시의 '마음건강지원'이 규모 및 범위가 제일 큼.
- 서울시 '마음건강지원'
 -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서울시 거주 만 19세~34세 청년에게 1:1 마음건강 심층상담을 무료로 지원. 최대 7회기(1회기 50분) 제공. 2020년 첫 시작으로 같은해 4월 상반기 모집에 약 1천5백여명이 신청해 기본요건 충족한 1,344명에게 지원(700명 지원 예정). 프로그램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무료 상담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없애 상담의 문턱을 낮춰 청년층에게 실질적 효과를 이끌어 냄.
 - 프로그램 시작과 맞물려 전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상당부분 비대면으로 상담 진행. 상담가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오히려 온라인 상담으로 인해 상담 공간 및 거리 등 해소되는 부분이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
 - 청년제안자 및 전문가들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의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만큼 해당 정책의 연속성을 바라기도 함.
 - 다만 아직 프로그램 시작 초기인 만큼 인지도가 낮음. 그러나 참여한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아 차후 홍보와 경험자의 경험 등으로 상쇄 가능할 듯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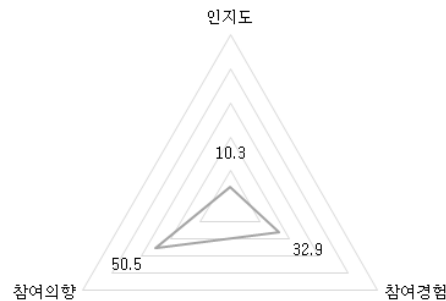
“그런 지원책이 많이 있어야 청년들이 마음쪽으로 갖고 있는 안 좋은 인식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감기 걸리면 병원 가듯이” - 이○○, 여성, 32세

“올해 서울시 마음 건강 했는데 되게 도움됐어요” - 이△△, 여성, 25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 정○○, 남성, 31세

▶ '서울시 마음건강 지원' 정책 평가(인지도-참여의향-참여경험)

(단위: 점)



출처: 서울청년 실태조사, 2020

• 보건복지부 '마음건강버스(심리지원버스)'

- 2016년 시작한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재난 발생 시 현장에 심리치료 지원 목적으로 운행. 그 외에는 비 상시적으로 정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해당 지역으로 심리치료버스 파견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 전문 요원 등으로 구성된 버스가 정신건강 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취약계층, 청년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진료 서비스 무료 제공

• 경기도 '청년마인드 케어'

-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2020년 시작.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질병코드 F20에서 29인 조현병, 망상장애와 질병코드 F30에서 39인 우울증 등 기분장애로 5년 이내 최초 진단받은 만 19-34세 경기도민 청년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일부 본인 부담금 중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제증명료를 1인당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
- 고위험군 청년이 방문 부담 없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년 공간 등에 정신질환 상담실을 별도로 운영.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비 지원, 사례관리 등을 통해 건강하게 사회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업
- 거주 지역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접수 시 후불로 치료비 지급

• 광주 '마인드 링크'

-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며 전남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 광주 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 전문가들이 함께 운영
- 정신건강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광주광역시 거주 15세-30세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상담과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 '조기발견 조기중재'를 목적으로 방문 및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청춘문답), 주말 및 위기상담(24시간 상담)등 다양한 상담 방식 지원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 그룹인지행동치료, 영양 및 신체건강 관리, 가족중재,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사례관리, 스트레스 관리, 학업 및 구직활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심리상담 서비스 운영 (국민, 확진자, 자가 격리자, 의료진 등)
- 부산 ‘청년 마음건강 증진’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직무 및 취업(학업)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대학생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정신건강 상담, 검사, 교육 등)
- 대전 ‘청춘광장’ - 2020년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 대전광역시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8~39세 청년은 1인당 최대 5회 까지 무료 상담 지원.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대전시가 아니더라도 학교 또는 직장이 대전광역시인 경우 증빙서류 지참하면 가능
 - 청년이 스스로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회 안정망 구축을 목적으로 2019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었고, 2020년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 대전 청춘광장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해당 상담소 방문
- 대구 ‘마음 건강 챙기기’
 - 대구 월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하며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만 19세-39세 대한민국 국민에게 심리상담/미술치료/자녀양육코칭/심리검사 프로그램 무료 제공
- 충북 ‘마음 챙김’
 -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정신보건팀에서 2019년 1월~12월에 주관했던 프로그램으로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학업, 취업 준비, 근로활동 등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및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 정신건강위기상담 전화 또는 지자체 또는 대학 내 시설 직접 방문해 신청
 - 우울, 불안감, 대인관계, 학업 및 근로스트레스 등을 겪는 청년층의 건강한 마음 행복한 충북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도모

2) 해외 정책 현황

(1) 동향

- 2000년 이후 국제사회에서 정신건강은 사회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함. 사회가 발전하며 신체 건강 뿐 아니라 마음 건강의 관리 중요성에 대해 인지해나가고 있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목표 3)에서도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2011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하버드 보건대학교는 정신건강 분야를 2011~2030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회경제적으로 소모가 큰 비감염성 질환으로 예측한바 있음.
- 선진국의 정신건강 정책은 과거 정신질환 및 정신 장애에 한정되어 있던 것에서 벗어나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범위가 보다 넓어짐. 정신건강은 사람의 삶의 환경 및 사회적 관계에 연결되어 있기에 교육과 노동, 교통 및 환경, 주택, 복지 및 보건의 유기적으로 얽혀있음. 때문에 정신건강 정책 역시 통합적 접근이 전제되고, 유관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함.
- 산업화 된 선진국에서 자살률이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신건강을 개인 및 임상병리학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대책으로서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경제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집단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려 함. 사회제도 및 지역연계, 개인 지원 차원에서 정책 프로그램 등이 시도되고 있음.
- 이스라엘 히브루대 툴친스키 명예교수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범위의 지원이 필요함을 설명하며 정책화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예시로 듦.
 - 조기 개입: 임산부를 위한 가정 방문, 취학 전 심리 사회적 활동,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 및 심리 사회적 도움 등
 - 아동 지원: 기술 구축 프로그램, 아동 및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 등
 - 여성의 사회 경제적 권한 부여: 교육 및 소액 대출 제도에 대한 접근성 개선 등
 - 노인 인구를 위한 사회적 지원: 친구 사귀기, 지역 사회 및 노인 센터 등
 - 소수 민족, 원주민, 이민자, 취약한 그룹: 재난 후 심리 사회적 개입 등
 - 학교의 정신 건강 증진 활동: 학교 및 어린이 친화적인 학교 생태 변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 직장에서의 정신 건강 개입: 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등
 - 주택 정책: 주택 개선 등
 - 폭력 예방 프로그램: 지역 사회 치안 활동 등
 - 지역 사회 개발 프로그램: 지역 사회 이니셔티브, 통합 농촌 개발 등
- 또한 과거에는 정신질환에 대해 시설 보호 등 통제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최근에는 지역사회 내 보호와 지원을 강조하고, 정신건강에 대해 미리 점검하고 예방하고자 함. 이로 인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중심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통합을 꾀하고 있음.
- 해외 주요 선진국의 정신건강 및 자살에 대한 사회적 목표와 정부의 대책, 이를 위한 거버넌스와 시스템 등을 서울시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 또한 올해 초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의 맥락에서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정상적”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게끔 함. 더불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주지. 재택 근무, 일시적 실업, 돌봄 육아, 가족 및 친구와의 물리적 접촉이 감소한 새로운 현실에서 정신·신체적 건강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한편 정책 당국에게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을 예방 혹은 지원하기 위한 정책 진행 등을 권유
-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돌봄 노동 제공자, 의료인, 필수 근로자, 평소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 실직자 및 고용 관계나 근로시간에 큰 변화가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소수인종 및 모국어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 노숙자 등을 코로나19에 취약한 집단으로 보고 신체 및 마음건강에 대해 각별한 케어를 중용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고립감이나 우울증, 불안감 및 기타 정서적 혹은 재정적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되면 자살 위험도 높아지게 된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한 여러 캠페인과 온라인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서울과 같은 메가시티는 마음건강의 악화 혹은 자살이 지역사회의 책임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예방 및 대책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자살예방은 물론 마음건강 관리에 대한 경제·사회적 안정과 관련 프로그램 구성, 조례 제정, 전담 부서 설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당장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위축감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연장 및 확대 등을 고려하고, 중기적으로는 감염병으로 인한 집단 트라우마 돌봄, 실직 및 해고, 취업 지연 등에서 오는 경제·사회적 안전망 점검 및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2) 일본

- 일본은 1990년대 후반 자살자수가 급격히 증가해 2003년에는 인구10만명당 27명(OECD)이 자살로 사망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자살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됨. 특히 청년층의 자살이 높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같은 기간 한국의 경우 인구 십만명당 22.7명이 자살로 사망(통계청), 이후 2011년 31.7명까지 증가했다가 2019년 현재 26.9명으로 다소 감소. 그러나 OECD 평균 자살률은 11.3명으로 2배가 넘음.
- 이에 일본 정부와 시민사회는 자살이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임을 인식하고, 2006년 ‘자살대책 기본법’을 제정하고, 같은해 10월 이를 시행. 자살 대책을 민간 차원이 아닌 국가적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추진
 - 해당 법에 의거해 2007년 내각부에 ‘자살대책추진실’을 설치하고 제1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을 수립
- 한국 역시 2020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4월 제정, 10월에 시행. 이에 따라 정부는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관련 부처 및 지자체장들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

- 2016년 개정된 ‘자살대책기본법’의 제1조는 자살이 경제·사회적 요인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공표하며, 자살을 국가·사회적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막으려는 의지가 보임. ‘누구도 자살에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목표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국민의 의무도 명시하고 있음.
 - 2006년 제정 당시 “... 자살대책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등의 책무를 명확하게 함...”(자살대책기본법 1조 중)가 목표였던 자살대책기본법은 2016년 제정되며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의 구현을 목표로”(개정된 자살대책기본법 1조 중) 법의 방향성을 정함.
 - 올해 제정된 한국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1조에서는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 법의 개정과 더불어 2016년 4월 자살대책 소관부처를 내각부에서 후생노동성(‘자살대책추진실’ 설치)으로 바꾸고, 지역자살대책강화교부금을 집행함.
 - 자살이 건강 및 빈곤 등의 요인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업무연관성이 높은 후생노동성으로 이관. 이에 보건 의료, 복지와 노동, 사회서비스 등 관련 정책간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게 됨.
 - 지역자살대책강화교부금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연계를 꾀하는데, 청년 자살의 예방 대책 정책 지원,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자살위험 증가 방지에 중점을 두면서 상담 사업 등을 실시토록 함.
 - 2016년 지역자살대책강화교부금으로 25억엔(한화 약 265억원)을 추경예산으로 상정한 뒤 지속적으로 교부금을 집행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자살대책 전담반이 설치되어 인력이 배치되고 지속적인 정책과 사업이 수행되어지고 있음.
- 최근 일본의 자살률은 2019년 현재 십만명당 16.0명으로 눈에 띄게 낮아짐. 자살을 국가와 사회의 문제로 대응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한 결과로 보임. 다만 청년층의 자살률은 여전히 높아(2016년 현재 10~29세 인구 십만명당 23.4명, 한국 같은 연령구간 18.6명)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자살예방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음.
 - 다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2020년 10월 자살사망자(2,153명, 일본 경찰청)가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2139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됨. 특히 여성 자살 사망자수가 크게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마련하고 있음.
-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자살을 사회와 국가 단위의 문제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 법을 제정해 이를 근거로 예산을 집행, 자살 예방과 유족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또한 적절한 정신보건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사회 전체의 자살 위험을 감소시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간 연계 필요성을 인식해 연계 시스템을 강화함.

(3) 호주

- 호주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11.7명(2016년)으로, 청년과 노인층의 자살률이 높음. 15~24세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 비율은 전체 약 1/3에 달하는 35.4%이며, 25~34세는 25%, 35~44세 연령층에서는 16%임.
- 특히 호주의 청소년 및 자살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2016년 호주 청(소)년 개발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5~29세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의 도서민 남성의 자살률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여성들의 경우 자해비율은 남성보다 두 배 높았음.
- 해당 보고서에서는 호주 전역에서 청년들의 고용기회가 감소하며 청년 실업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마약과 알콜에 의존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함. 또한 도시보다 농촌지역 자살률이 두 배 가까이 높은데, 도시와 농촌에서 교육 및 고용 기회, 직업 훈련에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원주민과 다른 호주인의 자살률로도 연결되는데 원주민의 자살률은 다른 호주인에 비교해볼 때 2배가 넘음.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 빈곤과 낮은 교육수준, 실직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음.
 - 2020년 7월 시드니대학 뇌정신연구센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심리적 위기로 자살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함. 이 연구에서 팬데믹으로 자살률이 25% 증가하고, 자살자의 최고 30%가 15~25세 청년일 것으로 추정함. 특히 원주민 및 일부 다문화 커뮤니티를 자살에 취약한 집단으로 봄. 이들은 평균적으로 교육수준이 낮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어서 서비스직이나 건설 직종 혹은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데 팬데믹으로 실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함.
 - 호주의 멜번대학교 오리진 청년 정신건강센터에서는 남성 자살률이 여성보다 높지만, 여성 자살률이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함.
- 호주는 1992년 국가정신건강전략을 마련하고 5년마다 국가정신건강계획을 수립해왔으나, 자살예방과 자살시도자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정책 효과성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 이에 2014년 자살예방 정책을 통합한 정신건강계획을 수립함.
 - 호주정부는 이를 위해 정신건강 현황과 프로그램, 서비스를 진단하고, 전문가 자문그룹을 구성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취합함.
 - 호주의 2017년 수립 및 발표한 제5차 국가 정신건강·자살예방 계획에서 △통합적 지역 계획·서비스 전달 달성, △자살예방, △중증·복합 정신질환자 치료 조정과 지원, △정신질환자의 신체건강 개선, △조기 사망률 감소, △낙인과 차별 감소,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의 안전성과 질 확보, △효과적인 시스템 성능 및 시스템 개선 수단 확보, △원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강화 등이 우선 순위로 포함.
 - 매 10년마다 국가정신건강전략(National Mental Health Workforce Strategy) 수립, 정신건강 프로그램 및 서비스 검토, 정신건강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정책간행물 발간 등
- 호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2018~2022년)'을 구성하고 자살 및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장애, 교육 등 관련 부처 협업을 강화함.
- '국가자살예방전략', '기본계획', '원주민 자살예방전략' 등 자살예방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옴. 이에 따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전략적 접근과 자살 고위험군을 찾아내기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적극적

개입 및 관리를 위한 자살위험 제거, 사회 관리 강화를 통한 자살 확산 예방 등 인프라를 구축해 옴.
특히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확인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차원 공공의료 네트워크와
당사자 및 보호자 역할 강조

(4) 영국

- 영국은 지난 2017년 테레사 메이 총리가 공식 연설을 통해 정부가 영국인의 정신건강을 정책적 우선 순위에 두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직장,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적 해결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음.
- 2011년 영국정부는 모든 연령 및 인종의 정신건강과 웰빙에 대한 국가전략보고서('No health without mental health')를 발간해 국가 자살예방 전략의 원칙 수립. 특히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의 각 부처가 협력하고, 지역과 연계되도록 함.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시 주거, 일자리, 법 체계의 협조 등 포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음.
- 영국은 우울증 등 마음건강과 관련된 연간 비용이 70억 파운드(한화 약 10조1천6백억)로 추산. 현상의 심각성과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해 '대규모 심리치료 접근성 개선' 프로그램을 지원 이는 경증의 우울증 등 가벼운 정신건강 질환에 대한 심리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임. 프로그램 수혜자가 근무 복귀 및 생산성 제고를 통해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비용적으로도 효과적인 접근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음. 더욱이 '낙인 효과'도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해당 프로그램으로 경증 우울증 환자 중 40% 이상이 호전된 상태를 보였고, 17%가 근무에 복귀 했다고 보고됨.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4. 이해관계자 의견 및 제안

1) 전문가 및 청년당사자 의견

- 변화하는 산업구조로 인한 취업 어려움, 연애와 결혼 등 생애주기에서 성인이 된 이후 전통적 진행 단계로 이행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과도한 경쟁과 노력에 대한 부담감과 전통적 성역할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젠더 갈등, 부모세대와의 갈등,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고립과 단절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또한 협소한 주거공간에서 지내는 청년들은 주변 환경에 대한 우울감 호소도 많음.
- 일반화 된 불안 호소 증가, 관계 단절은 확실한 추세
 -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일반화 된 불안을 호소하는 청년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 공황이나 불안쪽 어려움이 계속 확산되는 것으로 보이고, 관계 단절은 장기적이고 확실한 추세라고 말할 수 있음.
- 무한 경쟁 사회에서 불안감 호소
 - 학교나 사회 등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이행기에서 청년들은 수많은 노력과 경쟁 과정을 겪음. 여기서 '탈락'한 청년들은 그에 대한 좌절과 패배감, 무기력감을 느낌. 반면 좋은 학벌과 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을 통해 얻은 결과이기에, 다음 단계에서 더 많은 노력과 경쟁이 있을 것이라는 심리적 피로감 호소. 외면, 회피하기도 함.
- 사회적 분위기
 - 산업구조 변화로 안정적인 일자리 선호도가 높아지며 공무원 등 국가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음.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황장애, 우울증, 사회불안증 같은 것들이 증가한 것이 더 두드러진다고 진단
- 젠더 갈등
 - 여성들의 경우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부터 2018년 미투운동, 최근 n번방 사건까지 사회에 대한 불안감 높음. 더욱이 취업시장에서 여전히 남성 선호가 있어 이에 대한 불만감 존재
 - '이남자'로 불리는 '이십대 남자'는 전통적 성역할 담론으로 교육받아왔지만 맞닥뜨린 현실은 달라 여기서 오는 좌절감과 적개심이 과거보다 뚜렷하게 표출됨.
- 경제적 환경에서 오는 무기력감
 - 높은 서울 집값에 대해 미래에 대한 안정된 삶에 대한 불안감, 불안정감을 호소함.
 - 또한 협소한 주거공간에서 지내는 청년들은 주변 환경에 대한 우울감 호소도 많음.
 - 최근 1~2년간 폭등하는 서울 부동산 가격에 분노를 표출하는 청년들도 다수 있음.

• 폭력성 증가

- 타인에 대한 적개심과 폭력 등 외부적인 발현. 자해나 자살충동 등 내부로 발현. 2~3년전부터 자살/자해 충동 호소하는 내담자 증가. 자해빈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윗 세대보다 상담에 대한 벽이 낮아진 탓도 있겠지만, 청년들 심리상담 이용률이 다른 세대보다 훨씬 높음.

• 세대 간 갈등

-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 주요 요인 중에 하나로 보임. 부모와 관계 어려움이 큰 경우가 다수
- 현 부모세대는 물질주의적 가치관 우선. 때문에 부모에게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경쟁 및 사회적 성취를 우선으로 교육받음. 하지만 청년은 생존을 넘어 개인의 가치 추구하고 심리적 안정이 중요한 세대임. 가족이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해주지 못하면 절망감을 느끼고, 단절로 이어지면 정신건강도 나빠짐.
- 부모들은 정형화된 성공한 사람 표본이 있고, 이를 벗어나면 부모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분위기임. 이에 대해 청년들 진로선택에 대한 불안감이 높음. 특히 요즘은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예측도 어렵고, 한 분야에서도 다양한 직종과 직군 있지만, 부모세대는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 정서적 지지 해주지 않아 갈등 있는 사례가 다수. 더욱이 대학원 등 다른 방법으로 유예하는 경우 부모님 지원을 계속 받아야 하는 겨우, 정서적 독립 및 책임감 갖는 것에 어려움을 느낌.

•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 감염병에 대한 위협과 학교와 취업문이 닫히며 공백이 생김. 경쟁구도에서 교육받아온 청년들은 갑작스레 다가온 공백기에 불안과 우울을 겪고 있음. 채용 없는 현실이 불안감 가중시키고, 이는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기에 더욱 무기력해짐.
- 코로나19로 경제상황과 취업시장이 악화되며 채용 없는 현실이 불안감과 우울을 가중시키는 듯. 특히 유학을 준비했거나 항공, 여행 산업 등 휴업해야 하는 직종군을 준비했던 청년들은 불안감 호소 높아. 경제적 어려움도 있어. 다른 길 가려면 준비비용 필요한데 만만치 않음.
- 특히 사회불안 높은 청년들은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 더욱 고립된 생활할 확률 높고 상처가 많은 청년들은 코로나 시국에서 보이는 타인의 부정적 행동에 더 분노하는 양상이 있음.
- 초기 청년기에는 추후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해야 하는데, 온라인 수업 및 대면활동 축소로 사회 불안이 큰 친구들은 더욱 고립되어 우울감과 불안감 호소 높아. 코로나 이전 사회적 유대관계나 가족과 단절된 청년들은 새로운 관계를 확장하지 못해 고립감 많이 느끼는 추세임.
- 신체적 건강 저하는 물론, 우울증, 불안증, 건강염려증 같은 것들이 증가하고 있음.

• 서울

- 이른바 한국 청년의 표준 라이프스타일 모델이 대도시(서울)에 맞춰져 있어 정책과 문화, 인프라 등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음. 하지만 주거비가 높고, 주거 상황도 협소함. 더욱이 미래의 기대 자산 축적에 대해서도 최근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더욱 요원해지고 있음.

2) 제안

- 마음건강은 정책의 효과가 단기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꼭 필요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부분. 특히 선진국의 경우 마음건강이 사회와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자살률 등을 낮추려 노력하고 있음.
- 최근 한사람의 자살은 주변의 20명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자해/자살을 시도하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혹은 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이들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를 구축하는 것도 방법
- 또한 부모세대에게도 캠페인 등을 통해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장치들을 이용해 세대간 이어지는 매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부모세대 역시 마음건강에 대해 오히려 더 무지하거나 교육받지 못한 세대임으로 그들의 마음건강을 되돌아보며 청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서울시가 진행하는 마음건강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차츰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가져와야 할 것임.
- 문화 형성
 - 세대간 갈등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이 청년 마음건강에 주요한 한 요인임. 사회와 직장, 가족이 변해야 함. 확대된 형태의 시스템, 유기적 네트워크, 공동체 문화 필요
 - 이를 위해 부모세대를 포함한 세대 간 갈등을 줄이는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장치들을 구성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함. 예컨대 오히려 부모세대가 마음건강에 대해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세대이기엔 그들의 마음건강을 되돌아보며 청년들과의 관계회복을 하는 프로그램 등
- 고위험군 걸러낼 수 있는 필터 시스템 구축: 중앙정부 및 행정기관과 연계
 - 자해시도 등 고위험군은 현재 정책에서 추출하기 어려움이 있음. 중앙정부의 복지 영역과 연계해 고위험군 등 지자체 내부에서 사각지대 청년들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지표 마련하는 것을 모색
 - 예컨대 자살시도 등의 이력이 있다면 시도 이후 몇 개월 간 추적보호 등. 중앙정부와 협력해 통합적 시스템 구축해야. 고위험군에 속하는 만성질환자는 의료 데이터 있어서 추출 가능함.
- 서울시 정책 관련
 - 올해 진행된 마음건강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각 구별과도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생태계 갖추려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임. 청년들도 예측가능해야 보다 참여도가 높고 정책 효능감도 높아질 것
 - 상담은 1:1 혹은 그룹 등으로 진행되어 상담사의 역량이 무척 중요. 상담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양질의 상담사를 확보하고 적절한 급여와 지속적인 재교육 하는 것이 중요
 -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유대 통해 심리적 안정 줄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고 있음. 특히 비가시화

된 어려움 많을 것으로 보임. 청년대상 연속적 집단심층면접 등을 통해 청년들의 마음건강 현황과 변화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온라인 활용

-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을 활용해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고, 돕는 정책이 시급. 다음과 네이버 등 거대포털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오가는 인터넷 카페의 카페지기들을 교육하고,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거나, 온라인 지킴이를 선발하여 교육한다거나 하는 정책들이 필요해보임.

- 생애주기별 정책 및 서비스 제공

-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정신건강의 영역을 지역사회 기반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내 자원을 연계하고 사회복지사와 의료진, 지역센터와 학교 등이 연계된 협력체계를 구축함.
-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로 변화하면서 생애주기별 마음 건강 지원이 가능해짐. 아동 및 청소년기는 학교를 중심으로 마음건강 진단 및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인에게는 우울, 스트레스, 불안 및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중심으로 접근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4장

결론

1. 인구와 가족

- 가구원 수는 4인 가구가 3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인 가구(25.1%), 1인 가구(2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비율이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독립(38.7%), 비동거(9.7%) 순으로 나타남.
- 혼인 상태로 비혼/미혼이 7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혼/사실혼(동거)(22.0%), 사별/이혼/별거(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15.4%, 자녀가 없는 응답자의 비율은 84.6%로 나타남.
- 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 자녀가 1명인 응답이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2명 36.4%, 3명 4.3%, 4명 0.9% 순으로 나타남.

2. 일자리

- 응답자의 최종 학력으로 대학교(4년제) 졸업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학교(4년제) 재학 중(휴학 포함) 15.9%, 전문대학(2년제, 3년제) 졸업(휴학 포함)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일 기준,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거나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한 응답자는 75.2%로 나타났고, 일을 하지 않은 응답자는 20.4%, 휴가 및 일시 휴직한 응답자는 4.4%로 나타남.
- 응답일 기준, 지난 1주 간 일을 하지 않은 응답자 중 지난 4주 간 직장(일)을 구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5.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수입이 있는 일자리에서 어떤 지위로 일하였는지에 대해 상용 정규직 근로자였다는 응답이 6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시간제 임시/일용 근로자 14.2%, 상용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청년세대가 기성세대에 비해 시간제 임시/일용 근로자(14.2%) 비율이 4.6%p 높게 나타남.
- 일한 직장(사업체)의 직원 수로 30~299인이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0~29인 18.3%, 5~9인 14.7%, 1,000인 이상 1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한 직장(사업체)의 유형으로 민간기업이 7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 14.0%, 재단/사단법인/협회/단체 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으로 경영/사무가 2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비스 15.0%, IT/인터넷 1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난 한 달 간 수입 목적 일 외에 부업을 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은 31.2%, 없다는 응답은 68.8%로 나타남.
-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80.5%,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5%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남성의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는다(31.8%) 비율이 여성의 배우자(8.2%)보다 23.6%p 높게 나타남.

- 지난 1주 간 일을 하거나 일시 휴직 중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에 대한 직업 만족도에 대해 평가한 결과 평균 2.84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불만족 비율이 35.6%로 만족 비율 25.9%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기성세대의 경우 청년 시절 일에 대한 직업 만족도가 청년 세대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Base: 지난 1주 간 일을 하거나 일시 휴직 중인 응답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불만족 (①+②)	보통 ③	만족 (④+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그저 그렇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2020년 청년세대	(2,388)	35.6	38.6	25.9	9.1	26.5	38.5	23.4	2.5
2020년 기성세대	(500)	24.4	39.6	36.0	5.6	18.8	39.6	31.4	4.6

- 지난 1주 간 일을 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 결과 평균 2.97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부정 비율이 33.2%로 긍정 비율 31.5%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학생인 경우 긍정 비율이 41.2%로 부정 비율(25.1%)보다 16.1%p 높게 나타났으며 비학생인 경우 부정 비율이 38.9%로 긍정 비율(24.6%)보다 14.3%p 높게 나타남.

(Base: 지난 1주 간 일을 하지 않은 응답자,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부정 (①+②)	보통 ③	긍정 (④+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그저 그렇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2020년 청년세대	(612)	33.2	35.3	31.5	8.3	24.8	35.3	24.5	7.0
학생여부	학생	(255)	25.1	33.7	41.2	3.9	21.2	33.7	32.9
	비학생	(357)	38.9	36.4	24.6	11.5	27.5	36.4	18.5

-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일을 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은 72.9%, 없다는 응답은 27.1%로 나타남.
-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학교 재학 및 학업을 준비해서'가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창업준비 포함)를 해서' 18.5%,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서'(1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최근 6개월 간 코로나19로 인해 44.8%가 코로나19로 인한 직업상의 어려움을 경험했고, 직업상태의 변화로 소득 감소가 25.3%로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근무나 영업 시간의 축소 22.4%, 고용 취소, 해고, 원하지 않는 무급 휴가, 폐업이 14.8%로 나타남.
- 청년대상 일자리 정책으로 가장 선호하는 방향으로 민간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45.0%, 청년 역량 개발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29.9%, 공공부문의 고용창출 확대 24.1%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근로하는 청년의 경우 민간 기업의 지원 확대(48.0%)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청년의 경우 청년 역량 개발 및 취업지원 강화(39.6%)가 더 높게 나타남.
- 기성세대의 경우 민간기업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55.2%, 공공부문의 고용창출 확대 24.0%, 청년 역량 개발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19.6%로 청년세대와 선호 순위가 다르게 나타남.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민간기업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청년 역량 개발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공공부문의 고용창출 확대	기타
2020년 청년세대		(3,000)	45.0	29.9	24.1	1.0
2020년 기성세대		(500)	55.2	19.6	24.0	1.2
근로여부	근로함	(2,256)	48.0	27.7	23.4	0.9
	일을 하지 않음	(399)	34.8	39.6	24.3	1.3

- 취업 경험과 상관없이 ‘연봉이 높은’, ‘오래 다닐 수 있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는 응답이 많음. 이 외에 ‘근무 시간’, ‘동료’, ‘복지’, ‘성취감’을 좋은 일자리의 요소로 생각하고 있음.
-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어 취업이 더 힘들어졌다고 생각함. 취업 환경이 회복되긴 할 것 같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으로 금전적인 지원이 가장 좋으나 신청 절차와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지원해 본 적이 없음. 교육의 경우 실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지 않고, 도움이 될 것 같은 건 교육기간이 너무 길어 시간이 아까움. 또한 교육의 질이 높지 않다고 느낌. 다른 조건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소서 첨삭, 정장 대여와 같은 사업은 실제 이용해본 적이 있고, 매우 만족스러웠음.
-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해 주로 ‘온라인’과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는 편으로, ‘취업 정보 사이트’, ‘구청, 학교, 주민센터 등 공공 기관’에서도 정보를 얻고 있음.
- 선호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방향 : (1) 민간기업들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민간기업의 수가 공공 부분의 수보다 많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으니 민간기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빠르고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됨.
 - 민간기업은 이익 창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공 부분보다 일자리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선호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방향 : (2) 공공부문의 고용창출 확대
 - 민간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으로 일자리를 늘린다해도 줄이는 것 또한 기업의 자율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일자리일 것 같아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선호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방향 : (3) 청년 역량 개발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본인의 역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 청년 일자리 현황
 -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는 청년들이 늘어남. 정부가 단기 및 임시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실업률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체감실업률은 전년에 비해 3%p이상 증가함.

- 본 조사의 대상 중 25.9%의 청년만이 일자리에 만족한다고 답함. 집단별로 보면 저소득, 저연령, 여성, 저임금, 서울생활 새내기, 청년 집단, 임시직 파트타임 등 불안정 노동층에서 일자리에 대한 불만족이 높음.
- 일자리에 대한 불만족은 잦은 이직, 퇴사 등 고용불안정과 소득중단으로 이어지면서 안정적 생애 설계에 어려움을 줄 여지가 큼. 직장갑질 등 직장내 민주주의 문제, 고용안정, 학습과 훈련 기회 제공 등을 통해 퇴사 및 이직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소득중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 요구됨.

•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의 소득감소와 일자리 상실

- 청년들의 25.3%가 소득감소를 경험했고 해고, 무급휴가, 폐업과 같이 일자리를 잃은 경우도 14.8%나 됨. 특히 1인 자영업자 중 소득감소를 경험한 경우는 41.8%로 매우 높았음.
- 과반을 훨씬 상회하는 61.2%가 코로나19로 인해 앞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응답함.

• 청년 일자리 정책 현황

- 현재 서울시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청년의 취업과정을 돕는 사업, 그리고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사업으로 구분됨.
- 그러나 대체로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decent work)와는 거리가 먼 임시적 성격이 큼. 청년을 직접 고용하는 뉴딜일자리 사업도 이에 해당됨.
-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서울시는 신속하게 정책 묶음을 만들어 3월부터 시행함. 신속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6개월 미만의 임시, 파트타임 일자리라는 한계가 뚜렷함.

• 정책 평가

- 청년 당사자들은 서울시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그리 높지 않은 인지도를 보였음. 서울시가 중요 사업으로 홍보한 청년 수당의 경우 50.8점에 이름.
- 청년수당은 인지도와 도움정도의 측면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으나 참여의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음. 정책 참여자의 기준, 효과, 한계 등이 어느정도 알려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정책참여자만으로 대상을 좁히면 일자리 정책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응답이 상승함.
- 코로나19 쇼크가 크기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 중단 등으로 생애주기의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기, 임시일자리라도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
- 타 지자체는 서울과 달리 청년의 유입을 유도해야한다는 필요성 아래 지방 일자리의 질을 재고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인천광역시 등의 경우 청년 일자리 정책을 저소득, 저교육 청년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산업에 필요한 인력 공급의 수단으로 보고 있음. 서울수도 청년을 서울에 있는 기업이나 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훈련해 공급하는 방식의 정책을 고민할 수 있음.

- 해외사례

- ① 아일랜드 발리문시의 청년보장제

-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컨설팅 및 교육 연계 사업
- 청년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청년의 역량에 따라 세 집단으로 분류하고 집단에 맞는 자원을 연계함.

- ② 싱가포르의 중소기업 청년고용 정책

- 대학 졸업반이거나 졸업한지 1년이 안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연계
- 청년은 일자리 경험과 소정의 인턴십 급여를 받고 기업은 급여의 70%까지 정부로부터 보조받음.

- ③ 남아프리카공화국 고용지원금 바우처

- 정부는 실업 청년들에게 임금보조를 약속하는 바우처를 발급함. 바우처를 가지고 있는 청년을 고용한 회사는 임금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음.
- 6개월 동안 총 55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조받는데 이는 2010년 임금노동자 월 평균 소득인 43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임.
- 2,000명의 청년에게는 바우처를 주고, 2,000명에는 주지 않은 상태로 2년동안 실험한 결과 바우처를 가지고 있는 청년은 일자리를 얻을 확률이 25% 높았고 이 효과는 2년 뒤에도 일부 지속됨.
- 이미 높은 기준의 출발선을 형성한 취업시장에서 경쟁자체가 어려운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는 형태의 정책으로 고민해볼만함.

3. 주거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으로 아파트가 5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연립/다세대/다가구 37.9%, 단독주택 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크기로 66㎡(20평) ~ 99㎡(30평) 미만이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형태로 자가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세 31.7%, 보증금 있는 월세 2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고시텔/고시원,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를 제외한 전체를 대상으로 셰어하우스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셰어하우스에 살고 있는 비율은 7.6%, 살고 있지 않은 비율은 92.4%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도심권에서 셰어하우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가격/보증금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억~3억 미만이라는 응답이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천만원 미만이 28.8%로 나타났으며, 평균 주택 가격/보증금은 2억3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 주택 가격이 평균 5억 3천만원, 전세인 경우 보증금 평균 1억 8천만원, 월세인 경우 보증금 평균 2천 6만원으로 나타남.
-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독립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이라는 응답이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금융기관 등의 대출 25.1%,

부모, 친지 등으로부터 받거나 빌림 24.4%의 순으로 나타남.

- 독립한 1인가구의 경우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과 부모, 친지 등으로부터 받거나 빌림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월세에 거주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주거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주거비 구간은 50~70만원 미만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평균 57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동남권의 경우 평균 67만원으로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2년 이내에 이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49.6%,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50.4%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만18세~24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와 도심권, 서남권, 동남권, 비동거·비독립, 독립, 점유형태가 전세, 월세, 독립한 1인 가구에서 향후 2년 이내에 이사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이사를 하게 될 주된 이유 1순위로 학교/직장과 가까운 곳 또는 교통편이 좋은 곳에 살기 위해서가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부모와 비동거/독립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독립 후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장 등 문제 발생 시 제때 수리해 주지 않았다가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계약 전 얘기한 조건/시설 등이 차이가 큼 18.4%,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함 13.0%, 이사 나갈때 무리한 원상복구 수리요구 1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독립 후 주거에서 불편한 점 1순위에 대해 집이 좁아 공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만 18세 이전에 가장 오래 거주한 지역으로 서울이 7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은 15.9%, 경기/인천은 8.9%로 나타남.
- 서울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20년 이상이 5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체 평균 20.5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부모의 거주 지역으로 서울이 7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은 16.4%, 경기/인천은 8.7%로 나타남.
- 현재 소득 및 기대 소득 대비 주거비에 대한 부담 정도는 평균 3.82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부담된다는 비율이 68.6%로 부담되지 않는다는 비율 9.8%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도심권과 비동거·비독립, 점유형태가 전세/월세인 경우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기성세대의 경우, 지금의 청년세대보다 본인이 청년세대였을 때의 주거비 부담이 9.4%p 낮게 나타남.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부담되지 않음 (①+②)	보통 ③	부담 (④+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그저 그렇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2020년 청년세대	(3,000)	9.8	21.6	68.6	2.5	7.3	21.6	43.2	25.4
2020년 기성세대	(500)	18.8	22.0	59.2	3.8	15.0	22.0	41.4	17.8
도심권	(154)	5.8	23.4	70.8	3.90	3.2	23.4	43.5	27.3
비동거·비독립	(292)	6.8	22.6	70.5	1.4	5.5	22.6	42.1	28.4
전세	(951)	7.4	19.2	73.4	1.1	6.3	19.2	46.9	26.5
월세	(701)	7.0	21.5	71.5	1.3	5.7	21.5	43.2	28.2

- 주거 마련을 위해 부모님/가족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균 2.78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부정 비율이 39.4%로 긍정 비율 29.0%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만18세~24세, 비동거·비독립,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 긍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부정 (①+②)	보통 ③	긍정 (④+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그저 그렇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2020년 청년세대	(3,000)	39.4	31.6	29.0	16.5	22.9	31.6	23.7	5.3
2020년 기성세대	(500)	36.0	26.4	37.6	17.0	19.0	26.4	33.4	4.2
만18세~24세	(798)	30.5	33.2	36.3	8.6	21.8	33.2	30.5	5.9
비동거·비독립	(292)	24.3	33.9	41.8	6.8	17.5	33.9	34.2	7.5
자가	(1,261)	35.5	31.0	33.5	12.5	23.0	31.0	27.2	6.3

-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 전반적인 만족도로 평균 3.36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만족 비율이 48.2%로 불만족 비율 16.5%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만18세~24세, 동남권, 부모와 동거, 자가인 경우 만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불만족 (①+②)	보통 ③	만족 (④+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그저 그렇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2020년 청년세대	(3,000)	16.5	35.3	48.2	4.1	12.4	35.3	39.9	8.3
만18세~24세	(798)	12.9	31.3	55.8	3.4	9.5	31.3	43.1	12.7
동남권	(632)	12.2	30.7	57.1	3.3	8.9	30.7	46.7	10.4
부모와 동거	(1,546)	14.0	32.0	53.9	3.8	10.3	32.0	42.3	11.6
자가	(1,261)	10.8	31.1	58.1	2.2	8.6	31.1	46.5	11.7

- 참여할 의향이 있는 부동산 교육 1순위로 계약방법 및 주거권 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정부지원 대출 정보 안내 20.9%, 보증금 분쟁 등 분쟁 예방 법률 교육 20.8%, 청년주거지원 정보 및 주거상담 교육 16.5%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점유형태가 월세인 경우 청년 주거지원 정보 및 주거상담 교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계약방법 및 주거권 교육	정부지원 대출 정보 안내	보증금 분쟁 등 분쟁 예방 법률교육	청년주거지원 정보 및 주거상담교육	교육받을 의향이 없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27.6	20.9	20.8	16.5	14.2
월세	(701)	26.7	22.1	17.3	20.4	13.6

-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주거 지원으로 공공주택 추가 공급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월세 지원 30.0%, 용자 지원 2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연령별로 만18-24세인 경우, 부모와 비동거·비독립, 점유형태가 월세인 경우 공공주택 추가 공급보다 월세 지원이 높게 나타남.
- 기성세대의 경우 공공주택 추가 공급 56.4%, 용자 지원 29.4%, 월세지원 12.0%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공공주택 추가 공급	월세 지원	용자 지원	기타
2020년 청년세대	(3,000)	41.7	30.0	25.6	2.7
2020년 기성세대	(500)	56.4	12.0	29.4	2.2
만18세~24세	(798)	36.6	46.1	15.2	2.1
비동거·비독립	(292)	38.7	41.4	17.5	2.4
월세	(701)	35.4	42.1	21.0	1.6

-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은 중장년 세대보다 혼자 집을 구하는데 법률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많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기나 무시를 당할까봐 부모님과 꼭 같이 갔었음. 여성의 경우 안전에 대한 걱정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월세 부담’, ‘전세값’, ‘적은 전세 매물’, ‘충간소음’, ‘안전’, ‘집주인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음.
-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주거 공간, 주변 인프라, 안전이 중요함.
-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사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임. 그 이유로 심리적 안정감이 가장 큼. 반면, 집을 사고 싶지 않은 이유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 큰 돈을 들이기가 꺼려짐.
- 주거 관련 지원 정책은 자격조건이 맞지 않아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적은 없음.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좋은 정책인 것 같음.
- 주거 관련 지원 정책은 ‘인터넷’, ‘뉴스’, ‘지인’을 통해 알게 됨.

- 선호하는 청년 주거지원 정책 방향 : (1) 월세 지원
 - 20~30대 청년들은 월세에 사는 비중이 높고,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고 비용만 지원받을 수 있어서
- 선호하는 청년 주거지원 정책 방향 : (2) 용자 지원
 - 목돈이 들어가는 용자를 지원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음.
- 선호하는 청년 주거지원 정책 방향 : (3) 공공주택 추가 공급
 - 공공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아직은 물량이 너무 적은 것 같아 공공주택을 계속해서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함.
- 청년 주거 현황
 - 전국적으로 소득대비 주거비지출 비율 기준, 청년 1인 가구의 23%가 주거빈곤 가구에 해당됨. 특히 최소 주거 기준 이하에 거주하는 청년 비율은 2019년 기준 약 9%에 가까움.
 - 본 조사 대상인 서울 청년 3천명 중 68.6%가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크다'는 응답은 저소득층, 월세층, 고시원 거주집단에서 특히 높았음. 대체로 불안정노동 종사자와 겹치고 있어 소득 중단시 주거위기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주거문제에 있어 특히 취약한 청년 집단은 1인 가구, 기혼 가구, 룸메이트 가구, 서울생활 새내기, 부모 의존청년 등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집단의 실태와 요구를 살펴보았음.
- 주거 정책 현황
 - 주거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임차보증금 지원, 월 주거비 지원 등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서울시의 경우 세 유형의 정책 모두 실시하고 있음.
 - 같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주체별로 정책 대상 기준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 대상 연령, 소득기준 등이 상이해 이를 조정하는 작업이 요구됨.
 -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주거정책 전달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의 주거정책을 모방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시의 경우 20대 독립 가구가 독립 가구로 인정되지 않아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청년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점을 파악하고 두 가구를 분리하는 정책을 펼침.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파악하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역세권 청년주택과 같이 시간이 경과하면 공공성이 사라지는 임시형태의 주거정책 대신, 시가 주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수 십년동안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의 정책을 고민해야함.
- 주거 정책 평가
 - 청년주거정책 중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이 인지도와 도움정도에서 가장 평가가 높았음.
 - 정책을 인지하는 청년들일수록 정책의 도움정도 등 기대감도 높았음. 정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정책지지기반 확장에 도움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임.

- 한편 서울시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1인 가구와 신혼부부에 초점을 두고 있어 면적이 좁다는 지적도 제기됨.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가 생길 경우 이사를 고민하게 되어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짐.
- 청년들 중 2~3인이 동거하는 경우,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됨. 이들을 고려해 정책대상 기준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

• 해외사례

① 영국의 로위 가디언스

- 청년이 방치되어 있는 빈집의 관리자 역할을 하며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연계

② 바르셀로나의 임차인 보호 정책

- 코로나19 위기로 스페인 정부가 국가경계령을 발령하자 바르셀로나시의 임차인 보호 정책임.
- 임대인들이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임차인을 퇴거시키지 못하게 막는 한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대출받아 오랜 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거주자에게는 임대료 지급을 유예시켜주는 한편 임대인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임대료를 삭감해줌.

③ 영국, 호주, 포이어 모델

-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기 주거 사업임.
- 청소년은 짧게는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시설에서 머물며 취업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음. 단순히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취업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포이어 모델의 단점을 보완한 마이 파운데이션은 청소년이 최고 5년까지 머물면서 좀 더 장기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 대신 임대료를 점진적으로 올려 청년이 더욱 많은 소득을 올리도록 유도함.
- 한국의 경우 취업준비를 위해 서울의 노량진, 강남 등 학원가 근처에서 주거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음. 대부분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졸업하지 얼마 되지 않는 청년 1인가구가 비교적 주거의 질이 떨어지는 곳에서 살고 있음. 이들이 편안하게 취업을 준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생을 위한 취업지원 주거시설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4. 소득과 지출

- 가구 기준 세후 월평균 가구 소득으로 200~300만원 미만이 1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00~400만원 미만 17.7%, 400~500만원 미만 1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독립한 1인가구의 경우 월평균 가구 소득을 200~300만원 미만이 40.8%로 나타남.
- 지난 1주 간 일을 하거나 일시 휴직 중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본인 기준 세후 월평균 소득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0~300만원 미만이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평균 252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남성의 경우 평균 270만원인 반면, 여성의 경우 233만원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남.
- 부모와 동거/비동거 중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달 생활비를 조사한 결과, 한 달 생활비로 50~100만원 미만이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평균 한 달 생활비는 75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도심권과 동남권의 평균 한 달 생활비가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기준 한 달 생활비에서 부모님/친지로부터 지원 받는 비율은 30.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부모와 독립하여 거주 중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달 전체 생활비 지출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207만원 수준으로 그 중 식비가 평균 52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독립한 1인가구의 경우 전체 생활비 지출이 평균 149만원으로 나타났고, 식비와 주거비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 한 학기 대학 등록금 지출 금액이 있는 경우는 25.2%로 나타났으며, 금액은 300~500만원 미만이 11.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평균 대학등록금 지출 금액은 315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부모와 비동거/독립 중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최근 1년 간 생활비가 부족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족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7.0%, 부족한 적 없다는 응답은 53.0%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만18세~24세, 독립한 1인가구의 경우 생활비가 부족한 적이 있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생활비가 부족하였을 때 해결 방법으로 소비를 줄인다는 응답이 7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33.4%, 예금, 적금, 보험 등을 해약한다 2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생활비 지출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 1순위로 식비가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거비가 27.1%, 교통비 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비동거·비독립, 독립한 1인가구의 경우 식비보다 주거비가 걱정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5년 간 소득이 현재와 비교했을 때 긍정적인 응답은 59.8%, 부정적인 응답은 9.2%로 나타났고, 5점 평균 3.63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학생인 경우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 응답은 74.3%로 나타난 반면, 비학생인 경우 긍정 응답은 55.4%로 나타남.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부정 (①+②)	보통 ③	긍정 (④+⑤)	많이 줄어들 것이다 ①	약간 줄어들 것이다 ②	비슷할 것이다 ③	약간 늘어날 것이다 ④	많이 늘어날 것이다 ⑤
2020년 청년세대	(3,000)	9.1	31.0	59.8	3.1	6.1	31.0	44.8	15.0
학생	(697)	6.6	19.1	74.3	2.4	4.2	19.1	46.3	28.0
비학생	(2,303)	9.9	34.7	55.4	3.3	6.6	34.7	44.3	11.1

- 청년대상 자산형성 정책 방향에 대해 다수의 청년을 대상으로 적은 지원금이라도 보편적 혜택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에 65.9%가 동의하여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남.
- 기성세대의 경우 보편적 혜택이 되도록 지원이 59.6%로 청년세대에 비해 6.3%p 낮게 나타남.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다수의 청년을 대상으로 적은 지원금이라도 보편적 혜택이 되도록 지원	소수의 청년을 지원이 더 필요한 경우를 선별하여 실질적 혜택이 되도록 지원	기타
2020년 청년세대	(3,000)	65.9	32.0	2.1
2020년 기성세대	(500)	59.6	37.6	2.8

- 생활비 지출에서 월세가 가장 부담이 되고, 월세를 제외하면 식비가 가장 부담이 됨.
-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고, 일을 강제로 쉬게 된 경험이 있음.

5. 자산과 부채

- 현재 하고 있는 저축으로 예금(저축예금, 정기예금, 청약예금 등)이 65.2%로 가장 높게 나타남. 서울 청년의 10명중 9명은 저축을 하고 있음.
- 응답자 특성별로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적금 비율이 낮고 주식, 채권, 펀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저축을 하는 목적 1순위로 주거비용 마련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비상시 대비 16.2%, 결혼 준비 1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남성의 경우 투자 등의 종잣돈 마련이 15.9%로 여성(8.8%)보다 7.1%p 높음.
- 최근 1년 간 저축을 해약한 가장 주된 이유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가 19.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갚아야 할 채무 종류로는 은행 신용 대출(마이너스 통장 포함)이 14.4%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학자금 대출 12.0%, 부동산 담보대출 11.5%, 신용카드, 카드론, 단기대출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채무가 발생한 이유로 주거비(전, 월세자금 대출 등)가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활비 마련(식비, 의류비, 교통통신비 등) 37.4%, 학자금 2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30대, 서남권, 독립, 독립한 1인가구의 경우 주거비 마련을 위해 채무가 발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채무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5백만원 미만이 28.6%로 소액 채무가 높게 나타났고, 평균 5,609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동남권에서 채무금액이 높게 나타남. 독립한 경우 평균 8,771만원, 독립한 1인가구의 경우 채무금액이 평균 5,048만원으로 나타남.
- 최근 1년 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14.2%로 나타남. 연체 항목으로는 핸드폰 등 통신요금 6.7%,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 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 연체를 한 경우 주된 해결 방법으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다가 21.6%, 예금, 적금, 보험 등을 해약한다 21.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현재 보유 자산으로 부동산이 평균 9,142만원으로 타 자산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전체 합계 자산은 평균 1억 2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조사 대상인 서울 청년들 중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28.9%(866명)에 불과함. 부동산 자산이 있는 청년과 없는 청년의 총 자산(금융, 기타 자산 등)을 비교하면 없는 청년은 1,948만원, 있는 청년은 3억9천212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른 자산격차가 매우 큼이 확인됨. 부동산, 금융 등 자산이 전혀 없는 청년도 772명으로 청년 4명 중 1명에 이름.

(단위: 만원)

구분	사례수 (명)	부동산	금융	기타	계
2020년 청년세대	(3,000)	9,142	2,951	612	12,705
부동산 자산 보유	(866)	31,671	5,914	1,627	39,212
부동산 자산 미보유	(2,134)	0	1,748	200	1,948
자산 보유	(2,228)	12,310	3,973	824	17,107
자산 미보유	(772)	0	0	0	0

- 향후 5년 간 자산이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64.8%, 줄어든 것이라는 응답은 8.0%로 나타났으며, 긍정 지수는 3.71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자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남.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부정 (①+②)	보통 ③	긍정 (④+⑤)	많이 줄어든 것이다 ①	약간 줄어든 것이다 ②	비슷할 것이다 ③	약간 늘어날 것이다 ④	많이 늘어날 것이다 ⑤
2020년 청년세대	(3,000)	8.0	27.2	64.8	3.3	4.7	27.2	47.7	17.1
만18세~24세	(798)	5.0	19.5	75.4	2.0	3.0	19.5	47.4	28.1
25세~29세	(784)	7.1	24.2	68.6	3.2	4.0	24.2	52.6	16.1
30세~34세	(695)	7.3	33.7	59.0	3.5	3.9	33.7	46.5	12.5
35세~39세	(723)	13.0	32.4	54.6	4.8	8.2	32.4	44.1	10.5

- 향후 자산이 늘어난다면 증가하게 된 요인으로 소득(임금 또는 사업 소득) 증가가 7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 18.1%, 부동산 투자 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소득, 지출, 자산, 부채를 종합하였을 때 본인의 경제적 안전성에 대해 안정하지 못하다는 응답은 34.5%,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27.6%로 나타났고, 안정성에 대한 5점 평균 점수는 2.85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부정 (①+②)	보통 ③	긍정 (④+⑤)	전혀 안정적이지 못함 ①	다소 안정적이지 못함 ②	보통이다 ③	다소 안정적 ④	아주 안정적 ⑤
2020년 청년세대	(3,000)	34.5	37.9	27.6	10.7	23.8	37.9	24.9	2.7
남성	(1,483)	31.1	40.1	28.8	9.8	21.3	40.1	24.8	4.0
여성	(1,517)	37.8	35.7	26.4	11.7	26.2	35.7	24.9	1.5

-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요인 1순위로 일자리가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소득 32.5%, 주거 1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35세~39세의 경우 일자리(36.1%)보다 소득(38.5%)이 더 중요하다고 나타남.
- 주거지원, 생활비지원, 고용지원 등을 받기 위해 정보를 찾아보았는지에 대해 찾아봤다는 응답은 31.2%, 찾아보지 않았다는 응답은 68.8%인 것으로 나타남.
- 청년 대상 대출지원 사업의 정책 방향에 대해 대출이 최소로 발생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 대책이 69.3%로 가장 높게 나타남.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등 사후 대책은 29.8%로 나타남.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대출이 최소로 발생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 대책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등 사후 대책	기타
2020년 청년세대	(3,000)	69.3	29.8	1.0

- 저축을 하는 목적으로 남성의 경우 저축 대신 주식 등 금융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저축하는 경향이 더 높음.
- 남성의 경우 주식 등 금융투자 수익이 경제활동으로 버는 수익보다 더 높고 주 수입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반면, 여성의 경우 시중 은행의 낮은 이자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를 함.
- 등록금, 생활비, 주거를 위한 채무 발생
- 안정적인 수입과 저축/노후 준비를 하고도 남는 여윈돈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음.
- 자산 관련 지원 정책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좋은 것 같음. 다만 기업에서 악용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금융기관이 아니다보니 맞춤형 재정 상담이 아닌 누구나 알 수 있는 상담을 할 것 같아 하고 싶지 않음.
- 자산과 대출 관련 지원 정책은 온라인을 통해 자산 관련 지원 내용 인지
- 선호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 : (1) 소수의 청년을 대상으로 선별하여 지원
 - 기본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잘못 이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확실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선호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 : (2) 다수의 청년을 대상으로 보편적 지원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 정부가 정하는 기준은 내 소득 뿐 아니라 가족의 소득도 포함이 되는데, 가족 상황에 따라 '나'는 힘든 경우가 있어서 구별없이 모두 졌으면 좋겠음.
- 대출 지원 관련 지원 정책은 지원 조건이 어려워서 실제로 도움 받은 적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음.
- 선호하는 청년 대출 지원 정책 : (1)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등 사후 대책
 - 일단 지금 당장 필요해서 빌리는 돈인데,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음.
- 선호하는 청년 대출 지원 정책 : (2) 대출이 최소로 발생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 대책
 - 대출은 빚이라 애초부터 적은 수만 갖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음.
- 청년 자산 현황
 - 청년 1인, 2인 가구의 중위자산은 지난 20여년 동안 정체되면서 기성세대와의 자산격차는 더 커지고 있음.
 - 청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 부동산 자산이 있는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 간 격차도 커짐. 본 조사에서 부동산 자산이 있는 청년은 28.9%이며 이들의 총 자산은 3억 9,212만원으로 조사되었음. 반면 부동산 자산이 없는 나머지 70% 청년은 평균 1,948만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청년들의 상당수(65.9%)는 자산형성 지원 정책 방향과 관련해 혜택이 적더라도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함.
 - 청년들은 부채가 발생한 이유로 주거비를 가장 많이 꼽았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년은 학자금으로 인해 부채, 30대 후반의 청년들은 주거비로 인해 부채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금융지원 정책 리뷰
 - 금융지원 정책은 자산형성 정책과 채무 상환 지원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한국의 자산형성 정책은 매칭 적립형 사업으로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회사나 정부가 그 금액에 맞춰 저축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청년에게 목돈을 지급함.
 - 자산형성 정책은 일하는 청년이 빠르게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나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청년은 자산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자산으로 인해 수급권을 상실할 수 있음. 이 원칙은 부양의무제에 따라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금의 자산형성 정책은 고용과 연계되어 있어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는 혜택을 제공하지 못함.
 - 형성된 자산의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아 형성된 자산이 유흥 등에 탕진될 가능성이 있음. 해외의 경우 형성된 자산은 첫 주택구매, 창업, 대학원 진학 등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해 형성된 자산이 대상자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보장하고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유형의 정책을 다른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어 정책 참여 희망자의 혼란을 야기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해 정책을 하나로 통일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정책의 지급

금액이나 범위를 늘리는 방식으로 보조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정책평가

- 청년들은 자산형성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인지도, 참여의향, 도움정도 측면에서 모두 높게 나타남.
- 자산형성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거나 실제 참여한 청년들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 평가했음.
- 전문가들은 정책 참여자격이 지나치게 엄격한 탓에 고용주와 청년 모두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적함. 청년들은 2년에서 3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일해야 혜택을 받는 데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위기에서 가장 먼저 해고되는 층도 청년들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자산형성의 핵심 목적은 임차 보증금 마련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임. 따라서 마지막에 적립된 목돈을 지급하기 보다,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미리 대출을 해주고 청년, 사업주, 국가가 갚아가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형식도 제안됨.

• 해외사례

① 영국의 아동발달계좌

- 아동신탁기금과 이를 대체한 주니어 ISA는 부모가 아동의 이름으로 저축계좌를 개설하면 저축액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함.

② 영국의 헬프 투 세이브

- 매칭펀드 프로그램으로 저소득 근로빈곤층이 저축을 하면 1:0.5의 비율로 정부가 금액을 적립함.
- 2년간 최대 1,800파운드를 모을 수 있고, 2년 더 적립해 3,600파운드를 마련할 수 있음.
- 해지 시 별도의 패널티 없이 적립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음.

③ 싱가포르의 아동발달계좌 체계

- (IDA) 부모가 미취학 아동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정부가 일시금을 지급하고 가족의 적립금에 대해 1:1의 비율로 정부가 적립함.
- (Edusave) 아동이 취학한 이후에는 정부가 에듀세이브 계좌에 교육 보조금을 지급
- (PSEA) 7세부터 20세까지의 아동이 성장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IDA와 마찬가지로 적립금에 대해 정부가 1:1의 비율로 적립함. IDA와 Edusave에서 사용하지 못한 잔여 적립금은 PSEA계좌로 자동 이전됨.

④ 미국 오리건주의 소상공인 사업 지원 프로그램

-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 참여자가 적립해야 하는 금액은 최소 25달러로 비교적 낮게 설정하고, 참여 기간도 최소 13개월까지 짧게 가져가면서 중간에 참여자들의 중도 탈락을 최소화함.
- 1대 5라는 높은 매칭 비율을 설정하면서도 최대 수령가능액을 6천 달러로 낮게 설정해 시행 주체의 부담도 최소화함.

6. 신체 건강

- 지난 3개월 간 음주 빈도로 한달에 1~2회가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마시지 않았다 2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현재 흡연 여부 및 횟수에 대해 피워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64.9%로 가장 높게 나타남. 한번이라도 피워본 적이 있는 경우는 35.1%(피운다 18.4% +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 16.7%)로 나타남.
- 하루 흡연 횟수로 10~15개 미만이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0개 미만이 34.2%, 20개 이상 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하루 흡연 횟수는 평균 11.2개비인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년 간 건강검진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5.1%,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54.9%로 나타남.
-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거나 진단 받은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7.2%(1개 17.3% + 2개 7.0% + 3개이상 2.9%)로 나타났고, 만성질환이 없다는 응답은 72.8%로 나타남.
- 최근 1년 간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주로 취한 조치로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이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14.9%,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몸이 아프거나 다쳤음에도 병원을 가지 않은 이유 1순위로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가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27.7%,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2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최근 1년 간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일주일에 1~2번 한다는 응답이 25.8%로 높게 나타남.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거의 하지 않는다	한 달에 3번 이하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4번	일주일에 5~6번	매일
2020년 청년세대	(3,000)	29.2	14.9	25.8	17.8	7.3	5.0

- 평소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에 대해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다'가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운동에 관심이 없다' 29.6%, '운동하는데 비용이 부담된다' 1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여성, 만18~24세, 부모와 동거, 비동거·비독립, 2인이상·동거의 경우 운동에 관심이 없다는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사는 동네(실내 포함)에서 이용 가능한 체육 시설로 공원 및 산책로가 62.4%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집안 실내 운동용품 사용 36.5%, 민간 생활 체육시설 3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의 정책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53.5%,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3.9%로 나타났고, 평균 3.48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불필요 (①+②)	보통 ③	필요 (④+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①	필요하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⑤
2020년 청년세대	(3,000)	13.9	32.6	53.5	4.1	9.8	32.6	40.5	13.0

- 청년 대상으로 생활체육 관련 필요한 정책으로 주민센터, 구립 체육관 등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 프로그램 운영이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건강과 생활 습관의 긍정 비율로 청결 및 위생 관리가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7. 마음 건강

-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의 원인 1순위로 경제상황(소득, 지출, 채무 등)이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직장 생활 23.8%, 취업 및 진로 1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평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1순위로 운동 및 신체활동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취미활동 21.7%, 특별히 노력하는 것이 없다 1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난 1년 간 느낀 우울증 유증상으로 피곤함이 8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일에 대한 흥미 감소 72.8%, 수면 문제 6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난 1년 간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64.3%로 서울시 청년 10명 중 6명은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경험한 적 있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심각한 스트레스가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수 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32.7%, 수 일간 지속되는 불안 2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최근 1년 간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 받은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친구나 선후배(25.7%), 부모, 가족 및 배우자(25.4%)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서울 청년 10명 중 2명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방문한 기관에 대해 병원 등 의료기관이 12.0%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서울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 공공 전문상담기관 6.9%, 민간 전문상담기관 6.7%, 보건소 1.5%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가와 상담 시, 가장 선호하는 기관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이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공공 전문상담기관 28.5%, 민간 전문상담기관 1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및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 기관 방문 시 어려운 이유 1순위로 어떤 곳을 방문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응답이 3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병원비나 약값, 상담비용 등 비용이 부담스럽다 22.4%, 근처에 방문할만한 기관이 없다 1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어떤 곳을 방문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비용이 부담스럽다	근처에 방문할 만한 기관이 없다	주변의 시선이 부담된다	기록때문에 이후 불이익 받을까 걱정된다	기타	걱정되거나 어렵지 않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33.0	22.4	11.4	9.3	8.2	0.9	14.8

- 생활하면서 느끼는 사회 불안에 대한 동의 비율로 남들보다 뒤쳐질까봐 불안하다가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변부로 밀려날까봐 걱정 39.8%, 상대적 박탈감 31.9% 순으로 나타남.
- 현재 마음 건강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 긍정의 비율은 29.5%, 부정의 비율은 24.8%로 나타났고, 5점 평균 점수는 3.05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기성세대의 경우 긍정 비율이 27.2%, 부정비율이 14.4%로 평균 3.13점으로 청년세대보다 높게 나타남.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부정 (①+②)	보통 ③	긍정 (④+⑤)	매우 나쁨 ①	나쁨 ②	보통 ③	좋음 ④	매우 좋음 ⑤
2020년 청년세대	(3,000)	24.8	45.7	29.5	4.4	20.4	45.7	25.2	4.3
2020년 기성세대	(500)	14.4	58.4	27.2	1.8	12.6	58.4	25.6	1.6

-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는 주로 취업/학업, 가족,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느끼고 있음.
- 마음건강 어려움 대처 방법으로는 운동, 산책, 취미생활, 동료/친구/가족과의 모임을 하면서 스트레스 상황을 잊으려고 노력함.
- 사람들의 인식, 보건 기록, 심리적 거부감, 번거로움, 비용의 문제로 상담 기관 방문이 어려움. 전화, 화상 상담이나 찾아오는 방문서비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외롭고 단절된 느낌, 학업에 지장, 주변인의 우울감에 동화, 감염 시 사람들의 시선 걱정 등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생활에 힘들어하고 있음.
-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 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건강 정책을 이용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음. 한편, 결국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꺼려져 시작부터 어렵다는 의견도 있음

- 서울 청년들의 우울감 높아 정책적 개입 필요
 - 이번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1/3이 넘는 35.37%(1061명/3000명)의 청년들이 우울증 선별검사 (PHQ-9) 10점 이상으로 파악됨. '코로나 블루'라는 특수한 현상이 있으나 이 역시 단기간에 해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시 당국은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보호, 증진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
-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일반화된 불안을 호소한다고 공통된 의견 전함
 -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들 모두 청년들이 일상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지적. 무한 경쟁에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안정적 일자리 선호도가 높아지며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의 불안이 높다고 진단
- 무기력감 및 폭력성 증가
 - 천정부지로 솟는 서울 집값 등으로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늘어남. 미래의 안정적 삶을 포기 하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으며, 현재 협소한 주거공간에서 지내는 청년들의 경우 환경에 대한 우울감도 많음.
 - 전문가들은 최근 타인에 대한 적개심과 폭력 등 외부적 발현도 높다고 진단
- 코로나19의 영향
 - 감염병으로 인해 학교와 취업문이 닫히며 청년들이 갈곳이 없어지고, 삶의 공백이 생김. 이러한 공백기에 청년들이 더 많은 불안과 우울을 겪음. 또한 취업준비나 진학준비를 하는 청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공백이 큰 손실로 다가온다고 생각해 큰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 젠더 갈등
 - 청년세대에서 젠더 갈등은 첨예한 문제로 서로에 대한 '혐오'문화로 발전되어가고 있어 정책적 개입도 고려할 상황으로 보임.
 - 더욱이 코로나19로 경제·사회적 상황이 어려워지며 특정 성·연령대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현상도 생김.
- 문화 형성
 - 세대간 갈등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이 청년 마음건강에 주요한 한 요인임. 사회와 직장, 가족이 변해야 함. 확대된 형태의 시스템, 유기적 네트워크, 공동체 문화 필요
 - 이를 위해 부모세대를 포함한 세대 간 갈등을 줄이는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조성 위해 다양한 장치들을 구성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예컨대 오히려 부모세대가 마음건강에 대해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세대이기에 그들의 마음건강을 되돌아 보며 청년들과의 관계회복을 하는 프로그램 등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 고위험군 걸러낼 수 있는 필터 시스템 구축: 지표 구축 및 중앙정부 및 행정기관과 연계
 - 자해시도 등 고위험군은 현재 정책에서 추출하기 어려움이 있음. 보건·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을 찾을 수 있는 필터/지표 마련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고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한 뒤 축적된 보건/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고위험군을 추출. 예컨대 서울시 내 병원 혹은 보건 데이터 관장 부처와 협약을 맺어 자해 고위험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최근 2년간 자해시도로 응급실 등 병원 치료를 받은 자, 만성 질병을 가진 사람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
 - 서울시가 자체 활용 혹은 협력 가능한 데이터를 가능한 뒤, 해당 범위 안에서 고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해 현 서울시 및 정부의 복지 지원 시스템과의 연계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8. 사회적 관계

-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족 이외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은 64.8%, 없다는 응답은 35.2%로 나타남.
-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의 수로 3~4명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2명 29.9%, 5~6명 21.9%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체 평균 수는 4.4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가족 이외에 도움을 요청할 대상으로 친구나 선후배가 5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인 12.2%, 공공기관 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최근 1년 간 일자리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대상으로 친구나 선후배가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최근 1년 간 부동산, 주식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관계로 온라인(현실에서는 모르지만 소셜 미디어 등으로 알고 지내는 지인, 익명 게시판 관련 커뮤니티 등)이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동네에 알고 지내는 친구가 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은 57.3%, 없다는 42.7%로 나타남.
- 동네에 알고 지내는 친구의 수로 1~2명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4명 26.8%, 5~6명 1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청년 10명 중 약 4명은 가입한 현재 가입하고 있는 모임이 있고, 모임의 종류로는 동네 모임이 16.7%, 동네나 직장 관련 없는 모임 13.7%, 직장 내 모임 11.0%, 온라인으로만 주로 진행되는 모임 10.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의 긍정 비율로 신뢰할 만한 주변인이 35.8%로 충분한 사회적 네트워크 33.8%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신뢰할 만한 주변인	충분한 사회적 네트워크
2020년 청년세대	(3,000)	35.8	33.8
2020년 기성세대	(500)	25.4	21.4

- 서울시 청년지원사업의 정보 제공 경로 1순위로 서울시 및 관련 사업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네이버 밴드 등)가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울시 홈페이지 24.1%, 인터넷 포털 뉴스 기사 1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족 이외에는 친구에게 도움을 받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 같음
- 주로 가족에게 취업이나 창업, 부동산, 주식 같은 경제적 정보를 얻고, 그 다음으로 친구가 많음. 주위 사람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음.
- 가입하고 있는 모임 종류로는 주식, 독서, 운동 모임이 있음. 가입하고 있는 모임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
- 청년 커뮤니티 관련 지원 정책으로 운동과 같은 취미 분야의 토래 모임에 관심이 있음.
- 청년 커뮤니티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서, 나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등이 나타남.

9. 가치관

- 사회 신뢰의 긍정 비율로 공적 기관이 19.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치관에 대한 긍정 비율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은 53.5%, 포용과 이해는 53.2%로 나타남.
- 주관적 행복에 대한 만족도로 높음 비율은 41.1%, 낮음 비율은 16.7%, 중간 비율은 42.2%로 나타났고, 10점 평균 환산 점수는 평균 5.67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부정 (①+②+③)	보통 (④+⑤+⑥)	긍정 (⑦+⑧+⑨+⑩)
2020년 청년세대	(3,000)	16.7	42.2	41.1
2020년 기성세대	(500)	13.4	52.8	33.8

- 삶의 질 만족도로 높은 비율은 33.8%, 낮음 비율은 20.9%, 중간 비율은 45.3%로 나타났고, 10점 평균 점수는 5.36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부정 (①+②+③)	보통 (④+⑤+⑥)	긍정 (⑦+⑧+⑨+⑩)
2020년 청년세대	(3,000)	20.9	45.3	33.8
2020년 기성세대	(500)	20.0	49.6	30.4

- 항목별 만족도와 행복 및 삶의 질 만족도 간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고자 상관 분석을 진행함.

구분	변수 생성 기준	Pearson 상관계수	유의수준
행복 및 삶의 질 만족도	산술 평균(주관적 행복, 삶의 질 만족도)	1	-
마음건강 만족도	마음 건강 상태	0.678	0.000
사회적 관계 만족도	산술 평균(충분한 사회적 네트워크, 신뢰할 만한 주변인)	0.537	0.000
신체건강 만족도	전반적인 신체 건강	0.479	0.000
소득 및 자산 만족도	산술 평균(향후 5년 간 소득 변화 예상, 경제적 안정성)	0.454	0.000
일자리 만족도	직업 만족도 + 향후 만족하는 일자리 얻을 가능성	0.414	0.000
사회적 신뢰도	산술 평균(사회 신뢰도)*0.5 + (사회 전반 신뢰도)*0.5	0.361	0.000
주거 만족도	주거 만족도	0.304	0.000

- 상관 분석 결과 항목별 만족도는 모두 행복 및 삶의 질 만족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중에서도 마음건강과 행복 및 삶의 질 만족도가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마음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임. 정책집행자는 마음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정책 도입 및 실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10. 코로나로 인한 변화

- (코로나19로 인한 직업상태 변화 경험) 최근 6개월 간 코로나19로 인해 44.8%가 코로나19로 인한 직업상의 어려움을 경험했고, 직업상태의 변화로 소득 감소가 25.3%로 높게 나타남.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소득 감소	근무나 영업 시간의 축소	고용 취소, 해고 원하지 않는 무급 휴가, 폐업	해당되는 경우 없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25.3	22.4	14.8	55.2
2020년 기성세대	(500)	31.2	20.4	11.4	54.2

- (코로나19로 인한 향후 소득활동 어려움 정도) 코로나19로 인한 본인의 구직, 고용의 유지, 창업 등의 어려움 정도는 61.2%로 쉬움 비율 12.2%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청년 세대의 경우 기성세대보다 코로나19로 인한 향후 소득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쉬움 (①+②)	보통 ③	어려움 (④+⑤)	전혀 어렵지 않을 것 ①	별로 어렵지 않을 것 ②	보통이다 ③	다소 어려울 것 ④	매우 어려울 것 ⑤
2020년 청년세대	(3,000)	12.2	26.6	61.2	2.8	9.4	26.6	46.3	14.9
2020년 기성세대	(500)	6.0	28.6	65.4	1.0	5.0	28.6	46.8	18.6

- (코로나19로 인한 가구 소득 변화) 최근 6개월 간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었는가에 대해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40.6%,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은 59.4%로 나타남.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줄어들었다	줄어들지 않았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40.6	59.4
2020년 기성세대	(500)	47.4	52.6

- (코로나19로 인한 월 수입 변화)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변화를 조사한 결과, 40~60% 미만이라는 응답이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체 평균 수입 변화는 48.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평균	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 이상
2020년 청년세대	(1,219)	48.0	10.5	26.0	28.7	16.2	18.5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 (코로나 블루 경험) 최근 2주 간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58.0%(자주 있다 5.1% + 종종 있는 편이다 16.8% + 드물게 있다 36.2%)로 서울시 청년 10명 중 5명은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자주 있다	종종 있는 편이다	드물게 있다	전혀 없다
2020년 청년세대	(3,000)	5.1	16.8	36.2	42.0
2020년 기성세대	(500)	3.0	15.0	41.8	40.2

- (코로나 블루 경험 원인 1순위) 최근 2주 간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 블루를 느낀 이유 1순위로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가 2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외부 활동 및 신체적 활동 제한 21.1%, 나와 가족이 감염되는 것에 대한 염려 2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감염확산 에 대한 우려	외부 활동 제한	감염되는 것에 대한 염려	경제적 부담 및 불안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연함	대인관계 단절로 인한 고립감	마스크 착용 불편감	계획된 일정의 연기 및 취소
2020년 청년세대	(1,741)	23.0	21.1	20.4	11.1	7.6	6.2	5.1	3.9
2020년 기성세대	(299)	29.1	12.0	30.4	8.4	6.4	6.0	2.3	2.7

-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관계 변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관계 변화에 대하여 확대되었다는 응답은 7.3%, 축소되었다는 응답은 43.1%로 나타남.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축소 (①+②)	변함없음 ③	확대 (④+⑤)	매우 축소됨 ①	약간 축소됨 ②	변함없다 ③	약간 확대됨 ④	매우 확대됨 ⑤
2020년 청년세대	(3,000)	43.1	49.6	7.3	9.7	33.4	49.6	6.2	1.1
2020년 기성세대	(500)	50.8	43.2	6.0	12.6	38.2	43.2	6.0	0.0

11. 청년 지원 사업 인지도 및 도움 정도

- 서울시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야별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 경험/의향, 도움 정도는 다음과 같음. 참여 경험의 경우 해당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참여 의향의 경우 참여한 적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단위: %)

구분		인지도	참여 경험		참여의향		도움 정도 (긍정비율)
			사례수 (명)	비율	사례수 (명)	비율	
서울시 일자리 지원 사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3.2	(1,297)	11.9	(1,143)	48.6	53.1
	뉴딜일자리	32.5	(975)	12.2	(856)	47.2	52.0
	일자리 카페 운영 및 서비스	23.8	(715)	20.4	(569)	56.6	44.7
서울시 주거지원 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49.4	(1,481)	8.6	(1,354)	32.5	59.6
	청년 월세 지원	34.2	(1,027)	11.3	(911)	44.8	60.8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29.6	(887)	8.2	(814)	44.5	53.9
	청년 임차 보증금 지원	27.8	(833)	14.4	(911)	44.8	59.4
서울시 자산형성 사업	청년수당	50.8	(1,523)	14.2	(1,306)	37.1	58.1
	청년내일채움공제	47.5	(1,426)	16.8	(1,187)	36.9	58.8
	희망두배 청년통장	44.9	(1,347)	9.6	(1,218)	33.2	63.7
서울시 대출지원 사업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34.6	(1,037)	15.1	(880)	21.4	62.6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	13.4	(401)	18.7	(326)	29.4	51.9
	청년미래투자 금융지원	10.9	(328)	19.2	(265)	43.4	48.8
국가건강검진 사업		43.1	(1,293)	50.0	(646)	72.3	71.3
서울시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10.3	(310)	32.9	(208)	50.5	49.4
서울시 청년 커뮤니티 사업		10.7	(321)	29.3	(227)	50.2	44.1

1장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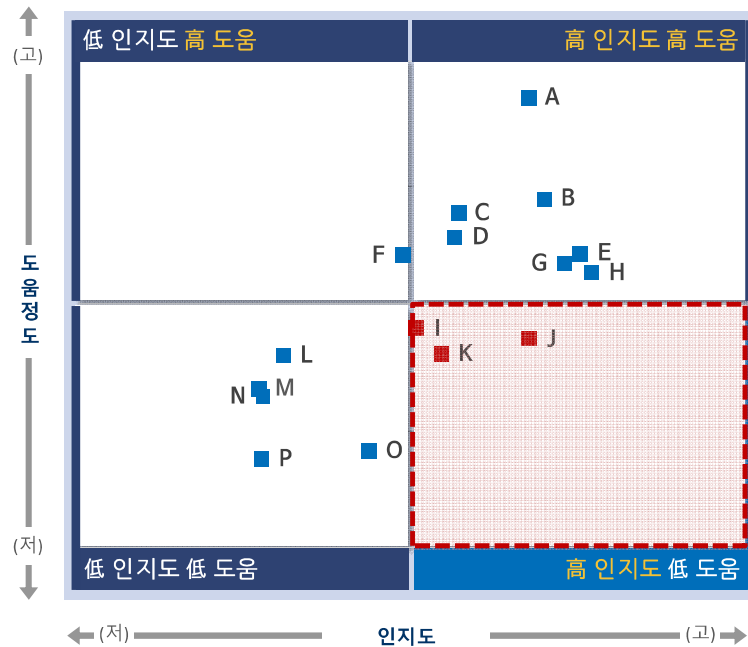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 서울시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야별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 대비 도움 정도 포트폴리오
 - 인지도가 높으면서 도움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사업’, ‘희망두배 청년 통장’,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수당’로 나타남.
 - 인지도가 높으나 도움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사업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뉴딜일자리’로 나타남.



구분	사업
高 인지도 高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국가건강검진 사업 ▪ B. 희망두배 청년통장 ▪ C.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D. 청년 월세 지원 ▪ E.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 G. 청년내일채움공제 ▪ H. 청년수당
低 인지도 高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 청년 임차 보증금 지원
高 인지도 低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 J.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K. 뉴딜일자리
低 인지도 低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 ▪ M. 서울시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 N. 청년리테러자 금융지원 ▪ O. 일자리 카페 운영 및 서비스 ▪ P. 서울시 청년 커뮤니티 사업

12. 정책적 시사점

(1) 서울 청년의 일자리 및 소득

1)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의 일자리 상실과 소득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2020년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는 청년들이 늘어남. 정부가 단기 및 임시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지만 체감실업률은 전년에 비해 3%p이상 증가함.
-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의 25.3%가 소득감소를 경험했고 해고, 무급휴가, 폐업과 같이 일자리를 잃은 경우도 14.8%나 됨. 특히 1인 자영업자 중 소득감소를 경험한 경우는 41.8%로 매우 높았음.
- 특히 본 조사에 참여한 서울청년 중 과반을 상회하는 61.2%가 코로나19로 인해 앞으로 일자리 구하기는 것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응답함.
-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코로나19라는 특수한 국면을 고려한 청년정책의 배치(일자리, 최소 소득 보장 등)가 요구됨.
- 단기적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 시급히 지원하는 것이 필요.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예상되자 3월부터 청년 희망 일자리, 공공 데이터 일자리, 뉴딜 일자리 등 정책 묶음을 만들어 시행함. 신속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무척 긍정적이나 보통 6개월 미만의 임시, 파트타임 일자리라는 한계가 있음.

2) 낮은 일자리 만족도

- 본 조사를 통해 서울 청년 중 '지난 1주간 일을 하거나 일시 휴직 중'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2.84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불만족 비율이 35.6%로 만족 비율 25.9%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기성세대의 경우 청년 시절 직업 만족도가 청년세대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 집단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저소득, 저연령, 여성, 저임금, 서울생활 새내기 청년 집단, 임시직 파트타임 등 불안정 노동층에서 일자리 불만족이 더욱 높게 조사됨. 이는 잦은 이직, 퇴사 등 고용불안정과 소득중단으로 이어지면서 안정적 생애 설계에 어려움을 줄 여지가 큼.
- 법을 교묘히 우회하는 변칙적 고용 계약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직장내 민주주의 문화 전파, 학습과 훈련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일자리의 안정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임. 또한 퇴사 및 이직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소득중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 요구됨.

3) 민간기업 고용 활성화 촉진 및 이를 위한 취업 지원 교육의 질 개선

- 청년대상 일자리 정책으로 가장 선호하는 방향은 '민간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45.0%, '청년 역량 개발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29.9%, '공공부문의 고용창출 확대' 24.1% 순으로 나타남. 민간부문의 일자리 규모가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청년 취업지원자들은 민간의 채용문이 더 열리길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바라고 있으며, 이를 준비하기 위한 역량 개발과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 진행되는 취업 지원 교육에 대해 본 조사에 응한 청년들은 만족도/기대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하루 8시간 6개월 교육프로그램 등 장기프로그램의 경우 좀 더 밀도있게, 프로그램과 강사의 질을 높여야 할 것임. 또한 청년의 학력 및 관심사, 산업별 등 세분화하여 다양한 선택지를 주어야 할 것임.

4) 높은 '스펙', 출발선 조정 필요

- 청년이 각종 자격증 등 취업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 부모의 자산과 지원여부는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옴. 부모나 환경을 떠나 개인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 더욱이 청년 본인이 일하느라 교육받을 시간이 없는 사례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 꿈꾸는 삶을 갖도록 지원해야 할것임.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청년 등 출발선 자체에 도달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있음. 저소득의 고리를 끊거나 혹은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자를 비롯, 저소득층 청년들을 지원하는 별도의 라운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취업시장에서 요구하는 '스펙'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이에 대한 환기가 필요(캠페인 및 우수사례 발굴 등)

5) 다양한 일자리에 대해 탄력적 안전망 마련

- 본 조사에서 '수입이 있는 일자리에서 어떤 지위로 일하였는지'에 대해 서울 청년들 중 60.4%가 사용 정규직 근로자였으며, 다음으로 시간제 임시/일용 근로자가 14.2%, 상용 비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가 9.0%로 조사되었음.
- 생애주기상 20대의 초중기 청년들은 파트타임 등 보다 유연한 형태의 일자리 경험이 많은데, 최근 취업연령이 늦어지며 20대 후반까지 시간제 임시 및 기간제 근로계약 등으로 일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더욱이 변화하는 산업구조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고용계약과 근로형태가 출현. 기존 안전망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일자리 형태가 많아지고 많은 청년이 이러한 일자리에 들어가는바, 청년 지원 범위에서 이를 포괄하는 탄력적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주거와 자산

1) 서울 청년 주거 현황: 부족한 공간, 높은 주거비

- 전국적으로 소득대비 주거비지출 비율 기준, 청년 1인 가구의 23%가 주거빈곤가구에 해당됨. 본 조사에서도 서울 청년의 68.6%가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크다'는 응답은 저소득층, 월세층, 고시원 거주 집단에서 특히 높았음. 대체로 불안정노동 종사자와 겹치고 있어 소득 중단시 주거위기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전국적으로 최소주거 기준 이하에 거주하는 청년 비율은 2019년 기준 약 9%에 가까움. 서울 청년으로 범위를 한정본 본 조사 역시 '독립 후 주거에서 불편한 점'으로 집이 좁아 공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40.6%로 조사되어 1순위로 꼽힘.

- 또한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청년 자립에 대한 불안과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자신이 거주할 곳을 찾을 수 없다는 절망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무기력까지 호소하고 있음. 전월세 가격마저 높아져 주거비 지출이 커지는 상황임.

2) 서울시 주거 안정 정책

- 서울시 주거정책은 크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임차보증금 지원, 월 주거비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음. 청년주거정책 중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이 인지도와 도움정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음. 또한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청년일수록 정책의 도움정도 등 기대감도 높게 조사됨.
- 희망 주거 지원 정책으로는 공공주택 추가공급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월세지원 30.0%, 용자 지원 25.6% 순으로 조사됨.
- 다만 서울시 공급 임대주택이 1인가구와 신혼부부에 초점을 두었기에 면적이 좁다는 지적도 제기됨. 특히 신혼부부는 많은 경우 아이의 출생과 육아가 뒤따르는데 면적이 좁아 이사하는 가구도 있음. 공공주택에 당첨되었지만 집이 좁아 당침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음.
- 최근 가족이 아닌 청년 2~4인 등이 함께 사는 경우(‘하우스메이트’, ‘셰어하우스’)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제기도 있음. 변화하는 청년들의 삶의 방식과 다양한 주거 형태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고,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전달체계가 필요함.

3) 청년 자산 현황

- 전국적으로 청년 1~2인 가구의 중위자산은 지난 20여년동안 정체되며 기성세대와의 자산격차는 더 커지고 있음. 청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 부동산 자산 여부에 따라 청년들의 자산 격차도 커짐.
- 부채를 가진 청년들은 부채 발생 이유로 주거비를 가장 많이 꼽았음. 20대 초반의 청년은 학자금으로 인한 부채, 30대 중후반 청년들은 주거비로 인해 부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4) 서울시 청년 금융 지원 정책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은 대표적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매칭 적립형 지원 프로그램임. 청년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회사나 정부가 그 금액에 맞춰 함께 적립해 일정기간이 지난 뒤 청년에게 목돈을 지급하는 방식임. 일하는 청년이 빠르게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유의미 함.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가족에 속한 청년은 자산 규모가 증가하면 당장 수급권을 상실할 수 있어 오히려 가족이 참여를 저지하기도 함.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자산 형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역설이 발생
- 해외의 경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형성된 자산은 첫 주택구매, 창업, 대학원 진학 등 제한된 목적

으로만 사용하게 해 형성된 자산이 대상자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보장함

5) 자산형성과 주거정책의 연계

- 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청년 주거지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구성할 수 있음. 보통 보증금이 높으면 월세는 낮거나, 주거지 선택의 폭이 넓어짐. 청년에게 보증금으로 사용되는 금액 중 일부를 지원해준다면 보다 더 나은 주거지 선택이 가능하고, 이때 조성된 보증금은 후에 기초자산으로 사용이 가능함. 낮은 월세는 청년의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음.
- 또한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이 보증금 등 특정한 목적으로 자원이 필요할 경우, 프로그램 종료 전이라도 해당 통장 혹은 청년의 기대적립액 등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는 방안 필요

6) 자산형성 사업에 대한 담대한 정책 필요

-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사회가 부모를 대신해 일정한 목돈을 '상속'해 끊어진 계층 간 사다리를 다시 세우는 취지에서 '기본자산'도 제기되고 있음. "세습 자본주의로 회귀"를 경고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소개하면서 관심이 높아짐.
- 정의당은 지난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청년기초자산' 공약을 제시했음. 20살 청년들에게 3천만원의 밑천을 제공하자는 제안임. 정의당은 1년에 최대 1천만원씩 3년 동안 분산 인출하도록 하면 첫 5년 동안 연평균 소요 예산이 14조5천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추산했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신생아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고 특정 이율을 적용한 뒤 이들이 성인이 되면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기본자산제를 제안했음.
- 기본자산에 대한 적극적 고민, 현실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3) 마음건강

1) 생애주기별 정책 및 서비스 제공

-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정신건강의 영역을 지역사회 기반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로 변화하면서 생애주기별 마음건강 지원이 가능해짐. 아동 및 청소년기는 학교를 중심으로, 성인은 직장을 중심으로 마음건강 진단 및 예방 서비스를 제공. 서울시 역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청년의 마음건강을 예방하고 진단하는 서비스를 고려해볼 수 있음.

2) 고위험군 걸러낼 수 있는 필터 시스템 구축:

지표 구축 및 중앙정부 및 행정기관과 연계

- 자해시도 등 고위험군은 현재 정책에서 추출하기 어려움이 있음. 이들을 선별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한 뒤 축적된 보건/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고위험군 추출·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서울시 내 병원 혹은 보건 데이터 관장 부처와 협약을 맺어 자해 고위험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예: 최근 2년간 자해시도로 응급실 등 병원 치료를 받은 자,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을 현 서울시 및 정부의 복지 지원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3) 문화 형성

- 세대간 갈등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이 청년 마음건강에 주요한 한 요인임. 사회와 직장, 가족이 변해야 함. 확대된 형태의 시스템, 유기적 네트워크, 공동체 문화 필요
- 이를 위해 부모-청년세대 간 갈등을 줄이는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조성 위해 다양한 장치들을 구성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오히려 부모세대가 마음건강에 대해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세대이기에 그들의 마음건강을 되돌아보며 청년들과의 관계회복을 하는 프로그램 등

(4) 서울시 청년 정책 전달체계

1) 정보 접근의 단순화, 직관화 필요

- 서울시는 청년집단 내부의 욕구와 생애주기를 고려해 여러 종류의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을 모아둔 복지로 웹사이트에 따르면 서울시의 청년 정책은 9개 범주에 이름. 서울시 청년청에서 운영하는 서울청년포털 웹사이트에서는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이라는 이름으로 20개의 정책을 소개하고 있음. 같은 웹사이트 내 분야별 청년정책은 총 63개의 청년정책이 소개됨. 맞춤형 청년정책 탭에는 72개의 정책이 나열되어 있음.
- 그 결과 청년당사자가 도움을 얻기 위해 복지로, 서울청년포털과 같은 웹사이트에 들어간다고 해도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찾기가 쉽지 않음. 또한 어떤 정책이 아직 시행중인지, 자신이 지원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움.
- 정책 전반을 펼치기보다 청년 개인의 상황, 욕구에 맞는 정책을 쉽게 찾아가고, 지원 기준에 대한 정보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단순화할 필요성 있음
- 예컨대 서울시 홈페이지 가입한 청년이 소득, 연령, 가구형태 등을 기입하면 특정 사업에 대상자인지, 대상자라면 몇 순위인지, 수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볼 수 있음. 더불어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중복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프로그램이 표시되어 정책대상자들이 충분한 정보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형태임.
- 위와 같은 정보는 모두 사업 상세 소개 파일에 들어있지만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어체와 공문 형식으로 구성되어 청년 스스로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기입된 정보와 정책의 기준을 비교해 가능성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갖추면 도움이 될 것임.

2) 청년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청년 현황 데이터 배치

- 서울시의 청년자율예산제가 청년들의 당사자성을 높이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정책요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데이터가 필요함.
- 청년 관련 연구, 데이터들을 분야별, 항목별로 정리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있음.

3) 청년정책의 가독성 제고

- 청년관련 정책이 많으나 자신이 자격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특히 주거정책의 경우 자산 기준 등이 있어 훨씬 복잡함. 또한 중복 금지 등의 규정도 있어 청년들로서는 혼란스러움. 정책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 자신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판별이 어려움.
- 중앙정부, 서울시, 지자체 등 다양한 층위에서 정책들이 나오면서 청년들이 이를 구분하기 어려움. 정책이해도가 약한 청년들도 쉽게 자격 요건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이는 작업 요구됨.
- 한편, 특정 정책을 중심으로(구직활동지원금 등) 정책연계효과가 나타난다는 평가도 있음. 예를 들면 구직활동지원금 안내받고 그 후에 기타 수당 알아보기가 주거관련 정책까지 이어지는 형태임. 즉, 근간이 되는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연계 정책에 대한 정보 습득으로 이어짐. 즉 일단 청년들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책을 접하게 되면 정책의 효능감이 생기고, 다른 분야 정책으로 이어지는 연계효과가 나타남. 따라서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나열식 접근이 아니라 당장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 한 가지가 중요함. 이러한 접근 방법으로 청년들이 정책을 접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4) 정책 연계에 대한 고민 필요

- 청년 정책은 생애주기별로 설계되어 있음. 따라서 개별 청년의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위한 정책에서 시작해 주거, 자산형성 등 관련 정책들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한국의 경우 정책들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높음.
-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할만함. 청년 한 명에 대해 5~10년에 걸쳐 사례관리가 이루어져 정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짐.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또 연결 해주는 방식으로 일대일 관리하는 방식임. 독일도 청년센터를 따로 만들지 않고 고용센터 안에 청년 파트를 만들어 매니징, 컨설팅을 해주고 있음.
- 한국의 경우는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인데 전담 인력이 없음. 구직활동 지원금이 다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입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담 인력이 필요함.
-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서울시 청년지원센터가 8개 자치구에 매니저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중임. 서울시 무중력지대가 매니저들을 고용해서 찾아오는 청년들에 대해 1:1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시행중임. 이러한 실험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음.

5) 청년 사업 홍보 방법에 대한 방안 고려

- 청년 좌담회에서도 홍보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고,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받을 때 서울시 및 관련 사업 소셜 미디어에서 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음.
- 소셜 미디어는 청년 세대에게 가장 친숙한 전달체계이며, 짧고 간단한 정보가 쏟아지는 소셜 미디어 특성상 사업 홍보를 위해서는 전달체계를 단순화해야함.
- 청년정책 콘텐츠를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이 소개하는 것도 효과가 상당함. 이를 적극 지원 활용하는 것도 모색해볼 수 있음.
- 지원 내용에 따른 청년별 맞춤화·다양화 또한 필요함.

6) 장기적 접근의 사례 관리와 이를 위한 인력 충원

- 청년 컨설팅의 경우 청년들이 자신의 고민과 상황을 이야기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림. 오랜 기간, 반복적인 과정이 요구되기에 민간인이 맡아 하기 어려움.
- 운영 기관 조직의 권위, 인력 등이 요구됨. 결국, 주민 센터 사회복지센터 전담 공무원이 맡아야 하는데, 이는 예산문제, 국가 공무원 증원 등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어려움.
- 또한, 공무원들의 열의에 따라 청년 정책의 활성화 정도가 다름. 결국 개별 공무원이 정책에 맞는 청년들을 찾아서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함. 전달체계의 문제가 중요하나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로 쉽지 않은 상황임.

7) 정책의 지속성 확보

- 정책의 지속성 보장이 매우 중요함. 지방정부의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핵심 정책은 지속된다는 신뢰와 기대가 중요함.

부록

설문지

설문지 1

본조사

서울 청년 가게 현황 및 건강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본 조사는 서울시 청년청 주관으로 서울 청년들의 가게 현황과 건강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서울시 청년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 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중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협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07월

주관기관 : 서울시 청년청 조사기관 : 글로벌리서치

SQ. 응답자 선정 질문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성
2. 여성

SQ2. 귀하의 나이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세

1. 만17세 이하[조사 중단]
2. 만18~24세
3. 만25~29세
4. 만30~34세
5. 만35~39세
6. 만40세 이상[조사 중단]

SQ3. 귀하가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 | | | | |
|--------------------|---------|----------|----------|---------|
| 1. 종로구 | 2. 중구 | 3. 용산구 | 4. 성동구 | 5. 광진구 |
| 6. 동대문구 | 7. 중랑구 | 8. 성북구 | 9. 강북구 | 10. 도봉구 |
| 11. 노원구 | 12. 은평구 | 13. 서대문구 | 14. 마포구 | 15. 양천구 |
| 16. 강서구 | 17. 구로구 | 18. 금천구 | 19. 영등포구 | 20. 동작구 |
| 21. 관악구 | 22. 서초구 | 23. 강남구 | 24. 송파구 | 25. 강동구 |
| 26. 서울 외 지역[조사 중단] | | | | |

A. 인구와 가족

A1. 귀댁의 가구원 수(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총 몇 명입니까?

1. 1명
2. 2명
3. 3명
4. 4명
5. 5명 이상

A2. 귀하는 다음 중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A1=1의 경우는 다음 중 보기 1 제시하지 않음]

1. [동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부모님(부모님이 안계신 경우 조부모 등 다른 가족 중 가구주)과 함께 살고 있다
2. [비동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부모님과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
(학업, 군복무 등의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 등 포함)
3. [독립] 부모님과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이다
(결혼,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A3.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기혼/사실혼(동거)
2. 사별·이혼·별거
3. 비혼/미혼

A4.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귀하는 현재 자녀가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A5. [A4=1] 자녀는 몇 명입니까? ()명

B. 일자리

B1.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전문대학(2년제, 3년제) 재학 중(휴학 포함)
3. 전문대학(2년제, 3년제) 졸업
4. 대학교(4년제) 재학 중(휴학 포함)
5. 대학교(4년제) 졸업
6. 대학원 재학 중(휴학 포함)
7. 대학원 졸업 이상

B2. 귀하는 지난 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등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1시간 이상 일한 경우도 "1. 일을 하였다"로 응답해 주세요.

1. 일을 하였다
2. 휴가 및 일시 휴직
3. 일을 하지 않았다

B3. [B2=3] 귀하는 지난 4주 내에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 취업예정자(1개월 이내)는 '1. 구해 보았음'에 해당

1. 직장을 구해보았고, 지난 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2.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지난 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3. 구해 보지 않았다

- B4. [B2≠3] 귀하는 수입이 있는 일자리에서 어떤 지위로 일하였습니까?
1. 상용 정규직 근로자
 2. 상용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3. 전일제(Full Time) 임시·일용근로자(1년 미만의 계약직 또는 1일 단위로 일을 하며, 여러 직장
에서 일거리가 연결되는 대로 일하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
 4. 시간제(Part Time) 임시·일용근로자
 5. 한 명의 직원(정규직, 알바 모두 포함)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포함)
 6. 직원(정규직, 알바 모두 포함)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7. 무급가족 종사자(보수 없이 가족의 사업을 도움)
 8. 기타()
- B5. [B4≠5] 귀하가 일하신 직장(사업체)은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 4인 이하
 2. 5~9인
 3. 10~29인
 4. 30~299인
 5. 300~999인
 6. 1,000인 이상
- B6. [B4=1, 2, 3, 4] 귀하가 일하신 직장(사업체)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민간기업
 2.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
 3. 재단/사단법인/협회/단체
 4. 기타()
- B7. [B2≠3] 귀하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은 다음 중 어느 직종에 해당합니까?
- | | |
|-------------|------------|
| 1. 경영·사무 | 2. 영업·고객상담 |
| 3. IT·인터넷 | 4. 디자인 |
| 5. 서비스 | 6. 전문직 |
| 7. 의료 | 8. 생산·제조 |
| 9. 건설 | 10. 유통·무역 |
| 11. 미디어 | 12. 교육 |
| 13. 특수계층·공공 | 14. 기타() |
- B8. [B2≠3] 귀하는 지난 한 달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주로 하시는 일 이외에 부업으로 한 일이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 B9. [A3=1] 귀하의 배우자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1. 일을 하고 있다
 2. 일을 하지 않는다

어본 적이 있으신 사업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1. 뉴딜일자리
2. 일자리 카페 운영 및 서비스
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 아무것도 들어본 적 없음

B17. [B16≠4] 귀하는 "#B16선택 보기#"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1. 참여한 적이 있다
2. 참여한 적이 없다

B18. [B17=2] "#B16선택 보기#" 사업에 참여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참여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1. 참여하고 싶다
2. 참여하고 싶지 않다
3. 조건이 맞지 않아 참여할 수 없다

※ 뉴딜일자리 : 만18세 이상의 서울시민 대상 최장 23개월 인건비(생활임금) 지원, 일경험 제공, 직무교육 및 취업 지원
 ※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 만15~39세 청년 대상 90여개 카페 스테디를 및 취업프로그램 무료제공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원(최대 3년) 지원

B19.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다음 사업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1. 뉴딜일자리	1	2	3	4	5
2. 일자리 카페 운영 및 서비스	1	2	3	4	5
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	2	3	4	5

B20. 귀하는 다음 청년대상 일자리 정책 중 어떤 방향을 가장 선호하십니까?

1. 민간기업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2. 공공부문의 고용창출 확대
3. 청년 역량 개발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4. 기타()

C. 주거

C1. 현재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은 무엇입니까?

1. 아파트
2. 연립/다세대/다가구
3. 단독주택
4. 비거주용건물(상가,공장,여관 등)내 주택
5. 고시텔/고시원
6. 기타 ()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C2.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1. 16㎡(5평) 미만
2. 16㎡(5평) ~ 33㎡(10평) 미만
3. 33㎡(10평) ~ 66㎡(20평) 미만
4. 66㎡(20평) ~ 99㎡(30평) 미만
5. 99㎡(30평) ~ 132㎡(40평) 미만
6. 132㎡(40평) ~ 165㎡(50평) 미만
7. 165㎡(50평) 이상

C3.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형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자가
2. 전세
3.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포함)
4. 보증금 없는 월세
5. 기타 ()
6. 무상(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

C4. [C1≠5 or C3≠1] 귀하를 세어하우스처럼 주택에서 방 한 개나 일부를 빌리고 나머지 거실 등은 공용 공간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살고 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C5. [A2=2, 3 and C3=1, 2, 3]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가격 또는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만원 [prog: "13,000"을 입력하면, "일억삼천만원"으로 제시]

C6. [A2=2, 3 and C3=1, 2, 3, 4] 현재 살고 계신 주택 자금(구입 비용, 보증금, 월세 모두 포함)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주택 자금 마련 방법	비중(%)
1. 자기자금	
2. 금융기관 등의 대출	
3. 부모, 친지 등으로부터 받거나 빌림	
4. 기타()	
합계	100%

C7. [A2=2, 3 and C3=3, 4] 현재 귀하의 월평균 주거비(월세, 관리비가 있는 경우는 합산, 단 주택 관련 대출 상환 및 이자 비용은 제외)는 어느 정도 됩니까?

월평균 ()만원 [prog: "50"을 입력하면, "오십만원"으로 제시]

C8. 귀하를 향후 2년 이내에 이사 계획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C9. 귀하가 이사를 하시게 된다면 이사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1. 학교/직장과 가까운 곳 또는 교통편이 좋은 곳에 살기 위해
2. 결혼이나 자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늘어서 큰 집으로 옮기려고
3. 살고 있는 집 보다 내부 시설/구조 등이 더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4. 동네 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5. 이웃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6. 집주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7. 전세나 월세가 올라서
8. 계약 연장이 안되어서
9.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려고
10. 내집 마련 또는 투자 목적으로
11. 현재 동거인이나 가족으로부터 독립하려고
12. 기타()
13. 이사할 의향이 없다

C10. [A2=2, 3] 귀하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기 시작하면서 혹은 독립한 이후에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실 때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골라 주세요.

1.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부나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
2. 고장 등 문제 발생 시 제때 수리해 주지 않았다
3. 계약 전 애기한 조건이나 집의 시설 등이 살면서 보니 차이가 컸다
4. 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 수리 요구를 무리하게 했다
5. 재계약 기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주어야 했다
6. 보증금이나 월세를 무리하게 올렸다
7. 집주인이 사생활에 간섭했다
8. 기타()
9. 해당되는 경우가 없다

C11. [A1=1] 귀하가 혼자 독립해 사시면서 주거에서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1. 집이 좁아 공간이 부족하다
2. 택배 받기가 어렵다
3. 안전성이 떨어진다
4. 위생 관리가 어렵다
5. 더위나 추위에 취약하다(환기, 방열, 냉난방이 잘 안되는 경우 등)
6. 방음이 잘 안된다(중간 소음 포함)
7. 비가 새거나 곰팡이, 결로 등 문제 발생 시 관리가 어렵다
8. 기타()
9. 해당되는 경우가 없다

C12. 귀하가 만 18세 이전에 가장 오래 거주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1. 서울
2. 경기/인천
3. 그 외 지역()

C13. 서울에서 산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년

1장 조사개요

C14. [A2#1] 귀하의 부모님(부모님이 안계신 경우 조부모 등 다른 가족)께서는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십니까?

1. 서울 2. 경기/인천 3. 그 외 지역()

C15.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소득을 고려할 때 주거비가 부담이 된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라면) 나의 현재 또는 기대 소득을 생각할 때 주거비가 부담이 될 것 같다.	1	2	3	4	5
2. 주거 마련(자가 구입, 전월세 등) 등을 위해 부모님이나 가족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1	2	3	4	5

C16. 귀하는 현재 살고 계신 집에 대해 면적, 시설, 안전성, 주변 환경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다소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2	3	4	5

- ※ 청년월세 지원 : 만19~39세, 1인가구, 민간월세 거주 청년 대상 월20만원 10개월간 지원
 ※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 만19~39세이하의 연소득 4천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 대상 대출금의 연 2% 이자 지원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 혼인 7년 이내,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신혼부부 대상 대출금의 연 3.6% 이내 이자지원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 역 350m 내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대량 공급

C17. 귀하는 서울시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으신 사업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1. 청년 월세 지원
 2. 청년 임차 보증금 지원
 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4.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5. 아무것도 들어본 적 없다

C18. [C17#5] 귀하는 “#C17선택 보기#”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1. 참여한 적이 있다
 2. 참여한 적이 없다

C19. [C18=2] “#C17선택 보기#” 사업에 참여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참여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1. 참여하고 싶다
 2. 참여하고 싶지 않다
 3. 조건이 맞지 않아 참여할 수 없다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 청년월세 지원 : 만19~39세, 1인가구, 민간월세 거주 청년 대상 월20만원 10개월간 지원
※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 만19~39세이하의 연소득 4천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 대상 대출금의 연 2% 이자 지원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 혼인 7년 이내,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신혼부부 대상 대출금의 연 3.6% 이내 이자지원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 역 350m 내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대량 공급

C20.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다음 사업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1. 청년월세 지원	1	2	3	4	5
2.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1	2	3	4	5
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1	2	3	4	5
4.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1	2	3	4	5

C21. 귀하는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부동산 관련 교육을 한다면 받으실 의향이 있습니까?

1. 보증금 분쟁 등 분쟁 예방 법률교육
2. 계약방법 및 주거권 교육
3. 정부지원 대출 정보 안내
4. 청년주거지원 정보 및 주거상담 교육
5. 기타()
6. 교육받을 의향이 없다

C22. 귀하는 서울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주거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월세 지원
2. 용자 지원
3. 공공주택 추가 공급
4. 기타()

D. 소득과 지출

D1. 귀하 닉의 세후 기준 월평균 가구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1. 200만원 미만
2. 200~300만원 미만
3. 300~400만원 미만
4. 400~500만원 미만
5. 500~600만원 미만
6. 600~700만원 미만
7. 700~800만원 미만
8. 800만원 이상

D2. [B2#3] 현재 귀하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얻는 세후 기준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월평균 ()만원 [prog: "300"을 입력하면, "삼백만원"으로 제시]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D3. [A2=1, 2] 귀하 본인의 한 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 가족을 제외한 본인 생활비 기준

※ 식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오락, 문화생활, 도서구입 등), 학원수강비,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도서 등 자료 구입비, 주거비 등

월평균 ()만원 [prog: "300"을 입력하면, "삼백만원"으로 제시]

D4. [A2=1, 2] 본인의 한 달 생활비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 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약 ()%

D5. [A2=3] 귀하 닥의 한 달 가구 생활비(1인가구는 본인 생활비)의 다음 항목별 지출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해당 항목 지출이 없는 경우는 0을 입력해 주세요. [prog: "300"을 입력하면, "삼백만원"으로 제시] ※ 저축 등 금융자산 불입금을 제외하고 소비 지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입력

소비 지출 항목	금액(만원)
1. 식비(가정 내 식료품비 + 외식비)	
2. 주거비(월세, 관리비, 전기, 수도, 난방비, 가스요금 등)	
3. 의류/잡화비(구매 및 세탁, 수선 비용)	
4. 교통비(대중교통, 자동차 구입 및 유지 비용)	
5. 통신비(휴대폰, 인터넷)	
6. 자기계발비(학원비 등)	
7. 자녀 양육비(자녀가 있을 경우)	
8. 보건의료비	
9. 문화사교비(영화 관람, 도서 구입 등 교양문화비, 친구나 지인의 대인관계 비용, 레저 스포츠 비등)	
10. 경조사비나 기부금(현금 등)	
11. 사적 이전(같이 살고 있지 않는 부모님이나 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 부모님 생활비 등)	
12. 기타()	
합계	[자동 합계]

D6. 귀하 본인의 대학등록금(귀하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하는 경우 모두 포함)이나, 귀하가 비용을 부담하는 가족의 대학 등록금이 있다면, 등록금 비용으로 한 학기에 얼마 정도 지출하십니까? 없다면 0을 입력해 주세요.

학기 당 ()만원 [prog: "500"을 입력하면, "오백만원"으로 제시]

D7. [A2=2, 3] 최근 1년 동안 귀하 닥의 생활비가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까?

1. 있다
2. 없다

D8. [D7=1] 생활비가 부족한 적이 있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 모두 골라 주세요.

1. 소비를 줄인다
2.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다
3.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4. 예금, 적금, 보험 등을 해약한다
5. 대출을 받는다
6. 생활비 충당을 위해 추가로 일한다
7. 기타()

D9. 생활비 지출 중 주로 부담이 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1. 식비(가정 내 식료품비 + 외식비)
2. 주거비(월세, 관리비, 전기, 수도, 난방비, 가스요금 등)
3. 의류/잡화비(구매 및 세탁, 수선 비용)
4. 교통비(대중교통, 자동차 구입 및 유지 비용)
5. 통신비(휴대폰, 인터넷)
6. 자기계발비(학원비 등)
7. 자녀 양육비(자녀가 있을 경우 보육, 교육비 및 의료비를 제외한 양육비)
8. 보건의료비
9. 문화사교비(영화 관람, 도서 구입 등 교양문화비, 친구나 지인의 대인관계 비용, 레저 스포츠 비등)
10. 경조사비나 기부금(헌금 등)
11. 사적 이전(같이 살고 있지 않는 부모님이나 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 부모님 생활비 등)
12. 기타()
13. 부담되는 경우가 없다

D10. 귀하는 향후 5년 동안 본인의 소득이 현재보다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많이 줄어든 것이다	약간 줄어든 것이다	비슷할 것이다	약간 늘어날 것이다	많이 늘어날 것이다
1	2	3	4	5

D11. 귀하 및 귀댁 가정에서는 최근 6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D12. [D11=1] 평소 소득에 비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월 평균 몇 퍼센트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까? 평소 월 소득이 200만원이고, 코로나19로 인해 월 소득이 평균 100만원 정도였다면 50%로 입력해 주세요. 평소 월 소득 대비 ()%

※ 청년수당 : 만19~34세 졸업후 2년 남은 미취업청년 대상 월50만원 6개월간 지원, 프로그램 제공
 ※ 희망두배 청년통장 : 만18~34세 저소득 근로청년 자산형성 지원, 월 10만원, 15만원 중 선택(2년, 3년 간 저축액 1:1 매칭)
 ※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3년)

D13. 귀하는 서울이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자산 형성 사업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으신 사업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1. 청년수당
2. 희망두배 청년통장
3. 청년내일채움공제
4. 아무것도 들어본 적 없다

D14. [D13≠4] 귀하는 "#D13선택 보기#"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1. 참여한 적이 있다

2. 참여한 적이 없다

D15. [D14=2] "#D13선택 보기#" 사업에 참여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참여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1. 참여하고 싶다
2. 참여하고 싶지 않다
3. 조건이 맞지 않아 참여할 수 없다

※ 청년수당 : 만19~34세 졸업후 2년 미만 미취업청년 대상 월50만원 6개월간 지원, 프로그램 제공
 ※ 희망두배 청년통장 : 만18~34세 저소득 근로청년 자산형성 지원, 월 10만원, 15만원 중 선택(2년, 3년 간 저축액 1:1 매칭)
 ※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3년)

D16. 다음 사업이 청년의 자산형성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1. 청년수당	1	2	3	4	5
2. 희망두배 청년통장	1	2	3	4	5
3. 청년내일채움공제	1	2	3	4	5

D17. 귀하는 청년대상 자산형성 정책 방향에 대해 어느 쪽에 더 동의하십니까?

1. 소수의 청년을 지원이 더 필요한 경우를 선별하여 실질적 혜택이 되도록 지원
2. 다수의 청년을 대상으로 적은 지원금이라도 보편적 혜택이 되도록 지원
3. 기타()

E. 자산과 부채

E1. 귀하는 지금 저축을 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세요.

1. 예금(저축예금, 정기예금, 청약예금 등)
2. 적금(정기적금, 연금형 적금, 저축성 보험,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3. 주식, 채권, 펀드
4. 계
5. 부모님이나 가족, 지인 통해 관리
6. 정부나 지자체의 자산형성 사업 참여
7. 기타()
8. 저축을 하지 않는다

E2. [E1#8] 저축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1. 결혼 준비
2. 주거비용 마련
3. 교육비 마련
4. 창업준비
5. 투자 등의 종잣돈 마련

6. 구입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7. 해외여행
8. 비상시 대비
9. 노후 준비
10. 기타()

E3. [E1#8] 최근 1년 동안 저축을 해약하신 경험이 있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2. 기대보다 이자나 기대수익이 적어서
3. 매달 납입하기가 부담스러워서
4. 고정 생활비가 늘어나서
5. 갑자기 소득이 줄어서
6.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7. 조건이 좋은 다른 저축 상품으로 바꾸기 위해서
8. 기타()
9. 최근 1년 내에 저축을 해약한 경험이 없다

E4. 귀하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갚아야 할 된 채무(학자금 대출 포함)가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주세요.

1. 학자금 대출
2. 은행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포함)
3. 부동산 담보대출
4.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
5. 대부업체
6. 신용카드, 카드론, 단기대출(현금서비스)
7. 차 할부금 또는 리스
8. 개인 채무
9. 기타()
10. 채무가 없다

E5. [E4#10] 귀하가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채무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주세요.

1. 학자금
2. 주거비(전, 월세자금 대출 등)
3. 생활비 마련(식비, 의류비, 교통통신비 등)
4. 의료비
5. 가족 지원(사적 이전이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포함)
6. 다른 부채 변제
7. 창업 자금
8. 결혼 준비 자금
9. 기타()

E6. [E4#10] 귀하 본인의 총 채무는 얼마나 됩니까? [prog: "3,000"을 입력하면, "삼천만원"으로 제시]
()만원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E7.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3개월 이상 연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음 중 해당 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1. 월세, 고시원비, 하숙비 등의 주거비
2.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
3. 공과금
4. 핸드폰 등 통신요금
5. 세금 및 과태료
6. 관리비
7. 대출금 상환이나 이자 연체
8. 기타()
9. 3개월 이상 연체한 적이 없다

E8. [E7≠9] 연체를 하신 경우 주된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1.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다
2. 대출을 받는다
3. 자산을 처분한다
4. 예금, 적금, 보험 등을 해약한다
5. 추가로 일한다
6. 소득이 생길 때 까지 기다린다
7. 채무 조정을 신청한다
8. 기타()

E9. 현재 귀하가 본인 이름으로 보유한 자산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현재 보유한 자산이 없으면 '0'을 기입해주세요. [prog: "13,000"을 입력하면, "일억삼천만원"으로 제시]

문항	해당사항	금액(만원)
1.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 토지, 기타 부동산 가격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포함 • 다른 부동산을 사기 위해 낸 계약금, 중도금도 포함 • 전세나 반전세로 있는 경우 보증금 포함 	만원
2.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 적금, 주식, 펀드, 갯돈, 남에게 빌려준 돈 등 	만원
3.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나 설비, 물건 등 동산 자산 • 자가용, 트럭 등 자동차 • 운동클럽 회원권, 귀금속, 골동품, 상품권 등 	만원
합계		[자동합계]

E10. 귀하는 향후 5년 동안 본인의 자산이 현재보다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많이 줄어듦 것이다	약간 줄어듦 것이다	비슷할 것이다	약간 늘어날 것이다	많이 늘어날 것이다
1	2	3	4	5

E11. [E10=4, 5] 자산이 늘어난다면 어떤 요인 때문이라 예상하십니까?

1. 소득(임금 또는 사업 소득) 증가
2.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
3. 부동산 투자

4. 부모나 가족, 친척의 상속 또는 증여

5. 기타()

E12. 귀하는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를 종합해서 볼 때 본인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일을 하지 않고 계신 경우는 과거 일을 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취업을 해본 적이 없다면 향후 본인이 처음 취업을 하게 될 경우를 고려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혀 안정적이지 못하다	다소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통이다	다소 안정적이다	아주 안정적이다
1	2	3	4	5

E13.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1. 일자리
2. 소득
3. 주거
4. 인맥 등 사회적 네트워크
5. 직무 능력(전문성)
6. 사회안전망, 사회보험 등 복지제도
7. 부모나 가족의 지원
8. 기타()

E14. 귀하는 주거지원, 생활비지원, 고용지원 등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 방문 혹은 웹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찾아본 적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받은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대상 대출이자 상환
 ※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 : 만19~34세 학자금대출 신용유이자 대상 초입금 지원(대출잔액의 5%)
 ※ 청년미래투자 금융지원 : 만19~34세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대출에 따라 발생한 이자금액 지원

E15. 귀하는 서울시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대출 지원 사업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으신 사업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2.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
3. 청년미래투자 금융지원
4. 아무것도 들어본 적 없음

E16. [E15#4] 귀하는 “#E15선택 보기#”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1. 참여한 적이 있다
2. 참여한 적이 없다

E17. [E16=2] “#E15선택 보기#” 사업에 참여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참여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1. 참여하고 싶다
2. 참여하고 싶지 않다
3. 조건이 맞지 않아 참여할 수 없다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받은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대상 대출이자 상환
 ※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 : 만19~34세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대상 초입금 지원(대출잔액의 5%)
 ※ 청년미래투자 금융지원 : 만19~34세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대출에 따라 발생한 이자금액 지원

E18. 다음 사업이 대출 상황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	2	3	4	5
2.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	1	2	3	4	5
3. 청년미래투자 금융지원	1	2	3	4	5

E19. 귀하는 청년 대상 대출지원 사업 정책 방향에 대해 어느 쪽에 더 동의하십니까?

1.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등 사후 대책
2. 대출이 최소로 발생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 대책
3. 기타()

F. 신체 건강

F1. 귀하는 지난 3개월 동안 몇 번이나 술을 마셨습니까?

1. 마시지 않았다
2. 3개월 간 1~2회
3. 한달에 1~2회
4. 한달에 3~4회
5. 일주일에 2~3회
6. 일주일에 5회 이상

F2. 귀하는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피우신다면 하루에 어느 정도 피우십니까?

1. 피운다(하루 평균 _____ 개비)
2.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
3. 피워본 적이 없다

F3. 귀하는 지난 1년간 건강검진(종합건강검진 혹은 일반건강검진 모두 해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F4.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으면서 의사에게 진단받은 만성질병은 몇 개입니까?

※ 만성질병: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B/C간염, 우울증,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부비동염, 뇌졸중(중풍), 심근경색증, 협심증, 만성간염, 폐결핵, 갑상선 질환, 만성신부전증, 허리·목 디스크 등

1. 3개 이상
2. 2개
3. 1개

4. 없다

F5. 귀하는 최근 1년간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주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1.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2.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3.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4. 기타()
5. 아프거나 다친 적이 없다

F6. [F5=2, 3] 귀하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골라 주세요. 1순위(), 2순위()

1.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2.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3.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4.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5.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6. 기타()

F7. 귀하는 최근 1년간 규칙적 체육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일상 생활의 걷기는 제외), 운동 횟수는 1일 1회 기준임. 학생의 경우 학교 정규 체육수업은 제외

1. 거의 하지 않는다
2. 한 달에 3번 이하
3. 일주일에 1~2번
4. 일주일에 3~4번
5. 일주일에 5~6번
6. 매일

F8. [F7=1, 2] 귀하가 평소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자주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다
2. 운동할 장소(생활체육시설 등)가 부족하다
3. 주위에 같이 운동할 사람이 없다
4. 운동하는데 비용이 부담된다
5. 내 시간이나 관심이 맞는 운동 프로그램이 없다
6. 건강 상 이유로 운동을 하기 어렵다
7. 운동에 관심이 없다
8. 기타()

F9. 귀하가 사시는 동네(실내 포함)에서 이용 가능한 체육 시설을 모두 골라 주세요.

1. 공공 체육관
2. 야외 운동장
3. 야외 체육기구(아파트 단지 시설 포함)
4. 공원 및 산책로

1장 조사개요

5.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주민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
6. 민간 생활체육시설(탁구장, 배드민턴, 테니스, 피트니스, 필라테스, 요가 등)
7. 자기 집안에서 실내 운동용품 사용
8. 기타()
9. 없다
10. 잘 모른다

F10. 귀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2	3	4	5

F11. [F10=3, 4, 5] 그렇다면, 생활체육 관련하여 어떤 청년 대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주민센터, 구립 체육관 등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 프로그램 운영
2. 동네에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생활 체육 소모임 지원
3. 체육 시설 확충
4. 기타()

F12. 다음은 귀하의 건강과 생활 습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1. 균형적 영양 섭취	1	2	3	4	5
2. 충분한 수면 시간	1	2	3	4	5
3. 청결 및 위생 관리	1	2	3	4	5
4.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나 운동 등 자기관리	1	2	3	4	5
5. 전반적인 신체 건강	1	2	3	4	5

※ 국가건강검진 : 미취업 20~30대 청년 등을 국가검진대상으로 신규 포함, 모든 청년에게 2년 1회 무료 건강검진 실시('19.1월)

F13. 귀하는 국가건강검진 사업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1. 들어본 적 있다
2. 들어본 적 없다

F14. [F13=1] 귀하는 국가건강검진을 이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1. 이용한 적이 있다
2. 이용한 적이 없다

F15. [F14=2] 국가건강검진을 이용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이용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1. 이용하고 싶다
2. 이용하고 싶지 않다
3. 조건이 맞지 않아 이용할 수 없다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 국가건강검진 : 미취업 20~30대 청년 등을 국가검진대상에 신규 포함, 모든 청년에게 2년 1회 무료 건강검진 실시('19.1월)

F16. 국가건강검진은 신체건강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1	2	3	4	5

G. 마음 건강

G1. 귀하의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1. 경제 상황(소득, 지출, 채무 등)
2. 직장 생활
3. 취업 및 진로
4. 학업 및 진학
5. 주거 문제
6. 가족 간 관계
7. 친구 및 대인 관계
8. 연애 및 결혼
9. 건강, 질병 및 장애
10. 외모나 체형
11. 사회/정치 현안 및 갈등
12. 기타()
13. 평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G2. 귀하는 평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골라 주세요. 1순위(), 2순위()

1. 운동 및 신체활동
2. 취미활동
3. 규칙적인 생활
4. 상담 및 대화(가족, 친구, 지인)
5. 명상 및 휴식
6. 봉사활동 및 종교활동
7.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
8. 기타()
9. 특별히 노력하는 것이 없다

G3. 지난 2주동안, 아래 나열되는 증상들에 얼마나 자주 시달렸습니까?

문항	전혀 아니다	여러날 동안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1.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	1	2	3	4
2. 가라앉은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	1	2	3	4
3.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어남, 혹은 너무 많이 잠	1	2	3	4
4. 피곤함, 기력이 저하됨	1	2	3	4
5. 식욕 저하, 혹은 과식	1	2	3	4
6. 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 혹은 내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껴거나, 나 때문에 나 자신이나 가족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느낌	1	2	3	4
7.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중하기 어려움	1	2	3	4
8. 남들이 알아챌 정도로 거동이나 말이 느림, 또는 반대로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해서 평소보다 많이 돌아다니고 서성거림	1	2	3	4
9. 나는 자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생각, 혹은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를 자해하는 생각들	1	2	3	4

G4. 지난 1년 동안 경험하신 적이 있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1.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2.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분변화
3. 자제할 수 없는 분노 표출(폭력행위 등)
4.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
5.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
6. 심각한 스트레스
7. 자살 충동
8. 자해 행동
9. 건망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10. 환청, 환시, 망상적 생각
11. 알코올 문제
12. 약물중독 문제
13. 도박 중독문제(온라인 도박 포함)
14. 기타 중독문제(게임 중독 등)
15. 아무것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G5. [G3이 모두 1인 경우 제외 or G4≠15] 최근 1년간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가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움 받은 경우를 모두 골라 주세요.

1. 부모, 가족 및 배우자
2. 친구나 선후배
3. 직장 동료
4. 지인
5. 온라인(현실에서는 모르지만 소셜 미디어 등으로 알고 지내는 지인 또는 익명 게시판 등)
6. 전문가(의료기관, 공공 및 민간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

7. 종교인(목사, 신부, 승려 등)
8. 기타()
9. 도움 받은 적이 없다

G6. 귀하는 지금까지 우울, 불안, 자살충동 등 마음의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방문해 보신 기관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1. 병원 등 의료기관
2.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공공 전문상담기관
3. 민간 전문상담기관
4. 보건소
5. 기타()
6.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다

G7. [G6#6] 그렇다면, [#G6 응답#] 방문이 마음의 문제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G8. 귀하가 마음 건강의 문제로 전문가 상담을 받는다면 어느 곳을 가장 선호하십니까?

1. 병원 등 의료기관
2.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공공 전문상담기관
3. 민간 전문상담기관
4. 보건소
5. 기타()

G9. 귀하가 마음 건강 문제로 병원,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을 방문할 때 걱정되거나 방문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골라 주세요. 1순위(), 2순위()

1. 어떤 곳을 방문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2. 근처에 방문할 만한 기관이 없다
3. 병원비나 약값, 상담비용 등 비용이 부담스럽다
4. 주변의 시선이 부담된다
5. 상담이나 치료 기록 때문에 이후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
6. 기타()
7. 걱정되거나 어렵지 않다

‘코로나 블루(corona + blue)’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일상에서 외로움과 우울감, 불안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호소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신조어입니다.

G10. 귀하는 최근 2주간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자주 있다	종종 있는 편이다	드물게 있다	전혀 없다
1	2	3	4

G11. [G10=1, 2, 3] 귀하가 최근 2주간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세 가지만 선택하여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1.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
2. 나와 가족이 감염되는 것에 대한 염려
3. 외부 활동 및 신체적 활동 제한
4. 대인관계 및 소통 단절로 인한 고립감
5. 경제적 부담 및 불안
6. 계획된 일정의 연기 및 취소
7. 자녀, 어르신 등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
8. 잘못된 정보 등 정보 과잉으로 인한 피로
9.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연함
10.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데서 오는 불편감
11. 기타 ()

G12. 귀하는 생활하면서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생활을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자주 느낀다	1	2	3	4	5
2. 내가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하다	1	2	3	4	5
3. 지금보다 주변부로 밀려날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G13. 귀하는 현재 본인의 마음 건강이 전반적으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1	2	3	4	5

※ 청년마음건강지원 : 만19~34세 최대 7회 심리상담전문가와 매칭 및 상담료 지원

G14. 귀하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1. 들어본 적 있다
2. 들어본 적 없다

G15. [G14=1] 귀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1. 참여한 적이 있다
2. 참여한 적이 없다

G16. [G15=2]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에 참여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참여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1. 참여하고 싶다
2. 참여하고 싶지 않다
3. 조건이 맞지 않아 참여할 수 없다

※ 청년마음건강지원 : 만19~34세 최대 7회 심리상담전문가와 매칭 및 상담료 지원

G17.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은 청년의 마음건강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1	2	3	4	5

H. 사회적 관계

H1. 귀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족(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친척 등) 이외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H2. [H1=1] 그렇다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 명

H3.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족 이외에 주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 같습니까?

1. 친구나 선후배
2. 직장 관련 동료
3. 지인
4. 공공기관
5. 종교/복지단체
6. 온라인(현실에서는 모르지만 소셜 미디어 등으로 알고 지내는 지인 또는 익명 게시판 등)
7. 기타()
8. 없다

H4.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다음 중 일자리, 취업, 창업 등과 관련한 정보를 얻거나 도움을 구한 경우를 모두 골라 주세요.

1. 가족(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친척 등)
2. 친구나 선후배
3. 직장 관련 동료
4. 지인
5. 온라인(현실에서는 모르지만 소셜 미디어 등으로 알고 지내는 지인, 익명 게시판 관련 커뮤니티 등)
6. 기타()
7. 혼자 해결할 수 있어서 정보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8. 정보나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다
9. 현재 취업, 창업과 관련이 없어 해당되지 않는다

H5.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다음 중 부동산, 주식 등과 관련한 정보를 얻거나 도움을 구한 경우를 모두 골라 주세요.

1. 가족(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친척 등)
2. 친구나 선후배
3. 직장 관련 동료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4. 지인
5. 온라인(현실에서는 모르지만 소셜 미디어 등으로 알고 지내는 지인, 익명 게시판 관련 커뮤니티 등)
6. 기타()
7. 혼자 해결할 수 있어서 정보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8. 정보나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다
9. 현재 부동산, 주식 등과 관련이 없어 해당되지 않는다

H6. 귀하는 동네에 알고 지내는 친구가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H7. [H6=1] 그렇다면 몇 명 정도 됩니까?

() 명

H8. 귀하는 다음 중 가입하고 있는 모임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 주세요.

1. 동네 친목, 취미, 공부, 활동 등 모임
2. 직장 내 친목, 취미, 공부, 활동 등 모임
3. 동네나 직장 관련 없는 친목, 취미, 공부, 활동 등 모임
4. 온라인으로만 주로 진행되는 친목, 취미, 공부, 활동 등 모임
5. 기타()
6. 가입하고 있는 모임이 없다

H9. [H8≠6] [#H8 응답값#]은 다음 중 어떤 분야입니까?

1. 친목
2. 취미/운동
3. 공부
4. 봉사활동/종교활동
5. 지역 활동이나 사회문제
6. 부동산, 재테크, 대출
7. 게임
8. 기타()

H10. 귀하는 코로나19로 본인의 사회적 관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매우 축소되었다	약간 축소되었다	변함없다	약간 확대되었다	매우 확대되었다
1	2	3	4	5

H11. 다음은 귀하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얻을 사회적 관계가 충분하다	1	2	3	4	5
2. 평소 신뢰할만한 주변사람이 많은 편이다	1	2	3	4	5

H12. 귀하는 서울시가 동네 또래 사람들이 같이 운동이나 취미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임을 지원
하는 청년 커뮤니티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 들어본 적 있다
2. 들어본 적 없다

H13. [H12=1] 귀하는 청년 커뮤니티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1. 참여한 적이 있다
2. 참여한 적이 없다

H14. [H13=2] 청년 커뮤니티 사업에 참여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참여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1. 참여하고 싶다
2. 참여하고 싶지 않다
3. 조건이 맞지 않아 참여할 수 없다

H15. 서울시가 동네에서 또래 사람들이 같이 운동이나 취미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임을 지원하
는 청년 커뮤니티 사업은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를 확대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
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1	2	3	4	5

H16. 귀하가 이와 같은 청년 커뮤니티 사업에 참여하신다면, 참여하기에 어려움이 되는 가장 주된 요인
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 청년 커뮤니티 사업을 잘 모른다
2. 동네에 관심이 가는 내용의 모임이나 프로그램이 없다
3. 원하는 시간대에 모임이나 프로그램이 없다
4.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
5.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
6. 기타()
7. 청년 커뮤니티 사업과 같은 동네 모임에 관심이 없다

H17. [앞에서 청년지원 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싶은데 자격이 없다에 응답한 경
우] 귀하는 참여해보셨거나, 참여하려 했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 참여하지 못하신 청년 지원 사업의
연령, 가구, 소득, 직업 소득 등 지원 자격 조건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H18. 서울시의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어떤 경로로 제공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세요. 1순위 (), 2순위 ()

1. 서울시 홈페이지
2. 서울시 및 관련 사업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3. 서울시 및 관련 사업 소셜 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네이버 밴드 등)
4. 인터넷 포털 뉴스 기사
5.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의 포스터나 인쇄물 자료
6.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 방문 통해 공무원 안내
7. 기타 ()
8. 청년 지원 사업 정보에 관심이 없다

1. 가치관

11. 다음 각 영역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문항	전혀 신뢰 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다소 신뢰 한다	매우 신뢰 한다
1. 타인(낯선 사람)	1	2	3	4	5
2. 공적 기관(청와대, 행정부, 국회, 법원 등)	1	2	3	4	5
3. 민간 기업	1	2	3	4	5
4. 시민사회/종교/비영리단체	1	2	3	4	5
5. 우리 사회 전반	1	2	3	4	5

12.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살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1	2	3	4	5

13. 다음은 귀하의 주관적 행복과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느끼는 정도를 낮을수록 0에 가깝게, 높을수록 10에 가깝게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낮음					중 간	높음				
1. 귀하는 현재 전반적으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2. 귀하는 현재 전반적으로 본인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며 통계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 2

기성세대

서울 청년 실태 기성세대 비교조사

안녕하세요?

본 조사는 서울시 청년청 주관으로 서울 청년 실태에 대해 기성세대의 인식과 현황을 비교하여 서울시 청년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 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협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08월

주관기관 : 서울시 청년청 조사기관 : 글로벌리서치

SQ. 응답자 선정 질문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성
2. 여성

SQ2. 귀하의 나이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세

1. 만39세 이하[조사 중단]
2. 만40~49세
3. 만50~59세
4. 만60~64세
5. 만65세 이상[조사 중단]

SQ3. 귀하가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 | | | | |
|--------------------|---------|----------|----------|---------|
| 1. 종로구 | 2. 중구 | 3. 용산구 | 4. 성동구 | 5. 광진구 |
| 6. 동대문구 | 7. 중랑구 | 8. 성북구 | 9. 강북구 | 10. 도봉구 |
| 11. 노원구 | 12. 은평구 | 13. 서대문구 | 14. 마포구 | 15. 양천구 |
| 16. 강서구 | 17. 구로구 | 18. 금천구 | 19. 영등포구 | 20. 동작구 |
| 21. 관악구 | 22. 서초구 | 23. 강남구 | 24. 송파구 | 25. 강동구 |
| 26. 서울 외 지역[조사 중단] | | | | |

A. 인구와 가족

A1. 귀택의 가구원 수(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총 몇 명입니까?

1. 1명
2. 2명
3. 3명
4. 4명
5. 5명 이상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A2.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기혼/사실혼(동거)
2. 사별·이혼·별거
3. 비혼/미혼

A3.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귀하는 현재 자녀가 있으십니까? 해당되는 경우를 모두 응답해 주세요.

1. 성년, 대학생 자녀
2. 성년, 대학생이 아닌 자녀(졸업 또는 진학하지 않음)
3. 미성년 초·중고생 자녀
4. 미성년 영유아 자녀
5. 자녀가 없다

A4. [A3≠5] 귀하는 다음 중 어떤 경우에 해당하십니까? [A1=1의 경우는 다음 중 보기 1 제시하지 않음]

1. [동거]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2. [비동거] 자녀가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경제적 비독립)
(학업, 군복무 등의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 등 포함)
3. [독립] 자녀가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독립(분가)한 상태이다
(결혼,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B. 일자리

B1.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전문대학(2년제, 3년제) 재학 중(휴학 포함)
3. 전문대학(2년제, 3년제) 졸업
4. 대학교(4년제) 재학 중(휴학 포함)
5. 대학교(4년제) 졸업
6. 대학원 재학 중(휴학 포함)
7. 대학원 졸업 이상

B2. 귀하는 지난 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등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1시간 이상 일한 경우도 "1. 일을 하였다"로 응답해 주세요.

1. 일을 하였다
2. 휴가 및 일시 휴직
3. 일을 하지 않았다

B3. [B2≠3] 귀하는 수입이 있는 일자리에서 어떤 지위로 일하였습니까?

1. 상용 정규직 근로자
2. 상용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3. 전일제(Full Time) 임시·일용근로자(1년 미만의 계약직 또는 1일 단위로 일을 하며, 여러 직장
에서 일거리가 연결되는 대로 일하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
4. 시간제(Part Time) 임시·일용근로자
5. 한 명의 직원(정규직, 알바 모두 포함)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포함)
6. 직원(정규직, 알바 모두 포함)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7. 무급가족 종사자(보수 없이 가족의 사업을 도움)
 8. 기타()

B4. 귀하가 청년(19~39세)이었을 때 소득, 안정성, 장래성, 자아실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시 수입을 목적으로 하시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았다	별로 만족하지 않았다	보통이었다	다소 만족했다	매우 만족했다
1	2	3	4	5

B5. 귀하는 최근 6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이나 사업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세요.

1. 고용 취소, 해고, 원하지 않는 무급 휴가, 폐업
2. 소득 감소
3. 근무나 영업 시간의 축소
4. 해당되는 경우 없다

B6. 귀하는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본인의 구직, 고용의 유지, 창업 등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전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다소 어려울 것이다	매우 어려울 것이다
1	2	3	4	5

※ 뉴딜일자리 : 만18세 이상의 서울시민 대상 최장 23개월 인건비(생활임금) 지원, 일경험 제공, 직무교육 및 취업 지원
 ※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 만15~39세 청년 대상 90여개 카페 스터디룸 및 취업프로그램 무료제공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원(최대 3년) 지원

B7.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다음 사업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1. 뉴딜일자리	1	2	3	4	5
2. 일자리 카페 운영 및 서비스	1	2	3	4	5
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	2	3	4	5

B8. 귀하는 다음 청년대상 일자리 정책 중 어떤 방향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보십니까?

1. 민간기업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2. 공공부문의 고용창출 확대
3. 청년 역량 개발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4. 기타()

C. 주거

C1. 현재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은 무엇입니까?

1. 아파트
2. 연립/다세대/다가구
3. 단독주택
4. 비거주용건물(상가,공장,여관 등)내 주택
5. 고시텔/고시원
6. 기타 ()

C2.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1. 16㎡(5평) 미만
2. 16㎡(5평) ~ 33㎡(10평) 미만
3. 33㎡(10평) ~ 66㎡(20평) 미만
4. 66㎡(20평) ~ 99㎡(30평) 미만
5. 99㎡(30평) ~ 132㎡(40평) 미만
6. 132㎡(40평) ~ 165㎡(50평) 미만
7. 165㎡(50평) 이상

C3.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형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자가
2. 전세
3.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4. 보증금 없는 월세
5. 기타 ()
6. 무상(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

C4. 귀하가 처음으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해서 살게 되신 때(학교 진학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취는 제외)는 몇 년도입니까? ※ 월세, 전세, 자가 모두 포함

1. ()년도
2. 지금도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

C5. [C4#2] 귀하는 귀하가 처음으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해서 주택을 마련하셨을 때 자금(구입 비용, 보증금, 월세 모두 포함)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 경제적 독립(분가) 기준, 자가/전세/월세 모두 포함

주택 자금 마련 방법	비중(%)
1. 자기자금	
2. 금융기관 등의 대출	
3. 부모, 친지 등으로부터 받거나 빌림	
4. 기타()	
합계	100%

C6. 서울에서 산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년

C7.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귀하가 청년(19~39세)이었을 때 본인의 소득을 고려할 때 주거비가 부담이 되었다.	1	2	3	4	5
2. 귀하가 청년(19~39세)이었을 때 주거 마련(자가 구입, 전월세 등) 등을 위해 부모님이나 가족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었다	1	2	3	4	5

C8. 처음으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해서 주택을 마련하셨을 때 당시 집에 대해 면적, 시설, 안전성, 주변 환경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 경제적 독립(분가) 기준, 자가/전세/월세 모두 포함

전혀 만족하지 않았다	별로 만족하지 않았다	보통이었다	다소 만족했다	매우 만족했다
1	2	3	4	5

※ 청년월세 지원 : 만19~39세, 1인가구, 민간월세 거주 청년 대상 월20만원 10개월간 지원
 ※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 만19~39세이하의 연소득 4천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 대상 대출금의 연 2% 이자 지원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 혼인 7년 이내,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신혼부부 대상 대출금의 연 3.6% 이내 이자 지원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 역 350m 내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대량 공급

C9.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다음 사업이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1. 청년월세 지원	1	2	3	4	5
2.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1	2	3	4	5
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1	2	3	4	5
4.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1	2	3	4	5

C10. 귀하는 서울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청년 주거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월세 지원
2. 용자 지원
3. 공공주택 추가 공급
4. 기타()

D. 소득과 지출

D1. 귀하 닉의 세후 기준 월평균 가구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1. 200만원 미만
2. 200~300만원 미만
3. 300~400만원 미만
4. 400~500만원 미만
5. 500~600만원 미만
6. 600~700만원 미만
7. 700~800만원 미만
8. 800만원 이상

D2. 귀하가 청년(19~39세)이었을 때 생활비 지출 중 주로 부담이 되는 항목은 무엇이였습니까?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 주세요. ※ 대학등록금, 자녀의 보육/교육/의료비는 제외

1순위(), 2순위(), 3순위()

1. 식비(가정 내 식료품비 + 외식비)
2. 주거비(월세, 관리비, 전기, 수도, 난방비, 가스요금 등)
3. 의류/잡화비(구매 및 세탁, 수선 비용)
4. 교통비(대중교통, 자동차 구입 및 유지 비용)
5. 통신비(휴대폰, 인터넷)
6. 자기계발비(학원비 등)
7. 자녀 양육비(자녀가 있을 경우 보육, 교육비 및 의료비를 제외한 양육비)
8. 보건의료비
9. 문화사교비(영화 관람, 도서 구입 등 교양문화비, 친구나 지인의 대인관계 비용, 레저 스포츠 비등)
10. 경조사비나 기부금(헌금 등)
11. 사적 이전(같이 살고 있지 않는 부모님이나 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 부모님 생활비 등)
12. 기타()
13. 부담되는 경우가 없었다

D3. 귀하 및 귀댁 가정에서는 최근 6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D4. [D3=1] 평소 소득에 비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월 평균 몇 퍼센트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까? 평소 월 소득이 200만원이고, 코로나19로 인해 월 소득이 평균 100만원 정도였다면 50%로 입력해 주세요.
평소 월 소득 대비 ()%

※ 청년수당 : 만19~34세 졸업후 2년 남은 미취업청년 대상 월50만원 6개월간 지원, 프로그램 제공
 ※ 희망두배 청년통장 : 만18~34세 저소득 근로청년 자산형성 지원, 월 10만원, 15만원 중 선택(2년, 3년 간 저축액 1:1 매칭)
 ※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3년)

D5. 다음 사업이 청년의 자산형성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1. 청년수당	1	2	3	4	5
2. 희망두배 청년통장	1	2	3	4	5
3. 청년내일채움공제	1	2	3	4	5

D6. 귀하는 청년대상 자산형성 정책 방향에 대해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1. 소수의 청년을 지원이 더 필요한 경우를 선별하여 실질적 혜택이 되도록 지원
2. 다수의 청년을 대상으로 적은 지원금이라도 보편적 혜택이 되도록 지원
3. 기타()

E. 자산과 부채

E1. 귀하가 청년(19~39세)이었을 때 귀하는 저축을 하고 있었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세요.

1. 예금(저축예금, 정기예금, 청약예금 등)
2. 적금(정기적금, 연금형 적금, 저축성 보험,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3. 주식, 채권, 펀드
4. 계
5. 부모님이나 가족, 지인 통해 관리
6. 정부나 지자체의 자산형성 사업 참여
7. 기타()
8. 저축을 하지 않았다

E2. [E1#8] 귀하가 청년(19~39세)이었을 때 저축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1. 결혼 준비
2. 주거비용 마련
3. 교육비 마련
4. 창업준비
5. 투자 등의 종잣돈 마련
6. 구입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7. 해외여행
8. 비상시 대비
9. 노후 준비
10. 기타()

E3. 귀하가 청년(19~39세)이었을 때 귀하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학자금 대출 포함)가 있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주세요.

1. 학자금 대출
2. 은행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포함)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3. 부동산 담보대출
4.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
5. 대부업체
6. 신용카드, 카드론, 단기대출(현금서비스)
7. 차 할부금 또는 리스
8. 개인 채무
9. 기타()
10. 채무가 없었다

E4. **[E3≠10] 귀하가 청년(19~39세)이었을 때**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채무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주세요.

1. 학자금
2. 주거비(전, 월세자금 대출 등)
3. 생활비 마련(식비, 의류비, 교통통신비 등)
4. 의료비
5. 가족 지원(사적 이전이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포함)
6. 다른 부채 변제
7. 창업 자금
8. 결혼 준비 자금
9. 기타()

E5. **귀하가 청년(19~39세)이었을 때** 귀하는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를 종합해서 볼 때 본인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안정적이지 못했다	다소 안정적이지 못했다	보통이었다	다소 안정적이었다	아주 안정적이었다
1	2	3	4	5

E6. **귀하가 청년(19~39세)이었을 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 주세요.

- 1순위(), 2순위(), 3순위()
1. 일자리
 2. 소득
 3. 주거
 4. 인맥 등 사회적 네트워크
 5. 직무 능력(전문성)
 6. 사회안전망, 사회보험 등 복지제도
 7. 부모나 가족의 지원
 8. 기타()

-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받은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대상 대출이자 상환
 ※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 : 만19~34세 학자금대출 신용유이자 대상 초입금 지원(대출잔액의 5%)
 ※ **청년미래투자 금융지원** : 만19~34세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대출에 따라 발생한 이자금액 지원

E7. 다음 사업이 대출이 있는 청년들의 대출 상황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	2	3	4	5
2.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	1	2	3	4	5
3. 청년미래투자 금융지원	1	2	3	4	5

E8. 귀하는 청년 대상 대출지원 사업 정책 방향에 대해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1.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등 사후 대책
2. 대출이 최소로 발생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 대책
3. 기타()

F. 신체 건강

F1. 다음은 귀하의 건강과 생활 습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1. 균형적 영양 섭취	1	2	3	4	5
2. 충분한 수면 시간	1	2	3	4	5
3. 청결 및 위생 관리	1	2	3	4	5
4.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나 운동 등 자기관리	1	2	3	4	5
5. 전반적인 신체 건강	1	2	3	4	5

F2. 귀하가 청년(19~39세)이었을 때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1. 운동할 시간이 부족했다
2. 운동할 장소(생활체육시설 등)가 부족했다
3. 주위에 같이 운동할 사람이 없었다
4. 운동하는데 비용이 부담되었다
5. 내 시간이나 관심이 맞는 운동 프로그램이 없었다
6. 건강 상 이유로 운동을 하기 어려웠다
7. 운동에 관심이 없었다
8. 기타()
9. 운동을 규칙적으로 자주 했다

F3. 귀하가 청년(19~39세)이었을 때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바로 가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골라 주세요. 1순위(), 2순위()

1.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2.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3.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4.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5.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6. 기타()
7. 병원에 바로 가는 편이었다

F4. 귀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2	3	4	5

F5. [F2=3, 4, 5] 그렇다면, 생활체육 관련하여 어떤 청년 대상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1. 주민센터, 구립 체육관 등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 프로그램 운영
2. 동네에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생활 체육 소모임 지원
3. 체육 시설 확충
4. 기타()

※ 국가건강검진 : 미취업 20~30대 청년 등을 국가검진대상에 신규 포함, 모든 청년에게 2년 1회 무료 건강검진 실시('19.1월)

F6. 국가건강검진은 청년의 신체건강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1	2	3	4	5

G. 마음 건강

G1. 귀하의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1. 경제 상황(소득, 지출, 채무 등)
2. 직장 생활
3. 취업 및 진로
4. 학업 및 진학
5. 주거 문제
6. 가족 간 관계
7. 친구 및 대인 관계
8. 연애 및 결혼
9. 건강, 질병 및 장애
10. 외모나 체형
11. 사회/정치 현안 및 갈등
12. 기타()
13. 평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G2. 귀하는 평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순서대로 두가지를 골라 주세요. 1순위(), 2순위()

1. 운동 및 신체활동
2. 취미활동
3. 규칙적인 생활
4. 상담 및 대화(가족, 친구, 지인)

5. 명상 및 휴식
6. 봉사활동 및 종교활동
7.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
8. 기타()
9. 특별히 노력하는 것이 없다

G3. 지난 2주동안, 아래 나열되는 증상들에 얼마나 자주 시달렸습니까?

문항	전혀 아니다	여러날 동안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1.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	1	2	3	4
2. 가라앉은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	1	2	3	4
3.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어남, 혹은 너무 많이 잠	1	2	3	4
4. 피곤함, 기력이 저하됨	1	2	3	4
5. 식욕 저하, 혹은 과식	1	2	3	4
6. 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 혹은 내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나 때문에 나 자신이나 가족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느낌	1	2	3	4
7.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중하기 어려움	1	2	3	4
8. 남들이 알아챌 정도로 거동이나 말이 느림, 또는 반대로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해서 평소보다 많이 돌아다니고 서성거림	1	2	3	4
9.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생각, 혹은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를 자해하는 생각들	1	2	3	4

G4. 지난 1년 동안 경험하신 적이 있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1.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2.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분변화
3. 자제할 수 없는 분노 표출(폭력행위 등)
4.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
5.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
6. 심각한 스트레스
7. 자살 충동
8. 자해 행동
9. 건강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10. 환청, 환시, 망상적 생각
11. 알코올 문제
12. 약물중독 문제
13. 도박 중독문제(온라인 도박 포함)
14. 기타 중독문제(게임 중독 등)
15. 아무것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G5. [G3이 모두 1인 경우 제외 or G4#15] 최근 1년간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가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움 받은 경우를 모두 골라 주세요.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1. 부모, 가족 및 배우자
2. 친구나 선후배
3. 직장 동료
4. 지인
5. 온라인(현실에서는 모르지만 소셜 미디어 등으로 알고 지내는 지인 또는 익명 게시판 등)
6. 전문가(의료기관, 공공 및 민간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
7. 종교인(목사, 신부, 승려 등)
8. 기타()
9. 도움 받은 적이 없다

G6. 귀하는 지금까지 우울, 불안, 자살충동 등 마음의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방문해 보신 기관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1. 병원 등 의료기관
2.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공공 전문상담기관
3. 민간 전문상담기관
4. 보건소
5. 기타()
6.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다

G7. [G6#6] 그렇다면, [#G6 응답#] 방문이 마음의 문제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G8. 귀하가 마음 건강의 문제로 전문가 상담을 받는다면 어느 곳을 가장 선호하십니까?

1. 병원 등 의료기관
2.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공공 전문상담기관
3. 민간 전문상담기관
4. 보건소
5. 기타()

G9. 귀하가 마음 건강 문제로 병원,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을 방문할 때 걱정되거나 방문이 어려운 이유是什么呢?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골라 주세요. 1순위(), 2순위()

1. 어떤 곳을 방문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2. 근처에 방문할 만한 기관이 없다
3. 병원비나 약값, 상담비용 등 비용이 부담스럽다
4. 주변의 시선이 부담된다
5. 상담이나 치료 기록 때문에 이후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
6. 기타()
7. 걱정되거나 어렵지 않다

‘코로나 블루(corona + blue)’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일상에서 외로움과 우울감, 불안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호소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신조어입니다.

G10. 귀하는 최근 2주간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자주 있다	종종 있는 편이다	드물게 있다	전혀 없다
1	2	3	4

G11. [G10=1, 2, 3] 귀하가 최근 2주간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세 가지만 선택하여 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
2. 나와 가족이 감염되는 것에 대한 염려
3. 외부 활동 및 신체적 활동 제한
4. 대인관계 및 소통 단절로 인한 고립감
5. 경제적 부담 및 불안
6. 계획된 일정의 연기 및 취소
7. 자녀, 어르신 등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
8. 잘못된 정보 등 정보 과잉으로 인한 피로
9.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연함
10.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데서 오는 불편감
11. 기타 ()

G12. 귀하는 생활하면서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생활을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자주 느낀다	1	2	3	4	5
2. 내가 남들보다 뒤쳐질까봐 불안하다	1	2	3	4	5
3. 지금보다 주변부로 밀려날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G13. 귀하는 현재 본인의 마음 건강이 전반적으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1	2	3	4	5

※ 청년마음건강지원 : 만19~34세 최대 7회 심리상담전문가와 매칭 및 상담료 지원

G14.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은 청년의 마음건강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1	2	3	4	5

H. 사회적 관계

H1. 귀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족(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친척 등) 이외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H2. [H1=1] 그렇다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 명

H3.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족 이외에 주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 같습니까?

1. 친구나 선후배
2. 직장 관련 동료
3. 지인
4. 공공기관
5. 종교/복지단체
6. 온라인(현실에서는 모르지만 소셜 미디어 등으로 알고 지내는 지인 또는 익명 게시판 등)
7. 기타()
8. 없다

H4. 귀하는 코로나19로 본인의 사회적 관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매우 축소되었다	약간 축소되었다	변함없다	약간 확대되었다	매우 확대되었다
1	2	3	4	5

H5. 다음은 귀하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얻을 사회적 관계가 충분하다	1	2	3	4	5
2. 평소 신뢰할만한 주변사람이 많은 편이다	1	2	3	4	5

H6. 서울시가 동네에서 또래 사람들이 같이 운동이나 취미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임을 지원하는 청년 커뮤니티 사업은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를 확대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1	2	3	4	5

I. 가치관

11. 다음 각 영역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문항	전혀 신뢰 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다소 신뢰 한다	매우 신뢰 한다
1. 타인(낯선 사람)	1	2	3	4	5
2. 공적 기관(청와대, 행정부, 국회, 법원 등)	1	2	3	4	5
3. 민간 기업	1	2	3	4	5
4. 시민사회/종교/비영리단체	1	2	3	4	5
5. 우리 사회 전반	1	2	3	4	5

12.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살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1	2	3	4	5

13. 다음은 귀하의 주관적 행복과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느끼는 정도를 낮을수록 0에 가깝게, 높을수록 10에 가깝게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낮음					중 간	높음				
1. 귀하는 현재 전반적으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2. 귀하는 현재 전반적으로 본인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며 통계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참고 문헌

참고문헌

- 박희석 외, 2018, 서울시 가계부채 진단과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 박진우, 2020, 호주의 코로나19 대응 정신보건 관련 입법 및 정책동향과 시사점, 외국인법 동향과 분석 64호, 국회입법조사처
- 김종진, 2018, 지역 청년센터 프로그램 사례분석 및 시사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박미선 외, 2017,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 국토연구원
- 박미선 외, 2017,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박혜선, 2018, 일본 자살대책의 시사점, 일본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
- 홍진표 외, 2016,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조사, 보건복지부 서울삼성병원
- 박연아, 2017, 우리나라 정신건강증진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과제, 건강증진 리서치 브리프 2017, 제4호 (통권 8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기현주 외, 2018,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연구보고서04,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 금융감독원, 2019,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결과
- 조성준, 2018, 2018서울시정신건강지표,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구혜란 외, 2019, 우울한 청년, 불안한 장년의 나라: 연결망 접근을 통해 본 세대별 마음의 형상(形象),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김명희 외, 2018, 청년마음이야기, 청년마음건강 실태조사 보고서, 시민건강증진연구소
- Elizabeth Parkin, 2020, Mental health policy in England, The House of Commons Library
- 오재호 외, 2017, 경기도 청년정책 현황과 방향, 경기연구원
- 노은이 외, 2013, 서울시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서울연구원
- 김상호, 2017, 영국의 정신보건 개혁 글로벌 사회정책 브리프,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장숙량 외, 2019, 청년여성의 자살 문제, 사회건강연구소
- 전진아 외, 2019,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2021~2025) 수립 연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박미선 외, 2019, 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방안, 국토연구원
- 전진아 외, 2017,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현황과 개선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기태, 2020, 청년의 식생활, 정신건강 및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 김상철 외, 2018, '청년자치정부'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방안 연구, 나라살림연구소
- 정세정 외,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기현주 외, 2019,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연구보고서05,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 민다경 외, 2015, 해외 정신건강 관리체계 통합시스템 사례분석, 20권 1호, pp.1-7
- 전진아, 2018, 호주의 자살 현황과 정책 동향, 국제사회보장리뷰 2018 봄호 Vol. 4, pp. 27-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OECD, 2017, Health policy in Japan

- 2020, 코로나19 (COVID-19) 유행 상황에서의 정신 건강 및 심리사회적 측면에 관하여,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 Nancy M. Koroloff 외, 2017, Changing the Rules, Section 1: Mental Health Policy Change by Youth and Young Adults
- UN, 2020, Policy Brief : COVID-19 and the Need for Action on Mental Health
- 노대명, 2010, OECD 사회지표 중 자립 (Self-Sufficiency) 지표의 분석,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 4,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제윤경, 2013, 서울시 가계부채 현황조사 및 악성화 경로 추적과 맞춤형 대책 마련 방안, 서울연구원
- 최계연, 2014, 빚쟁이 청년들: 청년부채 실태조사 및 대안 제시, 월간 복지동향 (185),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 유호실 외, 2017, 1인가구의 연령대별 가계재무구조분석, 가정과 삶의 질 연구, 35(4), 93-111, 가정과삶의질학회
- 김태완 외, 2017, 청년의 빈곤 실태: 청년, 누가 가난한가,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주영 외, 2017, 켄거루족 가계의 인구사회학적 및 재무적 특성 분석, 학술대회논문집, 한국생활과학회한국생활과학회
- 장동호, 2018, 청년 연체의 규모와 결정요인 탐색,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
- 김태은 외, 2018, 청년층의 부채상황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소비자학연구, 한국소비자학회
- 김지혜 외, 2018, 확장된 생애주기에 따른 가계의 재무상태 비교 및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FP학회지, 한국FP학회
- 김형주 외, 2019,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V -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종희, 2019, 한국 청년가계의 부실화 가능성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 Youth Action, 2016, SOCIAL HOUSING FOR YOUNG PEOPLE IN , Youth Action & Policy Association (NSW)
- David Newville 외, 2019, Promise Accounts : Matched Savings to Help Families Get Ahead
- James Levinsohn 외, 2013, Wage subsidies and youth employment in South Africa : Evidence from a randomised control trial
- Katalin Bördo"s 외, 2015, What works in wage subsidies for young people: A review of issues, theory, policies and evidence, ILO
- Ivo Wallimann-Helmer. 2015, Can Youth Quotas help avoid Future Disasters?, Intergenerational Review

1장

조사개요

2장

조사결과
분석

3장

심층분석
및
정책리뷰

4장

결론

부록



